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①

발간등록번호

11-1741559-000012-01

P
R
E
S
I
D
E
N
T
I
A
L
A
R
C
H
I
V
E
S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①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559-000012-01

발간사

대통령 기록관은 설립 초기인 2008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역대 대통령의 재임 전후 주요 활동과 정책 등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수집한 해외기록물은 목록집을 발간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게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 프랑스편1」은 프랑스 국립기록관에서 수집한 252건 1,205매에 대한 내용 요약과 기록물 건명을 수록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불 과학기술 교류 협력, 프랑스 총리의 한국방문과 한·불 과학기술부 장관 회담, 한국의 경제현황, 한국의 대외관계(남북관계, 북방외교, 한미, 한일, 한중관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관련 기록물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랑스 총리 한국방문 준비 보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 건설 경쟁공고를 통한 원자력 분야 자립성 확보, 서울-부산간 고속화 철도 사업, 통신위성 및 우주항공 분야의 개발을 위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의 교류,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박사후 과정 연수, 서울예술센터 건축에 프랑스 문화예술 센터의 현대적 기술 및 운영 도입 등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프랑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KTX(서울-부산간 고속화 철도), 예술의 전당(서울예술센터)도 40여년 전의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협력의 결과임이 이 목록집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목록집이 관련 분야 연구자, 유관기관 및 국민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대통령기록관장

일러두기

1. 이 목록집은 대통령기록관이 2016년 프랑스 국립기록관(Archives Nationales)에서 수집한 해외 기록물을 정리 및 요약·번역하여 수록하였다.
2. 수록된 기록물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생산된 문서들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및 1980년대 후반 한불 과학기술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3. 목록의 순서는 철별 관리번호 순으로 하였고 기록철을 기본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원 소장처 상자 번호와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를 함께 수록하였다.
4. 기록철 번호 1~4(PZA0008000~PZA0008003)는 원 소장처의 1개 철(Liasse 2)을 분철한 것이며, 5~7(PZA0008004~PZA0008006)도 1개 철(Liasse 3)을 분철한 것이다. (각 철별 상위계층명 참고)
5. 기록건 제목은 원문의 표기를 따랐으며 제목이 없는 기록물은 중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하였고, 생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은 미상으로 표시하였다. (철·건명 알파벳 대소문자의 사용은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CONTENTS | 차례



제1장

프랑스 국립기록관 수집 내용

- | | |
|--------------------------------------|-----|
| 1 • 프랑스 총리와 과학기술 장관 방한 | 008 |
| 2 •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김성진, 위베르 퀴리앙) | 024 |
| 3 • 전두환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 054 |
| 4 •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전학제, 알랭 드바케) | 094 |
| 5 •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이상희, 위베르 퀴리앙) | 124 |
| 6 •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 140 |
| 7 •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프랑스 방문(김진현) | 214 |

제2장

부록

- | | |
|----------------------|-----|
| 1 • 주요 수 · 발신자 약력 정보 | 258 |
| 2 • 기관명 및 협약명 약어 | 262 |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1



제1장

프랑스 국립기록관 수집 내용

1. 프랑스 총리와 과학기술 장관 방한
2.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김성진, 위베르 퀴리앙)
3. 전두환 대통령 프랑스 공식방문
4.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전학제, 알랭 드바케)
5.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이상희, 위베르 퀴리앙)
6.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공식방문
7.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프랑스 방문(김진현)

1. Voyage de Mr. Fabius et Mr. Curien. Corée.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ug 85

번역제목	프랑스 총리와 과학기술 장관 방한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 COREE : (19980597/6-19980597/7) »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 Sans titre (19980597/6) » Liasse 2 (Visites officielles : M. CURIEN et M. FABIUS en Corée, avril 1985 ; M. CHEN DOO HWAN, avril 1986)		
철 관리번호	PZA0008000	생산기간	1984~1985
기록물 건수/매수	16/78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1983년 12월 11일 서울에서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공동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1985년 9월 2일 파리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실무회담 이후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협력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하고 1986년 연말 전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을 보여줌.
- + 1984년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에 앞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의 분위기와 대북관계를 둘러싼 비판적 기사들을 수집함.
- + 1985년 4월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3월 25일 프랑스는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의 싱가포르 및 한국 공식방문 준비를 다룬 내용을 브리핑함.
- +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 이후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음.
- + 프랑스와 중국,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한국에서 상당한 경계를 끌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프랑스는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한불관계에 있어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함.
- + 1985년 4월 7일 로랑 파비우스 총리가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으며 회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과학, 산업 차원의 협력에 뜻을 같이함.
- + 원자력 분야는 한국과 프랑스 양측에서 가장 관심 있게 논의 되는 분야 중 하나로 다양한 협력 논의가 진행됨. 원자력 관련 협력 및 기술이전에 있어 프랑스와 한국 간 의견 충돌과 한국의 불만에 대해 보고
- + 1985년 4월 8일 김성진 과학기술처 장관은 퀴리앙 연구기술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과 방식, 협력을 원하는 영역들에 대해 논의함.
- +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보고, 협력은 원자력에너지, 에너지 감독, 천연자원 개발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짐.

- ✦ 한불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가장 독창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은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이전 관련 협력으로 이는 양국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해 중소기업들 간의 합작투자를 실험하고 실현하는 것이었음.
- ✦ 원자력 협력에 있어 프랑스는 절차적 문제의 충돌이나 프랑스보다 미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한국 실무자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함.

㉠ 수록 기록물명

- 1.1. Procès-verbal d'entretien de la première rencontre ministérielle entre Monsieur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Monsieur Kim Sung 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Compte rendu de la réunion franco-coréenne de travail sur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프랑스 연구기술부 위베르 퀴리앙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의 첫 번째 회담 의사록.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한불 실무회의 보고서)
- 1.2. Revue de la presse coréenne 2-7 avril 1985 (대한민국 언론 기사 요약 1985년 4월 2-7일)
- 1.3. 제오스톡 회사 사장이 연구기술부 장관에게 보낸 저온저하 저장 기술 지원 요청 서신
- 1.4.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 Compte rendu. Préparation de la visite du Premier ministre à Singapour et en Corée (총리 산하 사무국 : 총리의 싱가포르와 한국 방문 준비 회의록)
- 1.5.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장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에게 보낸 한불협력 증진 희망 피력 서신
- 1.6.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한불 과학기술협력 희망 피력 서신
- 1.7. Articles de la presse coréenne relatifs à la visite à Séoul de S.E. Monsieur Laurent Fabius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총리의 방한에 관한 한국 언론 기사들)
- 1.8. Visite du Premier Ministre en République de Corée (7-9 avril 1985) : Note de synthèse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 (1985년 4월 7일-9일) : 종합보고서)
- 1.9. Bordereau d'envoi à Son Excellence Monsieur Roland Dumas, Minist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 Direction d'Asie-Océanie à l'attention de M. Michel Combal (롤랑 뒤마 대외관계부 장관, 대외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 미셸 국장 앞으로 보낸 우편물 명세서)
- 1.10. 회담을 위한 메모
- 1.11. Note de synthèse A/S Voyage de M. Fabius et de Mme Cresson en Corée (7-9 avril 1985) (파비우스 총리와 크레송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의 방한(1985년 4월 7-9일)에 관한 종합보고서)
- 1.12.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에 관한 문서)
- 1.13. Note, Corée - Aspects nucléaires (한국 관련 원자력에 관한 노트)
- 1.14. Note pour M. le Délégué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S/C de M. le directeur général de l'industrie (국제업무대표를 위한 보고서 (산업총국 국장 검토 후 전달))
- 1.15. République de Corée. Coopération entre les organismes de sûreté nucléaire (한국. 원자력 안전성 기구들 간의 협력)
- 1.16. Coopération pour la construction des centrales nucléaires 9 et 10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위한 협력)

🗨️ 수록 건 기록물 내용

1.1. Procès-verbal d'entretien de la première rencontre ministérielle entre Monsieur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Monsieur Kim Sung 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Compte rendu de la réunion franco-coréenne de travail sur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프랑스 연구기술부 위베르 퀴리앙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의 첫 번째 회담 의사록.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한불 실무회의 보고서)

생산일자: 19850903

페이지: 1~5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실무 미팅 보고서

1983년 12월 11일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서울에서 서명한 공동각서에 따라 1985년 9월 2일 파리에서 실무 회담이 열림. 연구기술부와 산업재편무역부의 국제 업무 대표 브뤼노 델라에 (Bruno Delaye)와 과학기술처의 기술협력 책임자 장성태가 주관하여 다음의 내용 논의

- 1) 한불 과학기술 기관들 사이의 협력 : 우주과학 원격탐사와 관련하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와 KAIST의 협력, 원격탐사 관련하여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과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협력, 소피아-앙티폴리스(Sophia-Antipolis)와 대덕단지의 협력, 공동연구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연구자 교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재단의 협약)
- 2) 공동연구 프로젝트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와 KAIST의 원격탐사 관련 협력 프로젝트, 프랑스 국가항공우주연구소(ONERA)와 한국기계연구원(KIMM)의 고체화 초합금 관련 공동 프로젝트
- 3) 교육 : 한국 측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진들을 위하여 프랑스에서의 장기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프랑스 측도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1983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한 공동각서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이 198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해 프랑스 연구기술부 위베르 퀴리앙 장관과 9월 3일 회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이 상호이익을 위해 과학기술에서의 협력관계를 더
 - 1.13. Note, Corée – Aspects nucléaires (한국 관련 원자력에 관한 노트)
- (2) 9월 2일 실무회의 보고서 채택 (첨부 자료 참고)
- (3) 1986년 연말 전에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 회담 날짜와 주제는 외교 통로로 추후 결정

1.2. Revue de la presse coréenne 2-7 avril 1985 (대한민국 언론 기사 요약 1985년 4월 2-7일)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6~9

- 1)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총리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한불관계에 대한 기사들 :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 목적과 프랑스의 대북 관계에 관한 한국 신문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요약함. 프랑스대사관은 호텔산업, 원자력, 고속철도 관련 협상에서 남북문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 제시
- 2) 민주한국당(DKP)의 붕괴 : 1985년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들이 김대중과 김영삼 측의 신한민주당(신민당)으로 옮기게 되고, 민주한국당은 완전히 없어지게 됨. 국회에서 100석 이상을 차지한 신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탄탄한 야당으로 자리 잡음. 야당이 국회에서 입시회기를 소집하거나 불신임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한 것임.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양당구도가 구축된 것으로 간주
- 3)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 남한의 대화 재개 요청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대화 재개에 원칙적으로 수락

1.3. 제오스톡 회사 사장이 연구기술부 장관에게 보낸 저온저장 기술 지원 요청 서신

생산일자: 19850426
페이지: 10~10

1985년 4월 8일 프랑스 제오스톡 회사 사장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로랑 파비우스 총리를 접견한 후, 저온저장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 혹은 유럽 차원에서의 장기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총리에게 보낸 서신

1.4.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 Compte rendu. Préparation de la visite du Premier ministre à Singapour et en Corée (총리 산하 사무국 : 총리의 싱가포르와 한국 방문 준비 회의록)

생산일자: 19850405
페이지: 11~23

총리 산하 기술고문 베르나르(Bernard)와 베레(Verret)의 주재로 1985년 3월 2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서

회의 안건은 총리의 싱가포르 및 한국 공식 방문 준비임. 총리의 방한에는 연구기술부 장관, 청소년체육부 장관,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이 수행하며 기업인 대표들과 동행함. 극동아시아 공식 방문의 주요 목적은 신흥공업국가들과의 첨단기술 교류임. 이 보고서는 한국 공식 방문에 관한 첫 번째 부분과 싱가포르 방문에 관한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인 대표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1) 한국 공식 방문 관련

- (1) 프랑스 총리의 방한 의미 : 파리 소재의 북한무역대표부의 위상 승격과 함께 초래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긴

장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문제나 지역 문제를 다루고, 특히 경제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2)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유지하긴 했지만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였음. 인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양국의 경제 관계

가. 전체 상황 : 한불 경제교류는 상당한 규모는 아님. 무역불균형이 심하고, 한국 대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한불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이나 제3세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함. 북한 문제로 인한 정치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프랑스는 3개의 계약(에어버스 A300-6-1 구매 계약, 포스코와 에어리퀴드 계약, 데그레몽 사의 계약)을 잃은 상황임.

나. 협의 중인 3개 계약 건 : 핵연료 공장, 데그레몽(Degrémont)과의 수자원 처리 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다. 다른 기술경제 협력 건 : 한국 국립우주항공연구소 설립, 르노(Renault) 자동차와 대우, 철도 분야에서 알스톰(Alstom)과 대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수자원 처리, 특수 장비, 호텔경영, 문화예술 센터 건립, 통역사 양성, 천연가스 분야

라. 제3세계 발전을 위한 공조

마. 중소기업 협력

바. 전자 및 컴퓨터 분야

(4) 과학기술문화협력

가. 한국에서의 원자력에너지 개발, 지질(지질광물자원연구원(BRGM)), 해양, 원격탐사, 바이오기술

나. 한국에서 프랑스어는 제2외국어이며 한불협력에 중요한 요인임. 프랑스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력(파리7대학의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 리옹3대학의 한국어 교육)

2) 싱가포르 공식방문 관련 : 정치, 외교 문제가 없는 만큼 경제,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룰 것임.

1.5.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장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에게 보낸 한불협력 증진 희망 피력 서신

생산일자: 19850328

페이지: 24~24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총리와의 방한 이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클로드 프레자크 소장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에게 장관 임명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건네고 한국과학재단(KOSFE)과 KAIST와의 협력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전함.

1.6.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한불 과학기술협력 희망 피력 서신

생산일자: 19850308

페이지: 25~25

1985년 2월 19일 자로 임명된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클로드 프레자크 소장에게 양기관의 관계가 더 확대되고 발전되길 원하는 기대를 전한 서신

1.7. Articles de la presse coréenne relatifs à la visite à Séoul de S.E. Monsieur Laurent Fabius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총리의 방한에 관한 한국 언론 기사들)

생산일자: 19850407

페이지: 26~34

1) 한국어로 된 언론 기사들 번역

- (1) 「북한을 향한 의도」(『한국일보』, 1985년 4월 4일 자 사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총리의 방한에 앞서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주불 북한무역대표부의 승격, 평양에의 호텔 건축, 평양을 기항지로 선정할 가능성 등)가 한불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경고. 한불 경제협력(호텔 건축, 원자력설비, 고속철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
- (2) 『동양일보』 파리 특파원(장형훈): 주간지 『미닛(Minute)』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정부가 남한과 북한을 상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파리 주재 북한무역대표부의 지위 격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남한과의 외교적 긴장이 해결되어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이 결정되었다고 함. 하지만 프랑스 주재 북한 총대표부 대표 서진용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접견한 것으로 알려져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이 취소될 뻔했다고 『미닛』에서 주장함. 북한 서진용 대표를 접견한 것은 드 그로수브르(de Grossouvre)였음(이 기사는 다음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다시 실림).
- (3) 『한국일보』 4월 5일 자 기사(파리 특파원) - KBS 저녁 뉴스에도 나옴: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총리가 3일 일정으로 방한하기 위해 출국함. 프랑스 총리의 방한은 100년 한불 외교 사상 최초이며, 전년 말에 있었던 주불 북한무역대표부의 지위 격상으로 인해 경색된 한불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2) 영어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들

- (1) 「프랑스대사관, 에어프랑스가 평양 노선을 위해 협상 중이라는 주장 부인」(『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1985년 3월 31일 자)
- (2) 「프랑스, 북한과 항공 노선 개통 협상 중」(도쿄(연합), 1985년 3월 31일 자)
- (3) 「재빠른 부인」(『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 1985년 4월 2일 자): 프랑스가 평양을 항공 노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일본 NHK의 보도에 대해 프랑스대사관은 이를 즉각 부인함.
- (4) 「에어프랑스, 북한과의 항공 노선 개통 관련 보도 부인」(『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1985년 4월 2일 자): 에어프랑스는 평양 노선을 열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함. 일본 NHK는 에어프랑스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북한 평양까지 가는 항공 노선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음.
- (5) 「한국 정부, 사업 계약에 있어 프랑스에 대한 특혜 부정」(『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4월 4일 자):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후보로 들어가 있는 사업 계약 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대해 정치적 혜택이 없을 것임을 밝힘. 이는 주불 북한무역대표부 지위 격상 문제, 평양을 항공 노선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에어프랑스를 둘러싼 소문 등 때문이라고 분석
- (6) 「프랑스, 첨단기술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교류 활성화 기대」(『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4월 5일 자): 프랑스는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3일 방한 동안 한국과의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제안할 것임. 프랑스 측은 주불 북한무역대표부의 지위 격상은 있었지만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남

한에 밝힘.

- (7) 「프랑스 총리, 3일 동안의 방한」(『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 4월 4일 자) : 프랑스 총리가 한국 노신영 총리의 초청으로 3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일요일에 시작
- (8) 「로랑 파비우스 총리, 프랑스는 평양과의 외교정상화 고려하지 않는다고 암시」(『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1985년 4월 6일 자)
- (9) 「프랑스 총리, 한국과의 관계 다지기 위해 방한」(『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 1985년 4월 6일 자) : 싱가포르 공식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로랑 파비우스 총리는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호전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함.

**1.8. Visite du Premier Ministre en République de Corée (7-9 avril 1985) : Note de synthèse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 (1985년 4월 7일-9일) :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 19850401

페이지 : 35~44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보이는 신흥공업국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의 기술이전에 긍정적이고,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프랑스 총리의 방한은 타당하다.

1983년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과 1984년 프랑스 주재 북한무역대표부의 총대표부로의 명칭 전환으로 인해 남한은 프랑스 총리가 방한 시에 이에 대해 해명하길 원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총리 회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남한의 우려가 이해할 만하지만 이 문제를 지역적·국제적 맥락에서 폭넓게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인도적·정치적 차원에서 남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프랑스는 북한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주재 북한 총대표부와의 문화적 차원의 교류 등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프랑스의 태도가 한국 정부의 경계를 불러일으켰고, 프랑스는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를 현재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1981년 프랑수아-퐁세(François-Poncet) 외무부 장관의 방한 시에 한국의 국제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호 인정”에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셰송(Cheyssson) 대외관계부 장관은 동구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가 호전되도록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중국, 소련, 동구유럽 국가들은 북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띤다. 이번 방한에 총리를 수행할 칼마(Calmat) 청소년·체육부 장관의 존재가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정체(政體)에 있어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기 힘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으로 인해 비난 받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집권여당(민주정의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긴 하였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신민당)이 투표수의 29%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총리가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양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정착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프랑스 산업과 대외교역에 중요한 판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서독이지만 프랑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사업 계약들을 체결하였다. 이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이 거부한 기술이전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를 이뤄나갈 수 있다. 총리와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중소기업 차원에 양국의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고 제3세계 국가들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프랑스와 한국기업들이 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정치적 위기로 중단되었던 사업 계약 건들이 이번 총리의 방한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한불관계는 무엇보다 경제기술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포스코(Posco)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불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의 고위공무원들 혹은 외무부 장관들 간의 정기적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공고히 될 것이다. 또한 한불 외교 수립 100주년인 1986년에 양국 관계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이 계획되었고 추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고려하고 있다.

1.9. Bordereau d'envoi à Son Excellence Monsieur Roland Dumas, Minist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 Direction d'Asie-Océanie à l'attention de M. Michel Combal (롤랑 뒤마 대외관계부 장관, 대외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 미셸 국장 앞으로 보낸 우편물 명세서)

생산일자: 19850415

페이지: 45~53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 일정에 관한 우편물

- 1) 한국 총리와의 확대 회담(4월 8일 월요일 11시), 1985년 4월 12일 작성
 - 한국 노신영 총리, 프랑스 로랑 파비우스 총리,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 한국 총리: 한국전쟁,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 랑군 테러사건에 대한 지지와 애도를 표한 프랑스에 감사. 양국의 정치적 긴장 상황이 해소된 것에 만족. 양국 간의 기술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언급
 - 프랑스 총리: 한불외교관계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 강조
 -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에 관하여 말함.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미국의 양자 간 협상을 경계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다자간 무역 협상을 지향할 것임을 밝힘. 산업 협력에 관해서는 원자력발전, 천연가스, 교통(고속철도, 우주항공)에 대해 언급함.
- 2)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4월 9일 화요일 11시 30분), 1985년 4월 15일 작성
 - 전두환 한국 대통령: 한불수교 10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힘.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에 감사를 표함.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에 감사를 전하며 프랑스 공식 방문을 약속함. 지구촌 시대에 한반도의 안보가 유럽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의 안보와도 연결됨을 강조함.
 - 로랑 파비우스 총리: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한 노력을 표하고, 프랑스는 언제나 한국의 편에 설 것임을 밝힘.
- 3) 한국 부총리와의 회담(4월 8일 월요일 17시), 1985년 4월 15일 작성
 - 프랑스 총리: 에어버스, 포스코 관련 계약 건은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봄.

- 크레송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 에어버스, 포스코 관련 계약 건에 대해 실제적 결론을 얻고자 함. 한국과의 무역불균형과 작은 무역규모를 인정하지만, 상호 기술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봄. 원전 9기와 10기에 이어 원전 11기와 12기를 위한 기술이전 및 협력도 원함. 천연가스, 교통(지하철 개찰 시스템, 고속철도) 분야에서의 협력을 언급함. 파리 공항과 서울 공항의 자매결연을 통해 서울 공항 확장과 신국제공항 건축에 참여할 의지를 밝힘. 산업통상부 장관과 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 협약을 체결함.
- 신병현 한국 부총리 : 양국의 무역 불균형과 작은 무역 규모를 인정하면서 상호 경제협력 발전을 강조한 프랑스 산업재편무역부 장관과 의견을 같이함. 원자력에너지, 교통, 가스 분야에서 프랑스의 첨단기술 인정. 프랑스가 대규모 사업에 후보로 참여할 경우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임을 확인해 줌. 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 협약 체결에 만족을 표함.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공동체(Communauté Européenne)의 수입 할당량 제한으로 인해 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제한이 있음을 알리고, 유럽공동체와의 협상에서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함. 가전제품, 컬러텔레비전 등의 수출에서 한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자동차수출에서 브라질이나 유고슬라비아와 동일한 혜택을 받길 원한다고 표명
- 프랑스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 일반특혜관세제도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없다고 확인.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수입 할당량은 증가되었음을 확인. 1984년 7월 유럽경제공동체가 소비재 관세를 낮추어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신에 답해 줄 것을 요청
- 프랑스 총리 : 한불 교역량 규모 증가에 대해 한국 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힘.
- 한국 부총리 : 교역량 증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양국 실무전문가들 간의 회담에서 결정될 것임.

1.10. 회담을 위한 메모

생산일자 : 19850408
 페이지 : 54~55

프랑스 총리와 한국 총리 회담의 핵심 내용만 적어놓은 메모

원자력에너지 협력, 제3세계를 향한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우주항공 영역의 협력, 주프랑스 북한 총대표부 명칭 변경에 따른 한국 측의 설명 요청 및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한국전 참전, 랑군 사태, 대한항공기 폭박)에 대한 감사, 첨단기술 분야에서 과학·산업 차원의 협력, 중단되었던 협상 건과 새로운 협상 건을 다루어야 함,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시대에 양국 관계가 긴밀할 수 있음을 강조

1.11. Note de synthèse A/S Voyage de M. Fabius et de Mme Cresson en Corée (7-9 avril 1985) (파비우스 총리와 크레송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의 방한(1985년 4월 7-9일)에 관한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 19850318
 페이지 : 56~57

방한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며,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은 한국 관련 장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회동을 가질 것임. (원자력에너지 분야는 별도의 문서로 다룰 것임)

- 1) 천연가스 : 1984년 11월 21일 평택 LNG 인수기지에 관하여 한국가스공사 최연식 사장과 크레송 장관이 파리에서 만난 이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됨. 한국가스공사와 소프르가즈(SOFREGAZ)의 협력 등처럼 양국 간에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있음. 대림연구소와 소프르가즈 사이의 중단된 협력이 재개되어야 함.
- 2) 다른 에너지 분야들의 경우 에너지 관리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견고한 수준임.
 - (1) 전기 : 1984년 8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한국전력공사(KEPCO) 간의 일반협력계약(contrat général de coopération)을 통해 해당 분야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술지식 전수, 방한 시 장관은 프랑스 측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고 전문지식을 강조할 수 있음.
 - (2) 석탄 : 굴착 생산성과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프랑스석탄공사(CDF)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 간의 협력이 재정적 합의 부재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했음, 방한 시 장관은 프랑스석탄공사(CDF)와 프랑스광물연구회(Sofremines)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임을 언급할 수 있음.
 - (3) 자원 : 방한 시 장관은 페쉬니(Pechiney)사와 현대 사이에 이루어진 논의 덕분에 대한알루미늄공업(KORALU)에 페쉬니 주식을 팔 수 있었던 것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 (4) 에너지 관리 : 방한 시 장관은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에너지공단(KEMCO) 간의 계약 체결,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 간의 계약 체결 등 한불 간의 특권적 관계(relations privilégiées)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또한 서울에서 개최될 에너지관리와 정책에 관한 제1회 한불컨퍼런스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

1.12.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에 관한 문서)

생산일자: 19850320
페이지: 58~63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의 하나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한불 협력관계가 현재 약간 미묘한 상황에 있음.

- 1) 가감한 원자력 프로그램 :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개발은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1956)에 서명한 후 시작됨.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은 원자력 연구에 박차를 가해 석유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함. 1974년에 시작되어 1978년에 수정된 한국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은 13개의 원전 건설을 예정했고, 원전 13호기는 1991년에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3개는 가동 중임. 한국은 기존 원자력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원전 11호기와 12호기의 건설을 1986년에서 1988년으로 연기시켰고, 이 두 개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쟁 공고가 1985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한국 동력자원부에서 밝힘.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아시아 최대 규모 중의 하나임. 한국은 미국 중심의 양자 간 협력이 아닌 다자간 협력 추구, 핵연료주기 기술 획득, 설비·시설의 한국화를 통해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자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꾸준한 한불협력 : 한국은 프랑스에게 있어 가장 전도유명한 시장 중의 하나. 1981년 체결된 한불원자력협력 협정에 기반하여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하여 매년 모임.
 - (1) 연구 분야 : 프랑스의 산업부(Ministère de l'Industrie)/원자력청(CEA)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학

기술처(MOST)가 긴밀하게 협력함. 1982년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두 개의 협정이 체결됨(프랑스 산업부와 한국 과학기술처 간에 체결된 원자력 안전규제분야 협력협정, 원자력보호안전연구소(IPSN, 원자력청 산하)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간에 체결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2) 원자력발전소 : 1982년부터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하고 있음. 1985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입찰공고에 프라마툼의 관심이 높음.

〈핵연료주기〉

가. 천연우라늄 공급 : 프랑스 원자력회사 COGEMA, 한국전력공사, 가봉 정부가 가봉에서의 탐사 프로그램 참여

나. 농축 : COGEMA가 원전 9호기와 10호기의 핵연료를 공급할 것이고 추후 핵연료를 제공할 것임. COGEMA는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을 변경할 때 입지를 확대하고자 함.

다. 기타 : 1977년 프랑스 원자력기술엔지니어링회사(SGN)는 우라늄 농축과 변환, 조사 후(post-irradiation), 폐수처리를 위한 4개의 시범 원자력연구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음. 한국은 이 시범연구소의 유용성에 관심 있음. 원자력청과 SGN이 시범 원자력연구소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국에 했음. 핵연료 제조 공장 건설에 프라즈마(FRAGEM)가 입찰에 응하였고 올해 한국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3) 미묘한 상황 :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한불 원자력 협력의 몇몇 측면에서 프랑스에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징후가 있음. 1984년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만남이 한국의 요구로 연기되었고, 올해 초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위베르 퀴리앙 장관의 회담 직전에 개최하자고 요청했음. 그 사이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이 교체되었고 한국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음.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개최가 양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움.

프랑스 총리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의 양국 협력의 범위와 긴밀성을 강조하고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13. Note, Corée – Aspects nucléaires (한국 관련 원자력에 관한 노트)

생산일자: 19841212
 페이지: 64~69

한국은 1950년대 초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원자력 연구를 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 과감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음(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임).

1) 한국 원자력프로그램

한국 원자력프로그램은 13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3번째 발전소는 1991년에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였음. 현재 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3개(1개는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2개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회사 웨스팅하우스가 건설)가 가동 중임. 발전소 1개는 포기함. 경제 상황과 전력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1983년 원자력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음. 웨스팅하우스에 맡겨진 원전 5, 6, 7, 8호기의 건설 속도가 늦추어졌

고 프라마툼(FRAMATOME)에 의한 9호기와 10호기의 건설은 영향받지 않음. 원자력프로그램의 속도에 관한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11호기와 12호기의 건설이 1983년에서 1986년으로 늦추어졌음. 한국은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회사들의 중요한 시장임.

〈 한국 원자력프로그램의 주요 원칙 〉

- (1) 경수로(PWR)에 대한 선호(월성 1호기만 중수로형 원자로)와 원자력 협력업체의 다각화(웨스팅하우스가 6개 원전, 프라마툼이 2개 원전 건설)
- (2)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업체의 참여 강화,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 산하 한국중공업(KHIC)의 참여 강화. 중기적으로, 설비·시설 프로그램은 경수로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장기적으로 우라늄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고속로를 원함. 핵연료주기에 있어서 한국은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길 원함. 1년에 200톤의 발전능력의 경수로 핵연료 제조공장을 빨리 갖추길 원함.

2)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

(1) 산업 차원의 관계

가. 원자로 : 계약 2건이 실행 중(1980년 900MWe급 2개의 경수로 설비 관련 프라마툼 계약, 1982년 터빈-발전기 설비 관련 알스톰 아틀랑틱 계약). 프라마툼의 계약 실행은 양국 원자력 협력의 비확산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 간 협약에 서명하면서 중지되었다. 이 협약은 1981년 초에 체결되었다. 현재 실행 중인 계약 건은 한국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한국이 부과한 현지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판단됨. 11호기와 12호기 건설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고, 선정된 회사는 기술이전을 약속해야 할 수도 있음. 이 두 계약 건에서 프라마툼과 웨스팅하우스가 경쟁할 것으로 보임.

나. 핵연료주기 : 한국전력공사는 코즈마(COGEMA)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봉에서 우라늄 지층 탐사를 하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더 이상 탐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코즈마는 9호기와 10호기 핵연료 공급을 맡게 되었고 추후 계약 갱신이 가능함. 프라마툼은 12월 초에 핵연료제작공장과 제작기술 판매에 관한 입찰공고에 참가하였음. 한국 정부는 후행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연구와 개발 :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국 과학자들의 상호방문과 한국 전문가들의 프랑스 연수를 계획. 프랑스 기업체가 한국 연구소 설립에 참여(프랑스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 SGN이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대덕연구소를 위해 원자력연료 관련 설비와 필요한 기술을 제공). 사용후핵연료시설이 1985년 5월에 생길 것이고, 한국을 주빈국으로 하여 태평양원자력회의(Pacific Nuclear Conference)가 여기서 열릴 것임.

(3) 인력 양성 :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되었고, 1982년 2월 18일 처음 모임. 이 회의에서 2개의 협약이 체결됨. 프랑스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SCSIN)과 한국 과학기술처 사이에 체결된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협력협정.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IPSN, 원자력청 산하)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간에 체결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협약임. 이 협약들의 목표는 9호기와 10호기 건설의 안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임. 한국은 고속로에 관심을 갖고 있음.

3) 한불 원자력협력은 프라마툼이 2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수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입찰 공개가 늦어진 것은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4)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언급할 수 있음.

- 한국 원자력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질문할 수 있음.
- 9호기와 10호기 계약 이후 한불 협력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할 수 있음.
- 프랑스 원자력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이 영속성이라는 점과 프랑스의 노하우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할 수 있음.
-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미래에도 계속되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프랑스의 기대를 전할 수 있음.
- 만약 한국 측에서 한국중공업과 프라마툼 사이에 생긴 어려움을 언급한다면 그 문제의 중요한 상당 부분은 해결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음.

1.14. Note pour M. le Délégué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S/C de M. le directeur général de l'industrie (국제업무대표를 위한 보고서 (산업총국 국장 검토 후 전달))

생산일자: 19850314
 페이지: 70~72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서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과 한국정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서를 송부한 것임.

1985년 3월 14일 자 제1538/85번 보고서의 첨부

- 제목: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 1) 원자력 관련 수출과 함께,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은 “고객” 국가의 안전성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은 협력을 일반적으로 제공함.
 - (1) 양국의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프랑스 기업에 계약 준거를 주기 위해 프랑스 기술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 (2) 양국의 시설 건설이나 사용 시에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한 정보교환
 - (3) 상대방 국가의 요청에 따른 특정 서비스(안전 관련 당국 인력양성, 특정 기술문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 기업에 의해 외국에 건설될 시설에 프랑스 분석절차나 감독절차의 몇몇 요소 적용)
- 2)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AEB) 간에 1980년 12월에 체결된 계약은 1982년 2월 18일 상기(上記)의 협력 양상을 상술하는 행정협정으로 이어짐.
 - (1) 한국 원자력청의 요청에 따라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해마다 평균 2명의 한국 연수생을 받음. 다양한 한국 대표단을 맞았음. 부르고뉴 산업연구지방청(direction régionale de l'industrie et de la recherche Bourgogne)이 프라마툼과 하청업체들이 한국에 건설한 원자력발전소 중요 설비에 대한 프랑스 규정 감독을 맡고 있음.
 - (2) 최근 프라마툼과 한국 원자력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음.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음. 한 가지는 한불 정치적 상황 때문임. 다른 한 가지는 새로 임명된 원자력청 직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프라마툼이 따르는 프랑스 규정보다는 미국 규정을 선호하기 때문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은 한국 원자력청의 책임자와의 대화를 강화하고자 함. 책임자를 파리로 초청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1.15. République de Corée. Coopération entre les organismes de sûreté nucléaire (한국. 원자력 안전성 기구들 간의 협력)

생산일자: 19841211

페이지: 73~75

1)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정부 간 협약에 관한 소개

- (1) 1982년 2월 18일 한국의 과학기술처(원자력청)와 프랑스 산업부(중양원자력시설안전청) 간에 협약 체결: 기술 정보 교환과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정에 관한 협력을 위한 것
- (2) 이 협약 준비와 적용을 위해 두 기관 간에 다양한 회의가 있었음. 양국 정부 간 일반협정 실행을 담당하는 “연락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음.
- (3) 1981년 12월과 1983년 7월 사이, 중양원자력시설안전청은 프랑스 규정을 한국 측에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안전성 관련 협약실시에 대해 논의하였음.
- (4) 이 협약은 다음의 내용임.
가. 한국 원자력청에 문서 전달: 프랑스 규정 관련 문서, 프랑스 원자력 시설 안전성 관련 주요 사실
나. 한국 원자력청의 2가지 요청에 대한 답: 한국 원자력청 인력 양성(평균 1년에 2명 연수) 요청, 프랑스 가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전달 요청
- (5) 1983년 7월에 진행된 마지막 “연락위원회” 회의 이후 한국 원자력청의 간부들 다수 교체와 한국 측의 거리두기로 인해 안전성 협약 시행을 위해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하고 한국 원자력청의 간부들에게 프랑스 규정을 안내할 필요한 상황임.

2) 원전 9호기와 10호기 관련 안전성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양원자력시설안전청은 한국 측에 관련 규제 설명과 기존 협약의 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원자력청 책임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 이 만남을 위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다음의 사항을 한국 원자력청에 전달하고 회신을 얻길 요청함.

- (1) 이 같은 해결책에 대한 한국 원자력청의 관심 확인
- (2) 안전성 관련 모든 사안 중에서 한국 원자력청이 원하는 주요 주제들 확인
- (3) 회담 장소 결정: 한국 원자력청의 편의를 위해서는 서울이 좋음. 하지만 프랑스 규정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소개, 프랑스 측의 역량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가를 위해서는 파리가 더 좋음.

1.16. Coopération pour la construction des centrales nucléaires 9 et 10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위한 협력)

생산일자: 19841122

페이지: 76~78

11월 9일 한국 원자력청 박시열 국장은 과학기술처 책임자들 앞에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고문을 소환하여 프라마툼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한국전력공사에 9호기와 10호기 건설 안전성 감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음. 박시열 국장은 프라마툼이 몇 주째 요청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현

재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차후의 협력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

* 한국 원자력청은 원자력발전소의 여러 요소들의 건설 안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프라마툼에 확인한 결과 박시열 국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프라마툼은 그 요청에 즉시 답하였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프라마툼과 한국전력공사 전문가들 회의가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음. 박시열 국장의 체면을 고려하고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과학고문은 11월 14일 개인적으로 박시열 국장을 만나서 모든 서류를 전달했음. 이 만남 이후 전보에 명시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도 이 사안은 박시열 국장이 길게 설명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 원자력청과 박시열 국장은 프랑스 규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 원자력청에 허가 요청을 할 때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음.

한국전력공사와 프라마툼, 한국 원자력청과 프랑스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 협약에 기반해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 대해 학생-선생과 같은 관계로 느끼고 불편해하고 잦은 요청을 주저함. 이에 덧붙여 한국 측은 미국형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규정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임. 이 사안에서 미국을 선호하는 박시열 국장의 태도가 영향을 끼치긴 하였지만 이 상황은 실제적이고 프랑스의 이해에 불리한 것임. 정치적 차원의 경고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프랑스의 개입이 없다면 이 불편한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짐.

따라서 다음을 제안함.

- 1) 가까운 장래에(내년 초)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산업재편부) 규정 문제를 논의할 프랑스 정보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한국 측에 제안해 주길 요청
- 2) 앞으로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 프라마툼에 협약 시행에 있어 유연성을 보여주길 요청



2. Entretien de M.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M. Kim Sung-Ji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번역제목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김성진, 위베르 퀴리앙)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COREE : (19980597/6-19980597/7)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Sans titre (19980597/6) »Liasse 2 (Visites officielles : M. CURIEN et M. FABIUS en Corée, avril 1985 ; M. CHEN DOO HWAN, avril 1986)		
철 관리번호	PZA0008001	생산기간	1984~1985
기록물 건수/매수	29건/182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1985년 4월 8일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과의 회담에서 김성진 장관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원하는 역할과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과 방식을 논의함.
- ✦ 회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원자력, 컴퓨터, 우주 등의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을 언급함.
- ✦ 프랑스는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기술연구의 후진성과 교육평가로 인해 한국이 당분간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 ✦ 프랑스는 한국의 서울예술센터 건축프로젝트에도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과 참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 ✦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주로 원자력에너지, 에너지 감독, 천연자원개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측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기대함.
- ✦ 프랑스 측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계획 두 가지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협력임. 이외에도 농산물, 수산업, 지질학, 해양 등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프랑스는 보고 있으며 나아가 컴퓨터, 생물공학, 우주항공 영역에서도 접촉을 시도함.
- ✦ 한국 과학기술처 현황 노트는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프랑스 산업연구부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줌.
- ✦ 한국은 프랑스 에너지관리청, 원자력청, 지질광물자원연구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기술을 연수하고 있음을 보여줌.
- ✦ 프랑스는 기술이전에 대해 프랑스 산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명확해야 함을 표명함.
- ✦ 한불 과학기술협력의 토대인 한불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분석함.

- ✦ 한국의 '예술의 전당' 건설에 있어 프랑스의 역량에 대한 한국의 선호와 이에 대한 프랑스 측의 상업적 기대감을 보여줌.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간의 협력이 제시되었고 프랑스 측에서 긍정적인 보고가 올라왔으나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는 한국의 역량 미달을 지적하고 한국기업들이 프랑스의 연구 결과물을 산업화시킬 위험을 경계함.
- ✦ 원자력 기술 관련 협력에 있어 프랑스는 한국과의 원자로 건설계약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추후 있을 또 다른 원자로 건설 계약의 경우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프랑스 산업재편무역부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연구개발뿐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함을 표명하기를 장관에게 제안함.
- ✦ 한국이 우주항공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는 대표단의 방한을 계획하며 연구기술부장관이 방한 시에 이에 대해 표명해 주기를 바람.
- ✦ 프랑스는 우주산업을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적 협력분야로 파악함.
- ✦ 프랑스는 한국과의 중소산업 협력에 있어서도 만족을 표하며 이를 더욱 확대시키기 원함을 보여줌.

㉑ 수록 기록물명

- 2.1. Entretien de M. Curien avec M. Kim Sung Ji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퀴리앙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 회담)
- 2.2. Entretien de M.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M. Kim Sung-Ji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 회담)
- 2.3. Visite de M.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orée – 6–9 avril (연구기술부 위베르 퀴리앙 장관 방한 (4월6일–9일))
- 2.4.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urien, Madame Cresson /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Projet SACCA en Corée. Réponse Française à l'appel d'offres (퀴리앙 장관과 크레송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서울예술센터건축(SACCA) 프로젝트에 대한 한불 협력. 공개입찰에 대한 프랑스 참가에 관한 보고서)
- 2.5. Note d'entretien avec l'Ambassadeur de Corée (한국대사와의 회담 회의기록(노트))
- 2.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과학기술협력)
- 2.7. Ministè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MOST) (한국 과학기술처 현황 노트)
- 2.8. Science et Technologie en Corée. Panorama général (한국의 과학과 기술. 전반적 소개)
- 2.9.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연구 ·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 2.10. Développements récents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서의 최근 발전상황)
- 2.11.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omplément à la note 219 du 18.12.84 (연구 ·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84년 12월 18일 보고서(노트) 219에 대한 보충)
- 2.12. Relations entre BEADOK et Sophia Antipolis (대덕연구단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관계)

- 2.13.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urien, Madame Cresson /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Projet SACCA en Corée. Réponse Française à l'appel d'offres (퀴리앙 장관과 크레송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서울예술센터건축(SACCA) 프로젝트에 대한 한불 협력. 공개입찰에 대한 프랑스 참가에 관한 보고서 (노트))
- 2.14. Projet S.A.C.C.A.-Seoul Art Center Construction Authority (SACCA 프로젝트-서울예술센터건설 프로젝트)
- 2.15. Projet S.A.C.C.A.-Seoul Art Center Construction Authority (SACCA 프로젝트-서울예술센터건설 프로젝트)
- 2.1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industrielle en informatique avec la Corée (컴퓨터/정보화 영역에서 한 국과의 과학 · 산업 협력)
- 2.17.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s Bordereau collectif Bordereau collectif (대외관계부 공동 우편 물 명세서)
- 2.18. Comité nucléaire et visite de M. Lee Chung-Ho (원자력위원회와 이정오 방문)
- 2.19.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원자력청)
- 2.20. Visite du Première Ministre, du Ministre du Redéploiement Industriel et du Commerce Extérieur et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en Corée (프랑스 총리,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연 구기술부 장관의 방한)
- 2.21. Note pour M. Marlaud / Voyage du Ministre en Corée (마를로(Marlaud) 씨를 위한 보고서(노트) / 장 관 방한)
- 2.22. Activités A.F.M.E. - Corée du sud (프랑스에너지관리청 활동 - 한국)
- 2.23.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협력)
- 2.24. Lettre de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국립우주연구소의 서신)
- 2.25.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spatial (우주항공분야에서의 한불관계)
- 2.26. CNES Bordereau d'envoi (국립우주연구소 우편 명세서)
- 2.27. Coopération entre PIM françaises et coréennes (한불 중소기업협력)
- 2.28. Programme pilote de coopération industrielle entre les petites et moyennes industries françaises et coréennes - Rapport d'activité pour la 2ème réunion semestrielle du comité d'orientation à l'APRODI le 29 janvier 1985 (한불 중소기업협력 시범프로그램 - 1985년 1월 29일 산업 진흥발전협회에서 진행된 방향설정위원회의 제2회 분기별 회의를 위한 활동보고서)
- 2.29. Proposal for Korean-French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한불 산업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수록 건 기록물 내용

2.1. Entretien de M. Curien avec M. Kim Sung Ji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퀴리앙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 회담)

생산일자: 19850329

페이지: 1~3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4월 8일 예정되어 있는 퀴리앙 장관과의 회담에서 다음 사안을 논의하고자 함.

- 1)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과 방식
- 2) 다음 영역에서의 협력 전망
 - (1) 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에너지 보존(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의 협력)
 - (2) 컴퓨터와 자동화(특히 소프트웨어)
 - (3) 중소산업(PMI)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프로젝트)
 - (4) 기본 연구
 - (5) 양국의 과학도시들 간의 관계(대덕연구단지와 소피아-앙티폴리스)

이 사항들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해당 부와 퀴리앙 장관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짧게 다루었음. 한국 측은 다음의 사항도 알고 싶어함. 1) 퀴리앙 장관 방한 시에 함께 할 프랑스 대표단의 구성(한국 대표단에는 기획부 차관, 한국 동력자원연구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연구원 원장들이 포함될 예정임), 2) 회담 진행을 영어로 할 것인지, 프랑스어로 할 것인지. (퀴리앙 장관은 김성진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영어로 하길 원함)

4월 8일 오후에 한국의 연구원 방문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KAIST가 될 가능성 있음.

2.2. Entretien de M.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M. Kim Sung-Ji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 회담)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4~5

다음의 사안이 회담 의제가 될 수 있음.

- 1) 프랑스 연구정책
- 2)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공식방문

한국 측은 1983년에 예정되었던 이 방문을 1984년에 실행하길 원함. 방문 일정과 형식을 결정하기 바람. 일정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한불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franco-coréenne)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좋겠음. 한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력 건과 추후 협력 건에 대한 구체적 만남이 되길 원함. 한국 측은 이 일정에서 협력 관련 예산까지도 정할 수 있길 원하지만 프랑스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에너지 협력

- (1)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협력 프로그램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에 프랑스 측의 만족을 표할 수 있음.
- (2) 원자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다시 제안할 수 있음. (올해 초에 이와 관련하여 양국 사이에 긴장이 있었음)
- (3)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Comité Franco-coréen de coordination sur l'énergie nucléaire) 회의 개최 일정을 한국 측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1984년에 예정된 회의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올해로 연기됨.

4) 새로운 프로젝트

- (1) 컴퓨터 : 프랑스의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불(BULL)사는 기술산업 차원의 협력 협약 체결을 원함. 연구 파트너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을 원하고, 기업 파트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2) 우주 : 한국은 올해 우주 프로그램을 발표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이 분야 협력에 대해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소(CNES), 아리아스페이스(Ariaespace), 기업들의 관심이 높음.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달레스트(d'Allest) 소장의 5월 방한 발표 가능성 있음.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한국 과학기술처에서는 쿼리앙 장관 방한 시 회담 의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2.3. Visite de M.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orée – 6-9 avril (연구기술부 위베르 쿼리앙 장관 방한 (4월 6일~9일))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6~22

이 자료에는 다음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반적 소개
- 과학기술협력
- 한국과학기술처
-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 소개
- 쿼리앙 장관과 김성진 장관 회담
- 『한불산업기술정보(Transfert de Technologie Franco-Coréen)』 1부

한국의 과학과 기술 전반적 소개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수준은 석사과정까지 괜찮은 편이지만 연구 단계에서부터는 모든 영역에서 경제발전예 비해 상당히 뒤떨어짐. 1970년대 말 한국 정부는 기술연구 분야에서의 후진성을 파악하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야 함을 깨달음. 국내 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기술을 사기 위해 대외무역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이 높.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1981년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82-86)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처가 이 계획을 수행하도

록 함. 하지만 한국은 “연구예산(enveloppe-recherche)”이 없고 다른 부들과의 연계도 미약함. <도표1>은 이 계획의 목표를 보여주고, <도표2>는 예산을 보여줌.

이 계획을 위한 전략은 다음 4개의 큰 축으로 나뉘어짐.

1) 연구자 수의 증가와 연구자 지위 개선

- 석박사 연구자들의 교육주기 확장(새로운 교육과목 개설, 연구자를 파트타임 강사로 활용)
- 전문 연구원의 해외연수(연구장학금 수혜를 위해 국제기관 최대 활용)
-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구자 활용(핵자기 공명 개발 등처럼 이미 실효를 보여준 전략)
- 연구자의 고용안전성과 보수 증가
- 한국에서 과학자들의 이미지, 사회적 위상 개선. 한국에서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연구원은 하급직으로 간주됨.

2) 연구소의 발전과 효율성 개선

(1) 국공립 연구소

- 연구소들의 활동 연계, 필요하면 연구소들 간의 융합, 이를 통해 공립연구소들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음. (<도표3>)
- 대덕연구단지 내에 집결 (<첨부1>)
- 연구-산업의 관계 개선
- 해외에서의 기자재 구매 수월성

(2) 민간 연구소

R&D 영역이 세제 혜택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함.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연구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함.

3) 기술이전 장려

국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해외 기업체나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장려. 이것이 현재로 기술 발전을 위한 유일한 주요 방법이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음.

4) 우선 분야의 선택

4개의 우선 분야 선택(<도표4>), 과학기술처의 예산 대부분이 이 분야에 투자됨. 4개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정밀화학(최근 바이오테크닉), 기계, 에너지·자원임.

예산

연구 분야 예산 증가 규모는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첨부2>는 과학기술처의 1985년 예산과 공식 평가에 관한 것임. R&D 지출은 1979년 GNP의 0.9%이지만, 1984년에는 1.4%에 달함(계획보다는 0.3% 미달). 1986년에 GNP의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유지. 이 지출에서 정부의 몫은 감소 추세.

결론

한국의 연구 분야는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있음. 선진국 수준으로 빠른 시간에 올라설 것임. 하지만 교육 풍조가 변하지 않는 한 역량 있는 연구자를 몇 년 안에 육성할 수는 없음. 10년 정도는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 <도표1>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82-86). 주요 지표들
- ※ <도표2>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투자계획
- ※ <도표3> 9개의 주요 국공립 연구소(1985)
- ※ <도표4>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우선 분야 - 목표
- ※ <첨부1> 대덕연구단지: 1974년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150km 떨어진 시골에 국공립 및 민간 연구소들을 모을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고자 결정함. 프랑스는 대덕연구단지의 2개 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응용화학과 표준화 관련 연구원 두 곳과 협력하고 있음.
- ※ <첨부2> 신문기사「Technology-First Policy Accented for Survival(생존을 위한 기술우선정책)」: 과학기술처의 1985년 예산

퀴리양 장관과 김성진 장관 회담 회의록: 4월 8일 16시~17시, 장관실 / 발신자: 오드릭(T. Audric)

1)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

- 올해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을 원한다고 표현
- 일정: 결정하도록 노력. 가능하다면 11월에 예정된 한불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Franco-Coréenne) 회의보다 최소 두 달 일찍
- 방법: 장관 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실무회담을 함으로써 장관 회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원함.

2)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전반적 사항

프랑스 측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연구-산업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3) 에너지 협력

원자력에너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양국의 유사한 상황(유사한 인구수, 에너지 자원 부재, 에너지 의존성 우려, 강력한 원자력 정책, 국가의 중요한 역할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임.

(1) 원자력에너지 협력

인력 양성, 연구, 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는 형태임. 이 협력이 연료주기 전체로까지 확대되고 11호기와 12호기 건설까지 이어지길 바램. 작년에 취소된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길 바램. 한국 측은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과 한불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계시킬 우려가 있음.

(2) 에너지 계획 - 에너지 경제

최근에 이루어진 협력임에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사이의 협약. 에너지 경제에 관한 한불 컨퍼런스를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길 바램.

4) 컴퓨터와 자동화

이 분야의 협력은 없었음.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 사이에 협상 진행 중이며, 불(BULL)사도 관심이 있음. 자동번역(그르노블대학교). 올해 CAD/CAM 한국 전문가들의 프랑스 방문 예정

5) 중소기업 프로젝트

과학기술처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불 기술협력의 틀 안에서 고려함.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은

첫해가 만족스런 결실을 맺어 산업재편무역부 크레송 장관과 금진호 장관의 회담 때에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

6) 기본 연구

현재로는 프랑스 측의 무관심으로 연구 차원의 협력 없음. 수년 전부터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연구장학금 존재

7) 양국 과학도시들 간의 관계

올해, 대덕연구단지외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소피아-앙티폴리스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

8)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수준에 대해 문의. 프랑스가 고도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으며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프랑스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림. 국립우주연구소 달레스트(d'Allest) 소장의 5월 방한 일정 알림.

2.4.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urien, Madame Cresson /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Projet SACCA en Corée. Réponse Française à l'appel d'offres (퀴리앙 장관과 크레송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서울예술센터건축(SACCA) 프로젝트에 대한 한불 협력. 공개 입찰에 대한 프랑스 참가에 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50330

페이지: 23~23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서울예술센터를 건설할 예정. 한국인들은 프랑스 문화공간(퐁피두센터, 빌레트 등)에 좋은 인상을 받음. 톰슨(Thomsom)+소데테그(Sodeteg)+라빌레트(la Villette)가 함께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음. 산업부 장관과 연구부 장관은 방한 시에 한불협력의 틀 안에서 이 사안을 언급할 수 있음.

2.5. Note d'entretien avec l'Ambassadeur de Corée (한국대사와의 회담 회의기록(노트))

생산일자: 19850401

페이지: 24~25

- 과학기술협력은 원자력에너지, 에너지 감독, 천연자원개발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짐.
- 한국의 우주항공부서 창설과 함께 우주항공분야에서의 협력 가능
- 한국 연구자들의 프랑스 연수를 위해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한국 연구기관들 사이에 협력을 해야 함.

1) 원자력에너지(원자력청, 코즈마, 원자력산업)

이 분야의 산업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 R&D 분야의 협력은 문제가 있음. 한불조정위원회의 3번째 회의가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요청으로 연기되었음. 한국 장관은 프랑스 방문과 이 회의를 연계시키기 원했음. 프랑스대사관에서 한불조정위원회의 다음 회의 개최에 대해 한국 측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을 얻지 못했음.

2) 에너지 감독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단(KEMCO) 간의 1984년 9월 협약,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간의 1984년 12월 협약 덕분에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의 산업협력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음.

3) 천연자원개발(지질광물자원연구원)

3년 전부터 지속된 전략적 지구화학, 분석화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1984년 12월 5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제3세계에서 광업 분야 공동개발을 해야 함.

4) 우주항공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는 구체적인 협력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 책임자들과 조속히 대화를 하기 원함.

2.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과학기술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26~34

전반적 틀-전략

한국은 수출에 기반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과학기술 수준은 뒤쳐져 있음. 따라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함. 프랑스는 기술연구 차원에서 한국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한국은 무역과 산업에서 프랑스에 이익을 줄 수 있음. 한불협력은 기술이전을 지향해야 함.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부분은 정부간 사업임.

1) 과학 협력 - 연구자 교육

프랑스 연구소에서는 다음 3가지 이유로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양함. 첫째, 한국 연구의 수준이 낮고, 둘째, 한국은 이미 신흥공업국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 유형에 맞지 않으며, 셋째, 한국은 신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불 없이 산업기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공동연구보다는 한국 연구자들을 프랑스에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함. 특히 아주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고자 함. 매년 박사과정 학생과 연구자 40명에 장학금을 주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제, 에너지, 천연자원이 주 분야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는 매년 8~10명의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과 협약 체결. 분야별 연구 및 연수 장학금 수혜 현황 도표(1985년)

2) 기술 협력 - 기술이전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에 기반한 한국에서는 기술 협력이 정부 부처, 국가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와 “중소산업” 차원의 협력에서 주요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데이터뱅크, 농산물가공업 등에서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음. 마지막으로 탐색 중인 프로그램들도 있음.

(1) 진행 중인 주요한 두 가지 프로그램

가. 에너지

① 원자력에너지

1980년 프랑스가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계약을 수주한 후 한국은 강력한 기술지원을 다음처럼 요청했음.

- 엔지니어 연수
- 연구자들과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연수(매년 18개월의 13개 연수)
- 원자로 안전성에 관한 정보교환
-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공동연구
- 시범 공장에 한국 연구소 설치

② 에너지 계획, 에너지 경제,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

1983년 말 한국은 “더 과학적”이고 더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프랑스 모델을 선택하기로 하고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협력 협약을 체결함. 이 협약을 바탕으로 연수프로그램, 공동연구, 산업협력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제오스톡과 테크니가스가 수주한 계약으로 시작된 협력이 계속 확장, 발전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이전 관련 협력

- 한불 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이며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임. 양국 중소기업들 사이에 기술·경제적 협력에 기반한 “합작투자”를 실험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임. 프랑스에서는 산업진흥발전협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음. 예산은 양국이 1/2씩 부담함. 프랑스 예산 중에서 2/3는 대외관계부, 1/3은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ACTIM)가 부담함.
-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영역(기계, 금속가공)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후보인 한국 중소기업들은 한불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를 받고, 재정 안전성, 경영 안전성, 기술력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됨. 시범 프로젝트가 1984년 2월에 시작했고, 2년 동안 지속될 예정. 최초 결과물들이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함.

(2) 진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들

- 데이터뱅크 : 프랑스의 PASCAL과 GSI-ECO에 대한 홍보가 MIDIST의 지원 아래 이루어짐.
- 농산물가공업 : 한국에서 특히 발전하는 분야로 프랑스 농산물가공업 분야는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 세미나 개최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산업기술 이전이 이미 이루어졌음(빙그레와 요구르트, 진로와 포도주).
- 수산업·양식업 :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 :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과 어업연구개발원(FRDA :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Agency) 사이의 균형 잡히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질학·지도제작 : 전문가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현실화되지 않았음.
- 해양 : 협력이 몇 년 전까지 상당히 활발했지만 현재는 축소됨. 하지만 프랑스 코멕스(COMEX)사에 수중 펌프를 주문함으로써 이 협력관계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음.
- 아주대학교 : 프랑스에서 육성된 30명 이상의 교수진이 교육과 잡지 『한불산업기술정보(Transfert de Technologie Franco-Coréen)』의 발간을 통해 프랑스 기술 홍보

(3) 탐색 중인 프로그램들

- 컴퓨터 :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 사이에 협약 관련 협상 진행 중
- 생물공학 : 한국은 이 첨단기술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협상 가능성 검토 중

- 우주항공: 1983년 한국은 1988년 올림픽 개최 전에 통신위성을 갖기 위해 검토를 했음. 이 프로젝트는 포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로 우주항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됨.

2.7. Ministè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MOST) (한국 과학기술처 현황 노트)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35~37

한국의 과학기술처는 프랑스의 산업·연구부와 동일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

- 과학기술처의 역할은 행정임. 과학기술처에 “과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원들에서 정책들을 만들어 냄.
- 과학기술처에는 “연구-예산(enveloppe-recherche)”은 없지만, 소규모의 자체 “예산”은 있음.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협조는 대통령실에 의해 보장됨.
- 다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관리함. 프랑스대사관의 교섭 상대 기관임. 한국 외무부는 의전상의 중계 부서일 뿐임.
- 산업계와의 관계가 영역에 따라 아주 다름. 생물공학과 같은 영역에서는 과학기술처의 존재감이 거의 없음.
-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자원부가 있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과학기술처가 원자력 정책의 책임 부처임. 과학기술처 원자력청 원자력위원회와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정책을 담당함. 과학기술처가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를 주재함.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는 관련 사안의 결정기구임.

한국 과학기술처와 프랑스 산업·연구부의 협약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 때(1983년) 공동 양해각서 서명. 해당 분야 양국의 장관들이 한국과 프랑스를 번갈아가며 매년 회담을 갖기로 함. 1984년에 예정된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이 취소되었으며, 1985년으로 다시 예정되어 있음.

조직도

과학기술처 조직도 <도표> 참조

2.8. Science et Technologie en Corée. Panorama général (한국의 과학과 기술. 전반적 소개)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38~49

본 철 제3번 건의 전반부와 동일 내용

2.9.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연구·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생산일자: 19841218

페이지: 50~53

1) 전반적 상황

1982년 R&D 투자가 한국 국내총생산의 0.97%에 지나지 않음. 한국은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R&D 분야 투자를 국내총생산의 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그런데 한국은 연구목표의 설정에 있어 아주 실리 위주이고 결과평가시스템을 만들길 원함.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몇몇 큰 연구소 아래 작은 연구소들을 결집
-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귀국. 이들의 국제관계망 중요
- 외국 정부 및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통해 젊은 연구자들의 외국 유학
- 과학기술정보화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 계획 실행의 주체들을 명시함. 전략적 연구(안보 등)는 공공에서만 이루어짐. 천연자원, 에너지, 교통 관련 연구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민간으로 이전됨. 산업연구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짐.

2) 협력의 주요 축

최근 몇 년 동안 한불 과학기술협력은 아주대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음. 한불 협력은 수출과 기술이전을 지향함. 우선 협력 분야는 에너지(원자력, 에너지 감독)와 천연자원임.

(1) 프랑스 에너지관리청

프랑스 에너지관리청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도 프랑스에너지관리청에 협약 체결을 제안했음. 이 교류의 목표는 프랑스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프랑스 기업체들이 이 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2) 프랑스 원자력청

산업프로젝트와 별개로 원자력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 협약들이 있음.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협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들의 프랑스 연수교육, 연료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프랑스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협약,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이의 협약(원자력안전성에 관한 것임).

(3) 지질광물자원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의 협력은 3년째임.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협약안을 프랑스 지질광물자원연구원에 전달했음. 주요 분야는 지리화학과 분석화학임. 이외에도 제3세계에 대한 공동광업개발을 하길 원함.

(4)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한국과학재단 협약

이 협약은 연간 연구자 연수를 정하고 프랑스 전문가의 방한 일정에 재정을 지원함. 현재는 기관 사이의 협력보다는 개별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5)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 아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현재 3명의 한국 연구자가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에 있으며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음.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음.

- Unix 시스템의 슈퍼마이크로컴퓨터
- 자동화 생산망
- 반도체 제조 과정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6) 다른 영역들

해양, 생명기술, 원격탐사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양 분야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의 응용화학 관련 책임자들이 1985년 프랑스 방문(국립응용화학연구원(IRCHA)/한국화학연구원(KRICT) 간의 협약)

2.10. Développements récents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서의 최근 발전상황)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54~54

- 한국은 경제 급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프랑스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현함. 이는 1985년 4월 프랑스 퀴리앙 장관의 방한, 지난 9월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에 피력됨.
- 한국은 에너지, 컴퓨터, 화학, 생명기술,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의 첨단 영역에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이 전받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자력에너지 분야는 산업·무역 차원에서 중요함. 하지만 프랑스 산업에 가시적인 보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지식 전수는 받아들이 수 없음.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담보되는 것이 중요.
- 협력에 있어 다음의 영역과 관련하여 유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음. 상업적 보장 없는 생명기술, 관련 산업체와의 사전 조율 없는 자동화 생산, 사전 산업화 없는 컴퓨터정보처리 영역
-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원, 지질광물자원연구원, 프랑스에너지관리청, 프랑스석유연구원과의 균형 잡힌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
- 우주항공 분야의 개방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결정될 때 프랑스 기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바람에 부응한 것임.

2.11.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omplément à la note 219 du 18.12.84 (연구·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84년 12월 18일 보고서(노트) 219에 대한 보충)

생산일자: 19850322
페이지: 55~56

- 한불 과학기술 협력의 토대는 한국 과학기술처와의 정부 간 협약임. 이 협약을 통해, 한불조정위원회가 창설되어 1982년 2월 18일에 처음 개최되었고, 1983년 7월 13일에 마지막으로 개최됨.
- 한불조정위원회는 협력의 방식을 결정함.
- 제1회 한불조정위원회: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사이의 협력 체결,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이의 협약 체결,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가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진행했음.
- 제3회 한불조정위원회: 1984년 가을로 예정되었지만 한국 과학기술처의 전임 장관이 프랑스 방문과 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계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됨.
- 한불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함.
- 원자력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프랑스 원자력청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문의에 대해 회신할 의향이 없음.
- 새로 임명된 한국 과학기술처 김성진 장관의 이력서 첨부

2.12. Relations entre BEADOK et Sophia Antipolis (대덕연구단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관계)

생산일자: 19850402
페이지: 57~58

지난 11월 소피아 앙티폴리스 창업자 라피트(Lafitte)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박공식 원장을 파리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만나 국제테크노폴리스클럽(Club International des Technopoles)에 가입하라고 권함.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대덕연구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박공식 원장은 가입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음.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프랑스에너지관리청에 유럽 지사를 설립할 의사가 있음을 알림.

2.13.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urien, Madame Cresson /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Projet SACCA en Corée. Réponse Française à l'appel d'offres (퀴리앙 장관과 크레송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서울예술센터건축(SACCA) 프로젝트에 대한 한불 협력. 공개입찰에 대한 프랑스 참가에 관한 보고서(노트))

생산일자: 19850330
페이지: 59~59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서울예술센터건축(SACCA) 예정. 한국인들은 프랑스 문화공간(퐁피두센터, 빌레트 등)에

좋은 인상을 받음. 톰슨(Thomson), 소데테크(Sodetec) 및 라빌레트(la Villette)가 함께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음. 산업부 장관과 연구부 장관은 방한 시에 한불 협력의 틀 안에서 이 사안을 언급할 수 있음.

2.14. Projet S.A.C.C.A. – Seoul Art Center Construction Authority (SACCA 프로젝트 – 서울예술센터건설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50325
페이지: 60~63

1) 프로젝트 소개

한국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술의전당(Seoul Art Center)”을 건설하고자 함. 한국의 전통·현대문화예술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기술·행정관리에 있어 가장 현대적인 기술 수준의 건설을 원함.

2) 진행 상황 – 필요와 외부 개입

- 건축 도면과 첫 번째 터 다지기
- 프로젝트 책임자들 임명과 영역별 예산 정하기
- 서울예술센터 건축팀은 커뮤니케이션, 오디오비주얼, 컴퓨터/정보화/전산처리 영역에서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찾고 있음. 매스미디어 자료관, 전자장비/음향/무대, 박물관/극장/회의실의 전문·기술적 관리, 전시, 자동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임.
- 책임 건축가들은 유럽 여러 국가,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이들 국가의 관련 역량, 그리고 한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도움들을 살펴봄.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라빌레트, 오페라(바스티유) 프로젝트와 완성 상황을 보고 프랑스를 선호하게 됨.
- 1988년 올림픽 때 서울문화예술센터를 사용할 예정

3) 상업적 접근 – 톰슨(Thomson)社

- 톰슨-CSF는 회담을 통해 서울예술센터 건설당국에서 프랑스 컨소시엄의 도움과 협력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됨.
- 1단계: 1985년 4월 (가장 시급)
 - 라빌레트/톰슨-CSF/소데텍-타이(Sodetec-TAI) 컨소시엄을 서울예술센터건설당국에 소개. 팀별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역량과 재정을 전달할 것임. 라빌레트는 사진/전반적 전문기술 문서/라빌레트에 관한 시청각 자료 제공할 것임.
 - 2단계: 1985년 하반기
 - 승인 후, 서울예술센터 건설당국과 프랑스 컨소시엄 사이의 협약서에는 다음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술적 제안 및 검토, 업무지침서 작성. 컨소시엄의 각 회사는 자신의 지적 기여를 명시하고 방법 및 재정을 결정해야 하며 비용을 표시해야 함. 라빌레트는 톰슨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서비스 공급부서들의 내부 코디네이터를 정할 것임.
 - 3단계: 제안서 분석 작업에 참여-공급업체 선정, 계약서 작성에 참여
 - 4단계: 공사 실행-라빌레트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4) 라빌레트 업무

- 1단계
 - 구르데(Gourdet)씨와 보니(Bony)씨가 이 사안 담당
 - 문제 제공을 위해 톰슨-CSF와 구르데 연락
 - 톰슨-CSF가 영어 번역 맡음.
 - 톰슨-CSF/라빌레트 협약서 초안 작성
- 2단계
 - 톰슨-CSF/라빌레트 사이의 내부 코디네이터 임명
 - 라빌레트 내부 분야별 담당자 임명(매스미디어 자료관, 시청각, 정보처리, 커뮤니케이션)
- 3단계
 - 업무지침서 작성
- 4단계
 - 엔지니어/기술지원팀이 맡음.

2.15. Projet S.A.C.C.A. – Seoul Art Center Construction Authority (SACCA 프로젝트 – 서울예술센터건설 프로젝트)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64~66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사명을 가진 문화예술센터 “예술의전당(Seoul Art Center)”을 건축하여 1988년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개관하고자 함. 한국의 전통 · 현대문화예술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기술 · 행정관리에 있어 가장 현대적인 기술 수준의 건설을 원함.

프로젝트 진행 상황

서울문화예술센터 같은 복합예술공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영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부재한다는 점을 파악함. 건축 도면과 첫 번째 터 다지기만 되어있는 상황. 센터의 실제 사용과 내부 설비에 대한 구상의 핵심 단계가 이제 시작점에 있을 뿐임. 1988년 올림픽에 맞추어 개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예술센터 건설팀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원

서울문화예술센터 건설팀이 작업의 난점을 인지하고 다음의 영역에서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찾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 오디오비주얼
- 매스미디어 자료관
- 컴퓨터/정보화/전산
- 박물관, 극장, 회의실, 홀 등의 전문적 관리
- 전기, 전자, 음향, 무대 등의 설비
- 자동화

책임 건축가들은 유럽 여러 국가,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이들 국가의 관련 역량, 그리고 한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도움들을 살펴봄.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라빌레트, 오페라(바스티유) 프로젝트와 완성 상황을 보고 프랑스를 선호하게 됨.

2.1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industrielle en informatique avec la Corée (컴퓨터/정보화 영역에서 한국과의 과학·산업 협력)

생산일자: 19850328

페이지: 67~68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은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 개발을 위해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자 했음.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는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국립통신연구소(CNET, Centre National d'Études des Télécommunications)에 의해 개발되고 BULL社에 의해 상용화된 SM90과 아주 유사함.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한국산업체를 위한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BULL社는 기술이전과 산업화라는 과학·산업 협력을 제안했음.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BULL社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에게 전달한 서신 첨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동봉.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항들은 관련 한국기업체들을 이익을 고려해 서울이나 파리에서 조속히 만나 결정하고자 함.

※ 첨부된 서신

- 발신자: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소장 방수상(Bensoussan) / BULL 사장 스테른(Stern)
- 수신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경상훈
- 날짜: 1985년 3월 22일
- 내용: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BULL社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협력 제안

2.17.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res Bordereau collectif Bordereau collectif (대외관계 부 공동 우편물 명세서)

생산일자: 19850403

페이지: 69~82

우편물 명세서: 한국과의 컴퓨터·전산 관련 협력에 대한 보고서 및 공문 사본

- 1)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의 전문가 바니노(M. Banino)의 보고서
-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1986년 2월 28일 자 공문 n° 208 ST/OAP 사본

보고서 및 공문 소개 서신

- 생산기관: 주한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문화과
- 생산일자: 1985년 3월 15일

- 수신자: 대외관계부 장관/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과학기술협력국/국제지역과(동남아시아, 베트남, 아세안 회원국)
- 발신자: 과학기술협력문화고문 티에리 오드릭(Thierry Audric)
- 내용: 바니노의 한국 출장 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 보고서는 첨부된 공문에서 제기한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피해 가고 있음. 이 협력에 대한 국립정보자동화 제어연구소의 이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험성도 제기되지 않았음. 1985년 국립정보자동화 제어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교류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언급함. 아주대학교에 대한 바니노의 관점은 프랑스어 사용자들과 만난 즐거움으로 인해 약간 왜곡된 것처럼 보임.
- 결론: 이 보고서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협력 사안에 관해서는 함께 동봉한 공문을 참고하기 바람.

1)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장-세르주 바니노(Jean-Serge Banino)의 보고서

〈 제목: 한국 출장 보고서(1984년 12월 9~15일) 〉

출장 목적: 대외관계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이 출장의 목적은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기능하고 협력 파트너를 파악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관 책임자들을 만났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센터”, 과학기술처, 수원삼성공장,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 (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개발은 아주 진지하고 좋은 수준임. 연구/산업 연계가 특히 성공적이고 효과적임. 일과 성공에 대한 의지가 눈에 보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 가장 긴밀한 협력을 원함. 올해, “그래픽시스템”, “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영역에서 열흘 동안 진행되는 3가지 임무를 얻길 원함.
- (2) 카이스트: 카이스트 산하 “소프트웨어개발센터”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서비스자동화를 위해 1967년에 만들어짐. 소프트웨어개발센터의 활동 성격을 볼 때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의 협력은 불가능함. 이번에 방문하지 못한 카이스트 컴퓨터학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3)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에서 컴퓨터개발연구 활동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균 씨를 만남. 컴퓨터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관심 표명. 프랑스의 관련 분야의 최근 발전상황을 전함.
- (4) 삼성: 구미삼성공장(전화장치, 마이크로컴퓨터 SSM16 등 제작), 수원삼성공장(텔레비전 등과 같은 전자제품 생산), 한국인의 근면성,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5) 아주대학교: 컴퓨터 관련하여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가 있음.
- (6) 서울대학교: 컴퓨터 영역에서 교과과정이 좋은 수준이고 교수의 역량도 높음. 하지만 연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보임.

결론

- 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실험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협력 대상임.
- 나.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이 실험컴퓨터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음.
- 다.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컴퓨터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한 분산시스템이라고 여겨짐.
- 라. 한국 컴퓨터 분야에서 급속한 기술이전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 같음. 이 협력은 산업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음.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1986년 2월 28일 자 공문 n° 208 ST/OAP 사본

〈 제목 : 컴퓨터와 전자 분야의 협력〉

- 아주대학교 :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은 김하진 교수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에야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음.
- 카이스트 소프트웨어개발센터 : 이 센터는 한국의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므로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의 협력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음. 프랑스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회사들과의 협력은 타진해 볼 수 있음.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바니노 연구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구체적인 협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 그런데 이 두 기관의 협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한국 기업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에 비해 연구개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업 간 협약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기업들이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을 산업화시킬 위험이 있음. 한불 기업 간 협약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의 협력은 두 가지 점에서 프랑스에 이점이 있음. 한 가지는 관련 분야 한국 산업 현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프랑스 기술력을 한국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가 한국과의 연구기술 협력에 대해 프랑스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이용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함.
- 바니노 연구원의 출장 이후 다음의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음. 한국기술전자연구원/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프로그램, 루이파스퇴르대학교/전북대학교 프로그램, 자동번역 프로그램(그르노블대학교/카이스트)

2.18. Comité nucléaire et visite de M. Lee Chung-Ho (원자력위원회와 이정오 방문)

생산일자: 19850129
 페이지: 83~84

한국은 현재 총선 캠페인 기간이며 2월 12일 총선 이후 내각이 개편될 것임. 내각 개편 이전에 과학기술처 이정오 장관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자력위원회 개최 일정과 장관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음.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원자력에너지 협력 주체 전부가 원자력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바라고 있음.

2.19.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원자력청)

생산일자: 19841224
 페이지: 85~85

지난 9월 빈 회의에서 한국 과학기술처 이정오(Lee, Chung Oh) 장관이 프랑스 원자력엔지니어링 회사 SGN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건설한 대덕연구단지의 활용에 대해 문의하였음. 원자력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책과 연구 목표에 맞추어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

는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 이 주요 사안을 한불조정위원회 의제로 올리면 좋겠음. 이에 동의한다면 원자력청은 1월이나 2월 초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가들의 방문을 수용할 것임.

2.20. Visite du Premier Ministre, du Ministre du Redéploiement Industriel et du Commerce Extérieur et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en Corée (프랑스 총리,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연구기술부 장관의 방한)

생산일자: 19850329

페이지: 86~99

총리, 장관들의 방한을 위한 보고서 2편

- 1)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 협력에 관한 보고서
- 2) 코즈마(COGEMA)와 한국 기업체들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1)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협력에 관한 보고서 (생산기관: 원자력청)

(1) 한국 에너지 상황

한국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에너지가 주를 이룸(석유 48.8%, 석탄 24.3%). 이러한 의존성을 타개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원함. 하지만 1990년에서 1996년까지의 국민총생산 예상 성장률을 7%에서 6.5%로 하향 조정하고, 남은 전략 관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예상 전력 생산량을 하향함. (<도표 1> 참조)

(2)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

13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마지막 발전소를 1991년에 가동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현재 6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3개가 가동 중임. 최근, 13호기와 14호기 프로그램이 무기한 연기됨. 에너지자원부에 따르면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임.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임. 1) 경수로(월성1호기) 1개를 제외하고 전부 경수로이며, 협력업체를 다각화시킴(웨스팅하우스 6개, 프라마툼 2개), 2)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산업체가 상당 부분 참여하는 것. 장기적으로 한국은 우라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고속중식로를 갖추길 원함. 원자력 연료주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갖길 원함.

(3) 원자력 분야에서 한불협력

가. 산업차원의 관계

프라마툼은 1980년 2개의 경수로 건설 계약 체결. 1982년 알스툼-아틀랑틱은 터빈과 발전기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프라마툼의 계약 실행은 1981년 초에 원자력비핵확산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해 중단됨.

코즈마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가봉에서 우라늄 자원 탐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음. 저장량이 기대에 못 미쳐 사업 중단. 코즈마는 9호기와 10호기 연료 공급을 하기로 함.

한국이 연료제조공장 설립을 원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기업이 공장 건설과 제조기술 이전을 제안했음.

나. 연구와 개발

- 1981년 4월 4일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정부 간 협약 체결
- 1982년 2월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사이에 의정서 체결. 한불조정위원회 설립, 이 틀 안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상호교류 주로 담당
- 한불조정위원회
- 1차 위원회 : 프랑스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과 한국 과학기술처 사이의 협약 체결(원자력 관련 법규에 정보교환), 프랑스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협약 체결(안전성 관련 연구와 개발)
- 이 협약들의 틀 안에서 활용/유지/건설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
- 관련 분야 정부 인력 양성 필요 : 원자력 분야 프랑스 법규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함. 프랑스산업부, 원자력청,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에서 이 연수 프로그램을 맡기로 하였으나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함(한국 정부는 거의 예산이 없음).
- 고속증식로 문제와 관련해서 한불 전문가팀이 만들어져서 검토하고 있으며 1985년 말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대덕연구단지에 우라늄 농축과 전환,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수 처리를 위해 시범원자력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프랑스 원자력기술 엔지니어링회사(SGN)가 1977년 계약 체결. 시범원자력연구소에 관한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에서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기술원 사이의 회의를 제안했음. 이 안건을 제3차 한불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려 하였으나 한국 측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취소됨. 제3차 한불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한국 측에 요청함.

(4) 결론

원자력에너지 관련 한불협력은 프라마툼의 계약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음.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앞으로의 한불협력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협력의 범위와 밀도에 관한 긍정적 평가, 이후 협력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 제3차 한불조정위원회 개최 요청 등을 프랑스 측에서 언급할 수 있음.

※ <도표> 전력발전소 분석

※ <도표>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2) 코즈마(COGEMA)와 한국 기업체들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생산기관 : 코즈마 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규모로 인해, 핵연료주기 세계 일류기업 코즈마에게 주요 시장임. 한국 연료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프라마툼의 제안 등처럼 관련 현안들에 관한 보고서임.

(1) 농축 우라늄

1980년 9호기와 10호기 연료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532톤(5억 달러 매출)의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1억 5천 달러 계약 체결 가능성. 코즈마는 현재 미국에너지부(DOE)와의 계약에 의해 전량 공급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로의 필요량 중에서 30%의 연료량 공급을 제안했음. 계약 협상은 4월 초에 결론이 지어질 예정. 이 계약은 1987년에서 2000년까지이며 매출액은 25억 프랑 정도임.

(2) 연료 제조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4년 8월에 다음과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했음.

- 핵연료 제조공장 건설과 운영 시작을 위한 기술지원(연당 200톤의 연료)
- 한국 인력 교육
- 몇몇 부품 공급
- 10년 동안의 개발 및 제조 특허 양도

프라즈마-FBFC(FRAGEMA-FBFC)는 미국 회사 웨스팅하우스, Combustion Engineering, 엑손(Exxon), 독일 회사 KWU와 경쟁

한국이 관심을 가질 프라즈마제안의 강점

- 산업시설의 운영 시작과 생산제품 차원에서 프랑스의 탁월한 경험
- 프라즈마는 국가 프로그램과 관련 대기업들에 의해 존속 보장
- 원자력 관련 프랑스 상황과 예산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개발이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 측은 첨단 제품과 방법의 수혜국이 될 것임. 이 계약이 체결되면 앞으로의 사안(11호기와 12호기)에 관한 한불 원자력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짐.

(3) 천연 우라늄

가. 우라늄 광산 탐사: 가봉의 노르-레우(Nord-Leyou, Gabon)

1980년 3월 19일 코즈마는 한국전력공사, 가봉과 우라늄 공동 탐사계약을 체결했음. 5년 정도의 탐사는 적은 우라늄 매장량으로 인해 중지됨. 한국에 우라늄 매장지가 없는 관계로 이후에도 해외에서의 공동 탐사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 있음.

나. 우라늄 처리: 대전 시범처리시설

1977년 6월 30일 SGN은 대덕연구단지에 원자력연구소 4곳을 만들기 위해 한국핵연료개발공단(KNFDI, Korea Nuclear Fuel Development Institute)과 계약 체결. 1982년 이 계약이 만료됨. 최근 한국원자력기술원과의 계약을 한 후 기존 계약에 의해 건설된 시범시설이 더 소량의 우라늄 처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임. 코즈마를 위해서는 기존 시범시설을 유연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이와 더불어 1977년 9월 15일 코즈마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KNFDI)과 9년 동안의 특허 사용협약 체결. 상기된 시범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된 한국 내 공장 건설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기술지원에 관련된 것임.

다. 농축 우라늄 공급

코즈마는 1990년대 한국전력공사가 필요로 하게 될 연료의 30%를 공급하길 원함. 이는 1만 톤을 약간 웃도는 양이며 1985년의 가격 기준으로 65억 프랑 정도의 가치임.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협상은 1985년 중에 재개될 예정.

2.21. Note pour M. Marlaud / Voyage du Ministre en Corée (마를로(Marlaud) 씨를 위한 보고서 (노트) / 장관 방한)

생산일자: 19850315

페이지: 100~112

장관 방문 취소 이후 원자력 분야에서 한불협력에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음.

- 프라마툼과 알스툼에 의한 9호기와 10호기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
- 11호기와 12호기에 입찰공고가 지금부터 올해 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는 1988년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님.
- 프라즈마는 연료제조공장과 제조기술판매에 관한 공개입찰에 응했음.
- 프라마툼 대표단이 3월 15일에서 20일까지 방한. 이 출장 동안 추가 정보를 얻을 경우 추가 보고서 제출 예정

(본문 내용은 철 번호 PZA0008000의 제13번(1.13) 건과 동일)

- ※ <첨부1> 한국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공급에 관한 프라마툼과 한국전력공사 계약
- ※ <첨부2> 프라마툼-한국중공업 관계
- ※ <첨부3> 한국에서의 코즈마 활동
- ※ <첨부4> 마를로(Marlaud) 씨를 위한 보고서
- ※ <첨부5> 한국에서의 SGN 활동
- ※ <첨부6> 프라즈마가 한국에 제안한 기술이전에 관한 보고서

2.22. Activités A.F.M.E. – Corée du sud (프랑스에너지관리청 활동 - 한국)

생산일자: 19850307

페이지: 113~116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에너지관리청 국제부서의 아시아 책임자가 협력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1984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음.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 주한 프랑스대사관, 에너지경제 신용(P.E.E., Prêt Économie Énergie)에 의하면 유럽, 특히 프랑스와 협력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확립하고자 함.

한국 정부에서 우선시하는 사항들

- 원자력/석탄 경쟁성
 - 에너지 보존과 절약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관리” 정책 수립
- 한국과 프랑스는 면적, 인구, 에너지원 수입 의존성, 원자력 프로그램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정치적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에너지 관리”에 관한 프랑스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적극적”임. 프랑스에너지관리청,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 한국전력공사의 교류를 통해 다음의 두 협약이 체결되었음.

- 프랑스에너지관리청/한국전력공사 협약 체결(1984년 9월 7일 서울)
- 프랑스에너지관리청/한국원자력에너지자원연구원 협약 체결(1984년 12월 3일 파리)
- 1984년 11월 8일 한국전력공사는 프랑스에너지관리청에 교통 분야에서의 에너지 관리 한국 전문가 양성에 관한 계약 체결
- 1985년 5월 29~30일 서울에서 에너지 관리 및 정책에 관한 한불공동세미나 개최 예정. 일본과 비교하여 프랑스 에너지 관리 정책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합작투자”와 같은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 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천연가스 분야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한프랑스대사관은 1985년 초에 “에너지 팀(cellule énergie : 대외관계부(MRE), 협력부(Coopération), 원자력청,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을 만들고자 함.
-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이 체결한 두 개의 협약 덕분에 에너지 관리와 절약 분야에서 한국원자력에너지자원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프랑스에 우선권이 주어짐.
- 한불 기관들(한국원자력에너지자원연구원/프랑스에너지관리청, 한국원자력에너지자원연구원/한국전력공사 등)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통해 1985년에 에너지 관리 영역에서 한두 개의 “합작투자”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자원부 협약 후에 한국원자력에너지자원연구원은 소피아-앙티폴리스에 “유럽지부”를 설치하고자 함.

2.23.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협력)

생산일자: 19841015

페이지: 117~122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은 협력협약 체결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음. 이 협약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없음. 이 협약은 3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온 두 기관의 교류에 형식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음.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은 한국 장관들의 프랑스 방문 시에 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길 바램. 본 연구원에서 한국 측에 답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기 바램.

※ 첨부: 광업기술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에너지자원연구원과 지질광물자원연구원 간의 양해각서

2.24. Lettre de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국립우주연구소의 서신)

생산일자: 19850402

페이지: 123~124

한국은 고유의 기술산업 역량을 갖추려는 우주항공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임. 우주항공국 창설이 대표적임. 한국의 역동성과 중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대표단의 5월 방한을 계획하고 있음.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차원의 대화를 위해 연구기술부 장관이 방한 시에 해당 우주항공프로그램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 바램. 이 요청은 산업재편부 역부 장관에게도 전달함.

2.25.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spatial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한불관계)

생산일자: 19850326

페이지: 125~126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기술개발 역량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적용됨.

- 한국은 우주항공국 창설을 계획하고 있음. 장관은 이 계획의 현황을 검토하고 한불 협력을 제안할 수 있음. 프랑스 국립우주항공연구소는 5월 방한을 계획하고 있음.
- 예산 부족과 한국 산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1988년 올림픽에 맞추어 완성하고자 했던 한국 위성통신 프로젝트는 연기됨. 한국의 국토 면적과 지상의 중요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신위성 프로젝트는 정치적 필요일 뿐인 것으로 판단됨.
- 장관은 우주항공 프로그램의 현황과 새로운 상업위성 프로젝트에 대해 문의할 수 있음.
- 한국산업개발원(KIDI)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해 온 프랑스 우주항공컨설팅회사 SATEL-CONSEIL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음.
- 한국은 현지 제조를 목표로 하는 프랑스 산업계와의 협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음. 위성 수신 안테나는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가능 분야임. 하지만 한국 제품이 일본산, 프랑스산과 경쟁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는 분야임.
- 일본은 한불 협력이 너무 강화되는 것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을 것임.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만 치우치지 않고 유럽을 향해 더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한국인들이 프랑스의 산업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의 프랑스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
- 현재 한국은 원격탐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장관은 이 분야에 대한 프랑스 우위를 강조할 수 있음.
- 결론: 우주항공 분야는 한불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협력 분야임.

2.26. CNES Bordereau d'envoi (국립우주연구소 우편 명세서)

생산일자: 19850326

페이지: 127~133

1) 우편물 명세서 (127쪽)

- 산업재편무역부, 국제부 대표 브뤼노 드레이에(Bruno Delaye)에게 보낸 서신
- 총리실 기술고문 드니 베레(Denis Verret)에게 보낸 서신
- 한국 우주항공 상황 보고서

2) 국립우주연구소 서신 사본 (128쪽)

- 생산일자: 1985년 3월 26일
- 수신자: 브뤼노 드레이에(Bruno Delaye), 연구기술부와 산업재편무역부의 국제업무 대표
- 발신자: 국립우주연구소 달레스트 소장
- 내용: 한국은 고유의 기술산업 역량을 갖추려는 우주항공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임. 대표적인 것은 우주항

공국 창설임. 한국의 역동성과 중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대표단의 5월 방한을 계획하고 있음.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 한국정부 간의 정치적 차원의 대화를 위해 연구기술부 장관이 방한 시에 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 주기 바람. 이 요청은 총리에게도 전달함.

3) 국립우주연구소-한국우주항공 활동 (130~131쪽)

- 생산기관명: 국립우주연구소
- 생산일자: 1985년 3월 26일
- 형태: 보고서
- 내용: 위성발사를 1990년대로 늦춘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후, 통신위성 프로그램은 한국의 우주항공분야 발전에 대하여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하게 했음.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우주항공연구소 설립을 포함한 우주항공프로그램을 몇 주 내로 발표할 수 있음. 통신위성은 많은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프로그램에 착수하게 되면 이것은 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가는 것을 목표로 상당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낼 것임. 국립우주연구소와 한국의 협력은 프랑스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주항공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추후 한불 정부 간 대화 시 한국정부에 우주항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프랑스의 협력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음. 이 협력을 위해 국립우주연구소는 5월에 서울로 출장팀을 보낼 예정임. 이 출장은 주한프랑스대사관이 기획·주도하는 것임.

4) 서신 (132쪽)

- 수신자: 연구기술부 다니엘 사코트 기술 고문
- 발신자: 국립우주연구소 달레스트 소장
- 내용: 128쪽과 동일

『한불산업기술정보』 1984년 봄호, 표지 사본 (133쪽)

2.27. Coopération entre PIM françaises et coréennes (한불 중소기업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34~137

1) 한국 중소기업 상황

한국에는 대략 3만 8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97%의 중소기업이 국민생산의 34%, 부가가치사업의 36%, 고용의 53.4%를 차지함.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5명에서 300명 사이임. 한국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를 추구함. 첨단기술이나 약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재정적 지원도 가능. 국가 산하 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과 거래할 것을 권고, 외국의 노하우 획득이 권장됨.

2) 한불협력의 역사

1981년 한불 중소기업협력협약을 위해 프랑스의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ACTIM)의 도움으로 첫 번째 시도가 있었음. 중소기업은행에 2년 동안 전문가 파견.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가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의 뒤

를 이어받음. 결과는 미미했음.

1984년 프랑스의 산업진흥발전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사이에 계약이 체결됨. 2년 6백2십만 프랑의 투자 예정(프랑스 3백7십만 프랑, 한국 2백5십만 프랑). 두 영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됨. 첫 번째 단계에서 기계와 금속가공,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자 분야임. 이 계약은 한국정부(상공부)와 프랑스정부(대외관계부,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음. 프랑스의 산업진흥발전협회는 한국기업들과 협력한 프랑스 기업들을 찾고, 산업협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협력관계 및 협력 기획에 도움을 줌.

3) 현재 상황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 협력관이 2월부터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주하고, 기계분야 전문가가 서울 출장 업무를 진행했음. 35개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고 39개가 분석이 많이 진행된 상황임. 39개 중에서 26개는 상대 기업들 사이에서 정확한 회계 검토 중임. 13개는 실현가능성 검토가 완결된 상황임. 13개 프로젝트 중에서 8개는 이미 문서화된 협약을 작성했음. 모두 “기계-금속가공” 영역임.

1984년 두 개의 계약 체결(금속브러쉬를 위한 합작투자계약(바셰트(Vachette)社), 합작투자를 위한 상세협약, 제품판매대리점 계약). 현재는 “합작투자” 형태의 협력이 대부분임. 합작투자에서 라이선스 양도, 한국 내 프랑스 기업 자사 설립으로 나가는 방향.

전자분야 전문가의 첫 번째 출장은 1984년 말에 진행되었음.

4) 산업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측 제안

1984년 12월 말 한국 상공부는 중소기업협력 프로그램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함. 5년 동안의 협력 프로그램 제안(프랑스 전문가의 방한, 한국 기술인력의 프랑스 연수,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프랑스 연수, 산업 협력을 위한 양국의 지원). 한국 측은 크레송 장관의 방한 시에 이 제안에 기반하여 협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추정. 한국 측 제안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프랑스 측 제안이 준비되어 있음. 프랑스 측 제안은 지금까지의 협력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이 협력에 공식적 성격, 정부 차원이라는 의미를 덧붙일 수 있음.

장관이 언급할 수 있는 사항

- 프랑스의 산업진흥발전협회와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이루어진 협력에 긍정적 평가
- 현재까지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양국에 이익될 수 있는 산업협력의 가능성
-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면 협약 체결은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과 발전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임.

2.28. Programme pilote de coopération industrielle entre les petites et moyennes industries françaises et coréennes – Rapport d'activité pour la 2ème réunion semestrielle du comité d'orientation à l'APRODI le 29 janvier 1985 (한불 중소기업협력 시범프로그램 - 1985년 1월 29일 산업진흥발전협회에서 진행된 방향설정위원회의 제2회 분기별 회의를 위한 활동보고서)

생산일자: 19850125
페이지: 138~170

1) 하반기 활동 동안 마련된 조직(1984년 8월~12월)

중소산업협력을 위해 프랑스와 한국에 마련된 두 팀의 구성원들과 활동을 소개하고 기간별로 수행된 업무를 언급하였음.

2) 활동업무의 현재 상황

(1) 5단계의 산업협력 활동에 대한 정의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의 한국 주재 코디네이터가 5단계로 나누어 모든 협력프로젝트를 분석하였음.

- 1단계: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요청 분석
- 2단계: 프랑스 기업 탐색과 분석
- 3단계: 파트너 기업들의 회계 상황 검토, 만남, 의향서 체결("프로젝트" 탄생)
- 4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밀 검토
- 5단계: 협력 계약 체결

(2) 현재까지 다룬 사안들과 진행 상황

146쪽 도표 참조할 것. 39개의 한불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 분석에서 5단계 중에서 2단계를 넘어섰음. 39개 중에서 13개가 4단계까지 도달했고, 13개 중에서 8개의 프로젝트는 문서로 협약을 작성하였고 1984년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었음.

(3) 진행이 가장 많이 된 프로젝트들에 관련된 기업인들의 프랑스와 한국 방문

14명의 프랑스 기업인들이 1984년 7월과 12월 사이에 방한하였고, 4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1984년 10월 12일에 프랑스를 방문했음. 1985년 첫 두 달 동안 9명의 프랑스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5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

(4) 몇몇 특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표, 148~154쪽)

(5) 최초 13개 프로젝트가 프랑스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한 종합적 소개

13개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은 1,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750만 달러를 프랑스 측이 부담할 것임.

3) 방법 차원의 주의사항과 새로운 방향

(1) 경험에 기반하여 재검토된 산업협력 단계들

1983년 9월 프로젝트에 제시된 산업협력 도식이 경험에 비추어 정밀하게 수정될 수 있음.

- 1단계: 한국 요청 분석(한국기업 선정, 기업 분석)
- 2단계: 프랑스 파트너기업 선정(가능성 있는 프랑스기업 탐색, 잠재력 있는 프랑스기업 선정, 선정된 프랑스기업 분석)
- 3단계: 회계 상황 검토(기술이전 형식 교류 및 파트너 기업들에 소개, 우편과 텔렉스를 통한 질의응답, 프랑스기업의 한국기업 방문, 의향서, 프로젝트)
- 4단계: 실현가능성 검토
- 5단계: 계약 및 시작

(2)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들

현재 진행 중인 산업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 단계는 ①기업 선정 프로세스, ② 의향서를 프로젝트로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③합작투자 설립에 필요한 지원임.

4) 활동업무의 조정과 새로운 방향

- (1) 전반적 목표 상기: 2년 동안의 시범 활동의 목표는, ①기술이전에서의 첫 성공적 결과를 얻는 것, ②첫 성공 건수와 성공률에 기반하여 전체 프로젝트 기획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2) 첫해의 활동 업무 보고: 프로젝트 환경과 구체적인 결과에서 볼 때 아주 고무적임.
 - 가. 프로젝트 환경: 다른 분야의 프랑스 기업들의 관심 증가, 한국 주재 프랑스 은행들의 관심 증가, 한국 주재 프랑스 대기업들의 관심 증가, 한국정부의 관심 증가
 - 나. 결과: II에서 언급한 결과에 덧붙여, 선정된 첫 번째 분야(금속가공, 기계)에서,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는 다양한 하위 분야의 중요한 중소기업 대부분과 만남을 가졌음.
- (3) 인적자원
 - 가. 프랑스 내: 1985년 2월 예정된 하프타임 엔지니어의 보충을 통해 진행이 가장 많이 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강화
 - 나. 한국 내: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장인국 풀타임 엔지니어 외에, 두 번째 풀타임 엔지니어 요청, 프랑스 전문가들 초대)

첨부 (167~170쪽): 1984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출장 종합보고서

2.29. Proposal for Korean-French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한불 산업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생산일자: 198411
페이지: 171~182

1) 제안 개관

이 제안은 1984년 6월 4일 한국 상공부 장관과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의 회담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양국 이 각각의 비교 우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이것은 한국 전문 인력과 기업인들이 프랑스 산업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간 지원책임.

2) 목표

- 한불 산업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중소기업체의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
- 생산기술을 현대화하고 다양화시키고,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믹스를 향상시키는 것
- 각각의 비교 우위 영역에서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것

3) 배경과 정당성

• 정부 정책의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담당 한 역할에 비해 정책에서 등한시되어 왔지만 1982년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확립하면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짐. 이 개발계획의 목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980년대에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추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중소산업발전을 위해 1973년 중소기업진흥법이 공포되고 1974년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설됨.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협력발전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권장하고 민속예술 산업을 장려하는 것임.

• 국제협력의 중요성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분야는 자본부족과 낙후된 기술로 인해 쉽게 발전하지 못했음. 따라서 한국은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과의 협력 기회를 찾고자 함. 한국의 주요 정책은 미국과 일본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기술의 원천을 다각화하기 위해 유럽과의 경제기술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음.

• 이 프로그램을 위한 양자간 협력

양국 정부는 프랑스 전문가들의 한국 방문, 프랑스에서의 한국 엔지니어들의 교육, 한국 기업인들의 프랑스 연수 등과 같은 인적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할 것임. 이를 통해, ①양국의 협력의 필요를 파악하고, ②산업협력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③양국 협력의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기대함.

4) 프로그램 구성요소

프로그램은 ①프랑스 전문가들의 한국 초청, ②프랑스에서의 한국 기술인력의 교육, ③한국 기업인들의 프랑스 연수, ④산업협력을 위한 양자 지원으로 구성되어있음.

5) 실행 계획

(1) 5년 계획(1985년~1989년)

(2) 실행 조직: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랑스의 산업진흥발전협회, 프랑스의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

(3) 협력을 위한 우선 산업 하부 분야: 정밀기계 및 산업장비, 비철금속, 자동차부품, 선박부속, 자전거부품, 통신장치, 전기전자기기, 측정 및 제어 장치, 고무 및 비닐, 정밀화학

(4) 프로그램 실행: 연차별 프랑스 전문가들의 방한, 프랑스에서의 한국 엔지니어들의 교육, 연수, 산업협력에 관한 수치

(5) 재정: 프랑스 전문가들의 방한은 한국 측이 부담, 한국인들의 프랑스 연수비용은 프랑스 측이 부담

※ 첨부1: 예산(182쪽)

3.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e Monsieur Chun Doo-hwa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14-16 avril 1986)

번역제목	전두환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 COREE : (19980597/6-19980597/7) >>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 Sans titre (19980597/6) >> Liasse 2 (Visites officielles : M. CURIEN et M. FABIUS en Corée, avril 1985 ; M. CHEN DOO HWAN, avril 1986)		
철 관리번호	PZA0008002	생산기간	1986
기록물 건수/매수	50건/266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1986년 4월 15일 예정된 회담에 대해 양국 장관은 최근의 협력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하는 한편 프랑스는 상업, 산업적 보상 없이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한국 측에 해석되는 것을 경계함.
- ✦ 한국은 미국이 거절한 기술이전을 프랑스에 요청하고자 했고 프랑스는 그동안의 협력성가에 만족하면서도 프랑스 이익에 반하는 기술이전, 상호산업이익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약속을 경계함.
- ✦ 프랑스는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했고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점을 보여줌.
- ✦ 한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정치 관계에 대해 정리함.
- ✦ 전두환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한 프랑스 측의 분석
- ✦ 전두환 대통령을 따라 프랑스에 방문한 한국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정보
- ✦ 한국의 간략한 역사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소개
- ✦ 한국의 권위적 정치체제와 1985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필리핀과의 비교
- ✦ 한국의 억압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한 언급
- ✦ 한국의 경제 상황과 외부와 내부의 제약들, 경제자유화와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 ✦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외교의 다각화를 추진 중임을 언급함.
- ✦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한 언급,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유화적 태도를 한국이 경계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었음을 언급함.
- ✦ 프랑스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대한 분석

- ✦ 한국에서 프랑스 브랜드에 대해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제품들에 대한 우려
- ✦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 계획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 프랑스 측은 전두환의 방문과 관련해 원자력 분야에서 프랑스가 이 같은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자 함.
- ✦ 우주항공,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텔레커뮤니케이션, 교통, 해상교역 등과 관련한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분석
- ✦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교류 확대에 대한 분석
- ✦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분석

㉑ 수록 기록물명

- 3.1.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es Bordereau d'envoi collectif (대외관계부 단체 우편 명세서)
- 3.2. En vue de l'entretien de M. Devaquet avec son homologue coréen (le 14 ou le 15 avril) (1986년 4월 14~15일 파리, 드바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회담을 위한 보고서)
- 3.3.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nologue coréen (연구기술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 준비)
- 3.4. Note de synthèse au sujet d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u Président Chun Doo-Hwan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차례)
- 3.5. Note de synthèse au sujet d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u Président Chun Doo-Hwan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
- 3.6. Liste de la délégation officielle et programm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e son Excellence. Monsieu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 Corée et de Madame Chun (공식 대표단의 명단과 프로그램. 한국 대통령 내외의 프랑스 공식방문 (1986년 4월14~16일))
- 3.7. Programme particulier de Madame Chun (한국 영부인의 단독 일정)
- 3.8. Personnalites Accompagnant son Excellence Monsieu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 Corée et Madame Chun (전두환 대통령 내외 수행원 명단)
- 3.9. Fiche signalétique sur la Corée du Sud (한국에 관한 간략 소개)
- 3.10. Liste du Gouvernement coréen (한국 내각 명단)
- 3.11. Portrait du president Chun Doo-Hwan et de Madame Chun Doo-Hwan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인물소개)
- 3.12. Biographies (약력)
- 3.13. La Corée et les Coréens (한국과 한국인)
- 3.14. I .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Situation politique en Corée du sud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의 정치상황)
- 3.15. I .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Evaluation de la situation interieure en Corée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 국내상황에 대한 평가)
- 3.16. I .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Droits de l'homme en Corée du sud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에서의 인권)

- 3.17. II. Situation économique Situation et perspectives économ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I.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 3.18. Les grand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xtérieure coréenne (한국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
- 3.19.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Relations politiqu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관계)
- 3.20.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Chronologie des relations bilatérales franco—coréens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한불 관계 연혁)
- 3.21.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Accréditation d'officiers de liaison français auprès du Commandement des Nations—Unies en Corée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유엔사령부로 프랑스 연락장교 파견)
- 3.22.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 Note générale, — Chronologie, — Accréditation d'officiers de liaison français auprès du Commandement de Nations—Unies Relations militaires avec la Republique de Corée(hore armement)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 전반적 상황, — 한불 관계 연혁, — 유엔사령부에의 프랑스 연락장교 파견 한국과의 군사관계 (군수품제외))
- 3.23. VIII.A.2. Centenaire des relations franco—coréennes (VIII.A.2. 한불수교 100주년)
- 3.24. VIII.A.3.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Nord (VIII.A.3.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
- 3.25. VIII.B. Relations bilatérales économiques VIII.B.1. Notes de synthèse de la D.R.E.E. et du Ministère de l'Industrie Note de synthèse sur les relations économique et commerciales entre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Corée (VIII.B. 한불 양국 경제관계 VIII.B.1. 대외경제관계국과 산업부의 종합보고서 한불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종합보고서)
- 3.26. Relations industriell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Visite à Paris du Président de la Republique de Corée (한불 산업관계.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1986년 4월 14~16일))
- 3.27.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Note générale (VIII.B.2. 상업 교류 : 전반적 상황에 관한 보고서)
- 3.28.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Note sur les Divergences statistiques dans les échanges franco—coréens (VIII.B.2. 상업 교류 : 한불 교역 통계 상이성에 관한 보고서)
- 3.29.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Principaux projets suivis par les entreprises françaises en Republique de Corée (VIII.B.2. 상업 교류 : 한국 내 프랑스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 3.30. VIII.B.3. Politique de crédit Politique de crédit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3. 신용 정책 한국에 대한 신용 정책)
- 3.31. VIII.B.3. Politique de crédit Note — Politique de crédit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3. 신용 정책 보고서—한국에 대한 신용 정책)
- 3.32. VIII.B.4. Politique de l'importation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Note—Politique de l'importation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4. 한국에 대한 수입정책 보고서—한국에 대한 수입정책)
- 3.33. VIII.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Actions de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 Sud, mises en oeuvre par le Ministère de la Coopération (Ⅷ.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협력부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과의 협력활동)
- 3.34. Ⅷ.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Note pour monsieur le directeur des politiques et des programmes de development (Ⅷ.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개발정책국 프로그램 국장을 위한 보고서)
- 3.35. Ⅷ.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Note—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Ⅷ.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한불 중소기업협력에 관한 보고서)
- 3.36. Ⅷ.B.6. Contrefaçons Concurrence déloyale. Cas de contrefaçons en Corée (Ⅷ.B.6. 불법복제 한국에서의 불법복제 사례)
- 3.37. Ⅷ.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nucléaire (Ⅷ.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에 대한 보고서)
- 3.38. Ⅷ.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Projet de centrales nucléaire 11 et 12/ Corée du sud (Ⅷ.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
- 3.39. Ⅷ.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Entretie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vec le président coréen. Questions nucléaires (Ⅷ.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한불 정상 회담. 원자력 문제)
- 3.40. Ⅷ.B.8. Coopération spatiale (Ⅷ.B.8. 우주항공 협력)
- 3.41. Ⅷ.B.9. Relations dans le domaine énergétique et géologique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énergétique et géologique (Ⅷ.B.9. 에너지와 지질 영역에서의 관계 에너지와 지질 영역에서의 한불 관계)
- 3.42. Ⅷ.B.10. Télécommunications Relations franco—coréennes en matiere de télécommunications (Ⅷ.B.10.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한불관계)
- 3.43. Ⅷ.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Visite du président Coréen en France(14—16 avril)—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France—Corée (Ⅷ.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4월 14~16일)—양국 해양 사안)
- 3.44. Ⅷ.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 pour la direction d'Asie—Océanie—Visite en France de M. Chun Doo—Hwan—Questions aéronautiques (Ⅷ.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보고서—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항공 사안)
- 3.45. Ⅷ.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 pour la direction d'Asie—Océanie—Visi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u Sud—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Ⅷ.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보고서—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도시 및 철도 교통)
- 3.46. Ⅷ.B.12.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d'armement (Ⅷ.B.12. 군수품(軍備) 분야에서의 협력 군수품(軍備)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 3.47. Ⅷ.B.12.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Corée—Coopération matière d'armement (Ⅷ.B.12. 군

수품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군수품 분야의 협력)

- 3.48.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Les relations culturelles franco-coréennes (IX. 문화, 과학 기술 한불문화관계)
- 3.49.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IX. 문화, 과학기술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 3.50.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mologue coréen (IX. 문화, 과학, 기술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회담 준비)

📁 수록 건 기록물 내용

3.1.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es Bordereau d'envoi collectif (대외관계부 단체 우편 명세서)

생산일자: 19860408
페이지: 1~2

우편 명세서

- 1986년 4월 14~15일 파리, 드바케(Devaquet)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담
- 3월 20일 보고서에 뒤이은 과학기술협력국 보고서 N° 491
- 준비모임 보고서

3.2. En vue de l'entretien de M. Devaquet avec son homologue coréen (le 14 ou le 15 avril) (1986년 4월 14~15일 파리, 드바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회담을 위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408
페이지: 3~5

- 4월 15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과학기술협력, 특히 중소기업차원의 기술이전, 원자력에너지, 경영/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발전에 대한 만족을 피력할 수 있음.
- 드바케 장관은 상호 산업이익이 뚜렷한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음.
- 박사 후 과정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프랑스 연수에서 고의적이지 않은 기술지식 누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함.
- 양국 협력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효율적인 분산을 피하기 위해 1965년 문화기술협력협약에 의해 창설된 한불합동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할 수 있음.
- 프랑스기업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활동 분야에서 상업적 혹은 산업적 보상이 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한국 측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선언은 하지 않아야 함.

3.3.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mologue coréen (연구기술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 준비)

생산일자: 19860320

페이지: 6~8

- 4월 14일에서 16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의 회담이 열릴 것임. 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처 박흥일 양자협력국장이 4월 17일과 18일에 프랑스에 왔음.
- 주불 한국대사관의 2등서기관과 동행한 박흥일 국장은 로로(Laureau) 과학기술협력국 국장이 맞이했음. 이 자리에 연구기술부(MRT)와 협력개발(CODEV) 대표들이 함께 참석함. 과학자들의 연수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기술부, 협력개발, 교육부(MEN)가 사전 조율 회의를 가졌음.
- 과학기술협력국 로로 국장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불합동위원회의 틀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음. 가을에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는 양국 장관의 회담에서 새로운 협력의 축을 결정할 수 있음. 한국은 미국이 거절한 기술이전에 대한 요청을 하고자 함.
- 양국 장관은 중소기업과 에너지라는 선도적 영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협력 성과에 대한 만족 피력
- 회담의 핵심이 될 박사후과정 과학자들의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협력국은 관련 산업 협력협약의 틀 안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음. 원자력에너지, 원격탐사, 해양자원개발 분야에서 가능함.
- 유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정밀화학 등의 다른 영역에서는 프랑스 이익에 반하는 기술이전을 피하기 위해 아주 신중해야 함. 연수는 명확한 상업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대통령 공식 방문 시, 양국의 상호 산업이익이 분명하게 파악된 영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서라도 약속을 하면 안됨.

3.4. Note de synthèse au sujet d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u Président Chun Doo-Hwan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차례)

생산일자: 19860402

페이지: 9~9

종합보고서 차례

- 그는 누구인가?
- 한국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국은 “필리핀 신드롬”에 걸렸는가?
- 한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 I. 정치문제
 - II. 경제문제
 - III. 문화, 과학, 기술 관계

3.5. Note de synthèse au sujet d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u Président Chun Doo-Hwan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19860402

페이지: 10~28

그는 누구인가?

전두환 대통령은 55세, 군인 출신. 전쟁 경험과 한국 상황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북한에 대한 불신 등을 갖고 있음.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까닭에 눈부신 경제발전, 국제적 인정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음. 유럽 및 프랑스 공식방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한국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국은 “필리핀 신드롬”에 걸렸는가?

-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들로 인해 해외에서는 한국이 필리핀처럼 될 것인지 관찰하고 있음.
- 이 상황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상세 분석

(유사점)

- 가족, 친족 우선 사회
- 권위적이고 인기 없는 대통령
- 정치시스템이 형편없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여론
- 공산주의 위협
- 미국의 영향이 상당함, 미군 주둔

(큰 차이점)

-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이 더 강함. 한국은 35년 동안의 “전체주의적 식민주의”를 겪은 반면, 필리핀은 50년 동안 미국 행정 아래 있었음.
- 공산주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지향
- 한국 정부는 사회에 대해 효과적인, 더 나아가 과격한 통제 가능
-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례적이고(1962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9.7%), 1986년 7%를 전망함. 빈부 격차가 필리핀만큼 크지 않음.
-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지만,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머물고자 함.
- 한국 야당은 아주 분열되어 있음.
- 필리핀에서 가톨릭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 한국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있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인구의 25%에 지나지 않음.
- 전두환 대통령을 향한 군부의 충성심이 무너지지 않았음.
- 필리핀 선거 조작과 같은 “촉발제”로서의 중요 사건이 없었음.
- 미국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한 새로운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미국이 전두환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것임.

한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외교관계의 확대: 북한이 소련과 동구유럽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에 따라 한국은 서구유럽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됨.
- 경제적 차원: 유럽과의 교역 확대, 첨단기술, 연구,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유럽과의 관계 발전 강화
- 남북 관계: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려할 때, 한국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1985년 4월, 프랑스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우려 불식이 필요했음.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프랑스 계획을 알고자 할 수 있음.
- 프랑스 방문 일정: 전형적이고 의례적임.
- 최고위 회담: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프랑스 총리와의 회담. 김만제 부총리와 발라뒤르(Balladur) 장관,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 장-베르나르 레몽(Jean-Bernard Raimond) 장관, 김진호 상공부 장관과 마들랭(Madelin) 장관, 누아르(Noir) 장관,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과 드바케(Devaquet) 장관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1) 정치문제

- (1) 국제상황: 동서관계, 동북아시아 상황, 태평양 지역 협력
- (2) 한반도 상황: 안보문제, 남북대화, 올림픽
- (3) 한불수호통상조약 100주년 이벤트

2) 경제문제

| 양자간 경제문제 |

- (1) 프랑스는 한국을 중요한 경제상대국으로 여김. 한국도 프랑스를 중요한 국가로 여김.
- (2) 양국 교역은 여전히 미미하고 불균형이지만, 3년 전부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
- (3) 한불 경제관계의 강화가 몇몇 장애에 부딪침. 섬유 등처럼 몇몇 한국제품에 대한 프랑스의 수입제한, 한국이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1986년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최근 수입된 설비를 실행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의 역량, 치열한 국제경쟁 등이 장애임.

(4) 전망

- 대규모 계약에서의 전망: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 9호기와 10호기 계약을 들 수 있음.
- 장기적 전망에서의 계약: 원자력발전 11호기와 12호기 공개입찰에 프랑스기업들이 응하였음.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발전에 있어 프랑스의 경험, 양국 간에 이루어진 협력,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
- 서울-부산 연결 프로젝트(고속철도 TGV)
- 산업협력: 한불 중소기업협력, 제3국가에 대한 협력, 프랑스 투자 증진

| 다자간 경제문제 |

전두환 대통령은 G7에 속해 있는 프랑스와 다자간 국제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을 위한 지지를 얻기 원함.

- (1) 다자간섬유협정
- (2) 다자간무역협상(NCM, Negotiations Commerciales Multilaterales)
- (3) 일반특혜관세제도(Système des préférences généralisées)

(4) 부채 : 한국은 세계 4위 (1985년 460억 달러)

3) 문화, 과학, 기술 관계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는 한국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위치를 점했음. 한국에서 영어가 제1외국어이지만, 프랑스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파리의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 통역번역대학원(ESIT), 파리 7대학, 리옹3대학에서 한국어 강의. 외국 예술 중에서 프랑스 예술의 존재감이 가장 강함. 과학 분야에서 양국 중소산업 차원의 기술이전 프로젝트, 에너지경제 프로젝트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할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해당 장관 사이의 회담에서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박사후과정 연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임.

3.6. Liste de la délégation officielle et programme. Visite Officielle en France de son Excellence. Monsieu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 Corée et de Madame Chun (공식 대표단의 명단과 프로그램. 한국 대통령 내외의 프랑스 공식방문 (1986년 4월 14~16일))

생산일자: 19860403

페이지: 29~32

4/14 11시 파리 오를리 공항 도착/15시 엘리제궁 대통령 정상회담/20시 프랑스 총리 주최 만찬

4/15 11시 파리 시청 방문/13시 프랑스 대통령 부부 주최 오찬/19시 30분 한인단체와 만찬

4/16 10시 10분 공항에서 귀국

3.7. Programme particulier de Madame Chun (한국 영부인의 단독 일정)

생산일자: 19860401

페이지: 33~33

4/14 16:30-17:00 프랑스의 한국인 교사와의 만남

4/15 15:30-16:30 Jeu de Paume 미술관 방문/16:35-16:55 한국 전통 공예품 전시회 방문

3.8. Personnalites Accompagnant son Excellence Monsieu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 Corée et Madame Chun (전두환 대통령 내외 수행원 명단)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34~39

각료 16명 명단. 기업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현대그룹 정주영, 현대자동차 정세영, 대한항공 조중훈, 포항제철 박태준 등이 포함). 1984년 기준 기업 순위와 매출액에 따른 한국기업이 정리되어 있음.

3.9. Fiche signalétique sur la Corée du Sud (한국에 관한 간략 소개)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40~43

- I. 일반 정보 (한국 면적, 인구, 수도, 화폐단위, 회계연도)
- II. 정치 정보 (대통령, 정체, 총리, 외무부장관, 주요 정당, 군대)
- III. 주요 경제 지표
 - A) 인구: 밀도, 증가율, 출산율, 사망률, 평균수명, 경제활동인구
구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실업률
 - B) 국내 경제지표
 - 1983년에서 1985년까지의 국민총생산, 일인당 국민총생산, 국민총생산에서 농업(13.9%), 제조업(29%), 서비스업(57%)의 비율
 - 국민총생산: 성장률, 농업성장률, 제조업 성장률, 투자율, 물가상승률
 - 1985년 예산
 - C) 대외경제지표
 - 수출, 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주요 수입품(1차제품, 공작기계), 주요 수출품(전자, 섬유, 자동차, 산업설비, 선박, 금속), 주요 수출국(미국, 일본, 홍콩), 주요 수입국(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외환보유고, 부채
- IV. 프랑스와의 관계
 - A) 무역관계
 - 프랑스: 13번째 수입국이자 수출국
 -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 제조품, 소비품, 농산물
 - 프랑스의 주요 수입품: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소비재
 - 대프랑스 수출, 수입, 커버율
 - B) 정치관계
 - 주한 프랑스대사 우브리외(Ouvrieu, 1985년 7월)
 - 주불 대한민국대사 윤억섭(1985년 7월)
 - 방한/방불: 1984년 금진호 상공부 장관(6월), 이원경 외무부 장관(7월), 1985년 로랑 파비우스 총리(4월 7~9일), 크레송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퀴리앙 연구기술부 장관, 칼마 청소년·체육부 장관 동행

3.10. Liste du Gouvernement coréen (한국 내각 명단)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44~45

한국 내각(총리 노신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김만제, 장관 명단, 외무부 장관 김만제 등)

3.11. Portrait du president Chun Doo-Hwan et de Madame Chun Doo-Hwan (전두환 대통령 과 영부인 인물소개)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46~50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물소개

- 단순하고 소심한 듯한 인상을 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자신의 의견을 단순 명확하고 신중하게 표현함.
-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출신으로, 55세의 나이에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호함. 농촌 방문을 자주하는 편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나라를 현대화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뿌리 깊은 민족주의자임.
- 25년 동안 군인으로 지냈지만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당시 육군 사관생도였고, 1970년 육군 제9보병사단 제29보병연대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음. 이 참전에서 국가전복, 미군철수,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합병에 대한 기억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음. 북한과의 대화만이 긴장완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음.
- 이전까지 한국의 정권교체가 단절과 폭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1988년 헌법의 틀 안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전망
- 믿음만한 측근들을 주변에 둘 줄 아는 인물이며,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함. 국가기관과 여당에 대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군부의 신임을 받고 있음.
- 가족을 중시하며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최근 할아버지가 되었음. 영부인을 항상 대동함.
- 한국에 대한 자신의 야망 찬 비전을 실현하려는 결의가 있음. 사람을 끄는 매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메시지와 확신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쉽지 않음.

영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인물 소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지만 1988년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영부인의 낮은 인기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음.

3.12. Biographies (약력)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51~56

장관 약력 (주한 프랑스대사관 작성)

-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약력(52쪽)
- 이원경 외무부 장관 인물소개(53쪽)
- 금진호 상공부 장관 약력(54쪽)
-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 약력(55쪽)
- 윤억섭 주불 한국대사(56쪽)

3.13. La Corée et les Coréens (한국과 한국인)

생산일자: 19860321

페이지: 57~62

한국, 한국인, 세계에 관한 보고서

1) 존립의 어려움

단군신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으며, 일본에 의해 합병됨.

2) 변화

수 세기 동안 한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은둔국가”였음. 한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문화를 개방했음. 즉, 일본 문화, 일본어를 금지하면서 일본의 경제발전, 올림픽 개최 등의 궤적을 밟아가고자 함. 한국 사회의 서구화는 “피상적”일 뿐이며, 유교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1960년 1인당 국민총생산 160달러에서 1986년 1,900달러로 증가할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구조 덕분일 수 있음. 계획경제에 기반한 까닭에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룸. 이 경제구조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짧은 휴가 기간, 여성의 저임금, 하청업체의 저소득이라는 제약을 가져옴.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외국에서 도입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한국적임. 세계 최고의 반공국가로서 정권이 위협을 받을 때 정권 보호를 위해 반공정신이 활용되기도 함. 권위 개념이 민주주의 개념보다 한국에 더 맞아 보임. 야당이 존재하지만 “정권을 쥔 기존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정계가 움직임. 한국사회는 일본에 비해 서구사회와 여전히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임. 9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에 좀 더 알려질 것이라고 예상. 현대, 대우 등과 같은 대기업의 이름은 이미 서구사회에 잘 알려져 있음.

3.14. I .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Situation politique en Corée du sud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의 정치상황)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63~69

1) 권위적 정치체제

1980년 군부 쿠데타로 전두환은 대통령에 오르고,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보장하고 모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함.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임. 야당 정치인들은 반대 의견 표명 시 체포, 가택연금을 당하게 됨. 한국은 독재정권은 아니지만 권위적,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퇴임을 약속했음.

2) 경제적, 외교적 정당성

1986년 7~8% 경제성장률, 잘 관리되고 있는 공공부채, 생활수준 향상, 구매력 증가 등과 경제적 성공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자 했고, 야권도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 1988년 올림픽 개최, 전두환 대통령의 해외 공식방문 등을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외교적 성취가 있었음. 이 같은 경제적, 외교적 성취로 인해, 정치적으로 완화 정책을 잠시 펼침. 대표적인 야권 인물 김대중이 한국으로 돌아옴.

3) 1985년 이후 새로운 상황

1985년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이 있었음. 야당은 1989년 대통령 선거를 직접선거제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하고자 함. 야권은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국내외 지지를 받는 정치적 리더가 있다는 이점을 가짐. 하지만 야당은 신생조직이고, 과격 학생운동 단체와의 관계, 북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약점으로 가짐. 여권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시점에 대통령 선거제에 관한 개헌을 하고자 함.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짐.

필리핀과의 다른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침. 야당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여당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함.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키고자 하지 않음.

3.15. I .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Evaluation de la situation interieure en Corée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 국내상황에 대한 평가)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70~77

1985년 2월 이후, 대통령 선거제도 변경이 여당과 야당 사이의 쟁점임.

- 1) 신한민주당(NKDP)은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경이 없다면, 후보를 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다고 봄. 대통령 선거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야당 후보가 승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음. 야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를 내세우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음.
- 2) 대통령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은 정치권에 한정되어 있음.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대통령 직접선거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안정에 대한 필요성도 갖고 있음.
- 3) 신한민주당은 1985년 말에 민주제 개헌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함. 현재로서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4) 신한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위해 가톨릭교계, 개신교계, 미국언론과 같은 외부 수단을 동원할 줄 앎. 이 서명운동 자체가 정권에 압력수단이 됨.
- 5) 정권은 학생 데모의 과격화와 해외언론 보도에 나갈 만한 사건을 피하고자 함.
- 6) 신한민주당 내부의 강경파, 소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에서 나온 신보수회 계열 등 야권은 대통령 선거제도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고,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갈등을 이용하고자 함.
- 7) 신한민주당은 민주화, 특히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모인 당이며,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있음. 현재 김대중과 그 지지파가 가장 유력함. 전두환 대통령은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군부는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정치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북한의 태도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변수로 고려해야 함.
- 8) 필리핀의 민주화 혁명은 필리핀과 한국의 상이성으로 인해 한국에 모델이 되지 않을 것임. 김대중 계파는 필리핀 민주화 혁명을 참고하여 시위, 도발, 가톨릭계 등을 서명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정권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김.

3.16. I. Situation politique. Droits de l'Homme Droits de l'homme en Corée du sud (I . 정치 상황. 인권 한국에서의 인권)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78~83

한국을 정치적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으려는 정치지도자들의 야망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은 세계 중위권임. 법치국가이지만 실제로 권위주의적 체제임. 1980년 10월 22일 헌법은 중요한 자유와 인권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인권 상황은 강력한 유교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전두환 정권은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찾자 함. 신한민주당의 움직임에 맞서, 정권은 타협을 버리고 강경책으로 돌아섬. 정권과 야권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은 대통령 선거방식에서 드러남.

정권은 현재 헌법의 대통령 선거제에 의거해 평화적 정권 이양을 고집하고 있고, 야권은 1975년 때 폐기된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음. 1,000만 명 서명운동으로 인해 신한민주당과 민주협 당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신정당 지도부가 가택 연금됨. 김대중의 연금은 아마도 미국의 요청으로 철회됨.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가 다가옴에 따라 국가 이미지를 위해 정권과 야권 모두 어느 정도까지 자제할 것으로 보임. 모든 한국인들은 민주적 전통의 확립이 국가적 목표라고 여김.

3.17. II. Situation économique Situation et perspectives économ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I.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84~88

국민총생산의 고성장 시대 후, 1980년은 성장이 단절된 기간이었음. 오일쇼크, 농산물 수확량 감소, 국내 정치적 불안이 성공적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음. 이후 한국 정부는 재정적 불균형의 점진적 해소와 공업국으로의 완전한 변신을 목표로 하는 조정정책을 실시함.

1)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제약들

(1) 외부 제약들

무역에서의 제약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경제성장을 저하, 보호주의 압력, 보호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불안한 요소들임.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 적자는 1984년보다 줄었음. 재정에서의 제약을 보면, 한국은 아직 대외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범주의 경계에 있으며, 1985년 경상수지는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음.

(2) 내부 제약들

실업률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 6%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지만, 1985년 경제성장률은 5.1%에 그침. 1985년 한국 실업률은 전년보다 0.2% 상승한 4%임. 한국 정부는 실업률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함.

2)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타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국 정부의 조정정책

(1) 경제 자유화

수입자유화, 재벌에 대한 규제, 금융시스템 개혁, 외국인 투자 개방 등의 정책은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 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2) 산업 정책

한국산업의 주체에 관련하여 재벌이 핵심이었으나 공공부채 감소의 필요성,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도산, 재벌들의 재정 양자관계와 관련 부서 등이 거시경제 논리와 맞지 않고, 산업 조직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산업 정책을 재고함. 한국산업계는 전통적 생산(섬유, 구두)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경쟁해야 하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분야(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기술이전과 제품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국제금융기관들은 한국을 신뢰하고 있음. 한국의 경제실적이 비교적 개선되고, 김만제 장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된 1986년 1월의 내각 개편이 호재로 여겨짐.

**3.18. Les grand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xtérieure coréenne
(한국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89~98

한국은 이전과 달리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돌아섬. 현재 북한은 100개국과, 한국은 12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첨부 참조).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제3세계, 북부유럽, 유럽 중립국, 동부유럽과도 외교관계 확립을 추구하면서 외교관계의 다각화를 추진함.

1) 필요에 의한 미국,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

- (1) 미국 : 안보에 대한 한국의 우려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함. “한미연합군”의 틀 안에서 미군기지가 있음.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임.
- (2) 일본 : 식민지 역사로 인해 일본은 거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따라야 할 모델이기도 함. 나카소네 수상 때부터 양국 관계가 상당히 호전됨. 일본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안함.

2) 목표: 국제적 위상 확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성공과 유엔 가입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동부유럽을 향해 개방 노선을 취하기로 함.

(1) 북한과의 경쟁

제3세계는 북한과의 외교 경쟁의 무대가 집중된 곳임. 경제 차원에서 해외 시장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제3세계 몇몇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확립했음. 유럽의 경우,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함. 유럽경제공동체는 무시할 수 없는 해외시장이자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국가들임. 이런 맥락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유럽 순방 예정(1986년 4월 8일~18일)

(2) 동구권 국가들을 향한 개방

서울 올림픽에 동구권 국가들의 불참과 한국 유엔 가입에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로, 동구권 국가들을 향해 개방 노선을 취함.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북방정책”을 추구한 것임.

가. 중국

중국은 한국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함.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의 간접적 교류가 확대될 것임.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스포츠 차원에서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밝힘.

나. 소련

소련은 “미국-일본-한국”의 축과 미군의 한국 주둔을 강하게 비난함. 서울올림픽 참가 불확실함.

※ 첨부 :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 명단 (97쪽)

※ 첨부 :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 명단 (98쪽)

(〈첨부〉에서 별표가 표시된 국가들은 한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임)

3.19.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Relations politiqu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관계)

생산일자: 19860325

페이지: 99~105

1) 중요한 파트너

한국에 있어 프랑스는 외교관계 다각화를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의 위상, 기술이전, 국제 회담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프랑수아-퐁세(François-Poncet)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1981년 방한, 노신영 한국 외교부 장관의 1982년 프랑스 방문, 셰송(Cheyssou) 프랑스 대외관계부 장관의 1982년 방한, 크레포(Crépeau) 상업수공업관광부 장관의 랑군 테러 희생자들 장례식 참석 등은 프랑스가 한국에 관심을 표명한 것임.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는 1983년 산업·연구부 장관으로, 1985년 총리로 방한했으며, 이 방한은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불관계에 전환점이 됨.

2) 긴장의 이유 :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한불 관계는 북한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반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 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함.

3.20.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Chronologie des relations bilatérales franco-coréens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한불 관계 연혁)

생산일자: 149860328

페이지: 106~109

한불 관계 주요 연혁 소개

1886년 프랑스 선교사 처형

-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 1887년 프랑스 최초 공사 서울 도착
- 1950년 프랑스군 한국전쟁 참전
- 1965년 한불 문화 교류 협정 체결

3.21.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Accréditation d'officiers de liaison français auprès du Commandement des Nations-Unies en Corée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유엔사령부로 프랑스 연락장교 파견)

생산일자: 19860401
 페이지: 110~111

주한 유엔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에 창설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참모부를 두고, 프랑스를 포함한 6개국의 연락장교를 두었음. 프랑스는 유엔사령부에 부대를 파견했고 1965년에 철수했으며, 1965년부터 1978년까지 도쿄에 파견된 국방무관이 유엔사령부 연락장교였음. 1985년 유엔사령부에 국방무관을 다시 파견했지만 유엔사령부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방무관은 정보 업무를 담당함. 프랑스는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 제3390호(B)가 타당하다고 평가함.

3.22. VIII.A. Relations bilatérales politique VIII.A.1. Relations politiques. – Note générale, – Chronologie, – Accréditation d'officiers de liaison français auprès du Commandement de Nations-Unies Relations militaires avec la République de Corée(hore armement) (VIII.A. 한불 양국 정치관계 VIII.A.1. 정치관계. – 전반적 상황, – 한불 관계 연혁, – 유엔사령부에서의 프랑스 연락장교 파견 한국과의 군사관계 (군수품 제외))

생산일자: 19860325
 페이지: 112~117

1977년부터 서울에 프랑스 국방무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음. 프랑스 사관학교에 한국 연수생들을 파견하고, 많은 한국 주요 인물들과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것이 핵심임. 양국을 대표하는 군인 명단, 양국 고위 군부의 상호방문, 양국 상호교류 연수 프로그램, 육해공군의 양국 교류, 주한 유엔사령부에 대한 프랑스 담당관 파견에 관한 것임.

3.23. VIII.A.2. Centenaire des relations franco-coréennes (VIII.A.2. 한불수교 100주년)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118~124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맺은 한국과 프랑스는 1986년 6월 4일 외교관계수립 100주년이 됨. 1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관련 다양한 행사가 양국에서 진행될 예정임.

- 1) 정치: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

- 2) 경제: 기업인들을 위한 한불 세미나의 서울 개최. 목표는 중기적 관점에서 한불 경제무역 협력의 쟁점 파악
- 3) 문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방한, 에스파스 카르딩(Espace Cardin)에서 한복 전시회가 예정되어있음. 이 외에도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될 것임.
- 4) 과학: 로봇공학 관련 첨단기술에 관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첨단산업에서의 한불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를 드러낼 것임. 군사 및 정보 영역에서도 교류가 있을 것임. 상징적 차원에서, 서울시와 파리는 각각 한 곳에 서로의 도시명을 붙이기로 함.

※ 첨부1. 한불외교관계 기념 프랑스 행사들 (121~122쪽)

※ 첨부2.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한국 행사들 (123쪽)

※ 첨부3. 후원 위원회 (124쪽)

3.24. VIII.A.3.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Nord (VIII.A.3.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

생산일자: 19860326

페이지: 125~131

1) 정치 관계

- 1968년, 파리 주재 “북한무역발전상주대표부(Représentation permanente du Comité Coréen pour le Développement du Commerce International)”를 설립하였음.
- 1972년, 프랑스대외무역센터(CFCE, Centre français du commerce extérieur)와만 관계가 있던 파리 주재 민간무역대표부는 프랑스 대외경제관계국(DREE)과 접촉할 수 있게 됨.
- 1979년, “북한민간무역대표부(Représentation commerci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로 명칭 변경
- 1981년, 마슈페 프랑스 상원의원이 특사로 남한과 북한을 차례로 방문하여 프랑스 정부에 신중한 관계를 권고함.
- 1982년, 프랑수아 드 그로수브르(François de Grossouvre)를 프랑스 정부 특사로 평양에 파견함.
- 1982년, 1983년, 1984년, 북한 차관들(무역, 문화, 외무)의 프랑스 방문이 있었음.
- 1984년, “북한총대표부(Délégation Générale)”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위상의 변화는 없었음.

2) 경제 관계

- 북한과 프랑스의 무역·경제 관계는 아주 작은 규모임. 1985년 기준으로 북한과의 무역교류는 1억 7백5십만 프랑이며, 한국과의 무역 교류는 81억 9천2백만 프랑임. 대북 수출은 작년에 40% 감소됨. 북한은 프랑스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했음. 캉프농-베르나르社は 평양 호텔 건축 계약을 부인함.

3) 문화 관계

- 문화교류는 과거에 제한적이었음.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 국장의 1984년 평양 방문 때의 회담록에는 전시회, 예술순회공연,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프랑스 유학 등의 프로그램 진행이 명시되어 있음. 4월 하반기에 조볼우호통상조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몇몇 행사 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북한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임.

- ※ 첨부1. 프랑스와 북한의 상호방문 연혁 (129쪽)
- ※ 첨부2.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연혁 (130쪽)
- ※ 첨부3. 양국 정당 차원의 교류 연혁 (131쪽)

3.25. VIII.B. Relations bilatérales économiques VIII.B.1. Notes de synthèse de la D.R.E.E. et du Ministère de l'Industrie Note de synthèse sur les relations économique et commerciales entre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Corée (VIII.B. 한불 양국 경제관계 VIII.B.1. 대외경제관계국과 산업부의 종합보고서 한불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32~142

- 1) 한불 경제무역 교류는 세계경제에서 양국의 중요도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에 따라 부침이 있는 상황임.
 - (1) 한불 무역교류는 규모가 작지만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프랑스 수출 대상국 중에서 31위이며, 프랑스 수입 대상국 중에서 36위일 뿐임.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무역적자였지만, 1985년에 흑자로 돌아섬.
 - (2) 한국 시장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이 충분하지 않음. 프랑스는 한국과 몇몇 주요 계약만을 했으며, 한국에 대한 프랑스 투자규모는 외국 투자 총액의 1.7%에 그침.
- 2) 필수적이지만 어려운 한불 경제관계의 발전
 - (1) 프랑스 무역의 목표국가인 한국

한국은 1980년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 4위의 부채국가이지만 경제성장률, 경상수지에서 적자 감소 등과 경제 실적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짐. 한국시장은 경제 자유화를 통해 점차 개방되고 있음. 한국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중동 등과 같은 해외 시장을 향해 점차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3세계에서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현실적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
 - (2) 어려운 협력 진행

한불 경제관계 강화는 프랑스 대북 노선에 대한 한국의 불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1985년 4월 이후로 다른 새로운 어려움은 없었으며 지체되고 있던 계약들도 체결되었음.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양국 정치관계의 개선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 제품에 대한 프랑스의 수입 제한이 양국 갈등의 또 다른 원천임. 한국 측은 다자간섬유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섬유제품의 수입제한, 그리고 전자제품과 같은 다른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으로 인해 프랑스를 비난함.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한국 시장은 한국기업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 3) 한불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탐색

프랑스는 대형 계약 외에도 한국과의 무역을 다각화하고 심화시킬 필요 있음. 원자력발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 11호기와 12호기 공개입찰에 프랑스의 참여, 경부선 고속철도 등과 같은 대형 계약들이 있음. 이제 한국은 프랑스 무역관계에서 단지 고객이 아니라 상대국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보완적 관계

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해야 함. 즉,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 제3세계에서의 협력, 프랑스의 투자와 무역수지 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함.

결론적으로 (1) 프랑스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놀라고 있으며 20세기 말 세계 경제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한국 측에 강조해야 함. (2) 한불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프랑스는 기술이전, 재정에서의 더 개방된 정책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려야 함.

3.26. Relations industriell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Visite à Pari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불 산업관계.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1986년 4월 14~16일))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143~148

한불 산업 관계는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초라한 상황임. 프랑스기업들은 기술이전, 연수프로그램, 한국에서의 프로젝트 협력 등을 산업 협력을 하고 있으며 주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검토되고 있음. 한국은 한국제품의 프랑스 수출 조건, 다자간섬유협정(Arrangement Multifibre, AMF) 갱신, 일반특혜관세제도(Système de Préférences Généralisées) 개정에 대해 언급할 것임.

1) 주요 협력 분야

(1) 원자력에너지

프랑스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건설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이루어짐.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공개입찰이 1985년 11월 초에 시작됨. 프라마통, 알스통 아틀랑틱(Alsthom Atlantique),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입찰에 참여함.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피력할 것. 프랑스가 기술이전에 관심이 있음을 언급할 필요 있음.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할 경우, 프랑스 SGN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사용후핵연료저장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음을 언급할 수 있음.

(2) 교통

미국의 루이스 버거(Louis Berger)사가 경부선 고속철도를 위해 아틀랑틱의 고속철도(TGV)가 수익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 일본의 신칸센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므로 프랑스 측의 완성도, 기술이전 의지, 한국 기업의 참여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 전철의 경우, 새로운 전철노선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과 자동경전철(VAL, Véhicule Automatique Léger)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

(3) 우주항공

우주항공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전망

(4) 제철분야

광양제철소는 3기 관련 공개입찰을 1987년 전에 진행할 것으로 추정됨. 프랑스기업들이 설비 제공에 관심이 있음을 알릴 수 있음. 에어리퀴드社만이 1기와 2기에 산소공장설비 주문을 획득했음을 언급할 수 있음.

2) 한국제품의 프랑스 수입 관련 문제들

(1) 다자간섬유협정의 갱신

한국은 1985년 다자간섬유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이 협정의 갱신에 반대하고 관세·무역에 관한 일

반 협정(GATT)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선두에 섰음. 유럽경제공동체는 자유무역으로 더 나아가는 협정에 찬성할 것임. 하지만 수출국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국들에 상이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공급국들”의 쿼터 변화는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프랑스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입장 뒤에 머물 수 있음. 유럽경제공동체는 무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 노력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힐 수 있음.

(2) 양적 제한

한국은 프랑스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역 II 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몇몇 제품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있음. 한국은 수입 할당량이 적은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항의하고 있음. 한국 측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면 프랑스의 산업과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적어도 전자제품 할당량은 더 증가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프랑스 측은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강조할 수 있음. 할당량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 관련 부서(대외경제관계국, 전자컴퓨터산업국(DIELI))에서 한국 측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할 수 있음.

(3) 일반특혜관세제도

한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 중의 하나였음. 한국의 수출 역동성을 감안하여, 유럽경제공동체 위원회는 1985년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음.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정을 통해 몇몇 다른 개발도상국(PVD,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을 위해 몇몇 제품에 대해 특혜금액을 낮추었음(50% 감소).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의 제외라는 극단적 조치보다 수위가 낮은 이 같은 조치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입장 덕분이었음.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문제를 한국 측이 언급할 때,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음.

(4) 비디오 관세 인상

1986년 1월 1일 유럽경제공동체는 비디오에 대한 관세를 8%에서 14%로 인상함. 한국은 이 조치를 상쇄시킬 보상이 없음을 항의했음. 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해상운송회사(CGM)에 의한 컨테이너선 구매

한국은 컨테이너선 건조에 대해 해상운송회사와 협상 중임. 이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경우, 이 사안은 해상운송회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국 측에 답할 수 있음.

3.27.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Note générale (VIII.B.2. 상업 교류 : 전반적 상황에 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24
페이지: 149~158

1) 한불 교역의 전반적 변화

한국에 대한 프랑스 무역흑자는 프랑스 측 통계에 의하면 1985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1984년부터 시작된 것임. 이 같은 무역흑자는 대형 계약 체결의 결과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이 같은 교역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에 대해 소규모 교역국임(한국은 프랑스 수입의 0.42%, 프랑스 수출의 0.47%을 차지함).

2) 한불 교역의 영역별 분석

(1) 수입

전체적으로 한국제품 수입량은 아주 작은 규모임. 그럼에도 한국제품 판매는 몇몇 영역에서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이 판매가 예민하다고 간주되는 몇몇 제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한국 수입품의 대부분은 소비재임(섬유, 의류, 신발, 가죽제품). 전문설비 수입도 급증하고 있음(정보처리장치, 반도체). 전자제품은 한국 수입품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수입 쿼터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훨씬 더 증가할 것임.

(2) 수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수출은 2년 전부터 상당히 증가했지만 몇몇 영역에 한정되어있음. 전문설비재 수출은 1983년에 비해 1985년에 132% 증가함(산업설비, 운반 및 토목 설비, 전기장치 등). 중간재는 평균 수출 증가율에 못 미침(금속가공제품, 화학제품). 소비재는 아주 낮은 증가율을 보임(제약품, 가죽제품, 신발). 농산물가공품은 1985년에 크게 감소했음.

결론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자제품의 판매 증가와 전통적 소비재 판매 등을 통해 증가함. 한국에 대한 수출은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있음. 산업제품과 농산물가공품의 수출 증가를 위해 무역과 산업에서의 진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 등과 같은 프랑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한국의 예민한 태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함.

※ 제품별 한불 교역 도표 (155~158쪽)

3.28.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Note sur les Divergences statistiques dans les échanges franco-coréens (VIII.B.2. 상업 교류 : 한불 교역 통계 상이성에 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159~162

참고하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불 교역 수출 및 수입 결산이 상이함. 프랑스 세관에 의하면 프랑스는 1985년 9천9백만 프랑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한국 세관에 의하면 11억 3천7백만 프랑의 무역흑자임. 수출 및 수입 결산금액에서는 10억 3천8백만 프랑, 커버울에서 38포인트의 차이가 남. 통계 처리 방식을 조율해서 20% 정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남아 있는 차이는 제3세계 국가에서의 자유유통과 역내 가공 문제를 통해 설명이 됨.

3.29. VIII.B.2. Échanges commerciaux : Principaux projets suivis par les entreprises françaises en République de Corée (VIII.B.2. 상업 교류 : 한국 내 프랑스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63~173

최근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LNG터미널 등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을 했음. 이런 대규모 계약은 프랑스

의 대북관계 양상에 따라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프랑스는 취약한 상황에 있음.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은 다음과 같음.

1) 최근 체결된 프로젝트

- 1984년 봄, 에어리퀴드社は 포스코의 새로운 제철소를 위한 산소공장설비 계약을 체결했음.
- 1984년, CGA-알카텔(CGA-ALCATEL)社は 서울지하철 역무자동화설비 계약을 체결했음. 1984년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임.
- 1985년 1월, 부이그(Bouygues)社와 소시에테누벨테크가즈(Société Nouvelle Technigaz)社は 평택 LNG 터미널의 4번째 저장탱크 관련 계약을 체결했음.
- 1985년, 코즈마(Cogema)와 한국전력공사는 우라늄농축 계약을 체결했음.
- 1985년 6월, 에어버스 A300-600 세 대의 계약을 체결했음.
- 1985년 10월, 에어버스 화물수송기 A300 두 대의 계약을 체결했음.

2) 최근 체결 못한 프로젝트

- 인천 화력발전소의 LNG 발전소로의 전환 관련 계약은 프랑스의 대북 태도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일본 회사와 체결됨.
- 강릉댐 전기설비에 관한 계약은 여러 프랑스회사들의 시도에도 일본 후지(FUJI)社와 체결되었음.
- 삼아알루미늄 압연기 관련 계약에 대한 클레심(CLECIM)社の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않았음. 정치적 이유와 기술적 이유로 인해 독일 회사와 체결되었다고 알림.
- 핵연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프랑스 프라즈마(Fragema)가 아니라 독일 KWU社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최근 개선된 한독 관계를 고려한 것임. 또한 이 계약 체결은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 계약에 대한 새로운 후보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임.

3) 협상 중인 프로젝트

- 포스코와 에어리퀴드의 계약 연장 :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건립을 위해 1984년 체결된 계약 대부분을 연장하기로 했음.
- 반월 가스기술교육원 프로젝트 : 한국은 야심적인 가스 계획을 갖고 있고, 프랑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추후 가스계획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따라서 증여에 의해 프로젝트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예외적인 노력을 했음. 미불 금액은 수출신용에 의해 커버됨.
- 알루미늄 압연 공장 : 이 계약건에 대해서는 클레심社가 검토 중이며, 일본, 영국, 독일과 경쟁 중임.

4) 추후 프로젝트

- (1)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공개입찰이 11월 5일에 시작되었고, 프랑스의 프라마툼(Framatome), 알스툼(Alsthom), 프랑스전력공사가 1986년 3월에 입찰에 참가할 예정임.
- (2) 교통 : 경부고속철도에 TGV를 수출하길 희망하고 있음. 대구 도시교통시스템에 대하여 자동경전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마트라(MATRA)社가 관심을 갖고 있음.
- (3) 수처리 : 2개의 서울 수처리장 계약에 대해 데그레몽(Degrémont)社가 검토하고 있음.
- (4) 포스코를 위한 냉간압연 프로젝트 : 광양제철소를 위한 이 계약건은 클레심社와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에어리퀴드社와의 계약 조건과 유사한 재정조건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혼합신용).

※ 첨부

- 1983년 체결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69쪽)
- 1983년 체결 못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70쪽)
- 1984년 체결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71쪽)
- 1984년 체결 못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71쪽)
- 1985년 체결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72쪽)
- 1985년 체결 못한 1천만 프랑 이상의 계약 목록 (173쪽)

3.30. VIII.B.3. Politique de crédit Politique de crédit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3. 신용 정책 한국에 대한 신용 정책)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174~180

한국은 프랑스 무역활동 차원에서 “목표 국가”로 간주됨. 따라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신용 정책은 아주 열려 있으며, 프랑스기업들은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재원조달을 확보하고 있음.

1) 수출신용정책

한국에 대한 코파스(COFACE)의 미결제 어음 총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 어떤 소송이나 지불 지체 등이 없었음. 1983년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실적 저조와 높은 대외채무(세계 4위)로, 한국은 1983년에 “감시 대상국”이었음. 지난 2년간 탁월한 경제실적으로 1985년에 한국은 1983년 이전의 “자유체제(régime de liberté)”로 복귀되었고, 1986년에도 마찬가지임.

컨센서스 등급에 의하면 한국은 1982년부터 카테고리III에 속하므로 수출신용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자율은 “부국”과 “빈국” 사이에 해당함. 한국은 프랑스의 외화신용장려정책 해당국에 속함. 최근 몇 달 사이 한국과 체결된 대형 계약들(서울지하철 역무자동화설비, LNG터미널 저장고)은 프랑화로 재정 조달이 될 것임. 추후에 결론이 지어질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임.

2) 원조신용정책

프랑스는 광양만제철소 산소공장 설비 구매 관련된 포스코와 에어리퀴드의 계약을 위해 한국에 최초의 원조신용을 함. 1983년 12월 클레심이 전통적인 수출신용에 의한 재정 조달을 통해서는 계약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배경임. 포스코가 이 같은 전통적인 재정 조달 방식을 거부하였고,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원조신용을 할 수밖에 없었음. 프랑스 당국은 동일한 재정 조달 조건 유지 원칙을 받아들였고, 포스코와 에어리퀴드는 계약을 체결했음. 한국은 이제 원조신용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속함.

하지만 프랑스의 원조신용은 통례에 더 부합하는 조건에서 부여되어야 함. 프랑스기업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는 양허성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신용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

한국의 경우 외국 기업에 주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희소하고, 그로 인해 계약 수주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임. 공개입찰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일본은 원조신용을 부여하고 유럽 국가들도 원조신용, 수출신용에서의 특혜 등을 부여함.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식 재정조달방식은 경쟁력이 없었음. 이런 상황

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정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음. 한국에 원조신용을 제안하고 현금신용 관련 정책이 상당히 유연해졌음. 프랑스기업들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은 프랑으로 재정조달이 가능하며, 이 점은 컨센서스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함.

이와 같은 프랑스 신용정책은 한국 시장 상황에 더 적합하며, 프랑스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 다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음 : (1) 프랑스의 원조신용은 25%의 증여율(그랜트 엘리먼트)로, 일본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음, (2) 프랑스 프랑으로 된 수출신용은 경쟁 때문에 몇몇 프로젝트에 제시된 아주 낮은 이자율의 신용과 비교하여 타격을 받기도 함.

3.31. VIII.B.3. Politique de crédit Note – Politique de crédit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3. 신용 정책 보고서-한국에 대한 신용 정책)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181~182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신용정책 관련 보고서(아시아국(Direction Asie)用)

한국은 1984년 “감시” 대상국으로, 코파스가 지불 연체와 부채 상황을 주시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감시 대상국이 아님. 따라서 코파스 보증위원회는 한국 측을 위한 프랑스기업들의 입찰 제한 조건에 보증을 약속할 수 있음. 이 같은 보험-신용의 자유화는 1980년에서 1982년까지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한국의 재정 상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300억 달러 정도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84년 부채상환비율을 수출액의 22%로 제한할 수 있었음. 이 부채상환비율은 1988년 19%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임. 또한 석유가격 하락이 부채상환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임. 한국에 대한 코파스의 미결제어음 잔고는 민간사업에서 180억 프랑에 달함. 3년 연속 한국은 국고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됨.

1985년 한국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과 혼합하여 국고대출 1억 5천만 프랑이 예정되어 있음. 1985년 재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4천만 프랑만이 1986년 국고 대출프로그램에 예정되어 있음. 한국은 프랑스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관계국이 선정한 “목표국가” 목록에 있음.

3.32. VIII.B.4. Politique de l’importation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Note-Politique de l’importation à l’égard de la Corée du Sud (VIII.B.4. 한국에 대한 수입정책 보고서-한국에 대한 수입정책)

생산일자: 19860325

페이지: 183~186

이 보고서의 목표는 프랑스에 수입되는 한국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의 주요 특징을 언급하고, 라디오 수신기와 텔레비전 수상기 수입 관련 방침을 명시하는 것임.

1) 한국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의 교역법(réglementation commerciale)에 명시된 제 2지역에 속함. 한국제품 관련 양적 제한은 인도아대륙,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등에도 적용됨. 홍콩과

마카오는 제1지역에 속함. 하지만 일본은 제2지역에 속함.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양적 제한 해제(S.L.Q)”에 해당하는 12가지 제품 중에 6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양적 제한을 풀었기 때문임. 1986년 한국은 GATT에 속한 모든 회원국(일본 제외)과 마찬가지로 12가지 제품에 대해 거의 자유무역에 가까운 혜택을 받았음.

- 2) 프랑스 무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자제품 수입 관련 규정을 비슷하게 하려는 프랑스의 지난 2년간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난 12월 2~3일에 열린 한불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할당량에 대한 상당한 증가를 얻어내려는 의지를 피력했음. 즉, 일본과 동일한 수입 규정을 원함. 프랑스는 해당 산업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전자제품의 수입 할당량에 대한 상당한 증가를 약속함. 1987년에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텔레비전 수입 할당량 증가를 해야 할 것이고, 라디오 수입 할당량은 증가하되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함.

한국 측은 한국제품에 대한 두 개의 할당량의 저조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었음. 텔레비전 할당량 이용률이 30% 정도로 저조함. 지난 위원회 회의록에서, 프랑스는 할당량 이용률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행정기관이 6개월마다 조사와 협의를 함으로써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결정했음.

3.33. VIII.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Actions de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mises en oeuvre par le Ministère de la Coopération (VIII.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협력부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과의 협력활동)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187~190

과학기술협력협약은 1981년 4월 4일 한국과 체결되었음. 협약에 의하면 문화과학기술위원회가 2년마다 열림. 1985년에 합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음.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은 1982년에 중국과 개발국들이 함께 나누어 이끌어가지만, 목표는 동일함. 한국과의 활동은 산업협력을 준비하거나 돕기 위한 기술협력을 지향함.

1986년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전년과 동일하고, 협력개발(CODEV) 프로그램 예산은 451만 2천 프랑임.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함.

1) 에너지 분야(143만 3천 프랑)

2개의 프로젝트가 있음. 하나는 에너지계획과 에너지경제 관련이며, 다른 하나는 에너지협력 전체를 계속 감독하기 위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에너지 부서”를 설치하는 것임.

2) 중소기업/중소산업 차원의 기술이전(871만 프랑)

1984년 시작된 시범프로젝트는 기계분야와 전자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중소산업 차원의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프랑스에서는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이 담당함.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한국에서 1/3을, 프랑스(개발국들, 문화과학기술관계중국, 대외경제관계국)가 2/3를 맡음. 프랑스에서는 이 담당함.

3) 경제와 관리(120만 4천 프랑)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수와 전문가들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프랑스 측은 한국의 관련 분야의 경제적 기술과 메커니즘을 더 잘 파악하고, 한국 측은 프랑스의 경제적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

이 세 분야 외에 어업, 지질, 지도제작, 원격탐사에 더 한정된 예산이 나뉘어 배당됨.

두 가지 주목할 사항: 한국 측은 모든 협력프로젝트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함, 프로그램 실현 비율이 아주 높음.

3.34. VIII.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Note pour monsieur le directeur des politiques et des programmes de developement (VIII.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개발정책국 프로그램 국장을 위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26

페이지: 191~192

1984년부터 한국과의 산업협력 프로젝트가 대외관계부(협력개발부서,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 산업재편무역부에 의해 한불 중소기업협력과 한국에의 기술이전을 위해 진행되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212개의 제안서(프랑스 107개, 한국 105개)를 검토하여, 4개의 합작투자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에 설립 중이고, 14개의 협약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39개 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임. 기계, 전기기계, 전자가 수혜 분야임. 각 프로젝트는 투자액을 1백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프랑스 설비 판매라는 결과를 낼 것임. 기술장비 개선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을 향한 지속적인 진출을 원하는 프랑스기업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이 협력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었음. 1986년부터 프랑스기업들이 이 협력 프로그램의 재정조달에 참여하기 시작함. 이 협력은 목표를 달성하였음.

3.35. VIII.B.5.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Note- Coopération entre PMI françaises et coréennes (VIII.B.5. 한불 중소기업 협력 한불 중소기업협력에 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193~197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1980년부터 진행한 조정정책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으로 삼았음. 대기업의 활동이 한국 경제에 몇몇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깨달았기 때문임. 이런 맥락에서 1984년 한불 중소기업 간의 시범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양국 모두에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1) 제도 · 운영 장치

(1) 협력의 틀

이 프로그램은 문화과학기술협력 합동위원회의 감독 아래 1984년부터 2년의 시범적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 1985년 12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 산업재편무역부 장관은 금진호 상공부 장관은 산업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드러낸 공동선언문(첨부)에 서명했음.

(2) 방법

프랑스 측에서는 대외관계부, 협력개발, 대외경제관계국이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를 통해 협력 프로그램에 재정을 조달함. 한국 측은 1985년 4월8 일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양국의 재정분담이 점진적으로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1986년에 이 목표에 이를 것임.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함.

2) 종합평가

이 협력프로그램의 성공은 협력 분야의 제한, 한국 측 요청의 분석, 물류의 점진적 증가 등과 같은 실용적 방식 덕분임.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1986년 3월 말의 종합평가는 특히 만족스러움.

3) 전망

이 협력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방식을 따라 1986년과 1987년에도 계속될 것임. 최우선 분야는 기계, 전자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관련 산업(대규모 계약 관련 프로젝트, 원자력발전소, LNG 터미널 등)과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성공할 경우 프랑스기업들이 직원 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에 참여하게 하기로 결정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류종렬(Yoo Chong Yul) 대표와 협력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대표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수행단에 포함될 것임. 따라서 이 모범적인 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확실하게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첨부 : 프랑스의 산업재편무역부 장관과 한국의 상공부 장관에 의한 한불 중소기업협력 공동선언문(1985년 4월)(196~197쪽)

3.36. VIII.B.6. Contrefaçons Concurrence déloyale. Cas de contrefaçons en Corée (VIII.B.6. 불법복제 한국에서의 불법복제 사례)

생산일자: 19860321

페이지: 198~202

불공정 경쟁. 한국에서의 불법복제에 관한 보고서

1) 사실

(1)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서울에서의 복제 감소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의 복제는 명백하게 통제될 수 있었음. 주한 경제진흥처(poste d'expansion économique de Corée), 프랑스의 제조사연합(Union des Fabricants), 한국당국의 공조를 통해 복제품 판매를 위해 명품 간판을 걸어 놓은 많은 상점들이 사라짐. 서울의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 고급명품을 간판으로 내건 수십 개의 상점이 있다는 것임. 요청과 소송 후, 이 같은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하지만 섬유 제품과 가죽제품의 경우, 복제품의 제조와 대대적인 유통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2) 산업차원에서의 생산 공장 등장

최근 제조사연합은 한국 복제품 생산업체들이 이용하는 “원자재” 생산 공장이 등장했음을 확인했음. 이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임. 첫째, 한국 당국이 상당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며 복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

런 유형의 공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더 주저하기 때문임. 둘째, 이런 공장들의 생산력을 고려할 때 제품 판매가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보호를 위한 법과 방법

한국에서의 복제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는 “상표와 특허에 관한 법”과 “부정경쟁방지법(la loi pour la protection contre la concurrence déloyale)”의 틀 안에서 이루어짐. 상표와 특허에 관한 법은 상공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10년 동안 보호하며, 보호기간은 한 번 갱신될 수 있음. 한국 상표와 외국 상표는 한국이 파리협약(Convention de l'Union de Paris)에 가입한 후 동일하게 보호됨.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주 불충분함. 복제업자를 체벌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은 제조사연합이나 서울 주재 전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음. 프랑스 상표가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 제조사연합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Séoul Public Prosecutor's Office)에 사건을 송치함. 검찰은 범죄 현장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지시함.

3) 1981-1985년에 대한 평가

대략 600개 사건 중에서 많은 수가 검찰과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졌음. 하지만 이 같은 처벌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억제 효과를 가지지 못했음.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34%). 제조사연합은 서울의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에 있는 복제품 판매 도매상들에 대한 소송에 집중했음.

4) 제안

- 복제는 공권력, 산업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임.
-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었음.
- 사용된 방법들이 현실에 맞지 않음.
- 종합적 정책이 없음.
- 적확한 조치와 일정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임.
-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적확한 조치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실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것임.

3.37. VIII.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Relations franco-coriennes dans le domaine nucléaire (VIII.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에 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203~206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관계에 대한 보고서 (생산자: 로슈(M. Roche))

1) 한국은 야심찬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추후 몇몇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것임

(1) 현재 3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6개가 건설 중이며, 2개가 건설될 예정임. 이 2개의 프로젝트는 3월 말에 공개입찰이 시작될 것임. 장기적으로 한국은 고속증식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자율성을 갖길 원함.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의 회사와 계약하기 원함. 가령 원자력 발전소 9호기와 10호기의 경우, 프랑스의 프라타툼이 계약을 수주했고, 농축우라늄 공급의 경우에는 코즈마가 계약을 수주했음. 한국은 핵연료주기공장을 건립하고 고속증식로 기술에 관심이 있음.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한국화를 원함.

2) 한국과 프랑스는 중요하고 다각화된 협력을 진행시켰음.

- (1) 한불협력은 두 가지 협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짐. 첫 번째는 프랑스의 원자력청과 한국의 과학기술처가 1974년에 체결한 협력협약이고, 두 번째는 한국정부와 프랑스정부가 1981년에 체결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약임.
- (2) 프랑스기업들은 미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이 있음. 현재 프라마툼은 900MWe급 원자력발전소 두 개(9호기, 10호기)를 건설 중임. 중요한 기술이전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음. 프라마툼은 900MWe급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에 대한 공개입찰에 참가할 예정임. 우라늄 농축의 경우, 코즈마는 1980년과 1985년의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필요한 양의 40%를 공급하고 있음. 1977년, SGN社は 4개의 시범시설(우라늄 농축과 변환,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수 처리) 건설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음.
- (3) 고속증식로와 관련하여 실무그룹이 만들어졌음.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불 협력의 규모와 이점에 대한 만족을 표할 수 있음. 그리고 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음.

3.38. VIII.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Projet de centrales nucléaire 11 et 12/ Corée du sud (VIII.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60318

페이지: 207~218

이 프로젝트는 15년 전에 한국에 시작한 야심찬 원자력 프로그램(첨부1)을 추진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 프로젝트는 계약에서 프랑스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첨부2),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의 미래를 위해 중요함. 1985년 11월의 공개입찰은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표준원자력발전소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공개입찰에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를 전체가 포함되어 복잡함(첨부3). 한국은 원자력발전 수출에 대해 지불능력이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임(첨부4).

프라마툼, 알스툼, 프랑스전력공사의 핵심 경쟁국은 미국임. 공개입찰의 기한이 1986년 3월31일이므로 응찰서가 얼마 전에 제출되었음. 이 시점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에 프랑스 기업들의 응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짐.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유용함.

- 원자력 분야에서의 프랑스의 경험: 프랑스는 6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이 중에 7개는 수출이었음. 한국은 프랑스가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맡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강점(신뢰성, 기술이전 안정성)을 잘 알고 있음.
- 양국의 이전 협력: 프랑스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관계는 19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확장된 영역에 대한 전반적 협력협약.
- 기술이전 실현을 위한 프랑스 기업들의 역량과 의지: 프랑스는 국내 기업들의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공유하고 프랑스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장려함.

- ※ 첨부1: 원자력 프로그램 (210~212쪽)
- ※ 첨부2: 프랑스 응찰서 (213~214쪽)
- ※ 첨부3: 공개입찰 구성 (215~216쪽)
- ※ 첨부4: 경쟁 (217~218쪽)

3.39. VIII.B.7. Relations dans le domaine nucléaire Entretie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vec le président coréen. Questions nucléaires (VIII.B.7.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계 한불 정상 회담. 원자력 문제)

생산일자: 19860403
 페이지: 219~220

프랑스기업들이 한국의 두 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응찰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대해 프랑스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함.

- 1) 원자로 : 현재 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5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 한국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에서 중요한 고객임.
 - (1) 프라마툼과 알스툼은 1981년과 1982년에 900MW급 9호기와 10호기(울진1, 울진2)를 건설 계약을 수주했음. 건설에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2) 프라마툼, 알스툼, 프랑스전력공사는 11호기와 12호기 건설 프로젝트에 응찰하였음. 프라마툼은 핵증기 공급계통, 관련 서비스, 핵증기공급계통 기술이전, 연료를 담당하고, 알스툼은 터보교류발전기를 담당하고, 프랑스전력공사는 건축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함. 주요 경쟁사는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미쓰비시임.
- 2) 핵연료주기
 - (1) 농축 우라늄 : 코즈마가 한국전력공사와 15년 계약을 체결했음.
 - (2) 사용후핵연료 관리 : 코즈마의 계열사인 SGN社は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실험 연구소 몇 군데를 한국에 건설하고 핵폐기물의 조정과 저장에 도움을 주고 있음.

대통령은 다음을 언급할 수 있음.

-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위해 1980년부터 시작된 원자력 협력 노력을 치하
- 프라마툼, 알스툼과 같은 프랑스 기업은 경쟁력과 현지화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피력
- 프랑스 기업이 응찰한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새로운 도약대가 되어주길 바램.

3.40. VIII.B.8. Coopération spatiale (VIII.B.8. 우주항공 협력)

생산일자: 19860326
 페이지: 221~223

한불 우주항공 협력에 관한 보고서

우주항공 관련 한불협력은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거의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아주 제한되어있음. 1981년 한

국 체신부가 통신위성 프로젝트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자, 프랑스의 사텔-콩세이(Satel-Conseil)社は 이 프로젝트의 현실가능성 검토에 참가했음. 1984년 2월,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력과 재정능력이 상당히 발전되었을” 1990년대 중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상당한 재정능력을 가진 기관 설립 내용을 포함한 해당 분야 보고서가 과거 김성진 장관에게 1985년 중반기에 제출되었음. 이 보고서의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김성진 장관은 더 작은 규모의 기관으로,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KASSA,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Agency)을 설립하기로 결정.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에는 천문, 위성통신, 원격탐사의 세 분야가 포함됨. 위성통신 분야의 10명 가량의 엔지니어 육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부서가 실제로 존재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할 것임. 원격탐사 분야에서, 데이터 및 영상처리 수집, 보관, 배포 등의 기능을 갖는 “통제실” 창설 계획을 과거 장관에 제의함. 현재로서는 이 제안들의 채택 가능성을 알 수 없음. 다만, KAIST는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소와 협력하길 바램.

연구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원격탐사와 통신에 있어 중기적으로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규모 우주프로그램을 채택했음. 이런 점에서, 이 분야의 협력에 대해 한국정부는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소가 한국 내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함.

3.41. VIII.B.9. Relations dans le domaine énergétique et géologique Relations franco-coréennes dans le domaine énergétique et géologique (VIII.B.9. 에너지와 지질 영역에서의 관계 에너지와 지질 영역에서의 한불 관계)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224~229

에너지와 지질 영역에서의 한불관계

이 영역에서의 한불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1) 석유와 천연가스

(1) 에너지 상황

-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음. 1985년 5천4백만 테프에 달했고, 이 중 2천7백만 테프는 석유이며 1천8백만 테프는 석탄임.
- 한국 내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은 석탄임.
-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석탄 보유량도 적은 만큼,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세 가지 우선사항을 결정함 : a) 국내에서의 에너지원 증가(석유탐사는 거의 실패,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시작), b)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수입 개발에 의해 공급의 다각화, c)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발전과 현대화

(2) 프랑스와의 관계

가. 석유

- 프랑스석유연구원(IFP) : 한불관계는 주로 이 연구소의 활동에 집중되어있음. 프랑스석유연구원은 한

국과의 관계를 15년 넘게 이어오고 있음. 프랑스석유연구원에 의한 촉매실험실 설립 검토 등과 같은 과학기술협력, 해당 분야 연수생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담당, 1984년 한국 남서 지역과 해안에서의 프랑스석유연구원-BEICIP의 탄화수소 탐사 등과 같은 탐사/생산,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는 분야인 정유와 석유화학(프랑스석유연구원은 유공, 한국비료, 호남오일 등 다양한 회사에 상당한 수의 기술을 판매)

- 엘프 아키텐(Elf-Aquitaine) : 1977년 인준된 한일대륙붕협정의 영향 아래 있는 제7광구와 9광구의 대륙붕 탐사를 위해 1984년, 해밀톤(Hamilton), 워스(Weeks), 유니버스(Universe)와 계약을 체결했음. 시추의 결과 석유자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탐사의 계속 혹은 중지를 검토해야 함.
- 토탈-CFP(Total-CFP) :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보유한 채굴허가권에 대한 참여를 위해 여러 한국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음. 정유 분야의 현대화를 위해 기술지원활동을 구상하고 있음.

나. 가스

- 테크니가스(Technigaz)가 평택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한국가스공사(KGC)와의 계약을 수주했음. 강제 청산된 테크니가스는 부이그(Bouygues)에 인수되고, 부이그는 1985년 새로운 저장탱크 건설 계약을 체결했음.
- 프랑스가스공사(Gaz de France)와 자회사 소프레가즈(Sofregaz) : 1983년과 1984년 테크니가스의 저장탱크 건설에서 엔지니어 분야의 일로 개입함. 엔지니어와 유지 기술자 연수를 담당함. 한국가스공사와 1984년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1985년 협력협약을 체결함.
- 소프레가즈 : 1985년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의 가스설비도면 검토를 소프레가즈에 맡김.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의 재정 지원을 통해 반원 가스기술연수센터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음.
- 엘프-아키텐 : 보나파르트 만(灣) 지층 탐사에 한국기업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음.
- 토탈-CFP : 카타르 액화공장 확장의 틀 안에서 LNG 한국 시장의 추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짐. 1986년 서울 주재 상설 대표사무실을 냄.

2) 지질

지질광물자원연구원은 1981년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의 과학협력을 시작했음. 지질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1984년 12월에 체결되었고(5년간 유효), 이 협력의 틀을 제공함. 협력은 전략적 지구화학과 분석화학 분야에서 전문가 교류, 한국 박사과정 학생들의 프랑스 유학(오를레앙 대학), 한국과 프랑스에서 정기적 업무임. 지질광물자원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KEMCO)이 지열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임. 지질광물자원연구원은 한국 제1위 수출입 회사인 대우를 비롯한 광업기업들과 접촉했음. 대우는 지질광물자원연구원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마타이바 환초의 인광석 지층 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였음.

3.42. VIII.B.10. Télécommunications Relations franco-coréennes en matière de télécommunications (VIII.B.10.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한불관계)

생산일자 : 19860328
 페이지 : 230~231

미국, 일본, 스웨덴은 한국에 견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반면, 프랑스기업들은 존재감이 약함. 미국의 규범이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규칙임. 프랑스 회사는 계약을 거의 수주하지 못했음. ITT의 벨기에 자회사의 협력사 SESA는 1983년 2월 텔넷(Telenet)과 노던-텔레콤(Northern-Telecom)과의 경쟁에서 패킷 교환에 의한 데이터 전송망 공급을 위한 계약을 수주했음. 트랜스팩(Transpac)은 기술지원을 했음. 한국은 비디오텍스 관련 중요 계약을 ATT와 체결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협력 가능성은 사라짐. 한국의 육지와 섬들을 이어줄 해저 통신케이블, 그리고 지구국은 프랑스기업들이 추후에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미개척 분야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텔레텍스와 메모리칩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프랑스의 지원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3.43. VIII.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 Visite du président Coréen en France(14-16 avril)-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France-Corée (VIII.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4월 14-16일)-양국 해양 사안)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232~235

1) 해상교역

(1) 해상교역은 경쟁이 치열함. 극동구주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은 경쟁력 강한 신생 해상업자들에 대처해야 함. 1985년 프랑스에서의 출발 선박 비율은 45%이고, 입국 선박 비율은 50%임. 한국 정부와 구주운임동맹의 관계가 순전히 상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에 해운업자 비율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게 보임. 이 점이 제기되면 유럽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2) 프랑스 선박의 비율

구주운임동맹에서 프랑스 선박 비율은 “정기선 동맹행동헌장 조약”의 조항에 부합함(40%보다 약간 더 높음). 국가가 보증하는 교역의 경우 한국은 보호주의이고 프랑스 선박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음. 이와 반대로, 프랑스 당국은 구주운임동맹에서 이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프랑스 해상업체(CGM, CMCR)의 의도를 고려하여 한국의 이익에 동조함.

2) 선박 건조

(1) 한국에서 우려할 상황

4개의 한국 조선소는 어려운 상황임. 이런 위기 상황은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반 건조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임.

(2) CGM의 컨테이너선 사안

이런 맥락에서 한국 대통령은 2000TEU 컨테이너선 주문을 위한 1985년의 공개입찰 문제를 언급할 것임. 삼성중공업이 응찰하였지만 CGM은 프랑스 선박 건조업 상황을 고려하여 삼성중공업을 택하지 않고 프랑스 업체를 택할 것임.

3) 어업협정

한불 어업협정은 매년 갱신되고 만족스러움.

3.44. VIII.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 pour la direction d'Asie-Océanie-Visite en France de M. Chun Doo-Hwan-Questions aéronautiques (VIII.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보고서-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항공 사안)

생산일자: 19860329

페이지: 236~237

1) 에어버스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를 제외하고 에어버스사의 가장 오래된 고객임. 첫 번째 계약은 1974년이었음. 에어버스는 유럽 컨소시엄에 의해 생산된 A300B4 항공기 8대를 노선에 도입함. A300-600(3대)의 1987년 인계, A300P4(2대)의 1986년 6월 인계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 1985년에 체결되었음. A300-600(5대 추가)에 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2) 교통법

항공 관련 양국 관계는 1974년에 체결된 협약에 기반한 것임. 이 관계는 대한항공에 유리한 상황이었음. 1975년에서 1983년까지 대한항공은 서울-파리 노선을 2번 왕복함. 1983년 7월부터 에어프랑스는 도쿄를 경유하는 파리-서울 노선을 열면서 상황이 호전됨. 작년 여름부터 에어프랑스는 서울 노선에 2번의 비행을 했고, 대한항공은 파리 노선에 3번의 비행을 했음. 두 항공사는 1986년 여름부터 노선 비행 조건에 관한 협약을 상황에 맞게 최근 수정했음.

양국의 관계는 파리 소재의 북한무역대표부의 위상 변화 이후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만족스러우며 발전할 수 있음.

3.45. VIII.B.11. Transports, Questions maritimes bilatérales, Questions aéronautiques, 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Note pour la direction d'Asie-Océanie-Visi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u Sud-Transports urbains et ferroviaires (VIII.B.11. 교통, 양국 해상 사안, 항공 사안, 도시 및 철도 교통 아시아오세아니아국을 위한 보고서-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도시 및 철도 교통)

생산일자: 19860328

페이지: 238~239

교통 분야의 프랑스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음.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침. 서울지하철과 부산 지하철의 경우 프랑스 기업(CGA-알카텔)은 역무자동화설비를 공급했을 뿐임. 철도의 경우, 알스통은 1972년~1974년에 기관차 90대를 공급했으며, 대우와 프로토타입 기관차를 제작하고 있음.

철도에서 주요 프로젝트는 경부선 고속철도 관련임. 고속철도에 대해서 한국은 여전히 아주 신중한 입장임. 모든 결정에 앞서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루이스 버거(Louis Berger)사에 고속철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맡김. 1984년 12월에 한국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아틀랑틱 TGV 타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고 일본 신칸센을 제외시킴. 현대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프랑스기업들과 접촉하여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는 양국의 산업협력을 구체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1987년에 시작될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음.

3.46. VIII.B.12.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Coopération avec la Corée du Sud en matière d'armement (VIII.B.12. 군수품(軍備) 분야에서의 협력 군수품(軍備)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생산일자: 19860327

페이지: 240~244

군비(軍備)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군수품에 있어서 미국 의존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음. 이는 군수품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체를 갖는 데 관심을 쏟는 한국이 프랑스와 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원하기 때문임. 최근 한불 품질관리 상호협약이 체결되었음.

군수품 분야에서의 전망은 다음과 같음.

1) 육군

- (1) 한국은 전차 국내 생산라인을 시작했고, 전차 장치인 자이로 스테빌라이저 조준경 공급을 위해 프랑스 SFIM社를 접촉했음.
- (2) 육군은 전술수송형 경량헬리콥터 100대 가량을 구입하길 원함. 한국 당국은 공급업체를 1986년 7월에 결정할 것으로 보임.
- (3) 경량 장갑차 혹은 정찰 장갑차(파나르社(Panhard)), 전술수송형 경량차량(로르社(Lohr))에 대해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음.
- (4) 미국이 전략통신시스템 RITA(자동통신통합네트워크: Réseau Intégré de Transmissions Automatiques)를 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은 한국 지형조건에 맞는 이 장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음.

2) 해군

예산 문제로 프로그램이 지연됨.

- (1) 한국은 상티에 뒤비종(Chantiers Dubigeon) 조선소와의 AGOSTA급 잠수함 두 대 프로그램을 연기했음. 현재 중단된 이 프로그램은 1988-1990년 정도에 재개될 가능성 있음.
- (2) 해군은 1986년부터 12대의 헬리콥터를 소유하길 원함.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은 대함미사일시스템 AS.15TT와 감시레이더 Agrion15를 갖춘 헬리콥터 도팽(Dauphin)을 제안함.
- (3) 프리깃, 호위함, 호위정(코르벳) 건조는 한국 조선소와의 경쟁을 고려할 때 프랑스 조선소가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함. 하지만 이 함선 장비에 대한 프랑스 측의 공급 가능성은 있음(통슨-CSF의 음파탐지기, 크로탈(Crotale)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무기시스템).
- (4) 해군은 3대의 해군포 구매를 원함(아에로스파시알은 36개 MM40 미사일 제안)

3) 공군

- (1) 공군은 미국이 마트라(Matra, Mécanique Aviation Traction)에 주문한 듀랜달(Durandal)의 대활주포 폭

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음.

(2) 전투기의 경우, 마르셀 댓소(Marcel Dassault)사는 미라주(Mirage) 2000을 알리기 위해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군비 문제가 언급된 경우 다음의 의견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랑스는 양국이 군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여김.
-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모든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음. 육군과 해군을 위해 새로운 헬리콥터의 필요성. 군비 분야에 있어 프랑스 기술력은 이전에 주문한 경량 다목적 헬리콥터 알루에트(Alouette) III에서 알 수 있듯이 증명이 되었음. 결실이 있는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3.47. VIII.B.12.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Corée-Coopération matière d'armement (VIII.B.12. 군수품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군수품 분야의 협력)

생산일자: 19860319
페이지: 245~250

방위 분야에서 미국에 강하게 의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쟁력 있는 군수산업을 갖추길 원함. 한국은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첨단기술 군비 판매만 가능성이 있는 미개척 시장임. 12대의 알루에트 III, 22개의 레이더 라지트(Rasit)를 포함해 6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현재 한국 육군의 경우 한국형차기전차(ROKIT, Republic Of Korea Indigenous Tank) 사업을 비롯하여 5개의 프로젝트가 있음. 공군의 경우, 미라주 2000과 듀랜달 폭탄에 관심을 갖고 있음. 해군의 경우 AGOSTA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한 3개의 군비 확보 프로젝트가 있음. 품질감독을 위한 상호협약이 방위산업감독청(SIAR, service de surveillance industrielle de l'armement)에 의해 검토 중이고, 방위산업감독청은 1986년 5월에 한국품질관리원 원장(directeur du Service du Contrôle de Qualité Coréen)을 맞이할 예정임.

미국의 상당한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 군수품은 미국이 충족시킬 수 없는 필요에 부응할 경우(예: 라지트), 미국이 채택하는 경우, 기존 군수품이 개선된 경우(120mm 견인 박격포)와 같은 조건 아래서만 한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음.

3.48.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Les relations culturelles franco-coréennes (IX. 문화, 과학기술 한불문화관계)

생산일자: 19860325
페이지: 251~259

1985년 12월, 문화과학기술협력 한불합동위원회 제8회 회의에서 한불협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했고, 기존의 문화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었음.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은 두 개의 주요 축

(프랑스어 확산, 문화교류)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임. 시청각 분야와 도서 분야는 현재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 한불수교 100주년은 양국에서 중요한 문화행사들을 진행할 기회가 될 것임(첨부 I, II 참조).

1) 프랑스어 확산

- 서울 소재 프랑스학교는 117명의 학생이 있으며 중등교육은 국립통신교육센터(CNEC,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par Correspondance)의 혜택을 받음.
- 프랑스어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 가능함. 대학의 경우, 63개의 프랑스어 관련 학과가 있으며 얼마 전부터 독일어의 자리를 넘어섬. 이 같은 프랑스어의 발전은 외국의 영향력 다각화와 불어권 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의 결과임.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통역사 및 번역사 육성도 필요함. 1985년 프랑스에 852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음.
- 한국 교육체제에서의 프랑스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의 언어활동국(BAL, Bureau d'Action Linguistique)은 연수, 재연수, 교육방법 지원, 직접 교육지원(유학 장학금 지원)을 담당함. 1981년부터 KBS 채널에서 프랑스어 강좌를 시작하고, 해외협력파견원이 협력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 파리7대학, 리옹3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주불 한국대사관은 한국학 전문가 육성과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도서관에의 도서 기증을 위해 콜레주 드 프랑스와 협약을 체결했음.
-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983년 현재 한국에 4곳(서울, 대구, 부산, 광주)이 있음.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은 교사 3명 파견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지원하고 있음. 1985년 현재 수강생 수는 7,000명 정도임.

2) 문화교류

-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의 문화활동은 알리앙스 프랑세즈, 서울 프랑스문화원, 대학과학기술자료센터(CEDUST,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Scientifique et technique)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이 중에서 프랑스문화원이 가장 역동적인 문화교류기관임.
- 프랑스문화원의 역동성 덕분에 한국에서의 프랑스 예술 활동은 해외에서 독보적임.
-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을 위해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 도서 분야는 가장 발전이 미흡한 영역임. 도서와 출판 분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발전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해외협력파견원 한 명이 할당될 것임.

3) 시청각 분야의 교류

- 영화의 경우, 양국은 상대국가의 영화 페스티벌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그램 교류와 더불어 관련 책임자들의 상호교류와 기술자 연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임.
- 언론의 경우 양국은 18개월 전부터 주간지 《쿠리에 드 라 코레(Le Courrier de la Corée)》의 기획과 발간을 위해 협력함.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프랑스는 스포츠 기자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첨부 I. 한불수교 100주년을 위한 프랑스 행사 프로그램(257~258쪽)

※ 첨부 II. 한불수교 100주년을 위한 한국 행사 프로그램(259쪽)

3.49.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IX. 문화, 과학기술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생산일자: 19860303

페이지: 260~263

1985년 12월 16~19일에 열린 제8회 문화과학기술 한불합동위원회에서 지난 9월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에 정한 방향성을 확인했음. 두 개의 “선도 분야”(한불 중소산업 간의 기술이전, 에너지 경제)와 관련하여 폭넓은 합의점을 찾았음. 과학기술협력국(DCST,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협력개발(CODEV),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가 재정조달을 함.

협력 분야는 복합적인 현상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과 소프트웨어(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아주대학교), 농산물가공업, 재료과학(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한국기계연구원(KIMM), 남시 국립광업학교(ENSMN)-한국기계연구원-아주대학교), 데이터뱅크, 생물공학, 응용화학 및 무기재료, 정보처리, 해양연구, 소피아-앙티폴리스(Sophia-Antipolis)와 “대덕단지”의 협력 등임.

이 외에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한불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했음. 과학기술협력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연수생 교육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함(1985년 10명의 연수생, 재정은 150만 프랑).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강조되어야 함.

- 1) 기술이전: 정보처리, 번역, 컴퓨터설계제작지원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과학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음. 단호한 각하 사유에 마주해서야 한국은 의사록에 텔레마틱에 대한 어떤 언급도 포기했음.
- 2) 한국의 박사후과정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프랑스 연수: 프랑스 연구부 장관과 한국 과기처 장관의 회담에서 언급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 한불합동위원회에서 긴 논의가 있었음. 이 문제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함께 할 신임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심 주제가 될 것임. 재정양자관계 한국 측 총괄책임자 장상태의 사전 방문 때 논의되어질 것임.

한국 요청에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음.

- 1) 재정조달: 한국 정부가 한국 과학자들의 프랑스 연수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실에서의 연수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부담하길 원했음. 그런데 첨단 분야에서의 이 비용은 상당히 높음.
- 2) 기술이전: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지식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프로그램과 연수를 연계시키기 원하는 프랑스의 뜻을 한국 측에 강조해야 함.

장상태 재정양자관계과 총괄책임자의 방문 전에 위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개발(CODEV), 연구기술부, 교육부가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할 것임. 이를 위해 한국의 요구사항을 상술한 정보자료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요청했음.

※ 첨부: 장상태 재정양자관계과 총괄책임자의 방문 사전 준비 자료 요청-1986년 2월 24일(263쪽)

3.50. IX.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mologue coréen (IX. 문화, 과학, 기술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회담 준비)

생산일자: 19860320

페이지: 264~266

4월 14~16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 동안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의 회담이 열릴 것임. 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4월 17~18일에 파리를 방문했음. 주불 한국대사관 2등 서기관을 동반한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을 과학기술협력국 국장 로로(Laureau)가 맞이하였고 연구기술부와 협력개발 대표들이 동석하였음. 그런데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의 도착을 하루 앞둔 시점에 새로운 협력 제안들이 포함된 두꺼운 서류가 도착하여 검토가 불가능했음. 따라서 로로 과학기술협력국 국장은 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동위원회의 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과기처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가을에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므로, 이 회담에서 새로운 협력의 주요 축을 결정할 수 있음. 한국 측은 미국이 거절한 기술이전을 위해 연수라는 명목 아래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함.

한국 대통령의 방문 일정 동안 두 장관은 한 시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이룩한 실적을 치하하고, 주요 협력 분야인 중소기업과 에너지에서 원활한 협력 진행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논의의 핵심이 될 박사후과정 과학자들의 연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협력국은 관련 산업협약의 분명한 틀 안에서 다음의 영역에서 제안을 할 수 있었음.

- 원자력에너지 : 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서를 원자력청에 제출해야 하고, 연수비용은 경우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 원격탐사 : 국립우주연구소는 연구소(카이스트 등)와의 프로그램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툴루즈의 원격탐사 교육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의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음. 협력개발이 한 번의 연수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연수비용은 국립우주연구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해양자원개발 : 합동위원회에 결정한 주제들만 다룸.

유전공학, 전자, 재료, 정밀화학 등의 다른 영역의 경우 프랑스 국익에 반하는 기술이전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해야 함. 전두환 대통령 방문 시 양국 산업의 상호 이익이 명확한 분야들 외에는 구두로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4. Entretien du Ministre (Alain Devaquet) avec le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14 avril 1986)

번역제목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 (전학제, 알랭 드바케)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 COREE : (19980597/6-19980597/7) »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 Sans titre (19980597/6) » Liasse 2 (Visites officielles : M. CURIEN et M. FABIUS en Corée, avril 1985 ; M. CHEN DOO HWAN, avril 1986)		
철 관리번호	PZA0008003	생산기간	1985~1986
기록물 건수/매수	30건/155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반응에 대한 보고
- ✦ 무역 확대와 관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요구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과 양국의 산업협력 논의에 대한 분석
- ✦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금진호 상공부 장관과 프랑스 장관 측 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할 주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
- ✦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과 알랭 드바케 연구고등교육 위임장관 간의 회담 준비에 대한 분석
- ✦ 한국이 미국이 거절한 기술이전을 명목으로 연수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에 대비할 것을 조언하며 프랑스 국익에 반하는 기술이전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해야 함을 주문함.
- ✦ 한국의 박사후과정 연구자들의 프랑스 연수와 그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
- ✦ 원자력에너지, 원격탐사, 해양자원개발, 유전공학 영역에서 한국의 연수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의
- ✦ 프랑스는 한국이 요구하는 신규 계획이 기존 계획들의 효율성 저하 및 재정 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함.
- ✦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단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동행한 것에 대한 의미 분석 및 고등 연구자 연수 다각화 노력에 대해 언급
- ✦ 한국의 내각개편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
- ✦ 1983년 12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과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및 결정사항 분석
- ✦ 1985년 9월 김성진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과 알랭 위베르 퀴리앙 연구기술부 장관과의 회담 의사록 및 결정사항 분석

- ✦ 한불 수교 100주년을 맞아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과학기술, 어업, 광물자원, 컴퓨터 네트워크, 산업, 에너지, 해양연구,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상황을 언급하고 분석함.
- ✦ 한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이 첨단 분야 연구와 기술에 있어 외국의 도움을 얻고자 하며 이를 프랑스가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언급함. 동시에 프랑스 경제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지식이전은 승인될 수 없으며 이를 준비하고 관리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파악함.
- ✦ 한국의 박사후연수생들의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
- ✦ 중소산업에 있어 프랑스와의 협력과 교류 방향성에 대한 제안
- ✦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기술정보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 ✦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상주 대표부 설치와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에너지 부서” 설립 등 양국의 에너지 관련 협약과 협력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
- ✦ 해양학 및 어업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에 대한 분석

④ 수록 기록물명

- 4.1. Regard de la presse sur la visite du président Chun Doo Hwan à Paris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언론의 시선)
- 4.2. Visite officielle du Président Sud-Coréen. Entretien du Ministère de l'Industrie, des P et T et du Tourisme avec Monsieur KUM Jin Ho, Ministre Coréen de l'Industrie et du Commerce—lundi 14 avril 1986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문. 산업체신관광부 장관과 한국 금진호 상공부 장관의 회담—1986년 4월 14일(월))
- 4.3.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Kum Jin-Ho, Ministre coréen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le lundi 14 avril 1986 (한국 금진호 상공부 장관과의 면담, 1986년 4월 14일(월))
- 4.4.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délégué auprès du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chargé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교육부 장관 산하 연구고등교육 위임장관실을 위한 보고서)
- 4.5.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Entretien du Ministre avec l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à l'occasion de la visite en Fran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14-16 avril 1986) (장관실을 위한 보고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1986년 4월 14-16일) 동안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
- 4.6.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res Bordereau d'envoi.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mologue coréen (대외관계부 우편 명세서. 한불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 준비)
- 4.7. Corée—Stagiaires dans le domaine du developpement des ressources marines (한국-해양자원개발 분야의 전략)
- 4.8. Note pour la sous-direction de la recherche (연구과를 위한 보고서)
- 4.9. Note, en vue de la réunion avec M. Heung-Yil, Directeur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au Ministè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en Corée (한국 과거처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과의 회의를 위한 보고서)
- 4.10. Entretiens du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담)
- 4.11. Lettre signée de M. Hubert Curien adressée à Misieur Hakze Cho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 Technologie en Corée (위베르 퀴리앙이 한국의 과기부장관 전학제에게 보내는 서신)
- 4.12. Visite du président Chun en France : relation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 과학기술 관계)
- 4.13. Remaniement du cabinet sud-coréen (한국 내각 개편)
- 4.14. Memorandum conjoint (양해각서)
- 4.15. Procès-verbal d'entretien de la première rencontre ministérielle entre Monsieur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Monsieur Kim Sung 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coréenne (위베르 퀴리앙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김성진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첫 번째 장관회담 의사록)
- 4.16. Minutes of The Eighth Session of the France-Korea Mixed Commission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제8회 한불문화과학기술협력 합동위원회 보고서)
- 4.17. Note de présentation (설명보고서)
- 4.18. Introduction, La Coope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Franco-Coréenne, Cadre general-Strategie (서론, 한불 과학기술 협력, 일반적인 틀과 전략)
- 4.19. Training of High Level Scientists and Engineers in France (고위급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프랑스 연수)
- 4.20.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Solution of Energy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between Korea and France (21세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불기술협력)
- 4.21.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Big Sciences (거대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 4.22.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French Small and Medium Industries (한불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 4.23. Promotion of Industrial High-Technology Cooperation (산업 첨단기술 협력 증진)
- 4.24. Note pour monsieur le Ministre : Votre entretien avec le Ministre Coréen de l'Industrie, le 14 avril 1986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1986년 4월 14일))
- 4.25. Minutes of the Third Franco-Korean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on Nuclear Energy (제3회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록)
- 4.26. Compte rendu de mission en Corée du Sud. 9/13 Décembre 1985 (한국 출장 보고서. 1985년 12월 9-13일)
- 4.27. Note d'actualité : Coopération avec le K.I.E.R. et le K.E.M.C.O. (현황 보고서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
- 4.28. Projet A3. Oceanography(KORDI-IFREMER) (프로젝트 A3. 해양학(한국해양연구원-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
- 4.29. Programme de la coopération IFREMER-KORDI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의 협력 프로그램)
- 4.30. Le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프랑스의 한국 과학기술처(과기처) 현황 파악 문서)

수록 건 기록물 내용

4.1. Regard de la presse sur la visite du président Chun Doo Hwan à Paris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언론의 시선)

생산일자: 19860418

페이지: 1~5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영국, 서독 방문과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 내용은 이 방문의 형식적이고 의례적 측면이었음. 이 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1) 전두환 대통령의 도착 전부터 한국 언론이 프랑스에 대해 다른 순방국들보다 더 관심을 보였음. 프랑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전파를 탔음. 순방 동안 언론은 모든 일정을 보도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은 많지 않았음. 언론은 한불 정상 회담을 상세하게 다룸. 한국 문화에 대한 미테랑 대통령의 박학다식함을 높이 평가함.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긍정적 평가에 기여함. 프랑스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된 파리 시청과 외무부에서의 시라크(Chirac) 파리 시장과의 만남도 상당히 중요했음. 어느 전국지 사설에서 “한국은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지도자 두 명으로부터 지지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했음.

순방 평가에 대한 보도는 영국과 서독 방문에 대해 이미 사용된 문구들을 사용하였고, 감정적 반응은 거의 찾기 어려움. 한국 정치 상황 관련 부분은 한국 대통령의 담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전부 제거되어 있음. 프랑스 언론의 평론 중에서 피가로로 전두환 대통령 인터뷰가 유일하게 그대로 인용되었음.

2) 회담 내용의 경우 정치협력과 양국 교류가 균등하게 다루어짐. 정치협력에 대해, 언론은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프랑스는 남한의 결정적인 우위를 인정할 것이다”, “프랑스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둘 것이다” 등처럼 보도함. 한국 안보에 대한 프랑스의 중요성은 정치 회담, 국방 책임자들 사이의 만남에서 강조되었음. 통일, 남북 간의 직접 대화,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프랑스의 단호한 지지를 통해 프랑스는 영국과 같은 전통적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임. 제25회 올림픽 후보지로서 파리의 지원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공감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짐.

동서관계의 차원에서 프랑스의 외교 영향력도 보도됨. 북한에 대한 소련 및 동부유럽의 지원을 억제하는 데 필요함. 한불 장관의 회담은 다른 모든 장관 회담과 마찬가지로 언급됨. 한영, 한독 관계의 진전에 비해 한불 교류는 우려스러운 정도로 부진한 상태라고 보도함. 1990년까지 두 배로 발전하는 것은 한국이 제안한 목표임. 유망한 발전 분야는 고속철도, 원자력에너지, 민간항공, 자동차부속, 전자, 컴퓨터 부속품 분야이며, 마지막 세 분야가 특히 투자와 산업협력의 영역임.

순방의 모든 일정에서처럼, 무역자유화와 수입 제한량의 완화는 주요 주제로 언급됨. 흑백텔레비전 수입 할당량, 비디오와 전자레인지 수입에 대한 프랑스의 대답은 프랑스가 호의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프랑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서독에 대한 이미지와 거의 동일함.

4.2. Visite officielle du Président Sud-Coréen. Entretien du Ministère de l'Industrie, des P et T et du Tourisme avec Monsieur KUM Jin Ho, Ministre Coréen de l'Industrie et du Commerce—lundi 14 avril 1986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문. 산업체신관광부 장관과 한국 금진호 상공부 장관의 회담—1986년 4월 14일(월))

생산일자: 19860415

페이지: 6~9

1) 무역교류

한국 상공부 장관은 한국의 교역이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프랑스와의 교역관계가 적어도 영국이나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원한다고 밝힘.

2) 다자간섬유협정4(AMF4, Accord multifibres)

금진호 장관은 다자간섬유협정3이 유지되길 바라며 다자간섬유협정4를 통해 몇몇 선진국이 “신흥공업국(NP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우려함. 마들랭(Madelin)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 다음을 답으로 줌.

- 프랑스 정부의 목표인 무역자유화로의 이행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
- 이것은 7월 22일 각료이사회(Conseil des Ministres)에서 지지한 섬유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유럽공동체(CE, Communauté Européenne)의 목표이기도 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음. 이 권한은 프랑스 섬유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감.
- 노동의 국제 분업(Division Internationale du Travail)의 틀 안에서 방글라데시 유형의 발전국가에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3) 관세 할당

한국 장관은 프랑스 시장에서의 한국 텔레비전 할당량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유럽경제공동체(CEE,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가 비디오의 할당량을 3배로 증가시켜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함. 마들랭 장관은 이 요청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함. 한국 장관은 다음 한불경제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검토를 진행하길 제안함.

4) 해상운송회사(CGM)의 컨테이너선 주문

금진호 장관은 프랑스 측이 삼성중공업과 계약하길 원한다는 의견 피력. 마들랭 장관은 민간 영역이므로 CGM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함. 또한 위기 상황인 조선 분야에서 OECD의 “조선 그룹” 내에서, 유럽과 한국 사이에 진정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힘. 이에 대해 한국 장관은 “한국은 이 분야에서 1위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비교우위에 바탕한 국제무역의 틀 안에서 유럽이 이를 감안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동의함.

5) 양국 산업협력

(1) 원자력 : 마들랭 장관은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위해 1980년부터 진행된 협력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프랑스기업들이 응찰한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한국 장관은 이 문제는 더 높은 층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며 “프랑스가 이 계약을 수주할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말함.

- (2) 교통 : 마들랭 장관은 경부선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문의함. 한국 장관은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여 반대
가 있긴 하지만 자신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힘.
- (3) 서울올림픽, 우주, 가스 : 마들랭 장관은 이 분야에서 발전과 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언급함. 한국
장관은 이 분야들에 대한 프랑스의 제안을 잘 알고 있으며 프랑스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
한다고 답함.
- (4) 중소기업 · 산업(PME/PMI) 협력 : 두 장관은 1985년 4월 8일 협약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
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의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에 만족을 표함.

※ 보고서 배포 명단(9쪽)

4.3.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Kum Jin-Ho, Ministre coréen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le lundi 14 avril 1986 (한국 금진호 상공부 장관과의 면담, 1986년 4월 14일(월))

생산일자: 19860410

페이지: 10~19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수행단에 금진호 상공부 장관과 31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포함되어있음. 금진호 장관은 관련 분야 프랑스 장관과 4월 14일 17시 45분에 회담할 예정. 조순제 유럽국장, 주불 한국대사관 상무관, 통역사를 동반할 예정. 15시에 미셸 누아르(Michel Noir) 위임장관과 접견
금진호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무역 관련 사안, 다자간섬유협정 개정, 다자간무역협상(NCM, Négociations Commerciales Multilatérales), 일반특혜관세제도(Système des préférences généralisées), 수입 할당량, CGM의 컨테이너선 주문 등의 사안들을 언급할 가능성 있음. 프랑스 장관은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원전, 교통, 우주, 철강 등을 비롯한 프랑스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언급할 수 있음. 프랑스기업들이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술지원, 연수교육 등까지 포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음. 협력협약 체결, 합작투자회사 설립, 직접투자 등을 통해 한국 산업구조에 편입하고자 하는 프랑스기업들의 관심을 언급할 수 있음.

1) 한국 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들

(1) 한불교류 결과

금진호 장관이 누아르 장관과 15시에 회담을 가지므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한불 교류가 발전하길 원하는 염원을 표하는 것으로 족함.

(2) 다자간섬유협정 개정

금진호 장관이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이 협상은 유럽공동체의 소관이고 프랑스의 입장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과의 협의 아래 결정된다고 강조할 수 있음.

(3) 일반특혜관세제도

한국이 이 제도 가입을 원하는 만큼 금진호 장관이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 높음. 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대한 프랑스의 우호적 태도가 이 제도의 엄격함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

(4) 다자간무역협상

유럽경제공동체와 프랑스의 입장과 한국의 주장 사이에 몇몇 공통점을 언급할 수 있음. 보호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현상” 유지, 관세 상한선, 협상에 서비스 분야의 포함 등임.

(5) 양적 제한

한국 수입품에 대한 양적 제한 완화에 대한 금진호 장관의 질문에 대해 장관은 이미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추후에도 한국제품의 수입량을 증가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프랑시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야 함.

(6) 비디옥화기 관세 인상

장관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규칙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휴대용라디오, 알람 라디오, 휴대용 계산기 등의 제조품과 관련해서 일본이 받는 혜택을 한국이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7) CGM의 컨테이너선 주문

금진호 장관이 다시 이 사안을 언급할 경우 이 사안은 CGM의 결정 영역이라고 밝힐 수 있음. 그리고 CGM이 최근 선박의 정보이제이션을 한국의 조선업체에 맡겼음을 언급할 수 있음.

2) 산업 협력

(1) 대규모 한국 산업프로젝트

가. 원자력에너지 :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을 위한 한불 협력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프랑스의 프라마툼(Framatome)과 알스툼(Alsthom)이 응찰한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음.

나. 교통 : 경부선 고속철도 건설 결정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장관은 프랑스의 역량과 관심을 언급하고 기술이전과 한국 기업의 참여와 같은 심도 있는 협력에 대해 강조할 수 있음. 프랑시기업들이 관심 있는 교통 관련 다른 분야(알스툼과 대우가 검토하고 있는 전기기관차 프로젝트 등), 자동경전철(VAL, Véhicule Automatique Lége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 가능

다. 우주 : 한국 정부가 우주산업개발에 대한 주요 결정을 추후로 미룬 상황에서 프랑스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가능

라. 철강업 : 장관은 에어리퀴드(Air Liquide)의 두 번째 계약 체결에 만족을 표하고 포스코의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프랑스 기업들의 관심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 클레심(Clécim)社, FCB社, Ugine Acier社가 관심을 보이는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공장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 금진호 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음.

마. 다른 사업 프로젝트 : LNG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1988년 서울올림픽(방송, 의료), 군수산업 분야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

(2) 한불 기업 차원의 협력

1985년 4월 8일 양국 상공부 장관들이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프랑스의 산업진흥발전협회와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가능. 생고뱅과 금방주식회사 사이의 협약은 한불산업협력의 좋은 본보기로 강조할 수 있음. 제3국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음. 가령 한국 동아그룹이 리비아 대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의 르노트럭(RVI, Renault Véhicules industriels), 포클랭(Poclair), 우시노르(Usinor) 등의 기업들에 설비 공급을 요청함.

4.4.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délégué auprès du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chargé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교육부 장관 산하 연구고등교육 위임장관실을 위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408
페이지: 20~20

1986년 4월 14~16일 전두환 한국 대통령 내외의 프랑스 공식방문

이 공식 방문 시에 4월 14일 15시, 알랭 드바케 연구고등교육 위임장관은 장관실에서 전학제 과학기술처 장관을 맞을 예정임. 전학제 장관은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동행할 예정이고 회담은 영어로 진행될 것임.

4.5. Note pour le cabinet du Ministre. Entretien du Ministre avec l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à l'occasion de la visite en Fran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14-16 avril 1986) (장관실을 위한 보고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1986년 4월 14-16일) 동안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

생산일자: 19860326
페이지: 21~22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동안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은 4월 15일 15시, 혹은 17시 30분에 프랑스의 해당 장관과 1시간 동안(통역 포함) 회담을 하길 원함. 1983년 12월 11일 서울,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서 “과학, 기술, 상업, 산업 차원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번씩 회의를 갖기로 함. 이번 4월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파리 방문은 양해각서에 규정된 회의가 아님.

회담 준비를 위해 3월 17일 대외관계부 과학기술협력국에서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프랑스 교육부, 연구기술부 협력개발부서, 국제연구기술부서 대표들과 사전조율회의를 했음. 회의에서 장관 회담은 새로운 협력 주제를 다루지 않고, 에너지, 원격탐사, 해양 관련 주제에 관한 최근 한불 협력 발전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음. 한국 측이 밝힌 이와 같은 회담 요청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알려주길 원하며 회담 날짜에 대해 회신을 바람. 주불 한국대사관에 전달해야 함.

4.6. Ministère des Relations Exterieures Bordereau d'envoi. Préparation de l'entretien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avec son homologue coréen (대외관계부 우편 명세서. 한불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 준비)

생산일자: 19860320
페이지: 23~26

기록철 관리번호 PZA0008002 제50번 건과 동일 내용

4.7. Corée- Stagiaires dans le domaine du developpement des ressources marines (한국- 해양자원개발 분야의 전략)

생산일자: 19860317

페이지: 27~28

해양자원개발 분야 한국 연수생들 관련 보고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에 수행할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담 준비를 위해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파리에 파견되었음. 본인은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에서 3월 17일에 만날 예정이며 연구부 대표가 함께 한 가운데 과학기술협력국 국장이 맞이할 것임. 이 회의는 합동위원회를 위한 추가 회의가 아님.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원격탐사를 비롯한 4개 영역에서 박사후과정 한국 연구자들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알기 원함. 한국은 연수비용 일체(항공비, 체류비, 교육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하지만 한국이 교육비를 프랑스가 부담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한국의 요청에 협력개발(CODEV)의 답을 전달하기 위해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IFREMER)의 "이"에게 문의했음. 다음의 결론을 얻음.

-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박사후과정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의 어업연구개발원(FRDA)과의 협력이 만족스럽게 진행되는 만큼 이 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한국해양연구소(KORDI)로부터도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 어떤 기관의 연수생이든지 양국이 공동으로 정한 명확한 분야에 한해서 받을 수 있음.
- 교육비는 최소한이 될 가능성 있음. 한국 연수생들에게 무상 교육도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사항은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음.
- 1986년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1명의 연수생만 받을 수 있음. 매년 다시 검토해야 함.

4.8. Note pour la sous-direction de la recherche (연구과를 위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17

페이지: 29~31

원격탐사 분야에서의 한국 연수생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에 수행할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담 준비를 위해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파리에 파견되었음. 본인은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에서 3월 17일에 만날 예정이며 연구부 대표가 함께 한 가운데 과학기술협력국 국장이 맞이할 것임. 이 회의는 합동위원회를 위한 추가회의가 아님.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원격탐사를 비롯한 4개 영역에서 박사후과정 한국 연구자들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알기 원함. 한국은 연수비용 일체(항공비, 체류비, 교육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하지만 한국이 교육비를 프랑스가 부담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한국의 요청에 협력개발(CODEV)의 답을 전달하기 위해 국립우주연구소(CNES)의 르프랑(Lefranc)에게 문의했음. 다음의 결론을 얻음.

- 국립우주연구소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한국 연수생을 받게끔 약속을 할 수 없음. 매년 검토해야 함. 1986~87년 1년 동안 2명의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 9개월 동안의 원격탐사 교육과정(9만 5천 프랑/9개월)이 될 수 있음.
- 1986년 카이스트 출신 연수생 2명이 기존 협력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프랑스에 오기로 함(이미징 레이더). 이 외 연수생은 이 프로그램 틀 밖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새로운 공동 프로그램이 정해질 경우에 한해서 박사후과정 연수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교육비용 부담은 국립우주연구소가 원격탐사교육과정 연수생 1명의 비용을 담당할 가능성 있음. 하지만 협력개발(CODEV)에 이 수준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 붙음.
- 개발국(directions du développement)들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국립우주연구소의 르프랑에게 알렸음. 현재로서는 한국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과는 재정 문제 언급을 피해야 함. 이 문제 언급을 피할 수 없다면 프랑스는 비용에 대한 양국의 공동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야 함.

4.9. Note, en vue de la réunion avec M. Heung-Yil, Directeur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au Ministè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en Corée (한국 과기처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의 회의를 위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60317

페이지: 32~34

4월 중순에 예정된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시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이 3월 17일과 18일 프랑스 방문.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의 프랑스 방문은 고등 연구자들의 연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럽 여러 국가 방문의 틀 안에 있는 것임. 한국은 자국 연구자들의 연수국가 다양화를 결정하였음. 지금부터 2001년까지 3천 명의 과학자들을 국비로 유럽에서 연수할 계획임. 1985년 12월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이 연수프로그램을 한불협력의 틀 안에서 실시하고자 요청하였음. 이는 연수비용을 프랑스가 부담하는 것을 암시함. 이 사안은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의 회의에서 핵심이 될 것이므로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가 연구기술부, 교육부, 협력개발 대표들과 함께 진행되었음. 다음처럼 답하기로 결정함.

- 1) 원자력에너지: 이 분야의 연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원자력청(CEA)의 협약의 틀 안에서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 nucléaire)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한국 연수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자력청이 연수지원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연수비용은 경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 원격탐사: 국립우주연구소는 연수가 국립우주연구소/카이스트, 국립우주연구소/다른 연구원 등의 프로그램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국립우주연구소는 1987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길 원하며 연수프로그램이 상업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길 원함. 1년에 한두 명의 연수생을 받

- 을 수 있음(톨루즈 원격탐사교육과정 9개월).
- 3) 해양자원개발 :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분야(어업-수중 펌프)에서 한국의 어업연구개발원과 한국해양연구소로부터 연수생을 받는 것에 호의적임. 다른 영역 연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영역이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것이 조건임.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1986년에 1명의 연수생을 받을 수 있음.
 - 4) 유전공학 : 리옹 소재 메리유(Mérieux) 연구원에 의하면 한국 시장은 아주 좁고 보호 장벽이 높음. 한국 내에서의 생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한국의 간염백신과 파스퇴르 간염백신의 경쟁, 파스퇴르 간염백신이 완전히 소외됨). 이 영역에서의 프랑스 활동은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지역에서의 메리유 연구원의 전략은 중국, 인도, 일본을 겨냥할 것임.

4.10. Entretiens du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담)

생산일자: 19860307

페이지: 35~37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동행할 과학기술처 장관 방문을 준비하는 문서 전체를 동봉함. 이 문서는 과거처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제출한 것임.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전반적 의견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 관련 많은 한불 회의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었음. 모든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이전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신규 프로젝트 목록을 제시했었고, 이번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임. 한국 측의 제안처럼 신규 프로젝트를 늘리게 되면 한불협력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의 분산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난 문화과학기술 합동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번 방문은 양국의 관련 장관들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1) 고등 과학자 연수

정치적 의미와 궁극적 이점을 고려할 때 자세히 연구해야 사안임. 한국 측은 2001년까지 한국 연구자 900명의 프랑스 연수를 원함. 프랑스 측의 비용 일부 부담은 민감한 문제가 될 것임.

2) 에너지

고속중식료(FBR)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명백하며, 이미 프랑스의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력 분야임. 한국 측은 과학기술처 소관이 아닌 에너지경제의 주요 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하지만 프랑스 측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프랑스의 협력 노력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거대과학(Big Sciences)" 분야에서의 협력

자동비행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전 협약과 일반사항에 대해서만 언급

4) 중소기업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언급

5)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협력 장려

제3세계 국가에서의 활동을 위한 한불 기업들 혹은 연구부서들 간의 협력에 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

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제기됨. 상업적 차원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은 고려해볼 수 있음.

6) 산업 차원의 첨단기술협력 증진

이 프로젝트들의 일부는 이미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검토된 것이고, 해당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것임. 나머지는 프랑스 측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한국 측의 요청임. 새로운 요청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이 아니라 연말에 예정된 한국 과기처 장관과 프랑스 장관의 회담에서 검토될 수 있음.

4.11. Lettre signée de M. Hubert Curien adressée à M. Misieur Hakze Cho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en Corée (위베르 퀴리앙이 한국의 과기부장관 전학제에게 보내는 서신)

생산일자: 19860226

페이지: 38~39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이 신임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보낸 영전 축하 서신으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확신을 덧붙임.

4.12. Visite du président Chun en France : relation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전두환 대통령 의 프랑스 방문: 과학기술 관계)

생산일자: 19860217

페이지: 40~41

과학기술처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수행단에 포함될 것임. 이는 과학기술 분야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편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영역에서 유럽을 향해 협력관계를 다각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신임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은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한불 관계의 발전과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협력위원회의 결론에 만족을 표했음. 한국 장관은 프랑스 방문이 12월에 결정된 방향성과 활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하고 다음 합동위원회 개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힘.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고등 연구자들의 연수를 다각화시키고자 했음. 한국 정부는 고등 연구자들의 프랑스 연수 가능성을 알고자 함(한국 정부가 비용 부담). 한국 장관은 프랑스 방문 시에 프랑스 해당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길 원했음. 파리에서 장관 회담 준비를 위해 한국 장관은 과기처 장상태 국제업무 총괄책임자의 파리 방문(3월 말~4월 초)을 제안했음. 장상태 국제업무 총괄책임자는 합동위원회 참가자들이 잘 아는 인물이며, 지난 9월 전임 과학기술처 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에 동행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번 프랑스를 방문했었음.

4.13. Remaniement du cabinet sud-coréen (한국 내각 개편)

생산일자: 19860109

페이지: 42~45

작년 2월 총선 이후 개각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1월 7일, 한국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하였음. 장관

급 24명 인사 중에, 8명 부처 장관을 비롯한 10명이 경질되었음. 국무총리(노신영),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금진호), 문화공보부 장관은 유임되었음. 이 개각은 기술적 차원임.

- 1) 이 개각은 경제 관련 5개 장관직에 영향을 미쳤음. 신임 장관들은 기술관료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는 신병현의 뒤를 이어 김만제 재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음. 김만제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원장을 역임했으며, 탁월한 경제학자로 간주 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신임 정인용 재무부 장관은 현 정부 출신임. 최창락 동력자원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됨. 최창락은 몇 년 전 주불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이었음. 건설부 장관도 바뀌었음. 산업 차원의 사명이 확실해지고 있는 과학기술처 장관직에는 독일에서 유학한 한국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학제 원장이 임명되었음.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대통령의 동기이자 유능했던 김성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경질은 설명 불가. 경제 관련 부처 개각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안정성이 핵심이며 1986년 예산 및 목표도 정해져 있음.
- 2) 몇 달 전부터 경질 가능성이 언급되던 국방부 장관직에는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이 임명되었음.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임.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이용호 체육부 장관의 경질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역동적이고 유능하게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임. 서울올림픽의 미국방송국의 중계권 협상에서의 상대적 실패를 책임진 것임. 박세직 총무처 장관이 체육부 장관직을 맡았음. 총무처 장관직에는 정관용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되었음. 전 “중앙정보부”의 제2인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되었음.
- 3) 국회 회기가 연말에 긴장 속에서 끝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개각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함. 대통령 대변인은 서울올림픽 개최로 인해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와 위협적인 국제적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내각의 결의와 유능함,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사안 운영에 대한 확고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야당인 신한민주당(NKDP)은 이 개각에 대해 “최근의 실패들”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지 못했고 새로운 인물의 기용도 대세를 바꿀만하지 않다고 비평함.

4.14. Memorandum conjoint (양해각서)

생산일자: 19831211

페이지: 46~51

- 1) 금진호 상공부 장관과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의 초청으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이 1983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음.
- 2) 이 방문 기간 동안 이정오 장관과 로랑 파비우스 장관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화길 원하는 만큼 원자력에너지, 원격탐사, 정보처리와 응용, 해양지질학, 해양학, 정밀화학, 무기재료, 농산물가공 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음을 결정했음.
 - 한불 과학기술협력 발전 장려
 - 양국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 간의 직접적 접촉 장려
- 3) 두 장관은 특히 다음을 결정했음.
 - 공동연구와 상호이익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 장려

- 연구자 교류, 세미나 개최, 원하는 분야에서의 연구 진행
 - 여러 차원에서 한국 측을 지원
 - 앞으로 결정할 모든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협력 추진
- 4) 두 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발전과 중소기업들 간의 기술이전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냄.
- 5) 두 장관은 협력 증진과 과학·기술·산업·산업의 차원에서의 협력 심화를 위해 프랑스 산업연구부와 한국 과학기술처가 1984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음.
-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 서명
 - 이정오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서명

※ 양해각서 영어본(49~51쪽)

4.15. Procès-verbal d'entretien de la première rencontre ministérielle entre Monsieur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Monsieur Kim Sung 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coréenne (위베르 퀴리앙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김성진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첫 번째 장관회담 의사록)

생산일자: 19850903

페이지: 52~57

1983년 12월 11일 프랑스 산업연구부 장관과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서울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그리고 위베르 퀴리앙 연구기술부 장관의 초청으로 김성진 과학기술처 장관이 1985년 9월 2일에서 5일까지 프랑스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였고, 양해각서에 규정된 첫 번째 장관 회담에 참석했음. 9월 3일의 회담 동안 두 장관은,

- 1) 양국 사이의 우호관계와 협력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만족을 표했고 양국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 협력이 산업 차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음.
 - 2) 9월 2일에 진행된 양국 대표단 회의 보고서(첨부)를 채택했음. 이 회의에서 긍정적 의견을 얻은 프로젝트는 사용 가능한 재정수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한불합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임. 다음 장관 회담은 서울에서, 원칙적으로, 1986년 연말 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음. 회담 일정과 주제는 외교적 경로로 정할 것임.
- 위베르 퀴리앙 장관의 서명 없음.
 - 김성진 장관의 서명 없음.

※ 첨부: 과학기술협력 관련 한불실무회의 보고서. 1985년 9월 2일. (54~55쪽)

1983년 12월 11일 서명된 양해각서에 의거, 과학기술협력 관련 실무회의가 1985년 9월 2일 파리에서 열림. 연구기술부와 산업재편무역부의 브뤼노 드레이에(Bruno Delaye) 국제업무대표와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 장성태 부국장이 공동 주재했음.

1) 기관 협력

- (1) 양국 대표단은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한불 과학협력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소와 카이스트의 우주과학 협력,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과 한

국해양연구소의 협력, 프랑스에너지관리청/프랑스석유연구원(IFP)/지질광물자원연구원(BRGM)과 한국 동력자원연구소(KIER)의 협력, 소피아-앙티폴리스(Sophia-Antipolis)와 대덕단지의 협력, 공동연구프로젝트의 틀 안에서의 연구자 교류(국립우주연구소-한국과학재단(KOSEF) 협약)

(2) 양국 대표단은 다음의 바램을 표현함.

- 공동연구, 워크숍과 세미나, 정보교류, 연구자 교류를 통한 협력
- 연구기관들 사이의 자매결연협약 그리고(혹은) 협력협약은 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
- 잠재적 산업 목표는 명백하게 정해져야 함.

2) 공동연구 프로젝트

다음의 프로젝트 발전의 중요성 언급함.

- 원격탐사 기술 관련 협력 프로젝트(국립우주연구소-카이스트)
 - 방향성 응고 초합금 분야에서 기계적 성질과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국가항공우주연구소(ONERA, Office National d'Etudes et de Recherches Aérospatiales)-한국기계연구원(KIMM))
- 당당 기업들 간의 접촉 확대가 다음 분야에서의 협력에 앞서 필요함(생물공학, 컴퓨터보조번역(CAT), CAD/CAM, 분산 컴퓨팅). 양국 대표단은 고체화학 분야에서 국립우주연구소와 카이스트의 협력 추진을 장려함.

3) 연수

- 한국 대표단은 한국 고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장기 연수 계획에 대해 프랑스의 지지를 원함.
- 프랑스 대표단은 한국 측의 이 요청을 기록하고, 프랑스 실험실에서의 연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프랑스 대표단 명단 (56쪽)

※ 한국 대표단 명단 (57쪽)

4.16. Minutes of The Eighth Session of the France-Korea Mixed Commission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제8회 한불문화과학기술협력 합동위원회 보고서)

생산일자: 19851219

페이지: 58~95

한불 문화기술협력협약 제20조에 따라 제8회 한불합동위원회가 1985년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음. 프랑스 대표단은 대외관계부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 크리스티앙 프레트르(Christian Prettre) 국장이 인솔, 한국 대표단은 외무부 이승곤 정보문화국장이 인솔

다음 사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이 동의함.

1) 한불 외교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프로그램

- 한국 측은 장관급 조정위원회와 비정부위원회가 성공적인 100주년 행사 진행을 위해 조직되었음을 프랑스 측에 설명. 프랑스 측은 공무원과 민간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조직되었음을 알림.
- 양측이 준비 중인 10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공유함.

- 양측은 양국의 기념행사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적 루트를 통해 논의하기로 동의함.

2)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 측은 20명의 프랑스어 교사에게 여름방학 장학금을 수여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의해 현직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연수를 진행(매년 60명: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4주)하기로 제안. 한국 측은 프랑스 유학하려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프랑스어 시험 기획에 대한 프랑스 측의 관심을 기록함.

- 프랑스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 측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와 파리7대학에서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의도를 밝힘. 한국의 대학에서 박사후과정에 지원하는 프랑스 학생들에게 24개월 장학금을 수여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프랑스 측은 환영함.

-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 학생 및 교수의 교류, 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3) 시청각과 언론 분야에서의 협력

- 영화: 한국의 영화진흥공사(Motion Promotion Corporation) 전문컨설턴트 혹은 직원의 프랑스 초청 제안. 한국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한국에서 프랑스 영화 상영이 증가하길 바란다는 의견 피력. 한국 측은 이 제안에 감사를 표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양측은 양국에서의 영화페스티벌을 장려하기로 함.

-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측은 1986년 3명의 기자(6개월)와 2명의 방송국 직원(1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함.(1987년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측은 한국 방송 채널에 프랑스어 강좌 “앙트레 리브르(Entrée libre)”를 제공하고자 함. 한국 방송국 사장들을 프랑스에 가능한 빨리 다시 초청하고자 함. 양국의 방송국 관련 협력협약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양측은 비영리 목적으로 클래식, 전통음악, 대중가요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교류의 지속을 원함.

4)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프랑스 측은 프랑스 문화부가 워크숍과 장학금을 통해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를 원한다고 표현. 1985년 제1회 여름음악학교의 결과에 만족을 표함. 프랑스 연주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거주 수상 경력 음악가들의 연주회 개최에 대한 의지 표현. 서울올림픽 개최연도인 1988년에 스포츠 관련 미술전시회를 제안한 프랑스 측의 의견을 한국 측은 환영함. 양국의 국립도서관의 교류 장려에 동의함. 양국은 작가와 출판인들의 교류를 희망하고,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판매를 위한 도서전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함.

5)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

프랑스 측은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를 계속 지원할 것임. 양국의 국립스포츠협회가 스포츠 분야에서 상호 지원을 장려하기로 동의했음. 한국 측은 1986년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프랑스의 초청을 전달하기로 했음.

6) 과학기술협력

- 계량학: 협력 심화에 동의, 원자력 분야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의 협력도 가능

- 경제학과 경영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을 비롯한 한국 기관들과 프랑스 해당 기관들과의 협력 지속에 동의함.

- 광물자원과 해저탐험: 한국 측은 지질공학, 칼륨-아르곤 연대 측정, 고지자기학, 고순도의 희토류와 다른 산화물 생산, 서해 쇄설성 광물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원함. 프랑스 측은 제안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를 원함. 양측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의 프랑스 연수 지속에 동의함.

- 어업: 양측은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과 어업연구개발원 사이의 지금까지 협력에 만족하고 협력 심화를 원함.

- 데이터뱅크 사용 증진과 컴퓨터 네트워크 : 이 프로그램은 이미 상업적 수준에 도달했음. 1986년 데이콤 전문가의 퀘스텔 랭귀지(Questel language) 교육과 다양한 데이터뱅크 액세스 교육에 초청했음. 또한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연구자도 초청했음.
- 정밀화학과 관련된 생화학과 효소 기술 개발 : 한국 측은 이 프로그램이 콩피에뉴 공과대학(UTC,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Compiègne)과 카이스트 생명공학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 활성화되길 원하고, 카이스트 유전공학연구소와 프랑스 관련 연구소의 협력이 시작되길 원함.
- 응용화학과 무기재료에서의 기술협력 : 양측은 에너지 보존과 저장 분야에서 카이스트와 국립인지과학대학(ENSC,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ognitique)의 협력 프로젝트 이행 장려에 동의. 한국화학연구원(KRIC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연수는 국립응용화학연구원(IRCHA,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chimique appliquée)과 한국화학연구원의 협약 갱신에 달려 있음.
- 산업 : 중소기업 차원의 한불교류 프로젝트의 결과에 만족과 지속성의 필요 피력, 산업재산권 차원의 협력, 컴퓨터 과학 차원의 교류
- 에너지 : 양측은 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 결과에 만족을 드러냄. (프랑스대사관에) 한국 내의 에너지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소피아 앙티폴리시에 (프랑스 내의) 에너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특히 만족을 표함. 석유 지구화학, 에너지 계획, 원자력에너지에서의 협력 상황 관련
- 지도제작 원격감지 기술 : 지도제작-지적 조사, 원격감지 기술, 우주 관련 협력 관련
- 농식품 : 양측은 와인용 포도 재배 분야의 협력 결과에 만족. 산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관련 한국 측의 요청에, 프랑스 측은 1986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제안
- 해양연구 : 한국 측은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소의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길 희망함. 프랑스 측은 수중 펌프 SM 450의 과학적 환경 관련 협력을 고려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림.
- 재료과학 : 양측은 국립항공우주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의 효과적인 효력에 만족하고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의 지속에 동의했음.
-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대덕단지의 협력 : 한국 측은 이 두 기관 사이의 협력이 연구팀 및 연수생 교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 프랑스 측은 이 교류가 얼마 전 창립된 과학단지협회(테크노폴 클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답함.
-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교류 : 한국 측은 양국 R&D 시스템과 활동의 상호이해 증진과 새로운 협력 가능성 탐색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결정 관련 공무원/전문가 파견단에 대한 정기적 교류 제안. 프랑스 측은 다양한 양국 위원회와 양국 과학기술부처 간의 연 회의가 이 같은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을 제안. 하지만 상호협약에 기반해 추가적인 방문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CNRS)와 한국과학재단(KOSEF) 사이의 연구자 교류 : 양측은 이 두 기관의 협력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더 증가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박사후과정 연구자 연수 : 한국 측은 한국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의 프랑스 기관에서의 연수 증진을 제안함. 프랑스 측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연수비용이 높을 것에 대해 언급함.
- 기타 : 연수 분야는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임. 양측은 상대방 측의 절차에 맞추어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 전문가 초청, 연수생 파견을 진행할 것에 동의. 파견단 및 초청을 비롯한 협력 프로그램은 양측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행할 것임. 프랑스 측은 국제행정연구원(IIAP) 과정에 참여하려는 공무원(1~2명)에

게 계속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에 동의

7) 다음 회의

차기 한불공동위원회는 1987년 파리에서 열림. 일정과 다른 세부사항은 외교적 루트를 통해 논의할 것임.

서명

프랑스 정부 대표-프랑스 대외관계부 크리스티앙 프레트르(Christian Prettre) 문화과학기술관계국장

한국 정부 대표-외무부 이승곤 정보문화국장

※ 첨부1: 대표단 명단: 한국 대표단(88~89쪽), 프랑스 대표단(90~91쪽)

※ 첨부2: 한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 목록(92~93쪽)

※ 첨부3: 프랑스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 목록(94~95쪽)

4.17. Note de présentation (설명보고서)

생산일자: 19860409

페이지: 96~99

이 회담은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시에 이루어지는 것임. 4월 15일, 한국 상공부 장관과 프랑스 산업체 장관 마들랭 장관의 회담 개최. 이 회담의 목적은 한불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발전 상황을 검토하는 것임.

이 장관 회담에 앞서 3월 17일에 사전 조율 회의가 외무부 과학기술협력국에서 진행되었음. 한국 과거처 박흥일 국제협력담당관, 프랑스 교육부 대표, 협력개발부서 대표, 연구부 국제연구기술부서 대표가 이 회의에 참여하여 회담 주제를 정하였음. 첫 번째는 에너지(원자력에너지, 에너지 관리, 원격탐사, 해양) 분야에 관련된 한불협력의 주요 발전 상황을 검토하는 것임. 두 번째는 박사후과정 과학자들의 연수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에 답하는 것임 (이 연수 분야는 앞서 언급한 영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첫 번째와 두 번째 회담 주제는 차례대로 다루어야 함. 협력 사안을 먼저 다루고, 연수 사안을 다루어야 함. 연수 프로그램은 한불협력의 주요 분야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할 때에만 구체화될 수 있음.

한국 측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프랑스를 위한 상업적 혹은 산업적 보상이 없는 기술이전을 획득할 목적의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하기 원했음.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제도적 장치인 과학기술합동위원회, 장관급 연례 회담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18. Introduction, La Coope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Franco-Coréenne, Cadre general- Strategie (서론, 한불 과학기술 협력, 일반적인 틀과 전략)

생산일자: 19860409

페이지: 100~110

한국은 1960-70년대 값싼 노동력과 수출 지향적 엄격한 계획에 바탕하여 경제 발전에 힘썼고, 1980년부터 점진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 경제가 급성장했음. 하지만 연구 수준이 기술 개발을 따라오지 못하자, 한국은 에너

지, 정보처리, 화학, 생명공학기술, 원격탐사 등의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 발전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외국의 도움을 얻고자 함. 원자력 분야의 협력은 프랑스에게 산업적·상업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고, 우주 분야에서도 중요할 가능성 있음. 하지만 프랑스 경제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지식이전 협력을 승인할 수 없음. 기술이전의 경우 이를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업적 보장이 없는 생명공학기술 분야, 관련 산업체들과 사전 조율 없는 생산공학과 정보처리 분야에서의 과학적 협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해양 분야에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의 균형 잡힌 협력, 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 에너지관리청(AFME)의 균형 잡힌 협력은 지속하기로 결정했음. 우주 분야에서의 열린 입장은 한국의 관련 프로그램이 추후 결정되었을 때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프랑스 산업계의 입장에 부응하는 것임.

1) 협력의 주요 분야들

(1) 에너지

가. 원자력에너지

장관은 이 분야 협력의 규모와 긴밀함에 만족을 표할 수 있고,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방식에 관해 한국 측에 질문할 수 있음. 1986년 9월에 개최될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나. 에너지 계획, 에너지 경제

1983년 말부터 한국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프랑스 모델을 검토하고서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적극적 협력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이 협력에는 연수, 공동연구, 산업계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이 협력은 한국의 공공기관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민간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KEMCO)과 이루어지고 있음. 장관은 양국을 위한 중요한 경제발전이 이르게 된 이 분야 협력이 조화롭게 지속되는 것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2) 우주, 원격탐사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통신위성을 갖추고자 하였으나, 공공투자 지체로 인해 1990년대 초로 이 프로젝트를 연기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과학기술처는 한국 우주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KASSA,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Agency)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하에 설립했음. 원격탐사 조직을 위한 기본계획이 1986년 초에 과학기술처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기술처에서는 지상수신소 계획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음.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소는 한국 기관들과 신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주시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함. 장관은 우주, 특히 원격탐사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 발전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언급할 수 있음. 이 협력 발전은 한국이 특정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해당 분야 한국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한국 장관의 최근 결론과 의도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해양

어업자원연구와 양식업에 있어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원과 한국의 어업연구개발원의 적극적이고 균형 잡힌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올해, 상대 기관장 초청을 통해 1987-88년 프로그램을 정하고자 함. 한국 측은 1985년 9월 장관 회담과 12월 합동위원회 당시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원과 과거처 직속 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의 협력을 원한다고 했음. 협력 분야는 해양 관련 원격탐사, 지질학, 지구과학, 해양광물자원개발, 한국이 구매하고자 하는 프랑스 코멕스(COMEX)社 제작 수중 펌프 SM 450의 과학적 활용임. 한국 측의 이

요청에 대해, 프랑스는 이 새로운 협력은 한국 전문가들이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답했음. 장관은 조화로운 협력 발전을 강조하고, 새로운 협력 발전(특히, 한국해양연구소와의 협력)은 양국 전문가들 사이의 사전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할 수 있음.

2) 박사후과정 과학자의 연수

(1) 도입부: 한국 연구자 연수-현재 상황

프랑스 연구소는 한국 연구의 낮은 수준과 통제 없는 기술이전의 위험으로 인해 한불 공동연구에 큰 관심이 없음. 따라서 과학 협력은 교육자들이나 연구자들의 프랑스 연수가 주를 이루었음. 매년 박사과정 유학생이나 고등 수준의 연수자 40명에게 장학금 수여. 경제, 에너지, 천연자원개발 분야가 주를 이룸. 매년 8~10명 연구자 교류를 위한 국립우주연구소와 한국과학재단의 협약이 있음.

(2) 박사후과정 한국 과학자 연수 요청

박사후과정 과학자 연수 사안은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고, 포괄적 원칙협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한국 측은 지금부터 2001년까지 900명의 박사후과정 연구자 연수를 요청했음. 한국 측은 연수비용(교통, 체류,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프랑스에 교육비 부담을 맡기려고 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해당 기관들과 외무부와 함께 재정조달방식을 찾아야 할 것임. 박사후과정 연구자 연수는 현재 한불협력 프로그램 대상 분야(원자력에너지, 원격탐사, 해양자원개발)로만 한정되어야 함. 장관은 양국이 정해놓은 협력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해당 기관들의 사전조율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 측이 요청한 이 연수 프로그램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의견을 표할 수 있음.

4.19. Training of High Level Scientists and Engineers in France (고위급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프랑스 연수)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11~113

한국이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함. 현재 한국 R&D 인력은 1만 명당 8명으로 총 3만 2천 명임. 선진국의 경우 R&D 인력은 1만 명당 30명 수준임. 2000년대 15만 명 정도의 R&D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함(총인구수가 5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 15만 명의 10%인 1만 5천 명의 R&D 인력이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급으로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계획에 의하면 대략 1만 명의 박사가 2001년까지 해외에 있는 최고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 박사후과정 연수를 보내고자 함(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이 중 30%를 유럽 선진국에 파견할 예정임. 다음의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 프랑스와의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람.

- 연수 인원: 2001년까지 900명(연당 60명 정도)
- 주요 분야: 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공학(기계공학, 전자, 정밀화학공학, 재료공학, 유전공학 등)
- 파견 기간: 1~2년
- 연수 후보 자격: 공학박사 혹은 과학박사

- 적절한 박사후과정 연수 기관을 찾고 한국 연구자들이 프랑스 기관에서 주요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이 도와주길 요청함.

4.20.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Solution of Energy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between Korea and France (21세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불기술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14~115

- 1) 한정된 화석에너지자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우라늄의 효율적 사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현재 사용 중인 경수로보다 60배 정도 효율적인 고속증식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21세기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프랑스는 고속증식로 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태양,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의 기술협력은 바람직함.
- 2) 고속증식로 가능성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랑스의 원자력청의 공동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 이 분야에서 협력 심화가 필요함.
- 3) 희망하는 주요 협력 내용
 - 사용후핵연료 활용을 위한 이행 프로젝트 선정
 -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다자간 협력협약 분석
 - 고속증식로와 경수로의 경제조건 비교
 - 공동 기술과 특수 기술의 파생에 관한 고속증식로와 경수로의 비교
 - 기술 · 경제적 가능성에 관한 고속증식로와 경수로 산업의 비교
 -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개량형 가압수형 원자로와 고속증식로의 손익 비교
 - 핵심기술인 원자력 기술 분석
 - 고속증식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형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 기본 고속증식로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시스템 준비
 - 태양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공동연구

4.21.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Big Sciences (거대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16~116

- 1) 양측은 다음 기관들의 협력관계 발전에 동의함.
 - 우주과학 분야에서 카이스트와 국립우주연구소의 협력
 - 해양 연구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분야에서 한국해양연구소와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의 협력
- 2) 컴퓨터 항공기 개발을 비롯한 협력 프로젝트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것임.
- 3) 한국의 입장
 - 1980년대 : 해양탐험과 위성통신 분야에서 기본 연구와 전문인력 연수를 위한 협력

- 1990년대: 심해광물자원, 전자파동 관찰, 항공기, 조력발전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의 발전과 확장
- 4) 이 협력 관련 제안은 다음과 같음.
- 해양학에 관한 한불공동연구
 - 소형 첨단기술 연료 효율 컴퓨터 항공기의 개발

4.22.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French Small and Medium Industries (한불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17~118

1) 프로젝트 개요

한불기술협력 계획에 따라 정밀화학, 기계, 금속, 전기·전자,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한불 중소기업 간의 공동 투자, 기술협력, 기술연수 실행, 프랑스 상주 전문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것임.

2) 프로젝트 실행 기관

-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

3) 프로젝트 추진 단계

- 시범 프로젝트(1984-85): 기술이전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
- 전파(1986-87): 기술이전 프로젝트 전파
- 자립(1988-89): 양국의 산업에 의한 기술이전 프로젝트의 안정화

4) 프로젝트 달성

- 1985년 말 기술협력, 5개 공동투자, 38개 협약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

5) 기술협력을 위한 방향

-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에 필요한 재정 부족, 첨단기술 활용과 이해를 위해 기술인력 부족
- 방향성
 - 기술 인력의 프랑스 연수 촉진(프랑스 정부의 비용 부담, 매년 5~10명의 연수)
 - 일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약점을 줄이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교류의 활성화
 - 양국의 공동투자자와 기술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 한국 중소기업 발전 홍보를 통해 양국의 기술협력 분위기 강화

4.23. Promotion of Industrial High-Technology Cooperation (산업 첨단기술 협력 증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19~121

- 1) 프랑스 측은 양국의 관련 산업체 사이의 교류 증진이 산업 첨단기술 협력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함. 한국 측은 초기 단계에서의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산업체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

고 프랑스의 선진 기술 유치가 용이할 것이고, 한국에서의 프랑스 투자가 장려될 것이라고 언급함.

2) 양국의 공동 관심사 될 만한 프로젝트 목표로 제안

※ **도표** : 프로젝트 제목, 양국의 실행 기관(120~121쪽)

4.24. Note pour monsieur le Ministre : Votre entretien avec le Ministre Coréen de l'Industrie, le 14 avril 1986 (장관을 위한 보고서 : 한국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 (1986년 4월14일))

생산일자: 19860410
페이지: 122~124

원자력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언급해야 할 주요 사안은 원자력에너지임. 이 분야의 한불관계에 대해, 한불 대통령 회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언급될 것임. 따라서 한국 상공부 장관과 프랑스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야 함.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1981년과 1982년, 프라마툼과 알스툼이 울진 9호기와 10호기 관련 계약을 체결했음)
- 한국기업들과의 훌륭한 협력을 만들어 냈던 프라마툼과 알스툼의 노력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
- 프랑스기업들이 얼마 전 응찰한 11호기와 12호기 프로젝트가 이 분야 한불협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
- 1차 건물과 2차 건물 전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프라마툼과 알스툼에 문의를 하길 원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

LNG 가스

이 분야에서 다음이 중요함.

- 부이그-테크니가즈(Bouygues-Technigaz)에 의한 평택 LNG 제1호 터미널 건설
- 소프레가즈(Sofregaz)는 한국 엔지니어 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가스 설비 도면 검토
- 소프레가즈에 의한 가스 연수원 프로젝트 검토

다음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국 기업들의 훌륭한 관계에 만족을 표함.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프랑스의 특별한 관심을 언급
- 가스 연수원 프로젝트에 대한 프랑스의 재정조달 조건 확인(1천만 프랑 증여)

에너지 관리

1984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전력공사와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이 협약을 체결했음.

회담 시 장관은 한국의 두 기관과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의 좋은 협력 관계에 만족을 표하고, 이 협력 관계가 한불 기업들 간의 상업적 · 산업적 협약 체결로 이어지는 것에 만족을 표할 수 있음.

4.25. Minutes of the Third Franco-Korean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on Nuclear Energy (제3회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록)

생산일자: 19850618

페이지: 125~138

전문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한불협약의 틀 안에서 제3회 원자력에너지 한불공동조정위원회가 1985년 6월 17~18일 파리에서 개최됨. 르농(Renon) 원자력청장과 과학기술처 권원기 원자력상임위원이 공동 주재했음.

1) 정책 설명

프랑스 측 대표인 르농 원자력청장이 프랑스의 원자력 상황에 대해 정치적, 산업적 차원에서 설명했다. 한국 측 대표인 권원기 과기처 원자력상임위원이 한국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2) 협정 검토

원자력청과 과학기술처의 1974년 협약

이 협약은 1985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함. 제2회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된 것처럼 1981년 4월에 체결된 새로운 정부간 협약이 제1차 협약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1) 정부간 협약 후속조치에 관한 원자력청과 과학기술처 협의

가. 인력 연수 : 양측은 과학기술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KOPEC), 한국표준연구소(KSRI)의 직원 연수 관련 지난 프로그램과 추후 연수프로그램 검토

나. 상업용 고속증식로 도입 가능성 공동 연구 : 1983년 7월 13일 조정위원회에서, 상업용 고속증식로 도입 가능성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음. 이 검토 준비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실무회의 이후 잘 진행됨.

다. 국립원자력과학기술원(INSTN, 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techniques nucléaires) 도입 : 양측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에 원자력공학 과정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관심을 확인함. 이 협력을 위한 재정 조달이 가능하다면 국립원자력과학기술원은 한국 당국에 경향을 제공할 것이고,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지원을 할 것임.

(2)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SCSIN, Service Centrale de Sûre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와 과학기술처 양측은 1982년 이후 실시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술 정보와 규제 공유, 안전관리당국 직원의 직원 연수 관련 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함. 한국에서의 모든 원자력 활동은 한국 원자력법의 규제 대상임을 한국 측은 강조했고, 프랑스 측은 이해했음. 한국 측이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프랑스 원자력안전당국의 지원을 바라다면, 이 협력은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NSC)와 프랑스의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IPSN) 협력 가능).

(3) 원자력청/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가. 연수 : 1983년 7월 조정위원회 회의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직원 한 명이 1984년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에서 연수 과정을 밟았고 두 번째 연수생은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 지부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세 번째 연수생은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에서 핵폐기물처리 관련 프랑스 학위를 준비했음. 현재, 과학기

술처에서 파견된 연수생 2명이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 연수 과정을 밟고 있음(과학기술처와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의 협약).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파견된 연수생 1명은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에서 연수를 3개월 연장했음. 1986년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는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파견되는 2~3명의 연수생을 받을 예정이고, 연수생 1명은 1년 동안 핵폐기물 처리 관련 논문 준비를 할 예정임.

나. 안전성 분석: 조정위원회의 결론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에 대한 프라마툼의 안전성 분석에 대한 협력 제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에 전달되었음. 이 업무에서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는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을 지원할 것이고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협력할 것임.

다. 해체: 한국 측은 해체 분야에서의 협력 의도를 피력했음.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는 해체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는 만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한국 측이 정보 교류, 협력, 전문적 연구를 위한 한국 측의 제안서를 검토할 것임.

3) 새로운 협력 제안

(1) 핵연료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 기술 개발을 위하여 프랑스의 원자력청과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제안했음.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랑스기업들이 공급한 원자력 시설의 깨끗한 사용과 핵연료 활동에서의 R&D 협력임.

(2)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청의 공동 R&D 연구

가. 핵폐기 저장과 처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요청으로 핵폐기물 처리와 저장 관련 R&D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음. 추후 협력 프로그램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장 저장용기, 저장이 검토될 것임. 더 자세한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양측의 R&D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회의가 필요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원자력청은 R&D 프로그램, 산업 프로세스, 설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나. 국가 프로그램에 적합한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공통 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불 연구용 원자로 연구 관련 협력

원자력청은 연구·실험용 원자로의 디자인, 건설, 가동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음. 한국은 다목적 원자로 건축을 고려 중이며, 원자력청은 한국 프로그램에 알맞은 그런 유형의 원자로를 규정하는 데 있어 협력할 수 있다고 의견 피력.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한국 산업체 역량으로 대부분 디자인되고 건축되어야 하는 다목적 원자로를 이미 규정하기 시작했음.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설비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청 혹은 프랑스기업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다. 클로테르 프로그램(CLOTAIRE program)

클로테르 프로그램의 목표는 증기발생기 3차원 실험 데이터세트를 확립하는 것임. 프랑스 측은 한국 관련 기관 및 기업에 클로테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고 있음. 한국 측은 해당 조직들에 대해 조사할 것임. 원자력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음.

(3) 원자력발전 디시플린(discipline)에서 기술 정보 교류

한국과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에 있어 자립이라는 한국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협력하고자 함. 첫 번째 단계로,

오는 가을 한국에 프랑스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일주일 세미나를 개최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이 세미나의 목표는 원전 자립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을 설명하고 어떤 분야에서 한국 측과 노력해야 할지 규정하는 것임.

(4) 교육훈련장비 지원 요청

원자력청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다양한 소형 가압수형 원자로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음. 최신 모델이 국립원자력과학기술원 사클레(Saclay) 과학단지의 교육과정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음. 시뮬레이터 시방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

차기 회의

양측은 한국 과학기술처의 초청으로 차기 회의를 1986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동의했음.

서명: 르농 원자력청 청장, 과학기술처 권원기 원자력상임위원

날짜: 1985년 6월 18일

4.26. Compte rendu de mission en Corée du Sud. 9/13 Décembre 1985 (한국 출장 보고서, 1985년 12월 9~13일)

생산일자: 19860122

페이지: 139~143

1) 우주 분야 활동

카이스트의 나정웅 박사가 이끄는 한국 우주분야 활동의 발전에 관한 실무팀은 관련 보고서를 1985년 중반에 김성진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제출했음. 이 보고서는 우주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조직 구성을 추천했음. 과거처 장관은 너무 야심찬 이 계획안 대신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하 더 작은 규모의 조직 구성을 결정했음. 이 조직의 명칭은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이 될 것이고, 천문, 위성통신, 원격탐사의 세 개의 부서가 포함될 것임. 국립천문대관측소가 천문 부서가 될 것이고, 김두환 관측소 소장이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의 책임자가 될 것임.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은 1986년 1월 말에 활동을 개시하고 대덕단지에 위치할 것임. 첫 5년 동안의 예산은 위성통신 분야의 엔지니어(10명 정도)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지구 관측의 경우 상황은 더 불분명하며, 김두환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 책임자의 프로젝트는 상당히 모호함.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조직이 생기려면 몇 년이 필요할 것임.

2) 통신위성

체신부의 장기적인 R&D 계획(1986/2000)을 대통령이 승인했음. 이 계획에 통신위성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전기통신공사(KTA, Korea Telecommunication Authority)와 한국방송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함. 체신부와 산업계는 추진을 권함. 정치적 차원에서, 한국 위성 발사가 1990년대 초에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 정권은 그로 인한 정치적 이익이 없음. 한국 정부가 1988년 전에 통신위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통신위성 프로젝트 관련 기술 연구 책임자인 정동근은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연구 역량을 심화시킬 계획이 있고, 국제항공우주교육(FIAS)의 우주기술 강의에 관심이 있음. 정동근은 한국 천문우주연구기관 대표의 위성통신 고문 역할을 하고 있음.

3) 원격탐사

한국 원격탐사 조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1986년 초에 과학기술처에 제출될 것임. 과학기술처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있음.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의 설립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1986년에 이 상황이 명확해질 것으로 추정됨. 위성통신과 마찬가지로, 현재 원격탐사 사용자(카이스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가 한국천문우주연구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함. 과학기술처는 한국에 수신국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카이스트(나정웅)는 합성구경레이더(SAR)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나정웅 박사는 국립우주연구소에서 개발된 VARAN 레이더 시스템 연구를 위해 이 분야에 1986년 한두 명의 연수생을 파견하길 원함. VARAN 데이터 처리 관련, 카이스트와 국립우주연구소 사이의 협력 가능성이 있음. 단, 우리가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그리고 나정웅 박사가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건 아래 협력 가능함. 이 프로젝트는 한국 원격탐사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임(카이스트 : 기술과 소프트웨어, 한국해양연구소 : 해양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홍수).

4) 기타

1984년 12월에 창립된 대한원격탐사학회는 1986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원격탐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5) 결론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는 중단되었음. 한국 연구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중기적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함. 최상의 경우, 한국은 예정대로 1992~1995년 무렵에 위성을 갖추게 될 것이고, 원격탐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임. 추후 몇 년 동안은 해당 연구기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다른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임. 통신위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88년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어 보임.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와의 신중한 관계를 지속하고, 국제항공우주교육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한국에서의 국립우주연구소의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

4.27. Note d'actualité : Coopération avec le K.I.E.R. et le K.E.M.C.O. (현황 보고서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

생산일자: 19860408

페이지: 144~146

1)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의 협력

1984년 12월 3일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협력협약을 체결했음. 1985년 5월 두 기관은 서울에서 첫 번째 한불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산업체 관련 에너지관리정책 실행을 주제로 다루었음. 또 다른 공동 세미나가 “에너지와 개발”을 주제로 하여 1986년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에너지 수요에 대한 장기적 전망 관련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교류의 기회가 될 것임.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단지에 상주 대표부를 열었음. 이를 통해, 프랑스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 첨단 기술 전문가 연수를 증진, 산업계에서 에너지 경제 관련 기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신규 고성능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적 이용을 강화할 수 있음.

2)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

1984년 9월 7일 서울에서 협력 의정서가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사이에 체결되었음. 1985년 도로교통 관련 에너지경제 분야에서 공동 활동이 있었음. 공동 활동은 한국에너지공단 엔지니어(2명)의 프랑스 연수, 그리고 교통관련 여러 사기업들에 대한 에너지 감사(7건) 실시였음. 한국에너지공단의 요청으로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은 1985년 3월 18~23일 동안 교통 분야 프랑스 기업인들(14명)과 함께 서울에 왔음.

1986년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3가지가 포함될 것임. 도로교통 분야에서 1985년에 실시된 감사에 대한 결론 최종안, 해양교통 분야 에너지 경제에 관한 서울 세미나에의 프랑스 전문가들 참여, 산업계 에너지경제에 대한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감사 실시

1986년 9월 서울 에너지 전시회에 프랑스가 참가할 예정임. 이 전시회에서 산업과 건축 분야에서의 에너지 경제를 주제로 하는 프랑스 기술 관련 행사를 가질 예정임. 에너지 관리,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가스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시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과학협력, 에너지경제신용(P.E.E.))은 “에너지 부서”(외무부, 협력, 원자력청, 프랑스에너지관리청)를 설치했음. 이 에너지 부서는 원자력청, 프랑스에너지관리청, 프랑스 기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핵심부서임.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이 체결한 두 가지 협약 덕분에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경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프랑스에게 우선권을 준 분야로 간주됨.

한국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985~1986년 기간 1조 원의 절약(대략 1백억 프랑)
-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의 협력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연당 1,000개 회사(중간 규모)에 대한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보일러의 효율적 사용과 열 회수에 대한 1만 개의 산업시설에 대해 고문 역할을 해야 함.
- 교통 분야에서의 에너지 경제와 주거 단열에 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이 분야 한불협력으로 인해 산업, 교통, 교육 분야에서 1년 만에 대략 5천만 프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기록했음. 에너지 관리 분야의 5~6개 프랑스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상업·산업상의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음.

4.28. Projet A3. Oceanography(KORDI-IFREMER) (프로젝트 A3. 해양학(한국해양연구원-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47~151

한국해양연구소와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당시, 국립해양개발연구소(CNEXO))의 협력이 아주 활발했지만 4년 전부터 거의 사라짐. 이후 국립해양개발연구소(당시 수산과학연구소(ISTPM))와 어업연구개발원 사이의 아주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음.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 해양에 원격탐사기술 적용이고, 두 번째는 해양식량자원 개발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폿 이마주의 영상에 대한 국립해양개발연구원의 허가가 있음

면 진행될 가능성 있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업연구개발원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동일한 것임. 이 프로젝트에 관하여 한국해양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CIES의 한국 연수생

- 1984년 : 나기환(조류학), 최희구(해양오염), 김장근(에코-인터그레이션)
- 1985년 : 양원석(참치의 운동), 김이정(해산물 양식)

자료와 기자재 교류

- 기술 관련 간행물과 문서 교류, 평평한 굴과 식용 해초 포자 수령, 바닷가재 한국으로 발송, 한국산 대하 (Penaeus Orientalis)의 유생 구입

<1986/1987년도를 위한 제안>
 전문 책임자와 연구자의 상호초청

- 1986년 : 어업/연안어업 개발 전문 프랑스 경제학자의 한국 파견(1개월, 한국이 비용 부담), 국립해양개발연구원 원장의 방한(한국이 비용 부담), 어업연구개발원 원장의 프랑스 방문(대외관계부가 비용 부담)
- 1987년 : 조류학 또는 제품 기술 분야 프랑스 전문가의 한국 파견(1개월, 한국 초청), 한국 전문의 프랑스 방문(분야는 추후 결정, 비용은 대외관계부가 부담)

연수생

- 1986년 :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에 의한 한국 연수생 수용(연체동물병리학, 1년),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에 의한 한국 연수생 수용(어업경제 · 개발, 6개월)
- 1987년 : 한국 연수생(2명) 프랑스 파견(연수 목적은 추후 결정)

자료와 기자재 교류(전년도와 동일)

공동 관심사인 연구 프로그램

과학적 자료, 생물학 기자재, 공동 출판물 등의 교류를 통해, 연체동물 병리학과 유전학, 해양오염 영역의 연구 지속

기타

어업연구개발원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의 지원, 어업연구개발원의 AGENOR(디지털 에코-인터그레이션 시스템) 구입과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에 의한 과학적 · 기술적 후속지원

* 1986년 협력 프로그램은 양측 책임자 회의 시, 1984년 9월 28일 의사록에 명시되어있음.

4.29. Programme de la coopération IFREMER-KORDI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의 협력 프로그램)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52~153

이전 협력 : 1985년 4월, 1981년으로 종결된 국립해양개발연구소(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 전신)와의 협력 재확성을 목적으로 허형택 한국해양연구소 소장과 이흥재 연구원의 프랑스 방문

<1986/87년도를 위한 제안>

- 목표1 : 해양 영역에 적용되는 원격탐사

프랑스 대외관계부와 한국 과학기술처 간의 부처위원회 회의에서 예정한 대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 확립을 위해 전문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음. 이 협력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사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영상 구매와 처리)에 바탕할 것으로 추정됨.

- 목표2 : 지질학-지구과학-해저광물자원개발

이 영역에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먼저 프랑스에서 검토한 후에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 검토할 것임. 모든 제안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목표3 : 수중 펌프 SM450의 과학적 활용

한국해양연구소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수중 펌프 SM450의 과학적 환경에서의 사용 차원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음. 관련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자의 프랑스 방문 필요

4.30. Le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프랑스의 한국 과학기술처(과기처) 현황 파악 문서)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54~155

한국 과기처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해당 부처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

- 한국 과기처의 역할은 행정적임. 과기처에 “과학자”가 거의 전무한 까닭에 정책 결정을 위해 산하 연구소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
- “연구 예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작은 규모의 고유 예산을 갖고 있음. 따라서 다른 부처들에 지원을 요청해야 함.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조는 대통령실에 의해 보장됨.
-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경우에 따라 문화 협력)을 운영관리함. 이런 점에서 과기처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평상시 교섭대상임. 한국 외무부는 의전상의 중계부처일 뿐이기 때문임.
- 한국 과기처의 사업계와의 접촉은 산업분야별로 아주 다양함. 생명공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음.
-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함. 동력자원부가 존재하지만 역사적 이유로 인해 과기처가 원자력국(과기처 부처)의 원자력상임위원회를 통해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과기처가 원자력에너지 분야 협력의 결정 기구인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를 주재함.

5.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I,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1er DECEMBRE 1989

번역제목	한국과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 회담(이상희, 알랭 드바케)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COREE : (19980597/6-19980597/7)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Sans titre (19980597/6) >>Liasse 3 (Entretien avec M. RHEN SANG HI, 1989 ; M. ROH TAE WOO, 30 novembre au 2 décembre 1989 ; M. KIM JIN HYNN, le 29 mars 1991.		
철 관리번호	PZA0008004	생산기간	1989
기록물 건수/매수	18건/64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한국 내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소개 및 프랑스어 교육 현황, 다른 외국어와의 경쟁 실태 분석
-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관련 외교 전신, 프랑스 산업 관련 주요 대표자들과 노태우 대통령 간의 밀접한 접촉에 대해 외무부의 조언 및 이에 대한 주한 프랑스대사의 반대
- +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준비 자료에 대한 보고, 원자력, 해양연구, 고속열차, 우주항공 등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프랑스 입장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함.
- +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있었던 위베르 퀴리앙 연구기술부 장관과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간의 회담 내용
- + 양국 장관은 생물학, 환경, 식품안전, 초고속 운송, 대안에너지에 대해 양국의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상희 장관은 우주기술, 해양학, 수송기술에 대해서도 협력을 제안함.
- + 과학기술처, 카이스트(KAIST)와 키스트(KIST), 대덕과학연구단지 등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보고
-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이용해 고속철 사업에 대해 한국이 프랑스를 선택하도록 관심을 가지게 만들 것을 촉구하며 경부선 고속철 외에도 한국의 운송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프랑스 건설교통해양부 보고서
- + 경부선 고속철 사업과 관련한 현황 보고 및 진행 과정, 일본 신칸센과 독일의 이체, 프랑스의 테제베 비교 등을 서술한 주한 프랑스대사관 보고서
-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의 보고서는 위성통신사업, 우주 관련 연구기관, 프랑스와의 협력,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분석함.
- +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분석하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는 프랑스가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한국 측에 보여주고 한국 정부의 통신 위성 개발에 참여할 것을 제안토록 촉구함.

- ✦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들의 협력, 경제와 경영, 우주항공기술, 컴퓨터, 수산업, 해양학, 남극, 도로 관리, 바이오, 인문학, 다국적 연구 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 프랑스와 한국과의 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프랑스를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며 산업체들과 긴밀히 협업할 것을 강조하는 외무부 보고서
- ✦ 한국의 천체망원경 구매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
- ✦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기술제휴 요청에 관한 보고서

㉑ 수록 기록물명

- 5.1. Note Place de la langue française en Corée (한국 내 프랑스어의 위상에 대한 보고서)
- 5.2. Visite en France du Président ROH TAE-WOO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 5.3. VISITE EN FRANCE DU PRESIDENT ROH TAE WOO-EVENTUALITE D'UN PETIT DEJEUNER ECONOMIQUE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시 경제 조찬 회동 가능성)
- 5.4.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 5.5. Record Of Discussion (회담기록)
- 5.6. Compte-rendu de l'entretien entre M. Curien et M. RHEE SANG-HI,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Paris, 1er Decembre 1989 (한국 과기부장관 이상희와 퀴리 앙 장관의 회담기록-파리, 1989년 12월 1일)
- 5.7.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 5.8.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 Synthese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종합 노트)
- 5.9.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 5.10. Rencontre germano-coréenne-Communiqué de presse du Ministère fédéral de la recherche (한독회담-독일연방연구기술부의 언론 보도자료)
- 5.11. Structure de la recherche coréenne ① Monsieur RHEE Sang-Hi (Lee Sang-Hee),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② Organization of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③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조직도 ① 이상희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 ②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조직도 ③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 5.12. Organisation de la recherche (연구 조직)
- 5.13. TRAIN A GRANDE VITESSE- Visite en France de Monsieur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u Sud, 29 novembre-2 décembre 1989 (고속열차-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1989년 11월 29일-12월 2일))

- 5.14. Note Projet de Ligne à grande vitesse SEOUL_PUSAN (경부선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보고)
- 5.15. Rapport sur les affaires spatiales avec la Corée du Sud (대한민국 우주산업 현황 보고)
- 5.1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①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② Liste des sigles ③ Coopération entre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franco-coréennes (APRODI /SMIPC) (과학기술 협력 ①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② 주요 기관 약어 리스트 ③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et le développement industriel)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이 주관하는 한불 중소기업체 업무제휴)
- 5.17. Téléscope (천체망원경)
- 5.18. Four solaire (태양광 발전소)

☉ 수록 건 기록물 내용

5.1. Note Place de la langue française en Corée (한국 내 프랑스어의 위상에 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3

한국 내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소개하는 내용

- 1) 한국 내 프랑스어 교육 현황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임)
고등학교의 경우 332개 교, 학생 40만 명, 교사 675명이 존재하며 대학에서는 15개 대학에 불어불문학과가 존재하며, 불어불문학 전임교수는 328명, 시간 강사(chargé de cours)는 210명, 일반강사(lecteur)는 62명 이고, 교원들은 모두 대학별로 충원된다.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의 6개 분원에는 연간 4,500 명이 등록한다.
- 2) 1988년 7월에 데살로니가에서 열린 국제프랑스어교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professeurs de français)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 숫자는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근 10년간 불어 학습자 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1980년에는 3,000명의 대학생과 15만 명의 고등학생만이 불어를 배웠다.
- 3) 다른 외국어들과의 경쟁 실태
독일어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불어보다 학생 수가 더 많고 대학교에서는 더 적다. 일본어는 일제의 과거 강제 점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대감이 누그러지면서 확산 추세이다.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이 존재한다.

5.2. Visite en France du Président ROH TAE-WOO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891116

페이지: 4~4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외교 전신 내용

TGV로 1시간 소요되는 파리-르망 구간 이동 일정에는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이 포함되어 있고, 극소수(5~6인)의 프랑스 산업계 인사들과 한국 대통령 간에는 객실에서의 짧은 만남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파리 방문에 대해 많은 사업가들의 관심과 경제 현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 산업 관련 주요 대표자들과 한국 대통령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가령 12월 1일 8시나 8시 15분경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국립산림재산권센터(CNPF, Centre nat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 의장을 포함한 몇몇 대표들이 회동하는 조찬모임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 당국에 우리 외교부 측의 간절한 희망 사항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 노태우 대통령의 뻘뻘한 방문 일정 때문에 12월 1일 국립산림재산권센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불 양국 산업계의 공고한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5.3. VISITE EN FRANCE DU PRESIDENT ROH TAE WOO—EVENTUALITE D'UN PETIT DEJEUNER ECONOMIQUE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시 경제 조찬 회동 가능성)

생산일자: 19891116

페이지: 5~6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시 경제계 인사들과의 조찬 회동 요청건(외교 전신문건 23738호)에 대한 주한 프랑스 대사 라 포르텔의 긴급 답신 내용

전날 저녁 극동 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12월 1일 조찬 회동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지난 토요일 한국 대통령은 상당한 양보를 해서 테제베 아틀랑티크(TGV Atlantique)에 시승하기로 수락한 데다, 기차에서도 프랑스 측 재계인사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은 굳이 조찬 회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찬 회동 주선보다는 기차에 12~14명의 경제계 대표 인사들(cf. 원본에 M. GOMEZ 외 14인 언급되어있음)을 타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 옆에 차례로 앉아 각자 관련된 사업들을 간단히 브리핑하게 하는 정도가 좋을 듯하다. 12월 1일 금요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점심 만찬에도 한국 대통령과 프랑스 주요 기업 회장단들이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5.4.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생산일자: 19891129

페이지: 7~12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 준비 자료 보고서

한불 간의 과학기술 관계는 1981년 4월에 체결한 과학기술 협력 조약의 틀 내에서 이뤄지며, 2년마다 문화 및 과학, 기술 협력 관련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1988년 5월 회의에서 한국 측이 산업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루기를 거부했고, 이에 프랑스 측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잘 정리된 법규를 정의하기로 했다. 한국 측 의견과 프랑스 연구기술부의 의견에 기초하여 장관은 다음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1) 원자력 분야

1981년에 체결된 원자력 에너지의 한불 정부간 평화적 사용 협정에 의해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과학기술처(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간의 협력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원칙적으로 매년 만나기로 했으며 가장 최근 만남은 1989년 3월이었다. 원자력청(CEA) 산하 부서들에 의해 원자력 연구 분야 및 안전규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한국인 연구원들의 정보 교류 및 프랑스 현지 연구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원자력 산업 측면을 보면,

- (1) 9호기와 10호기 한국 원전 건설에 프랑스 회사 프라마툼(FRAMATOME)과 톰슨 사(THOMSON)가 60%의 지분을 받았지만, 11호기와 12호기는 미국 회사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에 배정되어 실망스럽다.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50기 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규 13호기와 14호기 건설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이번 입찰은 미국회사들과 NPI(Nuclear Power International)사 간의 경쟁구도이다. NPI사는 독일 지멘스(Siemens) 그룹의 계열사 쿠우(KWU, Kraftwerk Union)와 프랑스 프라마툼이 공동으로 세운 합자회사이다. 한국이 원전 건설의 국가 표준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불 협력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명분 하에 프라마툼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원전 보수 유지 및 개선 관리를 직접 전담하고 코즈마(COGEMA)가 핵연료 공급 및 농축, 재처리를 맡는 식으로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사료된다.
- (2) 코즈마(COGEMA)는 핵연료 농축업무에 관한 계약을 여러 차례 따냈고 프랑스 원자력기술 엔지니어링회사(SGN)도 스웨덴 기업과 핵폐기물 저장설비 건설에 입찰 경쟁 중이다.

〈유의사항〉

핵연료 주기의 모든 단계에 대한 프랑스 측 경험을 환기시키며, 프랑스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 즉, 차기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며, 이미 사용된 연료 저장소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도 동의했다. 프랑스 장관이 직접 알려주는 것이 좋겠지만 재처리 및 증식로 건설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해양연구

한국은 해양연구 및 개발 관련 국가 부서 설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므로 이미 해당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국가 예산의 2%를 해양관련 비용으로 산정했고, 해양수산부가 창설될 수 있다. 1989년 4월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IFREMER,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의 대표들이 한국해양연구원(KORDI,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를 포함한 해양연구 및 개발 기관 등을 방문하여 원격탐사, 심해의 광물자원, 바이오기술, 어업 관련 프랑스 연구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당부사항〉

프랑스 측 장관은 1987년에 한불 해양연구연합회가 결성된 것을 치하하고 어업연구소와 부산 수산대 연구소 간의 교차 협력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해양연구 관련 공동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3) 고속 열차

프랑스 측은 고속열차 관련 문제를 한불 경제 산업 회담의 주요 화두로 삼고자 한다. 고속열차 개통 계획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1991년 8월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순전히 한국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 Korea Transport Institute)이 자문을 맡아 향후 1년 내에 일본의 신칸센(Shinkansen), 독일의 자기부상열차 마그레브(Maglev, maglev levitation train, magnetic levitation)나 고속열차 이체(ICE), 프랑스 시스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한국 지형과 교통 수요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고속열차 관련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가 한국 정부에 필요할 고급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프랑스 시스템이 우수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유의사항〉

한국은 가장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이미 테스트를 거친 시스템과 진정한 산업협력자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스가 한국의 고속열차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점을 주목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8년간 서비스 경험, 저렴한 유지비, 고급 기술 수준 및 기술이전 능력, 현재 운행 중인 테제베(TGV) 사례(스페인 및 벨기에, 네덜란드, 유로터널에서 운행됨), 무엇보다 신규 철도 노선 및 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역량 이전을 통해 한국 측과 진정한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는 프랑스 관계자들의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4) 우주항공

한국의 우주 관련 업무는 지금까지는 한국천문연구원(ISSA, Institute of Space Science and Astronomy)에 서도 맡아 했지만, 10월 11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창설은 한국 정부의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와 한국천문연구원 간 1987년 체결된 각서에 따라 프랑스는 정기적으로 전문인력 및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우주 원격탐사 분야에서도 관측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체인 SPOT-IMAGE가 한국에 상주해 있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충분히 진척되었다.

한국 측 상황

생활 관련 통신위성 제작과 과학 위성 제작을 원하며 향후 로켓 추진체 발사 기술 개발에도 관심이 있다.

〈유의사항〉

민감한 사안인 탄도발사체 분야를 제외한다면 프랑스는 통신위성 및 과학 위성 관련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 개발 사업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영역

- (1) 소음 공해나 각종 도시 및 주변 지역의 오염 퇴치 등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영역 분야가 있다.
- (2) 콩피에뉴 대학(L'Université de Compiègne)과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간 바이오기술협력 중이다.
- (3) 환경 분야의 대규모 국제 프로그램에 한국과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6) 기관 간 상호협력

한국과학재단(KOSEF,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간 연구인력 교류, 아주대학과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의 금속 연구,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의 정기적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5.5. Record Of Discussion (회담기록)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13~15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 이상희 과기처 장관과 위베르 퀴리앙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이 참여한 공식 회담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한 것임.

양국 장관은 그동안에 시행된 한불 과학 기술협력의 긍정적인 결과물을 치하했다. 이상희 장관은 우주, 원자력 기술, 해양 관련 기초연구 및 산업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고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안했다. 퀴리앙 장관은 천체 광학현미경, 위성, 원자력 연료와 안전성 분야에 프랑스가 특히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태양로 및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관련 공동연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중교통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는데, 퀴리앙 장관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열차 관련 경험을 강조하면서 유관 사업 제휴가 양국의 상호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희 장관은 바이오기술을 포함하여, 주택, 해양오염, 식품 안전, 건강 분야 관련 삶의 품질을 개선하는 신기술에 특별히 관심을 표명했고, 양국 장관은 관련 분야의 양국의 연구소 간 상호교류를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두 장관 모두 염려하며 환경 보호가 현재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 기술협력을 계속하자고 했다.

5.6. Compte-rendu de l'entretien entre M. Curien et M. RHEE SANG-HI,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Paris, 1er Decembre 1989 (한국 과기부장관 이상희와 퀴리앙 장관의 회담기록-파리, 1989년 12월 1일)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16~17

1989년 12월 1일 퀴리앙 장관과 이상희 장관 간에 대한 보고서

양 장관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을 논의함(생물학(특히 파스퇴르연구소와), 환경, 식품안전, 초고속 운송 시스템, 대안에너지(태양, 풍력 등)). 또한 퀴리앙 장관은 고속철 기술이전과 해양학, 우주 공간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고 이상희 장관은 우주기술, 해양학, 수송기술에 대한 가능한 협력을 제안함. 우선적으로 해양학과 우주 공간에 있어 기초 연구의 협력을 원한다고 강조함.

5.7.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생산일자: 19891129
페이지: 18~23

본 철 제4번(5.4) 건과 동일 내용

5.8.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 Synthèse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종합 노트)

생산일자: 19891129

페이지: 24~26

1989년 12월 1일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견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었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역동적으로 성장해 평균 8%, 최근 3년에는 평균 12%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1인당 5,000달러의 소득을 달성했고 2000년이면 일본 수준인 20,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7~8%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연구개발은 중요문제임.

한국의 R&D 예산은 1980년 GDP 대비 0.8%에서 1987년 2.1%로 올랐고 2000년 5%가 목표임. 연구자들과 관련해 현재 7,000명의 석사와 1,300명의 박사들이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등의 지역에서 유학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은 유럽을 방문함. 노태우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유럽 국가들과 큰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연구에 있어 일본과 미국에 의존적인 상황을 탈피하고자 함.

프랑스 방문에 앞서 한국대표단은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해 독일연방연구기술부(BMFT)와 협력을 강구했으며 수송과 에너지 영역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정치적 계획과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좋고 논쟁의 여지가 없음.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국가이며 특히 유럽경제공동체(CEE,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내의 역할과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에서 더욱 그러함. 그런 맥락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의 방문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한국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 조달이 공유되어야 하고 산업 적용에 있어 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함.

5.9. Rencontre du ministre avec M. RHEE SANG-HEE,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ée—Note D'entret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상희 장관 회담—회담 자료 보고서)

생산일자: 19891129

페이지: 27~32

본 철 제4번(5.4) 건과 동일 내용

5.10. Rencontre germano-coréenne-Communiqué de presse du Ministère fédéral de la recherche (한독회담-독일연방연구기술부의 언론 보도자료)

생산일자: 19891120
 페이지: 33~34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의 독일연방연구기술부(BMFT) 방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함.

1) 회담 배경

1989년 11월 20일 대한민국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이 독일연방연구기술부에 과학기술협력 관련 회담을 위해 방문했는데, 작년 8월 하인츠 리젠후버(Heinz Riesenhuber) 독일연방연구부 장관이 한국 방문 후 얻어낸 회담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독일연방연구기술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상희 장관이 배석한 것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연구기술 분야 협력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회담 내용

이미 1986년에 원자력에너지와 과학기술 영역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상호협력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번에 공동 조사위원회가 결성되어 고속열차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독일의 현대적 기술 제휴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인데 전망이 밝은 편이다. 기초연구 분야도 협업 전망이 좋은 편인데, 연구정책 분야에 대한 독일연방연구기술부(BMFT)의 지원과 참여가 이뤄졌으며, 독일연방연구기술부 주도로 에너지 관련 기술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원자력과 비발전분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좀 더 긴밀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로 했다. 리젠후버 장관은 기술 잠재력이 커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다른 기술 분야의 제휴도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과 독일의 연구기관들 간의 특약들이 체결되었다.

5.11. Structure de la recherche coréenne ① Monsieur RHEE Sang-Hi (Lee Sang-Hee),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② Organization of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③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조직도 ① 이상희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 ②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조직도 ③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생산일자: 198911
 페이지: 35~38

생산기관명 및 생산부서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이상희 장관의 약력과 정부 조직표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생산한 문서로 추정

5.12. Organisation de la recherche (연구 조직)

생산일자: 19891129
 페이지: 39~40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

- 1)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처(MOST)가 주도하고 산업통상 및 교육, 경제, 농업, 보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부처가 지원을 한다. 과기부는 연구인력, 연구 재원 및 최우선 과제를 결정하는데, 과기처가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은 1968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최근 대학 연구기관인 카이스트(KAIST)와 연구 주력 기관인 키스트(KIST)로 분리되었다. 대학들은 자체 연구소 규모를 운영하며 대기업들과 긴밀한 협업을 하기도 하고(아주대와 대우 그룹),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설 연구소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cf. 1980년에 53개에서 1987년에 440개가 넘음)
- 2) 대덕과학연구단지(La cité scientifique de Daedok) 소개

5.13. TRAIN A GRANDE VITESSE– Visite en France de Monsieur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u Sud, 29 novembre–2 décembre 1989 (고속열차-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1989년 11월 29일-12월 2일))

생산일자: 19891115

페이지: 41~43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 한국 내 고속열차사업 현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고속열차 건설 및 1998년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경부선(La Liaison Seoul-Pusan)의 경제 수익성을 볼 때 프랑스 입장에서 아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된다.
- 고속철도사업을 놓고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입찰경쟁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 측이 프랑스 테제베(TGV)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경부선 외에도 프랑스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운송사업들이 있다. (ex. 서울 지하철 확장사업, 제주 공항 건설 및 서울 공항 확장, 노태우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 경량전철 도입사업)

5.14. Note Projet de Ligne à grande vitesse SEOUL_PUSAN (경부선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보고)

생산일자: 19891026

페이지: 44~45

경부선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작성한 보고서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 관련 현황 보고, 공개입찰 절차 및 주요 진행 과정,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신칸센(Shinkansen)과 독일 이체(ICE), 프랑스 테제베(TGV)의 각 장점들에 대한 기술, 특히 기술이전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프랑스 TGV 사업단에 대한 언론의 호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서술되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한국 측에 TGV의 여러 가지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5.15. Rapport sur les affaires spatiales avec la Corée du Sud (대한민국 우주산업 현황 보고)

생산일자: 19891114

페이지: 46~52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은 2000년에 연구기술 분야에서 10대 강국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주산업을 경시하는 선진국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주 항공산업 분야의 고도기술 정복에 나서게 된 것이며, 크게 다음 4가지 주요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 ①1996년에 한국은 국내 통신 위성 운영 시스템을 보유한다는 결정이 1989년 8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고, ②연구기관으로는 천문연구원(ISSA)에 이어 1989년 항공우주연구원(Korea Institute of Aerospace) 설립되었고, ③연구실적으로는 카이스트 나정웅(NA CHUNG_UNG) 교수팀이 안테나를 이용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신호들을 탐지했으며, 미국 웨버대학과 제휴하여 실험 인공위성(KORSAT) 제작계획을 발표했다. ④한국 정부는 항공산업발전계획(AIDP,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1989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1) 위성통신사업

1980년대 위성통신 사업 계획을 둘러싸고 산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는 한국전기통신공사(KTA, Korea Telecommunication Authority), 한국방송공사(KBS, Korea Broadcasting system),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1984년 전두환 정부는 위성사업의 수익성과 북한과 연계된 보안 문제를 들어 1995년 이후로 연기시켰다. 1987년 대선 과정에서 위성통신 문제가 재개되었고, 1989년 8월 각료회의에서 위성통신 관리 위원회가 결성되고, 1990년에 국가 50%, 기업 49%의 지분으로 위성통신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위성통신 장비나 발사 관련 나라 간 경쟁이 치열하며, 미국이 우위에 있어 보이긴 하지만 프랑스도 도전을 해보아야 한다. 한국과 프랑스 연구소들과 기업 간의 활발한 논의(ex. 한국천문연구원과 프랑스 기업,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간 논의)를 통해 한국의 우주발전 기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도적, 산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보장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1992년 대덕 연구 단지에서 우주에 상당 비중을 둔 대규모 국제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니 프랑스의 우주항공기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부에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를 받은 사텔 콘세일(Satel Conseil)의 경험에 비추어 인공위성 공급 관련 입찰을 앞두고 기술 및 경제성 연구에 유럽뿐 아니라 프랑스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 우주 연구기관

1986년 설립된 한국 천문연구원(ISSA)에 이어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orea Institute of Aerospace)이 설립되었다. 천문연구원은 한국의 우주기술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강대국들에 연구원 및 기술자들을 파견하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과 한국인 연수생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1989년 10월 출범한 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며, 향후 5년간 인력 충원과 시설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고, 대학이나 대기업,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국가 R&D 네트워크가 가동될 것이다. 1988년 이후 한국 천문연구원, 프랑스 기업 앵테스파스(INTESPACE) 및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간에 우주기술 관련

토론이 활발한데, 한국과의 사업 체결에 신뢰가 필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잘 유지하면 상당히 이득이 될 것이다.

3) 프랑스와의 협력

한국 천문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에 우주항공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프랑스가 일정 역할을 하게 된다면 통신위성과 발사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인 면에 치중한 산업부(MOC)와 기술 개발에 치중한 과학기술처(MOST)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되어 업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 측에 입장전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과의 전방위적인 협업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발사체 증식이나 향후 기술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프랑스에 위성통신 사업이 맡겨지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는 한국 우주항공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초기 평가 단계의 원칙을 1989년 5월 내부 토론회를 통해 채택함으로써 한국과의 협력안을 준비했고, 내용은 한국 측과 협의하여 1990년 3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향후 연구의 기술적인 면과 재정적인 제안 관련 후속 조치들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예정이다.

4) 한국과학기술원(KAIST)

1985년부터 1986년에 무선탐지 레이더에 관심이 많았던 나정웅 교수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의 협업을 원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 10월에 교류가 재개되었고, 나정웅 교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신호탐지 및 마이크로 위성을 개발하는 등 우주항공 관련 다수 연구에 참여 중이다. 잠재적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플랫폼이나 운송 쪽에 신경을 쓰는 천문연구원 양쪽 모두와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형도 제작 위성인 SPOT 위성과 Landsat 위성의 책임교수인 카이스트의 박경윤(Park Kyung Yoon) 교수와도 긴밀한 교류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원격탐사 분야에 뒤처져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상관측이나 국방 분야에서 관심이 많다.

결론

한국은 우주항공기술의 초석을 닦기 위해 한국은 기업인들과 연구자들을 우주항공 분야에 투입시키고 있다. 다음번 산업부 장관과 과기처 장관을 비롯한 한국인 장관들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프랑스는 한국 과기처가 추진하는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부가 주관하는 통신위성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전달하고,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 한국 천문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간의 긴밀한 교류에 대해 치하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유관 기구 간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장관들이 내년 봄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16.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①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② Liste des sigles ③ Coopération entre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franco-coréennes (APRODI /SMIPC) (과학기술 협력 ①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② 주요 기관 약어 리스트 ③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et le développement industriel)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이 주관하는 한불 중소기업체 업무제휴)

생산일자: 19891027
 페이지: 53~61

- 1)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54~59쪽)
- 2) 주요 기관 약어 리스트 첨부(기존 약어 정리 내용으로 같음함) (60쪽)
- 3)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한불 중소기업체 업무제휴 (61쪽)

1)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장 드 글리니아스티(Jean de Gliniasty)가 작성한 보고서)
 한국과 프랑스는 1965년 문화교류 협력을 시작으로 1981년 4월 과학기술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몇 해 전부터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은 소수의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시켜 프랑스의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1) 에너지

1985년 말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이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분과가 설치되어,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개발계획과 경제 분야를 담당한다.

(2) 원자력 에너지

1981년에 체결된 원자력 에너지의 한불 정부간 평화적 사용 협약에 의해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 과학기술처(MOST)간의 협력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매년 정기모임을 갖는다. 올해 3월 파리에서 제5회 정기모임이 열렸다. 협력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9호기와 10호기 원전 건설을 하는 프랑스 기업인 프라마툼(FRAMATOME)과 알스툼(ALSTOM)에게 엔지니어 양성 요청이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소속 58명이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았다. 코즈마(COGEAMA)는 연료 농축 주입 계약을 수주했고, 한국은 전체 농축주입 업무 중 40%를 차지하는 2번째로 큰 수출 고객이다. 11호기와 12호기는 미국 기업에 배정되어서 실망스럽게 되었지만, 폐기물처리와 원전 사용 후 연료를 처분하는 저장소 건설에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가 향후 13호기와 14호기를 건설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3)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은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에너지공단(KEMCO) 및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가 주관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교통과 산업 분야에 실시된 감사 결과 프랑스 쪽 전문인력이 추천한 시설 장비들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비즈니스로 창출되기에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경우, 에너지 관리 연례 세미나가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대로 열리며, 니스에서 열린 제4차 세미나는 산소와 천연가스, 주거 시설에서 원격관리, 열교환기를 주제로 다룬다.

(4) 에너지 절약

1989년 9월 서울에서 프랑스와 한국인 행정 관료와 대학, 기업인 240명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도

시 및 산업 폐기물 처리와 오염 통제 기술을 주제로 다뤘다. 환경오염과 폐기물처리는 한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라는 점에서 한국은 프랑스기업의 잠재적인 대형 고객이다.

(5) 한불 중소기업들의 협력

1983년 11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과 외무부 산하 대외경제관계국(DREE)과 과학기술협력개발국(DCSTD)이 주관하여 6년 동안 한불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와 한국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금속가공과 기계, 전자기계, 산업용 전자공학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친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양국 기업 간에 합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 2월에 종결되더라도 프랑스 정부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6) 경제와 경영

한국인 박사과정 연수와 프랑스인 전문 인력의 한국 방문 형태의 교환 프로그램 덕분에 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해 잘 숙지하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와의 파트너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배출하고자 한다.

(7) 우주항공기술

1987년 이후 프랑스항공우주산업협회(GIFAS),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프랑스고등연구펠로십연구소(FIAS)들과 한국기계연구원(KIMM), 천문연구원(ISSA) 간에 정기적인 접촉이 이뤄졌다. 우주항공산업을 보유하길 희망하는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pace)을 출범시켰으며, 2000년에 소형 과학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프랑스 기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기술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업체의 전면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 없다. 우주 관련해서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의 계열사인 앙테스파스(Intespace)와 최근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한국 측에서 프랑스를 이 분야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

(8) 컴퓨터 정보처리

프랑스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한국의 아주대학이 협약을 체결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관한 세미나가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하여 한국 측이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제안서들은 민감한 요소들 때문에 모두 채택되지는 못했다.

(9) 수산업

수산업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대표기관인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과 한국의 국립수산진흥원(FRDA)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수산자원의 품질 평가와 수량 조절, 해조류 양식, 수산물 채취 기술, 어류 대체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다.

(10) 해양학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신규 원장 부임과 부서 조정을 계기로 프랑스 해양연구단체들과의 교류가 좀 더 평등한 기반 위에서 방향 재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 서해안 원격탐사와 해양지질학 분야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11) 남극

1988년 과학기술처가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l'archipel des Shetlands)에 연구소를 설립한 한국은 그르노블 빙하연구 실험실(le laboratoire de glaciologie de Grenoble)과 심도 있는 협업을 희망하지만 아직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했다.

(12) 도로 진단 및 관리

프랑스는 교량 및 도로중앙연구소(LCPC)와 해외시설물중앙연구소(BCEOM)의 중개로 한국의 국토건설부에 도로 진단 장비를 판매했는데, 한국의 도로 규격 유지와 조정에 프랑스적 방법론이 도입되게 될 것이다.

(13) 바이오기술

카이스트와 콩피에뉴 공과대학(l'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Compiègne)간에 메타놀에서 다당류 산출 작업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체결될 예정이다.

(14) 인문학

1987년 이후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박물관학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15) 다국적 연구 협력

한국은 유레카(EUREKA)와 에스프리(ESPRIT)의 다국적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했지만 상호 호혜(réciprocité)의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한국 파트는 협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률도 매우 높다. 다만 한국의 경제 및 과학 조직에 침투하는데 어떤 자원들을 투입할지 숙고해야 하며, 프랑스를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식으로 산업체들과 긴밀한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3)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한불 중소기업체 업무제휴 (61쪽)

- 한불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은 주로 금속과 기계, 전자기계와 산업 전기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 한국 측 입장은 아주 호의적이며, 50% 재정 지원을 한다.
- 양국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치하하며, 향후 3년간 계속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5.17. Téléscope (천체망원경)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62~62

천체 망원경 관련 한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내용임.

한국 천체 망원경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기업 리오스(REOSC)와 한국 천문연구원(ISSA)이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한국 법률은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천문연구원장이 바뀌고 다시 공개입찰을 시행했는데, 리오스를 승계한 지에-텔라스(GIE_TELAS)에 따르면 한국 측 요구는 아리조나 대학이 개발한 바티칸 첨단 기술 망원경(VATT)에 맞춰져 있으며, 한국 측의 공개입찰에 응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관련 학계는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프랑스는 2m 광학 현미경 기술 시장에 자신의 기술을 전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평가한다. 장관은 관련 산업이나 연구인력 양성에 있어서나 프랑스 천문학의 장점에 대해 넉넉히 언급해도 좋을 것이다.

5.18. Four solaire (태양광 발전소)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63~64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보고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산하 재료및제조공정연구원(L'institut de Science et de Génie des Matériaux et Procéd é)에 60kw급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기술제휴를 요청했다.

한국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건설비용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퀴리앙 장관과 프랑스 대통령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 넉넉히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업무 제휴 보고서를 검토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산하 SPI와 PIRSEN에 따르면 프랑스 산업이 개입되어야만 수익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 측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60kw급 태양광 기술협력은 괜찮지만 1,000kw급 태양광 건설은 5년 후면 기술도 구식이 되버릴 것이고, 한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과연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다고 보았다.

〈유의사항〉

순전히 돈이 관건인 프로젝트이다. 기업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측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6. Visite d'Etat de M.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is 30 novembre 2 décembre)

번역제목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 COREE : (19980597/6-19980597/7) >>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 Sans titre (19980597/6) >> Liasse 3 (Entretien avec M. RHEN SANG HI, 1989 ; M. ROH TAE WOO, 30 novembre au 2 décembre 1989 ; M. KIM JIN HYNN, le 29 mars 1991.		
철 관리번호	PZA0008005	생산기간	1989
기록물 건수/매수	74건/299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한국의 원전 건설 상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
- + 경부선 고속열차 계획 현황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 한국의 경부고속철도 계획이 프랑스 당국의 최우선 관심 사임을 강조하고 기술이전을 비롯해 테제베의 강점을 부각시킬 것을 주문함.
- +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 한국 측의 입장을 분석하고 프랑스의 강점과 재정적 지원 및 한국과의 협력 제시 방법에 대해 제안함.
- + 고속철 외에도 원자력과 천연가스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에 관해 분석함.
- +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으로 대규모 기술이전을 장려함.
- + 한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 미국, 일본과의 관계 및 한국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대해 분석함.
- + 노태우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역사, UN과 남북한의 관계,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미국과 한국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함.
- +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현황과 한국의 입장, 유의사항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
- + 미국,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에 대한 한국의 생각 및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
- + 한국과의 GATT 협정과 관련한 내용 정리 및 분석
- +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OECD 가입 문제와 한국의 대외무역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방문 목적과 노태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 한국의 목표와 프랑스의 입장에 대한 정리

- ✦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국제정치, 양국관계, 다자간 경제관계 등 다방면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가 한국에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안들에 대해 분석함.
- ✦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을 칭찬하면서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우려를 언급함.
- ✦ 남북한 UN 가입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 ✦ 프랑스의 늘어나는 대한민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
- ✦ 노태우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관련 움직임에 대한 분석, 최근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보고
- ✦ 한국의 정치범 탄압과 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보고 및 비판
- ✦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 ✦ 한국의 경제상황 및 성장둔화 요인 분석
- ✦ 무역에 있어 한국과 프랑스 간 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양국의 불만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함.
- ✦ 프랑스의 대한민국 무역적자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시장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함.
- ✦ 한국과 프랑스의 무역규모 및 진행상황, 주요 제품들에 대한 분석
- ✦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관련 법안이나 향후 전망, 프랑스의 투자현황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망 보고
- ✦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프랑스기업들에 대한 보고
-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하여 민항기 사업에 대한 분석
- ✦ 한국과 프랑스 간의 천연가스 및 군수산업 관련 분석
- ✦ 한국과 프랑스 간 통신분야 교류 및 관련 산업으로의 확대에 대한 기대
- ✦ 한국과 프랑스 간 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성과에 대한 정리
- ✦ 한국 건설토목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랑스기업
- ✦ 프랑스어 보급, 문화예술교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한국과 프랑스 간 교류 현황
- ✦ 한국의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내 프랑스 문화의 확산에 대한 노력 촉구
- ✦ 한국 내 프랑스어 비중과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어 교육 지원현황
- ✦ 프랑스 혁명 200주년과 관련하여 한국의 관심에 대한 보고

● 수록 기록물명

- 6.1. Visite d'Etat de M.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is 30 novembre-2 décembre)(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파리 11월 30일-12월 2일))
- 6.2. Note Centrales nucléaires en Corée (한국의 원전에 관한 보고)
- 6.3. Note Vis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is 30 novembre-2 décembre) Projet de train à grand vitesse coréen (대한민국 대통령 프랑스 방문, 한국 고속 열차 프로젝트)
- 6.4. Fiche de Synthèse Objet : Contrefaçons en Corée (종합 정리 : “한국의 복제품”)
- 6.5. Projet de TGV coréen (한국 고속 열차 프로젝트)
- 6.6.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에서 한불 협력)
- 6.7. Coopération gazière (천연가스 협력)
- 6.8. Record of Discussion-Compte rendu d'entretien (회담기록-회담록 보고)
- 6.9. Record of Discussion-Compte rendu d'entretien (회담기록-회담록 보고)

- 6.10. 환영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 6.11. Coopération scientifiques et techniques. Relation culturelle, scientifiques et techniques (과학기술 협력, 문화 및 과학 기술 관계)
- 6.12.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①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과학기술 협력 ①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 6.13.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Note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 (한국의 대외정치)
- 6.14. Note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 상호관계)
- 6.15. La Corée et l'ONU (한국과 유엔(UN))
- 6.16. Note L'attitude française vis-à-vis de la Corée du Nord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 6.17. Evolution de l'Europe de l'Est. Fiche La situation en Europe Centrale et Orientale et les relations Est-Ouest (동유럽의 변화, 중동부 유럽 상황과 동서 관계)
- 6.18. Fiche Les relations entre l'URSS et la Corée du Sud (소련과 남한과의 관계)
- 6.19. Fiche Conception française du rapprochement des deux Europe et de la solution à la "question allemande" (두 유럽 진영 간의 화합과 독일 문제 해결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 6.20. Note Rel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vec les pays socialistes européens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 6.21. Note La CEE et la Corée du Sud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 6.22. Note Les Etats-Unis et la Corée du Sud (미국과 한국)
- 6.23. Note Relations entre la Corée et le Japon (한국과 일본의 관계)
- 6.24. Note Relations de la Chine avec les deux Corée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
- 6.25. Situation politico-militaire en Extrême-Orient. Note Les questions de Sécurité en Extrême-Orient vues de Séoul (극동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상황, 서울에서 바라본 극동아시아의 안보 문제)
- 6.26. Note Cambodge.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캄보디아. (11월 30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 6.27. Coopération Asie-Pacifique La Corée et le projet de coopération économique régionale Asie-Pacifique (아시아태평양 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 6.28.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Bassin du Pacifique (한국과 태평양 지역)
- 6.29. Questions économiques multilatérales Corée-Gatt (다자 경제 문제 한국-GATT)
- 6.30. Corée, L'OCDE et les NEI d'Asie Integration Commerciale ajustement structurel (한국, OECD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EI), 무역구조 조정 및 통합)
- 6.31. Note de Synthèse, 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Woo (30 novembre-2 décembre) (노태우 대통령 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
- 6.32. Note D'entretien. 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Woo : entretiens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회담)
- 6.33. Biographies ① Note Monsieur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② Monsieur CHOI Ho Joong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③ Monsieur HAN Seung Soo Ministr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④ M. SHANG HI RHEE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⑤ M. CHUNG HO

- KEUN Chef d'Etat major général des Armées (주요 인사들의 이력 ①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② 최호중, 외무부 장관 ③ 한승수, 산업통상부 장관 ④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⑤ 정호근, 국방부 합참의장)
- 6.34. Composition du Gouvernement Composition du Gouvernement de M. KANG Young-Hoon (19 juillet 1989) (내각 구성 강영훈 정부의 내각 명단)
- 6.35. Les composantes du miracle coréen. Ses difficultés actuelles (한국의 기적 요인과 현재 한국의 어려운 현실)
- 6.36. Fiches d'entretien (회담의 자료)
- 6.37. Evolution politique de la Corée du Sud(남한의 정치적 발전)
- 6.38. Fiches d'entretien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한 상호관계)
- 6.39. Fiche d'entretien Adhésion des deux Corée à l'ONU (회담의 자료 한국의 유엔 가입)
- 6.40.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WOO Situation stratégique en Asie du Nord-Est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상황)
- 6.41. Le dialogue politique entre les douze et la Corée du Sud (유럽공동체와 한국의 정치적 대화)
- 6.42. Objet : Procédures anti-dumping communautaires à l'encontre des importations originaires de Corée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경제공동체의 반덤핑 조치)
- 6.43. Importations de véhicules coréens en France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 6.44. Projet d'exposition internationale en Corée en 1993 (1993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계획)
- 6.45. Exportations de cuirs bruts de bovins en République de Corée (한국으로의 소가죽 수출)
- 6.46. Obstacles à la pénétration du marché coréen par les compagnies nationales d'assurance françaises (프랑스 국영 보험회사들의 한국 진출을 막는 요인들)
- 6.47. La Corée et le cycle d'Uruguay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 6.48. Relations commerciales franco-coréennes (한불 무역관계에 대한 종합 보고서)
- 6.49. Armement (군수품)
- 6.50. Métro léger de Taegu (대구의 경(輕) 지하철)
- 6.51. La situation intérieure en Corée (한국 국내 정치 상황)
- 6.52. De l'évolution politique récente de la Corée (한국의 최근 정치적 변화)
- 6.53. Du rôle et de la place des partis de l'opposition sur l'équilibre politique coréen (한국의 정치적 균형을 위한 야당의 역할과 위상)
- 6.54. De Monsieur PARK JYUN KYU, Délégué Général D.J.P. (민주정의당 대표 박준규에 관한 보고)
- 6.55. Des droits de l'Homme en Corée : répression et prisonniers politiques.(한국의 인권 : 정치범 탄압)
- 6.56. Aperçu de l'histoire de Corée (한국의 역사 소개)
- 6.57. Situations économique de la Corée Situation é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Corée du Sud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재무 상황)
- 6.58. Relations économiques et commerciales Fiche de synthèse : Relations bilatérales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et commercial (경제무역관계 종합 자료 : 경제무역 영역에서 양자관계)
- 6.59. Rela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franco-coréennes (한불 경제재무관계)

- 6.60. Le commerce franco-coréen (한불 무역)
- 6.61. Les investissements français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프랑스 투자)
- 6.62. Principales affaires suivies par des entreprises françaises en Corée (한국에서의 프랑스기업들의 주요 사업)
- 6.63. Transport. Visite d'Eta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1989) : projets de transports urbains. (교통. 1989년 11월 2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관련 도시 교통 프로젝트)
- 6.64.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1989). Construction Aéronautique Civile (1989년 11월 2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민간 항공기 사업)
- 6.65. Energie. Note pour la Direction Générale de l'Energie et des Matières Premières Objet : Rencontre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Monsieur Fauroux (에너지 자원. 에너지원자재충족을 위한 보고서: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과 프랑스 로제 포루(Roger Fauroux) 상무장관 회동 관련)
- 6.66. Armement. Fiche : Corée du Sud-Affaires d'armement 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 WOO (군수 산업. 한국의 군수 산업-노태우 대통령 방문 관련)
- 6.67. Coopération économique et industrielle. Visite en France d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M. Roh Tae Woo- 30 novembre-2 décembre 1989. Relations industrielles franco-coréennes (경제산업협력.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한불 산업관계 종합보고서)
- 6.68. Corée. Télécommunications (한국의 통신 산업)
- 6.69. Programme de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entre PME-PMI (한불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 6.70. Activité des entreprises françaises du secteur BTP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건설토목사업 분야 프랑스기업들의 활동)
- 6.71. Relations culturelles : L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franco-coréennes (문화 관계 : 한불 문화과학기술교류)
- 6.72. Coopération Culturel Franco-Coréenne (한불 문화협력)
- 6.73. Note Place de la langue française en Corée (한국 내 프랑스어의 위상에 대한 보고서)
- 6.74. Bicenten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Corée (한국에서 열린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행사)

🗨️ 수록 건 기록물 내용

6.1. Visite d'Etat de M.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is 30 novembre-2 décembre)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파리 11월 30일-12월 2일))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2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자료집에 들어있는 보고서 목차로 추정

종합

I. 회담 자료

II. 일반 사항

- 신상기록과 명함
- 이력
- 정부 조직
- 국내 정치 상황
- 한국의 경제 상황

III. 국제 문제

- 한국의 대외정치
- 남북관계 (남북한의 유엔 가입 승인, 프랑스와 남한의 관계)
- 동유럽의 변화
- 유럽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관계
- 미국과 한국의 관계
- 일본과 한국의 관계
- 중국과 한국의 관계
- 극동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
- 아시아 태평양 협력
- 캄보디아
- 다자 경제문제

IV. 양자관계

- 무역 경제 관계
- 교통
- 에너지
- 군수품
- 경제산업협력
- 문화 관계
- 과학기술협력

6.2. Note Centrales nucléaires en Corée (한국의 원전에 관한 보고)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3~5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한국의 원전 현황에 대해 작성한 내용임.

울진에 건설된 9호기와 10호기 원전은 1980년 프라마토스가 수주한 것으로, 기한을 잘 엄수하고 계약서에 따라 상당수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11호기와 12호기 건

설은 미국회사에 넘겨졌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현재 다음 달에는 신규 원전 13호기와 14호기 건설 프로젝트가 공지될 것이다. 프랑스는 13호기와 14호기 신규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강점, 9호기와 10호기를 건설하면서 한국 측에 보여준 프랑스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협업 능력, 기술이전 의지 등을 부각시키면서, 게다가 이번 입찰에는 미국 회사인 컴버스천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프랑스의 프라마토사와 독일의 지멘스(Siemens) 계열 쿠우(KWU)사가 공동출자한 회사인 NPI(Nuclear Power International)가 수주를 진행한다는 점을 공격 카드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6.3. Note Vis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is 30 novembre-2 décembre) Projet de train à grand vitesse coréen (대한민국 대통령 프랑스 방문, 한국 고속 열차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91114
페이지: 6~9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준비하던 프랑스에서 한국의 고속열차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임.

프랑스 산업계는 서울-부산 구간을 TGV의 이상적인 적용 사례로 보고 최대한의 관심을 보인다. 한 해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승객 숫자, 파리-리옹 노선에 필적할 수 있는 비행기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는 2시간 내의 단시간 운행 거리, 한국 산업의 상대적 성숙도, 높은 경사면을 흡수하여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TGV의 기술력으로 설명된다.

1) 경부 고속열차 프로젝트의 현황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 한국 과학자들은 고속열차의 라이벌들인 일본의 신칸센(Shinkansen), 프랑스의 테제베(TGV), 독일의 이체(ICE)의 기술력을 평가했다.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세 후보자들에 대한 기술 심포지움이 열렸고, 프랑스팀은 경쟁업체들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랑스 국영철도기업(SNCF) 회장은 대규모 기술이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고, 한국철도공사(KNR, Korean National Railroad)에게 국영 철도회사로서 자신들의 테제베(TGV) 유지보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공언했다.

2) 프랑스 입장

한국 경부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테제베 수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프랑스 당국에게 최우선 관심사이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때 파리-르망 노선의 테제베 아틀랑틱(TGV Atlantique) 노선에 시승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 한국 당국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 우리는 테제베(TGV)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 8년간의 운행경험으로 드러난 기술적, 상업적 성공, 신칸센에 비해 아주 현대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유럽 전역을 운행하는 테제베, 경쟁업체 보다 저렴한 차량 및 인프라 구축비용, 대규모 기술이전을 원하는 한국 측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고자 함) 테제베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 활동 때문에 프랑스 쪽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프랑스 정부 당국이 현행 프로젝트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향후 한국 측에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6.4. Fiche de Synthèse Objet : Contrefaçons en Corée (종합 정리 : “한국의 복제품”)

생산일자: 19891207

페이지: 10~12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준비하던 프랑스에서 당시 한국의 복제품 현황 정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작성한 글임.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불법 복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1988년 이후 한국 경찰의 눈부신 단속 성과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의 위조품 단속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1) 현황

한국 위조품 시장에서 프랑스 회사의 제품은 거의 50%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상품도 있지만 주로 사치품들이다. 따라서 한국 위조품 시장에서 프랑스는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

2) 한국 입장

한국 당국은 불법 복제품 단속을 하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복제업자들에게 매기는 형벌도 여전히 가볍다. 한국 관광이 일정 부분 복제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복제품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3) 유의 사항

한국 대표단에게 한국에 있는 수 많은 복제품으로 인해 프랑스 제품들이 고급 제품으로서 품질이나 평판을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프랑스는 복제품 생산과 판매를 억제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럽위원회의 요구를 지지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에서 불법 복제품 생산과 판매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5. Projet de TGV coréen (한국 고속 열차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911

페이지: 13~14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 한국 고속열차 프로젝트 건에 대한 현황 설명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 현황

향후 10년 내에 건설될 경부선 고속열차사업은 프랑스 철도 산업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외국업체로 현재 일본의 신칸센과 프랑스의 TGV가 유력하다. 한국은 1990년에 업체를 선정하여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총 5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경부 고속열차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이다.

2) 한국 측 입장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선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이미 검증을 받아서 한국에 대규모 기술 전수가 가능한 업체의 도움을 받겠다고 표방했다. 가격 및 재정 상황도 관건이다. 기술력 평가에서 한국인들은 공정성을 표명했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한데다 기술력도 뛰어난 일본 신칸센이 가격덤핑이나 보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

3) 유의사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일 수 있다. 프랑스를 방문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TGV 아틀랑틱을 시승할 때 프랑스의 TGV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8년간의 운행 경험에서 증명된 기술적, 상업적 성공적인 면모와 3세대 열차인 TGV Nord로 선보이게 될 빠른 기술 발전, 경쟁업체들에 비해 열차 구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한불 기업 간의 진정한 협업을 통한 대규모 기술이전 및 프랑스 국영철도(SNCF) 회장이 TGV 운행 및 유지보수 경험을 한국철도청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프랑스 은행과 정부당국이 자금운영계획을 검토해 줄 수 있으며, TGV가 유럽 도처에서 운행되는 만큼 고속열차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

6.6.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dans le domaine nucléaire (원자력 분야에서 한불 협력)

생산일자: 19891117

페이지: 15~17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하여 원자력 분야의 한불 협력에 관한 보고서

1) 현황

프랑스 원전 산업에서 현재 남한은 가장 전망이 좋은 시장 중 하나이다. 남한은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세계 7위이다. 원자력 부문의 한불교류 역사는 오래되었다. 1974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TNP, Traité sur la non-prolifération des armes nucléaires)에 서명한 이후 1981년,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정부간 협약 체결을 했다. 원천 기술이나 응용 연구, 안전 관련 특약들도 프랑스 원자력청(CEA)에 의해 체결되었다. 프랑스에서 연구인력이나 기술자들을 훈련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산업분야에서 원전기술협력은 한국에너지공단(KEMCO)과 협력하여 프랑스회사 프라마툼(FRAMTOME)과 톰슨(Thomson)이 올진 원전 9호기와 10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원전 11호기와 12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내주게 되어 실망스러웠다. 1990년경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 13호기와 14호기 건설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 합자회사인 NPI가 도전장을 낼 것이다. 독일 쿠우사와 프랑스 프라마타툼사가 합자한 회사의 공동 원자로에 이미 한국에 있는 프라마툼의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유럽 순방 때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할 예정인데, 독일 정부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 코즈마(COGEMA)는 연료 농축 제공 계약을 따냈는데, 한국 전체 농축 프랑스 원자력기술 업무 중 40%를 차지한다. 원전 사용 후 연료저장 시장도 서광이 밝은데, 프랑스 원자력 엔지니어링회사(SGN)가 스웨덴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2) 한국 입장

원전 시설 관련하여 한국은 늘어난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약 50기의 신규 원전 구축을 구상하면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13호기와 14호기 건설을 위한 공개입찰 때 이러한 요건을 내세울 것이다. 프랑스식 표준화는 원전 건설의 전방위적인 단계 구축부터 저장 연료, 사용 후 폐기물처리까지 실질적으로 하도급 몫이 보장됨을 의미할 것이다.

3) 유의사항

프랑스는 한국과 장기적인 협업을 수행할 의지를 피력하는 편이 좋겠다. 프랑스의 강점으로, 한국에서 이미 호평을 받았던 울진 원전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 독자적인 원전 구축을 희망하는 한국 측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기술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여 13호기와 14호기 구축에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 프랑스는 원전 폐기물 재처리 작업에도 협업과 관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6.7. Coopération gazière (천연가스 협력)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8~18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천연가스 산업 분야의 한불협력에 관한 보고

1) 현황

한국에서 천연가스 소비는 현재 1년에 2Mds M3을 사용하는데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한다. 천연가스는 화력발전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산업이나 상거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가스 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팽택 액화가스단지가 1981년부터 1986년에 부이그테크니가즈(Bouygues-Technigaz)에 의해 건설되어 한국 당국에 호평을 받았다. 프랑스국영가스회사(GDF, Gaz de France)는 1985년 한국가스공사와 연구원 및 임원 연수 협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기업 소프레가즈(SOFRÉGAZ)는 프랑스국영가스회사의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동해에 새로 천연가스 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한국 전역에 가스공급망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소프레가즈는 1990년 봄 반월에 개통되는 가스 기술연구원 준공에 기술지원 계약에 서명했다.

2) 유의사항

성공적인 협업 덕분에 한국이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협업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눈치이다. 한국과 좀 더 접촉을 늘려서 대규모 천연가스 기지 건설뿐 아니라 액화가스 운송선이나 유통망 건설 등에서도 좋은 산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해도 좋을 것이다.

6.8. Record of Discussion-Compte rendu d'entretien (회담기록-회담록 보고)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19~21

1989년 11월 30일~12월 2일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 이상희 과기처 장관과 위베르 퀴리앙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이 참여한 공식 회담 내용을 기록한 것임.

양국 장관은 그동안에 시행된 한불 과학기술 협력의 긍정적인 결과물을 치하했다. 이상희 장관은 우주, 원자력 기술, 해양 관련 기초연구 및 산업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고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안했다. 퀴리앙 장관은 천체광학현미경, 위성, 원자력 연료와 안전성 분야에 프랑스가 특히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태양로 및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관련 공동연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중교통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는데, 퀴리앙 장관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열차 관련 경험을 강조하면서 유관 사업 제휴가 양국의 상호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희 장관은 바이오 기술을 포함하여 주거, 해양오염, 식품 안전, 건강 분야 관련 삶의 품질을 개선하는 신기술에 특별히 관심을 표명했고, 양국 장관은 관련 분야의 양국의 연구소 간 상호교류를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두 장관 모두 환경 보호가 현재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계속하자고 했다.

6.9. Record of Discussion—Compte rendu d’entretien (회담기록-회담록 보고)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22~24

본 철의 앞 건(6.8)과 동일 내용

6.10. 환영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생산일자: 19891201

페이지: 25~28

프랑스와 한국 간 중요한 역사적 주요 인사들(ex. 조선 후기 최초로 이승훈(Yi Sunghun)에게 세례를 준 그라몽(Grammont) 신부, 외방선교회 모방(Mauban) 신부, 6.25 전쟁 때 한국인 부상병들을 구하고 전사한 쥘 장 루이(Jules JEAN-LOUIS) 대위)를 환기한 후, 80년대 이후 계속 이어진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경제, 과학기술 교류 언급,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 감사,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내외정책(ex. 민주화 선언, 북방정책)의 성과, 세계 정세의 변화(ex. 소련 및 동유럽 국가 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발맞춰 양국 간의 우의와 번영을 다짐하는 내용

6.11. Coopération scientifiques et techniques. Relation culturelle, scientifiques et techniques (과학기술 협력. 문화 및 과학기술 관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29~31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문화 및 과학기술 교류 내용을 보고

1) 문화교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불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으며 한국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잘 정착했다.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는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프랑스를 방문한다. 특히 올해 프랑스문화원은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연극이나 발레, 음악제, 영화제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행사도 한국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는 한국에서 불어 습득을 장려해야 할 것이며, 예술교류를 촉진하여 현대 프랑스 창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협력

1989년 기술 교류 예산은 1,100만 프랑까지 늘어났는데, 주로 원자력이나 중소기업들 간의 제휴, 우주항공, 경제학 전문인력 양성, 컴퓨터 정보처리, 수산업과 해양학에 관련된다. 여전히 한국의 목표는 선진 기술력을 전수받는 것이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이 비용을 대더라도 고학력 학생들을 민감한 부문에 일하도록 파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체들과 제휴하는 식의 제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한국이 보여준 관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양국 각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한국으로의 대규모 기술이전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6.12.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①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과학기술 협력 ①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생산일자: 19891027
페이지: 32~37

기록철 관리번호 PZA0008004 제16번(5,16) 건 54~59쪽과 동일 내용

6.13.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 Note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 (한국의 대외정치)

생산일자: 19891122
페이지: 38~44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대외정치에 관한 보고

1) 반드시 미국 및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남한의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는 안보이며 같은 이유에서 일본과 미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 미국: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가신 파트너

1945년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후 미군 주둔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기본이 된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점차적인 주한 미군 철수를 발표하자 한국인들은 상당히 동요했고, 미군의 방어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대부분의 한국 지도층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만큼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막강하며, 1987년 한국 내 정치적인 소요사태를 처리할 때도 미군의 입김이 작용했다.

경제 측면에서 미군과 아주 긴밀하지만 갈등 관계이다. 수출품의 40%는 미국으로 가며, 미국은 제2의 투자국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키워진 반미감정은 한국의 민족주의로 변모될 수 있다. 수도권 외곽으로 미군 기지 이전 협상을 할 때 남한에서 미군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것 같지만, 좀 더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일본: 특별하지만 애매한 관계

과거 식민지였던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배격 대상이자, 경제적으로는 물모델이다. 1983년 나카소네(NAKASONE) 일본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사로 인한 갈등은 조금이라도 불씨가 생기면 악화된다.

2) 목표 : 국제적인 인정

1980년에 개방과 다양화 정책을 시도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대외관계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적 시도는 UN 가입이다.

(1) 북한과 경쟁

제3세계에서 남북한은 외교전쟁을 치렀다. 남한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표방한 남북한 화해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4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reconnaissance croisée)” 및 UN 동시 가입을 반대한다. 남한은 남북한 상호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맹국이 북한과 접촉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다. 북한에 의해 여러 차례 적십자 회담이 중단되었고 12월에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2) 동구권 국가를 향한 개방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남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적 친분을 쌓았다. 1988년 헝가리에 이어 1989년 폴란드와의 수교를 맺은 것은 서울의 “통상외교(diplomatie commerciale)”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된다.

(3) 유럽과의 관계

북유럽을 제외하고 중립국인 스위스와 포르투갈, 서유럽 국가들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경제공동체(CEE,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은 한국에게 미국 보호주의 정책의 위협에 직면하여 중요한 시장이 된다. 유럽은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에 유럽공동체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는 것은 서울이 유럽과의 관계발전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및 중국과도 화해를 하면서, 정치적 · 경제적 성공을 거둔 한국은 이제 좀 더 평정심을 갖고 대북 관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14. Note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 상호관계)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45~49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남북한 상호관계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작성한 내용임.
 일본 패망 이후 38선으로 두 동강이 난 한반도는 냉전(guerre froide)의 여파로 미국과 소련 각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한국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여전히 양국은 교전 중이다. 수십만 이산가족을 낳은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반대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가진 두 체제 간의 관계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
 전쟁 후 19년간 남북한은 어떠한 접촉도 없다가 적십자 기구를 통한 구호품 지원이나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개최 등 크고 작은 만남이 이어졌다. 1986년 서울올림픽 공동 주치를 협상하던 중 1975년 이후 매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이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된다고 하자 갑자기 평양이 모든 대화 채널을 폐쇄했다. 서울이 올림픽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막고자 북한은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올림픽 참가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공산국가 포함 167개국 중 160개국이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평양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198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표방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이 재개되었고 남북 국회 회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정치·군사적 협상, 1990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스포츠 협상 등이 이루어졌다. 남한은 7.7선언(la déclaration du 7 juillet)으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논의를 개방했고, 남북교역을 본격화했다. 민주화 열풍과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제안에 힘입어 남한 대학생들은 평양과 대화채널을 만들었고 문익환 목사의 1989년 3월 방북, 그해 7월 임수경의 방북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팀스 피리트(Team-spirit) 훈련을 핑계로 남북 국회회담을 중단시켰고 문익환 목사 체포를 핑계로 다른 대화채널도 폐쇄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9월 11일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남북연합(commonwealth coréen) 세부안을 제안했다. 남한은 단계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주력한다. 김일성이 집권하는 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겠지만 북방외교가 촉매제가 되어 주변 정세가 바뀌어서 북한을 변화시키길 바란다.

6.15. La Corée et l'ONU (한국과 유엔(UN))

생산일자: 19891103

페이지: 50~53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남북한과 UN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임.

1) 남북한 유엔 가입

남북한은 유엔의 정식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북한은 1949년 UN 가입을 신청했으나 상임이사국 반대로 무산된 이후 남북한이 단일 의식을 갖는 가입안을 주장한다. 남한은 두 차례에 걸쳐 승인이 무산된 후 남북 동시 가입을 주장한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가입하는 가능성을 지지하므로 남한 쪽에 힘을 보탤다. 모스크바도 더 이상 남한의 UN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남한은 1949년부터, 북한은 1974년부터 옵서버 국가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는 한국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유엔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1947년부터 1970년 사이에 논의되었다. 1973년 총회는 처음으로 양쪽 대표단을 배석하고 총회는 두 개의 한국 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선언했고 유엔 한국 부흥 통일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1976년 이후 한국의 UN 가입 문제는 양쪽의 변호인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상정에서 철회되었다. 남한은 중국과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가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3)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UNC)

1985년 10월 이후 서울 유엔군 사령부에 프랑스 군사담당관 배치 승인이 났다. 우리가 1965년부터 정치적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지휘권을 되찾아 온 것은 아니다. 외부인 군사 감독관 배치 상황은 유엔사령부의 총사령관과 예전에도 갈등을 유발한 적이 있었고, 굳이 서울과 성가신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으므로 군사담당관은 주한 프랑스대사가 휴전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6.16. Note L'attitude française vis-à-vis de la Corée du Nord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생산일자: 19891102

페이지: 54~56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

- 1) 프랑스는 대부분의 서방권 국가들처럼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1984년 12월 11일 파리에 있던 민간무역대표부가 북한 총대표부로 호칭이 바뀌면서 외교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남한은 프랑스가 북한을 거의 승인해 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한한 로랑 파비우스 총리는 1985년 4월 2일 남한 언론에 “서울의 동의 없이 프랑스가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프랑스 정부가 두 개의 한국을 모두 인정해 주는 나라들과 남한만을 인정하는 나라들 사이의 중간 입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1988년 '7.7특별성명'을 통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대북한 대결외교를 지양하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북한을 국제무대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동맹국들이 북한과 경제 및 문화교류를 하라고 촉구했다. 1988년 10월 유엔 재판소에 남한과 북한을 두고 소련과 일본, 미국, 중국을 모아서 교차승인(la reconnaissance croisée) 즉,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서울을, 워싱턴과 도쿄는 평양을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프랑스는 교차승인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남한 대통령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독려하며 남북한 상호대화에 힘쓰는 것이 좋다고 평가한다. 총리가 최근 파리에서 북한 총대표와 나눈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으며, 북한 대표는 이 기회를 빌어 프랑스와 북한이 외교관계를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6.17. Evolution de l'Europe de l'Est. Fiche La situation en Europe Centrale et Orientale et les relations Est-Ouest (동유럽의 변화. 중동부 유럽 상황과 동서 관계)

생산일자: 19891121

페이지: 57~61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중동부 유럽의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

- 1) 중동부 유럽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 (1) 소련(URSS, L'Union des républiques socialistes soviétiques)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점점 더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로 불리는 개혁, 개방정책이 실패했고, 소련 내 공화국들이 독립을 요구하여 많은 부상자가 생겨났다. 이제 고르바초프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어떻게 소련을 안정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 (2) 모스크바의 동맹국들에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폴란드 자유 노조의 의회진출 및 비공산당 총리 선출, 헝가리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폐지 및 사회당 집권,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 동독의 정치 상황, 체코의 민주화 물결 등 중동부 유럽의 정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띠고 있다.
- 2) 외교관계에도 변화가 보인다.

(1) 미국과 소련의 관계

미소(美蘇) 간에 대화가 활발해져서 부시와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 하고 부시는 늦추려고 했다. 미국 쪽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2) 유럽공동체

11월 18일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주도로 12개국 정상들이 모임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했다. 유럽 의회 의장과 국무장관이 부다페스트와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라스부르 유럽이사회(Le Conseil Européen de Strasbourg)는 경제 화폐 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3) 양국 관계

뒤마 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은 소련과 프랑스의 관계 강화를 드러낸다. 이번 회동은 모스크바 입장에서 유럽 사회의 빠른 변화기에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의 미래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과 소련 서기장 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4) 유의사항

보고서 “두 유럽 진영의 화합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conception française du rapprochement des deux Europe) 참고할 것.

6.18. Fiche Les relations entre l'URSS et la Corée du Sud (소련과 남한과의 관계)

생산일자: 19891120

페이지: 62~64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소련과 남한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임

1) 현황

- (1) 남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그들의 대아시아 정책 기조에 따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대화를 진척시켜 안심시키는 이미지를 만들고, 극동 소비에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동적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소련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얻는 이해관계를 설득시킨다.
- (2) 소련은 한국 문제에 절충안을 바란다. 고르바초프는 한반도 평화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군비 감축을 설정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계획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 (3) 남한에 대한 소련의 입장 전환도 중요하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남한에 외교적 언론적 성공을 가져다주었고 모스크바와 서울은 통상대표부를 교환했다.
- (4) 소련은 북한에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방침에 평양의 독단적인 태도는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2) 한국의 입장

서울은 소련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보고 모스크바와 계속 가까워지는 노력을 한다. 모스크바가 더 이상 강경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남한의 유엔 가입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기 바라면서도 소련의 군비 현대화 및 평양과의 협력 강화도 주목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한국과 소련 간에 대화가 진척되자 요즘 서울은 내심 당혹스러워하며, 소련과의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유의사항

-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마지막 냉전 시대의 유물인 한반도 분단이 사라지도록 상호 간 대화진척을 위해 남북이 취한 여러 조치들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 노태우 대통령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변화가 소련과 남한의 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 (3) 노태우 대통령에게 유럽의 두 진영, 특히 동독과 서독의 화합이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6.19. Fiche Conception française du rapprochement des deux Europe et de la solution à la "question allemande" (두 유럽 진영 간의 화합과 독일 문제 해결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생산일자: 19891108

페이지: 65~68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한 설명자료

1) 현황

- (1) 중동부 유럽의 화합은 무엇보다 마음에서 먼저 발생한다.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은 동유럽에서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만들어냈다. 동구권 전역에서 유럽의 이상인 자유를 갈망한다.
- (2) 공산권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자유무역연합(AELE)들에게 유럽공동체가 지닌 매력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과 무역거래나 협력조약을 체결하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 (3) 유럽 평의회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 (4) 프랑스는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2) 유의사항

(1) 두 유럽 진영 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가. 유럽국가들 간의 화합 노력은 인위적으로 40년 넘게 유럽 대륙을 갈라놓은 단절을 완화시켜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프랑스)는 경제동맹 및 화폐 단일화의 실현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유럽공동체의 완성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 유럽 사회주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화가 이들 나라에 던져진 도전이라면 서구사회에 던져진 도전이기도 하다.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유럽에 연대감이 형성될 것이다.

라. 제도권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양방 관계에서 유럽 공산권 나라들을 향한 개방을 위해 일할 것이다.

유럽의 두 진영간의 화합은 프랑스가 유럽공동체의 의장직을 위해 세운 목표 들 중 하나이다.

(2) 독일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 지역개발청(RDA)이 겪고 있는 위기는 독일 문제를 시사 현안의 선두에 배치한다. 적대관계가 45년이

나 지속된 지금, “이제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독일 젊은이들이 외친다.

나.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인들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프랑스와 소련은 유럽 모든 국가의 미래와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이런 방향으로 소련과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이다.

6.20. Note Rel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vec les pays socialistes européens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69~72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단적으로 정반대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한국전쟁 후 미국이나 일본 과만 동맹을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무시하는 이승만의 강경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계속 지지를 받아서 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69년 닉슨 선언(la doctrine Nixon)으로 동서 진영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서울과 평양 간 처음에는 비밀, 이어서 직접 대화를 통해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남한 정부는 그들의 호전적인 배타주의를 재고하게 되었다.

1970년부터 남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수출시장 활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동유럽권 국가들과 경제 무역교류를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남한은 온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후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동유럽국가들과는 소극적인 무역교류를 계속 이어나갔고 전두환 정부 들어 한국이 신흥 산업국가 반열에 오르고, 북방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좀 더 진척되었다. 최근 10년간 동유럽에 일어난 변화와 서울올림픽은 동유럽권 나라들과 한국과의 화합에 긍정요소로 작용했다. 1988년 7월 7일 선언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과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을 겨냥하여 과감한 북방정책을 선언했다. 러시아 선수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다.

1989년 2월 헝가리와 한국의 수교가 체결되었고,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폴란드, 불가리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다. 1987년부터 1989년 3년간의 단시간에 한국과 동유럽국가들 간의 접촉이 상당히 늘어났다. 사할린 동포들의 한국 방문 등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업가들의 빈번한 방문이 이어졌다. 점점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류 교역도 상당히 늘어났다(cf. 러시아와 한국의 수출입 거래 현황 수치 언급됨). 시베리아 지역 개발 건으로 합자회사 방식의 투자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남한과 동유럽 간의 교역은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길 원하고,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며 경제 근대화에 박차를 가

하고 싶어 하는데, 빠른 산업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이들에게 매력적이다. 소련은 여전히 통일 문제에서 교차승인을 거부하는 북한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최우방국이다. 남북한이 계속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소련은 북한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남한과는 경제적 무역거래를 지속할 것이다.

6.21. Note La CEE et la Corée du Sud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생산일자: 19891031

페이지: 73~83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외무부 경제협력과에서 유럽공동체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

유럽경제공동체와 한국 간에 교역이 늘고 있지만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1) 유럽경제공동체(CEE)와 남한

유럽경제공동체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의 대 유럽경제공동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수입은 매우 천천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경제공동체는 대 한국 무역적자이다. (구체적인 수출입 거래량 언급됨)

2) 무역 환경

(1) 유럽경제공동체는 적자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편다고 비난받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위협에 대해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부분별 수입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일반특혜관세제도 (SPG)를 통해 한국이 관세혜택을 보던 제품들을 줄여나가고 반덤핑 조치도 실행해야 한다.

(2) 한국시장은 자기들이 경쟁력 있는 영역에서 수입품에 빗장을 단단히 건다.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의 허가를 개별 생산자들과의 합의에 맡긴다는 식의 비가격 경쟁을 시키고,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국산품을 선호한다.

(3) 한국은 미국과 양자무역 협정을 맺은 데 비해 유럽경제공동체와는 관세차별정책을 시행한다.

3) 유럽경제공동체는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되 단호함을 지녀야 한다.

(1) 유럽경제공동체는 한국에게 새로운 책임의식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은 몇몇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을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국에 비해 유럽경제공동체를 차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2)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교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유럽경제공동체가 필요하며, 유럽경제공동체도 이웃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면모, 인구는 적지만 국제교류에 훨씬 더 개방적인 한국과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 수입품 감시관리 제도 폐지, 국제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법규 제정,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한국 측의 선의를 드러내는 결정에 대해 치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국 측의 선의는 국제적인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거나 슈퍼 301조(super 301 du Trade Act)의 위협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한국과는 부문별 대화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cf. 이어지는 문단에서, 수출입 품목별 대차, 대조 논의 사항 상세하게 열거됨)

* 유럽경제공동체와 한국의 무역 관련 통계수치 분석 도표 첨부 (1. 수출입 상황, 2. 1987년과 1988년 연도별 변화, 3.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 연도별 수출입 수치 변화)

6.22. Note Les Etats-Unis et la Corée du Sud (미국과 한국)

생산일자: 19891031

페이지: 84~88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외무부 북미과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작성한 자료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외교적 지지는 한국의 정치·경제발전과 한반도의 안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지만 무역 차원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 군사 정치적 동맹관계

(1)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 8군 사령부의 4만 3천 명이 남한 전역에 주둔해 있고 유사시에 전투 비행대와 해병대의 지원을 받는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Bush)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군 병력 규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민의 반미정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군 참모본부가 수도 외곽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남한이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을 좀 더 부담하길 바란다.

(2) 한반도의 분위기 변화

미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남한이 북한과의 화합, 나아가서는 화해를 위해 시도한 노력을 환영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를 통한 평화적 시도는 재차 부시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군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개방정책에도 찬성한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법안을 모방한 법안을 채택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2) 무역 갈등

미국과 한국의 친밀한 외교관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악화되면서 생겨난 양국 간 무역 갈등에 의해 자주 먹구름이 낀다. 하지만 남한에서 점점 늘어나는 반미감정을 우려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와 한국인들의 무역 협상 능력으로 일정 부문 무역 갈등이 진정되었다.

(1) 무역적자

최근 대(對)미 무역에서 한국은 흑자를 보고 있으며, 미국의 6번째 수출국이다. 한국은 미국 측으로부터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소개하는 공식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행정부는 1988년도 초에 한국에게서 일반특혜관세제도(SPG) 혜택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물건에 대한 미국의 수입은 여전히 늘었지만, 미국산 물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양국의 무역거래 적자는 안정되었다.

(2) 소송

미국과 한국은 주로 농산품과 농식품 제조업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소송분쟁을 겪는다. (cf. 미국산 담배 수

입, 와인 시장 개방 등)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완화된 것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자화자찬한다. 미국은 한국의 개방화 정책이 더 나아가길 바란다. 미국은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미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무역 차원에서 워싱턴의 감시를 완화시키기는 해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무역갈등은 향후 몇 달 안에도 재차 나타날 수 있다.

6.23. Note Relations entre la Corée et le Japon (한국과 일본의 관계)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89~94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
 일본문화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부터 전수 받았다.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정복하고자 시도했다. 16세기 말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전쟁에 이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 지배를 강요했다. 과거사의 후유증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신과 강렬한 원한의 성격을 띠는 것을 설명해 준다. 지형적 근접성, 일정 부분 언어와 문화 공동체, 양국 모두 동아시아에서 미국 우세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 양국은 긴밀한 상호이해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1) 정치 관계

1965년 서울과 도쿄가 맺은 정식 수교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1983년 1월 나카소네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이었는데, 일본의 총리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를 시도했음을 상징한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쇼와 황제는 식민지 기간을 “불행한 과거”라고 명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5년 만에 정치적 접촉이 강화되어 고위급 인사들의 정기적인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은 천황의 건강 상태와 다케시다(Noboru Takeshita) 총리의 사임 때문에 연기되었지만 아키히토 천황이 한국 방문을 공식 희망한 상태이고 일본 수상은 1988년에 2번, 새 대통령 취임식과 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다녀갔다. 양국 간에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서울올림픽 개최에 일본의 지원사격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참석했고, 도쿄는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김일성 체제의 조정자 역할을 해 주도록 서울의 중매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과거사로 인한 감정적 갈등은 계속되었다. 부당수탈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반복된 시도,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히로시마 원전 피해자들의 신세 등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북한과 모호한 관계를 맺는 일본에 대해 남한은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2) 경제 관계

정치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양국의 사업가들은 아주 긴밀한 관계망을 만들었다. 일제 식민지 기간에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일본과 사이가 좋았다. 일본은 남한 경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국의 물류 거래량은 1966년에 6천만 달러에서 1988년 2천8백만 달러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일 무역에서 한국은 거의 구조적으로 적자를 겪었다. 계속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한국은 일본에게 무역 갈등을 정치화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일본 의존도를 줄여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일본 시장

을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늦어도 1992년까지 일본과 무역균형을 맞추겠다는 한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51.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본은 단연코 한국의 첫 번째 투자국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성장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기술이전이 일본회사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에 첨단기술을 제공할 것을 몹시 주저한다.

6.24. Note Relations de la Chine avec les deux Corée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

생산일자: 19891122

페이지: 95~99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외무부 극동과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함.

중국은 자신의 북쪽 국경지대에 통일된 한국이 세워지길 바라지 않는다. 서울과의 관계가 조용히 실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해도 한반도가 둘로 나뉘고,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만족한다. 지난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 개방 열풍이 사회주의 진영을 흔들어 놓게 되자 현재 북한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더 돈독한 관계를 바라는 것 같다.

1) 북한과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

한국전쟁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일성 체제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61년 중국과 북한은 군사 동맹을 맺었다. 소련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는 하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다른 성격을 띤다. 과거에 빚진 것에 대한 감사와 두 체제 간 일정 부분 유사성 때문이다. 이들 관계의 특권적 성격은 최고위급 정상 간의 빈번한 만남으로 설명된다. 북한(RPDC, République populaire et démocratique de Corée)은 대외정치에 있어서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2) 장기간의 분리 기간 이후 관계 재확인

1989년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 강화는 중국 지도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이 다시 북한과 친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북한이 보이콧한 서울올림픽에 중국이 참가하고, 1983년 랑군 테러(attentat de Rangoon)나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중국이 역정을 냄)을 뒤로 하고, 중국과 북한은 공산권 나라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걱정하고 연대했다. 가장 최근 김일성의 비밀리 북경 방문은 소련과 동구권 공산국가에서 일어난 민주화의 흐름에 맞서 다시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를 공감했음을 나타낸다.

3) 남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평양과의 관계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점점 더 서울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인다. 통상교역에서 중간 기술을 보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지닌 물건을 제시하는 한국은 중국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할 예정이다. 직간접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직통 연락사무소 설립 프로젝트들이 생겨나는 것은 한국 측에서도 호응을 받았다. 남한은 사실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평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서울과의 외교 정상화는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4) 유의사항

대통령은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에게 중국이 개방정책을 재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강경정책을 취하는 시점에 향후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리라 보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진 것에 대해 북경, 모스크바와 평양의 3자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으리라 보는지 물을 수 있다.

6.25. Situation politico-militaire en Extrême-Orient. Note Les questions de Sécurité en Extrême-Orient vues de Séoul (극동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상황. 서울에서 바라본 극동아시아의 안보 문제)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00~104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극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대해 작성한 내용임.

한반도는 미국, 일본, 소련, 중국 4대 강국(그중 셋은 핵보유국)과 직접 접촉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아시아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유일한 나라인 남한은 자유진영의 전초기지이자 일본을 선제 보호하는 방어 전략상 요충지이다. 서울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만 공격위험을 받는다. 소련의 군사력은 항만시설이나 항구시설을 편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도라는 점에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식민지 시대가 남긴 기억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방어 협력은 어렵다. 남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본이 우발적으로 남북한 간의 전쟁놀이에 회귀할까 두려워하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병력이나 무기 수준 모두 남한보다 우위에 있고, 화학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몇 년 안에 핵무기까지 제작하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군비에 책정된 예산도 많다. 최근 주한 미군 규모를 재배치하고 조정하고 있는 한미 정부 당국은, 현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육해공군의 통수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점차 한국군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주한미군 주둔을 국방의 보증수표로 여긴다. 남한은 통일의 수단을 모색하면서도, 무기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침투, 선전 공격 등을 통한 북한의 위협을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존재가 북한을, 특히 핵무기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급자족체제 확립을 목표로 세웠다. 그동안 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화와 균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최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미군 주둔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다.

6.26. Note Cambodge.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캄보디아. (11월 30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생산일자: 19891117
 페이지: 105~108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하여 프랑스 외무부가 캄보디아에 대해 보고한 내용임.

1) 현황 설명

(1) 베트남 철군 이후 캄보디아에서 재개된 전투는 양 진영 간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을 띤다. 크메르 루주(les Khmers Rouges) 반군은 두 번째로 큰 몇몇 도시를 함락했지만 현지의 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진행 중인 교전들 역시 이 전쟁에 연루된 여러 진영 혹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2) 각 진영은 어떠한 타협도 배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3개 정파 연합전선 (La résistance tripartite)은 훈센(HUN SEN) 수상과 베트남에게 총선 전 임시 정부에서 4개 정파가 권력을 나눠 갖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중국과 태국은 크메르 루주 반군에게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 훈센은 단호하게 크메르 루주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베트남은 프놈펜의 지도자들을 지지하지만 4개 정파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훈센이 이끄는 캄푸차 인민공화당(PRK,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과 시아누크(SIHANOUK) 왕자가 이끄는 민주 캄푸차 연합정부(CGDK, The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왕자 때문에 크메르 루주군이 재집권하게 됐다든 의미인데, 왕자는 이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

- 방콕과 자카르타가 나서서 협상을 재개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알라 타스(Ali Alatas) 외무부 장관은 자카르타나 캄보디아 문제를 다룰 예정인 파리 회담에서 비공식적 회동을 갖고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지만, 강경 태도를 고집한 탓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2) 남한의 입장

캄보디아 문제는 한국의 대외정치에서 결코 중요한 사안인 적이 없다. 서울은 아세안(ASEAN)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도로 그친다.

3) 프랑스의 입장

아세안 국가들 중 몇몇은 폭력으로 얼룩진 교전 중에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수긍하지만 프랑스는 협력과 실용성의 원칙을 내세운다.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나라들에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와 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제안하듯이 캄보디아 문제를 다루는 파리 회담의 틀 내에서 새로운 회동을 한다고 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의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주요국들의 의향을 탐지하고 시아누크 왕자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

6.27. Coopération Asie-Pacifique La Corée et le projet de coopération économique régionale Asie-Pacifique (아시아태평양 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91122

페이지: 109~112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하여 프랑스 외무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관해 작성한 내용임.

1) 현황

올해 초 호주 총리는 환태평양 국가들의 상호 보완 관계를 결속시키고 태평양 내부뿐만 아니라 다자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들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급증에 불안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호주 총리 주도로 1989년 11월 6일과 7일 캔버라에서 국가 정상들 간의 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이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라고 불린다.

하지만 “지역무역블록(bloc commercial régional)”에 대해 일본은 회의적이었고 동남아 국가들은 불안해한다. 일본은 너무 큰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나는 불편함과 더 큰 지역조직권역에서 동남아연합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연계해서 지적했다. 아세안(ASEAN)은 도쿄와 캔버라 위주의 지역블록경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국가들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남북대립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한 아세안의 대화상대인 유럽이 배제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2) 한국의 입장

남한 정부는 호주의 제안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 외무부 장관이 캔버라 회담에 참석했고, 서울이 1991년 3차 회담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점은 한국 측의 관심을 대변해 준다. 서울은 이러한 회담에서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 소통망 확대, 상호투자 증가, 환경 보호 등을 다루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캔버라 회담에서 채택된 결론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이 제안한 기구에 대해 열광하지 않으며,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면 비공식 민간기구인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적절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3) 유의사항

남태평양에 영토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프랑스는 호주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과 다국적주의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시도에 대해 칭찬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무역 블록(bloc commercial)”이 생겨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프랑스는 캔버라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환태평양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확대 범위가 어떠한 유럽 경제 공동체도 그 대열에 가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6.28.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Bassin du Pacifique (한국과 태평양 지역)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13~117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태평양 연안국과 한국에 관해 작성한 내용임.

아시아에서 자유진영의 최후 보루임을 확신한 한국은 태평양 연안 지역과의 협력이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1) 남한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다.

남한은 미국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남한에 4만 3천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해마다 최고위급 안보회의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며, 핵탄두로 추정되는 것을 배치

한다. 1978년도에 창설된 한미연합군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지역의 지휘권 아래에 있다.

2) 한국의 경제발전은 주로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1988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거의 70%를 차지하며,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의 68%이다. 한국경제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계속 대일본 무역적자인 남한은 일본에게 수출 물량 증가와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한다. 무역흑자를 낸 미국으로부터는 담배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소송이 늘어났다.

3)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캐나다와는 정치적 관계가 좋다. 캐나다는 북한 관련 사안에서 남한을 계속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무역 적자국인 캐나다는 남한에게 좀 더 노력을 요구한다.

호주는 북한과 1974년부터 1975에 이미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북한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1987년까지는 남한 정부에 대해 불신했지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이어 로버트 제임스 리 호크(Robert James Lee 'Bob' Hawke)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되었다. 남한은 호주 총리가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대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호주로의 수출이 증가하길 바란다.

뉴질랜드는 한국을 한결같이 지지해 왔다. 양국 간의 기술제휴는 상당히 활발한 데 비해,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한국의 관계는 좋으며 한국은 캄보디아 문제 관련해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아세안 나라 중 다수는 북한을 승인하지만 비동맹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개자의 역할을 취해 한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국은 아세안과 긴밀한 협업을 장려하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환영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통상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세안과 유럽공동체 간 교역량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량이 많아서 한국이 무역 적자국이다. 태평양의 프랑스령 국가들인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 대해 한국은 어업조약을 맺고 산업 투자를 한다. 라로통가조약(Traité de Rarotonga)과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해 교묘히 입장표명을 피해 왔는데, 이는 반핵(anti-nucléaire)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미군의 핵 억제력이 한반도의 안보에 중요하며, 자기들은 핵기술을 개발하면서도 한반도 내 탈원전 지대를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를 염두한 결과이다.

한국은 태평양해역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지역이 되고 한국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각 나라별 양자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태평양지역 협력 관련 국제 모임들을 개최하려고 애쓴다.

6.29. Questions économiques multilatérales Corée-Gatt (다자 경제 문제 한국-가트GATT)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18~12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관한 한국 관련 내용을 보고함.

1) 과세

(1) 관세율

한국은 특히 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1988년 8월, 5년에 걸쳐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도표〉 품목별 관세율 인하 비교

(2) 세금 부과

기본 관세에 추가 세금이 부여되는데 가령 코냉과 같은 독주에 선취 수수료를 매긴다.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 상황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 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Le Protocole additionnel de Genève de 1979)”에 동의했다. 각종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기술장벽 협정, 보조금 협정, 관세 평가 협정, 반덤핑 규제 협정을 승인했다. 면허와 정부조달협정 법은 그대로 따르지만, 민간항공법은 따르지 않는다.

3) 국제수지위원회(Comité BOP, Comité de la balance des paiements)에 제소된 한국

1989년 한국은 GATT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되었다. 국제수지 조정위원회는 한국이 GATT의 18조항 B항, 즉 “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경우 개발도상국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하여 1986년부터 한국이 실시해 농산물수입제한조치가 GATT의 일반 조항에 위 배 된다고 지적하며,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7년까지 GATT가 정한 규약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수입자 유회를 권고했고, 한국은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제수지위원회(Comité BOP)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 같은 나라 들이 선진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도 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6.30. Corée, L'OCDE et les NEI d'Asie Integration Commerciale ajustement structurel (한국, OECD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EI), 무역구조 조정 및 통합)

생산일자: 19890918
페이지: 122~124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소위 네 마리 용의 OECD 가입 논의 관련 내용을 보고함.

경제개발협력기구(OCDE)는 1989년 1월 말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원국들과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4 dragons d'Asie)” 간 비공식적 회담에서 후자의 OECD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을 통해 “아시아의 신흥공 업국(NPI)”과 OECD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워크숍들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워크숍 회동 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호주가 주도하며, 홍콩과 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 OECD의 위세에 눌려 무력화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유럽경제공동체는 무역분쟁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국 측에서 무역 구조조정 이나 국제사회 편입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1) 무역분쟁 증가

한국의 수출은 1986년 이후 연간 40%씩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1년에 20% 정도로만 늘어나 무역수지 불 균형을 보인다. 주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이뤄낸 성과들로 인해 상대국들은 보호조치를 취하 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경제공동체 국가들에서 반덤핑 제소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수출 주력 부문 인 신발이나 가전제품(전자렌지)들이 수출규제조치를 받았다. 일본 측에게서도 섬유나 의류 제품 수출규제 권고를 당했다. 유럽 경제공동체는 무역분쟁의 해결에 한미 양자주의가 동원되는 것을 걱정하며(ex. 담배나 소고기 수입특혜 개방, 지적재산권 관련 차별정책), 호주가 주도하는 태평양협력으로 인해 “지역 경제 블록” 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한다.

2) 국제 사회 편입에 속도를 낼 것

한국은 다자간 무역 체계 내에서 좀 더 균형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의 건설적인 참여
- 일반특혜관세제도(SGP)의 특혜 포기
- GATT에 개발도상국(PVD,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의 지위 재검토
- 도쿄 라운드(Tokyo Round)의 법규 준수
- 관세 통합정책

한국은 달러 대비 원(won)화의 환율도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OECD 산하기관에도 참여하고, OECD 회원국들 간에 합의된 세율, 금융법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3) 구조조정에 좀 더 노력할 것

한국의 최근 금융개혁과 무역자유화 시도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균형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하다. 외국으로의 수출을 늘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외생적 성장모델(Le modèle de croissance exogène)이 지금까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져왔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국내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6.31. Note de Synthèse, 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Woo (30 novembre-2 décembre) (노태우 대통령 방문에 관한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19891122

페이지: 125~131

노태우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며 방문 배경, 노태우 대통령 이력 및 인물 소개, 방문 일정 및 한국 측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함.

1) 방문 배경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지 3년 후로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30일부터 프랑스에 공식 방문을 한 후 이어서 부다페스트, 본과 런던으로 이어지는 유럽 순방을 하게 된다. 이번 방문은 1년 전부터 시작된 한불 정치 관계의 강화 차원이다.

2)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노태우 대통령은 향년 57세이고 전임자인 전두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군에서 예편해서 외무부, 체육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수장을 맡았다. 1985년 2월에 민주정의당(DJP)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전두환 당시 총재의 후계자가 되었다.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했고 12월 16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전임 대통령들의 독재주의를 청산하려고 노력했으며 고문 폐지,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두환 대통령의 가족 체포, 대통령 직접선거, 언론의 자유, 정치투사의 석방 등 진정한 민주화에 착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에 대한 한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부터 북방 정책을 주도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한국을 세계열강 반열에 올리려고 애썼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다수당은 아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중심인물이며, 야당의 분열로 인해 어려움 없이 1992년까지 예정된 자신의 임기를 마칠 것이다.

3) 방문 계획

주요 방문 일정

- 11월 30일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 12월 1일 개선문 헌화, 파리 시청 방문, 미셸 로카르(Michel Rocard) 총리 면담,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와 롤랑 뒤마(Roland Dumas) 장관 접견
- 12월 2일 파리-르망 구간 왕복 TGV 시승 및 여정 중 한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회사들 알스톰(Alstom), 프라마툼(Framatome), 톰슨(Thomson)과의 대화 등

장관들 간 회담 예정

- 롤랑 뒤마(Roland DUMAS) 외무부 장관과 한국 외무부장관
- 장 마리 라우쉬(Jean-Marie Rausch) 대외연구장관과 한국 대외통상장관
- 퀴리앙(CURIEN) 장관과 한국 과기처장관
- 슈미트(SCHMITT) 장군을 배석하여 레농(RENON)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
- 사회당 당수 루이 메르마즈(Louis Meraz)와 한국의 여당 사무총장

4) 한국의 목표

- (1) 이번 유럽 순방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성공 후 한국이 세계 강국 반열에 올라간 것을 알리고자 한다. 이미 프랑스 방문은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로부터 일종의 “민주화 자격증(brevet)”을 받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87년 집권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정책을 계속 해서 실현해 왔고, 높이 치하할 만하다.
- (2) 경제적 사안에 매우 관심이 있다. 유럽경제공동체(CEE)와의 교역은 아직 한국에게 목표 미달 상태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나가고 교역에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며, 유럽 측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기대한다.

5) 프랑스는 경제 분야에 사활을 건다.

- (1)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지닌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높고, 늘 열심히 일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인 한국은 향후 10년 후면 세계 강대국들의 대열에 오를 것이다.
- (2) 양국 간 무역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2번째 무역파트너이다. 한국시장 여건은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일본에 비해 국제 무역에 훨씬 더 개방적이다. 현재, 프랑스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2.2%, 독일(4%), 미국(24%), 일본(31%)에 비해 뒤처져 있다. 프랑스 산업계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무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회사의 숫자는 충분하지 않다. (ex. 한국 내 독일 회사가 200개라면 프랑스는 171개임) 한국과의 교역에 방해되는 요인으로는 한국 측의 자동차나 항공산업에서의 수입 규제, 복제품 판매, 미흡한 투자자 보호정책 등이다.
- (3) 한불 산업 협력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많다. 상당수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들을 통해 양국의 산업협력과 교역이 촉진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부선 테제베 사업과 원전 건설, 항공산업, K3 단거리요격 미사일(Sol-AIR K-SAM) 개발 및 다쏘(DASSAULT)사의 ATL 2 해상초계기 등 군수산업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6.32. Note D'entretien, 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Woo : entretiens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회담)

생산일자: 19891123

페이지: 132~138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시 여러 회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보고한 것임.

1) 국제 정치

한국 대통령은 유럽 동서관계의 발전에 대해 호평하면서 급변하는 중동부 유럽의 정세에 대한 우리 측(프랑스)의 분석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 (1)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북태평양에 소련해군 병력이 집중되고, 북한군이 수나 화력에 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이 안보 불안 상태임을 우리 측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 (2) 남북관계에 대해 프랑스는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 냉전의 유물인 한반도 분단 상황은 종식되어야 하므로 남북 간 대화를 진척시키는 데 우리 측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3)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치하한다. 이들 공산권 나라들은 한국 측의 대규모 긴급 경제원조를 매우 환영할 것이다.
- (4) 한국의 UN 가입 관련하여 프랑스는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한국의 UN 가입은 UN의 보편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UN 가입에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으며 최근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중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5) 남북한 교차승인 및 북한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 프랑스는 지금까지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에 대해 남한이 취하고 있는 실용주의 무역 거래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며, 프랑스는 북한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당장 외교관계를 수립할 생각은 없다.
- (6) 유럽공동체 12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프랑스가 순회의장국을 담당하는 시기에 정치적 대화가 시작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었지만 점차 외무부 장관들의 회동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2) 다자간 경제 관계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대응이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CEE) 간의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질문할 것이며 다른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1) 새로운 시장 공략 차원에서 늘어나는 한국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럽경제공동체는 반덤핑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 (2) 개발도상국의 수출 장려를 위해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다.
- (3) 한국은 유럽 측의 수입물량 규제 제한을 폐지하거나 한국의 수출 쿼터가 늘기를 바라는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4) 한국 측이 요청하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방정책을 취한다고 하나, 여전히 對한 유럽자동차 수출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호특혜를 부

여하는 파트너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한국차 수입을 검토할 것이다.

- (5) 대전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해 프랑스는 반대하지 않으나 국제박람회기구(BIE) 법규상 지금 당장 찬성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 (6) 한국과의 무역장벽을 만드는 요인들을 유럽집행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타협책들이 강구되는 중이다. 프랑스는 한국에서 프랑스산 브랜드들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복제품 판매가 급증하는 사안에 대해 고민이 많으며, 한국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복제품 판매를 단속해 주길 바란다. 매우 엄격하게 품질이 관리된 프랑스산 농산품이나 피혁 제품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장벽을 제거해 주길 희망한다. 한국 내 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AGF와 같은 프랑스 보험회사 설립 인가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불 양국 관계

- (1) 정치적으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아무런 갈등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차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미 제안한 1990년 한국 공식 방문 초대를 요청할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번 화학무기 관련 회담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 국민 방문 수락을 한 바 있다.
- (2) 양국의 경제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기술이전 분야에 특혜를 주는 산업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검토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이나 대구 지하철 사업, 원전 건설 사업, 가스 저장 탱크나 유통망 건설을 위한 제휴, 항공 산업, 단거리 유도 미사일 K3나 해상초계기 ATL 2와 같은 군수산업에서 기술제휴 등을 언급해야 한다.
- (3) 양국은 문화 및 과학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불어 교육이나 예술·문화 분야에서 양국은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바스티유 오페라단 지휘자에 한국인이 임명되는 등 프랑스는 한국인 예술가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과학기술 협력은 주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은 산업적 상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이전을 원한다. 한국은 기술제휴 프로젝트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률도 높다.

6.33. Biographies ① Note Monsieur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② Monsieur CHOI Ho Joong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③ Monsieur HAN Seung Soo Ministr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④ M. SHANG HI RHEE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⑤ M. CHUNG HO KEUN Chef d'Etat major général des Armées (주요 인사들의 이력 ①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② 최호중, 외무부 장관 ③ 한승수, 산업통상부 장관 ④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⑤ 정호근, 국방부 합참의장)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39~147

주요 인사들의 이력

- ①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 ② 최호중, 외무부 장관
- ③ 한승수, 산업통상부 장관
- ④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 ⑤ 정호근, 국방부 합참의장

6.34. Composition du Gouvernement Composition du Gouvernement de M. KANG Young-Hoon (19 juillet 1989) (내각 구성 강영훈 정부의 내각 명단)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48~150

강영훈 내각 주요 부처별 장관 명단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강영훈 국무총리,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최호중 외무부 장관, 김태호 내무부 장관, 이규성 재무부 장관, 허형구 법무부 장관, 이상훈 국방부 장관, 정원식 교육부 장관, 김집 체육부 장관, 김식 농수산부 장관, 한승수 산업통상부 장관, 이봉수 동력자원부 장관, 권영각 건설부 장관, 문태준 보건사회부 장관, 최용철 노동부 장관, 김창근 교통부 장관, 이우재 체신부, 최병렬 문화정보부 장관, 김용래 행정안전부 장관, 이흥구 통일부 장관, 박철언 정부 제1장관, 김영정 정부 제2장관, 현홍주 법제처장(프랑스의 국무조정실장 (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역할에 준함)

6.35. Les composantes du miracle coréen. Ses difficultés actuelles (한국의 기적 요인과 현재 한국의 어려운 현실)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51~153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 낸 요인들을 시대별로 설명하고 현재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함.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고, 30년 뒤 현재 한국은 세계 강대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1989년 한국의 경제성장이 멈췄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기적은 이제 끝이고 한국은 쇠퇴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설 새 없이 강조하는데, 국내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사치품 수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고, 대외적으로는 경제 강국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언사들로 보인다.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 낸 요인

60년대에는 마치 군의 작전 수행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일본의 경제 모델 영향을 받아 국가 경쟁력이 우세한 분야를 정해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재벌(Chaebols)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옷감이나 신발)에 중점을 두었다. 70년대에 정부는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을 발전시켰고 조선산업과 합성섬유 산업이 발달했다. 80년대 정부는 교육체계와 뛰어난 노동력 덕분에 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습득해서 들여왔고,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경제는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86년 2천5백 달러에서 1988년 4천 달러로 늘어났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어려움은 첫째,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때로는 과도한 노조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급여가 15~20% 인상되어 생산량과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 둘째, 달러나 유럽 화폐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는데 1988년에는 15% 이상 상승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전망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한국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생산자동화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좀 더 느리더라도 제대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5천 달러가 되므로 국내 시장을 활성화 하여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금을 늘리고 항공이나 군수산업, 자동차, 로봇, 전자산업 등 고비용 첨단기술 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다.

6.36. Fiches d'entretien (회담의 자료)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54~155

회담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을 나열함.

- 한국의 정치적 발전
- 남북관계와 남북한의 UN 가입
-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상황
- 유럽경제공동체와 한국 간 정치적 대화
- 유럽경제공동체의 반덤핑 조치
- 프랑스의 한국 차 수입
- 1993년 대전 국제엑스포 계획
- 한국의 복제품
- 프랑스의 소가죽(피혁) 수출
- 보험회사들의 한국시장 진입
- 다자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 한불 무역 관계
- 경부선 고속철도 프로젝트
- 원전 협력
- 군수 산업
- 대구 지하철 건설
- 가스 협력
- 문학 및 과학기술 협력

6.37. Evolution politique de la Corée du Sud (남한의 정치적 발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56~157

회담에서 다룰 “남한의 정치적 발전” 관련 보고 내용임.

- 1) 상황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직선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되었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로 민주정의당(DJP)이 과반을 차지했다. 취임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프로그램은 언론자유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정치범 석방, 공금횡령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기소하여 정치에 도덕의식을 부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죄수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테러범이나 깡패로 취급한다.

2) 한국의 입장

북한과의 관계나 전임 전두환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1993년까지 민주적으로 권력 이양을 할 예정이다. 민주화를 향한 그의 신념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유럽과 프랑스에서도 이미 지난 워싱턴 방문 때 부시 대통령한테서 받았던 것처럼 찬사를 받길 기대한다.

3) 유의사항

지난 2년간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한 민주화 정책 때문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발전한 점은 치하해야 한다. 민주화 정책은 한국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반도의 남북 갈등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프랑스 정부와 여론은 인권문제에 예민하며, 대통령에게 작년 평양 방문 이후 체포된 문목사나 임(수경) 학생의 신변처리에 좀 더 관용을 베풀길 바란다.

6.38. Fiches d'entretien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한 상호관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58~159

남북한 상호관계 관련 보고 내용임.

1) 현황

남북 간의 대화는 1972년에 시작되었지만 북측에 의해 자주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하나의 연합정부(confédération)”를 협상의 목표로 내세운다. 남한은 점진적 화합을 원한다. 1988년부터 노태우 정부는 입장을 굽혀 “남북연합(Commonwealth coréen)”을 제안했고, 북한에 경쟁과 대립의 정치를 버리고 무역거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김일성(KIM Il Sung)은 북경을 방문,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으려 했다. 남북한의 교차승인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너무 이른 것 같다. 남한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 눈치이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분열을 장기화시키려는 계책이라고 본다.

2) 유의사항

유럽의 동서 진영 간 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도 길조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보고,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남북대화를 위해 노태우대통령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프랑스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남북 교차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다. 남한이 중국이나 소련과 점점 가깝게 지내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좋은 방향이다. 우리는 서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만 하되, 외교관계를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6.39. Fiche d'entretien Adhésion des deux Corée à l'ONU (회담의 자료 한국의 유엔 가입)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60~161

남북한의 UN 가입에 대한 보고 내용임.

1) 현황

남한과 북한은 이제껏 UN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1949년에 신청했지만 실패한 이후 두 체제는 한반도 분리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의 통일된 한국으로만 UN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은 2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1958년에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고, 1975년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을 수락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현재 남한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희망한다. 프랑스는 보편성의 원칙에 의거 남북이 동시에 혹은 따로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남한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모스크바도 이제 남한이 UN 가입신청을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남한의 UN 가입을 반대한다.

2) 유의사항

프랑스는 남한이 가능한 빨리 UN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 UN의 보편성 원칙에도 부합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소련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를 할 때 소련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진정한 장애물은 중국이다. 동유럽과 소련의 변화로 인해 중국과 북한이 최근 부쩍 가깝게 지내는데, 이 둘을 설득해야 한다.

6.40.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WOO Situation stratégique en Asie du Nord-Est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상황)

생산일자: 19891103
페이지: 162~164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 정세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임.

미소 강대국의 대결은 동북아시아에도 몇 년 전부터 국제관계에 불고 있는 훈풍의 효과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감지된다. 대화채널이 많은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화는 양자관계에 한정되며, 상대의 제스처 하나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 동북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대결양상을 띤다. 소련은 남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소련 간에 계속 영토 분쟁이 있다보니 소련, 중국, 미국의 엄청난 양의 육해공 핵무기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에는 “데탕트(Détente)”, 긴장 완화의 기운이 보인다.

1) 소련은 1980년대 초부터 극동아시아의 병력을 약간 줄이고 있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일방적인 군비 축소안을 발표했으며, 극동아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해 있는 소련 해군에 실시하였다.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따라 171대의 신형 피오네르 중거리 탄도미사일(SS20) 폐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잠수함대에 탑재된 미사일 외에도 동북아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400대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조치는 기존에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이 미국에 맞서 해·공군력을 증강시켜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력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2) 소련의 행보는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 집권 시에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했었으나 소련이 태평양 전역에 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태평양사령부에 최정에 요원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북태평양 지역은 미소 양국의 최대 규모의 해군이 집결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80년대 내내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는커녕 2배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혹시나 있을 공산주의의 공격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3) 긴장 완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984년 군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심한 중국은 소련과의 군사적 경쟁을 포기했다. 중국의 변화에 소련이 화답함으로써 1989년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 만남을 통해 양국은 국경지대에 수비군 병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고르바초프 방문 직후 발생한 천안문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서양 주요국들과의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1988년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 모두 참여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표이다. 게다가 중국과 소련이 필요하다면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누를 만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북한의 위협은 사실상 진압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북한은 더 이상 과거처럼 중국과 소련 간의 경쟁심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고, 소련과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북한과 거리두기를 했다. 일본의 경우 소련과의 사할린 지역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이다.

결국 미소 양국의 힘의 관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립보다는 대화에 입각한 균형을 바라는 의지가 중요했고 한반도 상황의 변화는 첫 시험 대상이 될 것이다. 소련이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일본과의 오랜 영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6.41. Le dialogue politique entre les douze et la Corée du Sud (유럽공동체와 한국의 정치적 대화)

생산일자: 19891102

페이지: 165~166

노태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앞두고 유럽공동체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준비한 보고자료

1) 현황

1989년 1분기에 한국은 유럽공동체와의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인 한-EU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10월 23일 이정빈 정무차관보가 뒤푸르크(Dufourcq) 정무총국장을 예방하여 처음으로 외교회동을 시작했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은 유럽공동체와 정치·경제적 관계 진척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일본과 유사한 한-EU 장관급 대화를 원한다. 서울은 태평양지역 경제기구의 창설을 지지하는데, 이 기구는 유럽공동체와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리라 본다. 남한은 유럽공동체가 북한에게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해 개방을 독려하려면 사전에 남한과 조율하기를 원한다.

3) 유의사항

유럽공동체는 한국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외교장관 회담 수립을 환영하며 점점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외무부 장관급 대화가 분기별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차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유럽공동체 의장과 한국의 대통령이 만난다면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 정무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42. Objet : Procédures anti-dumping communautaires à l'encontre des importations originaires de Corée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경제공동체의 반덤핑 조치)

생산일자: 19891110
페이지: 167~170

1) 한국에 덤핑규제 조치를 시행한 제품 목록(도표의 열: 제품, 프랑스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방식)

2) 규제 제품 목록에 대한 설명

(1)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늘어나고 있다.

1972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7건 밖에 없었는데, 3년 전부터 14건이 심사 중이고, 그중 5건은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반덤핑 규제가 늘어난 이유는 홍콩이나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이 1985년부터 유럽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저가판매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다.

(2) GATT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격렬한 반응

유럽공동체가 주도한 반덤핑 규제가 증가하자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제히 GATT의 6조 조항이 무역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프랑스의 입장

프랑스 입장에서 반덤핑 규제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퇴치함으로써 좀 더 정상적인 경쟁조건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유럽공동체는 1988년 7월 11일 이사회규정 2423/88에 의거하여 제소는 피해를 본 기업이 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덤핑 여부와 유럽 기업의 피해 조사를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가령 폴리에스터 필름 수입의 경우는 심의를 시작했지만 바로 종결된 사건이다.

6.43. Importations de véhicules coréens en France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71~172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현황 및 프랑스 측 입장을 설명함.

1) 현황

1988년 한국은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아(KIA) 자동차 수입 신고서류가 7월에 제출되었고, 파리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박람회 주최 측이 거부했다. 한국 정부당국은 1989년에 1,500대, 1990년에 2,000대를 판매하고 싶다고 프랑스 정부 당국에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재확인했다. 1989년 8월 22일 주불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측에 장관의 양해각서를 전달했는데,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프랑스에게 상호호혜를 기대하며 기아차가 프랑스의 기술 성능 테스트를 통해 유럽 규범에 일치한다고 인정받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유럽경

제공동체 위원회에도 양해각서를 보내서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위원회는 프랑스 당국에게 한국 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폐쇄적이다. 1988년 프랑스기업은 55대만을 수출했는데(PSA그룹은 29대, 르노사는 26대), 1989년의 경우 1분기 판매량은 24대로 늘어났다(PSA 29대, 르노사 6대). 푸조(Peugeot)와 르노(Renault)사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진짜 개방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실제 대리점을 낼 엄두를 못내고 있다. 한국에서 30만 대 단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쌍용차와 르노사의 협상 테이블은 수면 중이다.

2) 유의사항

한국차 수입 사안은 한국 측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이다. 1년 전부터 서류 처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우리 측(프랑스) 수입 법규가 특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반에 대한 유럽 공동체간의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시장이 현재 수입차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이라는 점에서도 계속 유보입장으로 가야 한다. 이어서 익명의 사람이 한국 측에게 위의 기조로 프랑스의 입장을 전하고, 서류 처리가 지체된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을 적은 서신이 첨부되어 있다.

6.44. **Projet d'exposition internationale en Corée en 1993 (1993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계획)**

생산일자: 19891110

페이지: 173~177

국제박람회기구 프랑스 대표단장인 마르셀 갈로팽이 1993년 엑스포를 신청한 한국의 정치적 의도, 해당 엑스포 개최 계획안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엑스포 개최안에 대해 프랑스가 취하게 될 외교적인 방향에 대해 서술함.

한국은 1989년 9월 19일에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에 1993년에 대전에서 열리게 될 엑스포(Expo, exposition) 등록 신청을 했다. 이번 여름부터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대사들이 나서서 각국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지난 3개월 5명도 안 되는 장관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될 거라면서 열렬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프랑스를 방문한 상공부 김철수 차관과의 대화를 통해 이번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있었다. 1988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경험을 한 한국은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 신망과 평판을 쌓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1993년 엑스포 계획안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법적인 문제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42개국에 공통된 문제이다. 국제엑스포 총회는 국제엑스포의 개최 횟수를 줄이고자 1987년에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2번만 국제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미 1995년 후보지로 비엔나와 부다페스트가 고려 대상이고, 2000년에는 하노버와 토론토, 베니스가 후보로 고려되었다. 게다가 유예기간을 공고히 하고, 단념을 시키는 차원으로 개최국의 의무를 강화시켰는데, 참여국들에게 임대 및 별관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모도 제한되고 비용문제가 연루된 1993년 엑스포 개최 계획을 막는 것은 국제박람회기구 집행위원회 소관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12월 7일 심사를 한 후, 12월 11일 총회에 결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국제박람회기구 집행위원회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서, 다수가 원하는 표를 행사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두 번째는 재무적인 문제로 참가국들에게 공통된 문제이다. 엑스포 개최를 하면 다수의 대중들 곁에서 산업적 성공과 기술의 노하우를 얻게 된다고들 홍보하지만, 엑스포 개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바로 무역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게다가 전시장 보수를 하려면 복잡한 무대 설계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소요되는 물적 인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1992년과 1995년 엑스포 사이에 치르게 되는 데다 한국은 극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엑스포 개최를 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공언한 프랑스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진전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는 대전 엑스포 개최를 위해 외국의 협력을 얻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너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이번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프랑스는 대전 엑스포 개최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에 한 표를 더할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비밀 투표라는 점에서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난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차선책으로 규모가 작은 엑스포 개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남아 있긴 하다. 프랑스도 이득을 보면서 동조할 수 있는 계획안은 과학과 문화에 집중된 제한된 규모의 엑스포일 것이다. 공식 전시장은 참여국 부담 없이 주최 측 부담으로 500 내지 1,000 제곱미터 반경에 지어질 것이고, 기간은 세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무역 관계 증진은 국제엑스포국 소관은 아니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맡겨 두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기업들 각자가 개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선례가 없다 보니 참가국에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기업들이 너무 장기간이 되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주 기준으로 참가국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결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 달 국제엑스포국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6.45. Exportations de cuirs bruts de bovins en République de Corée (한국으로의 소가죽 수출)

생산일자: 19891107
페이지: 178~179

한국에 프랑스산(産) 소가죽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수입금지가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1) 현황

한국에서 피혁 시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죽 공급처를 찾고 있다. 다수의 프랑스 수출업체가 한국의 피혁 시장에 관심을 표현했다. 그런데 프랑스산 소 피혁 수입은 보건 위생을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는 가죽들에게 구제역 백신을 하는데, 아직 구제역 피해를 입지 않은 한국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 프

랑스는 제1위 소피혁 생산국이며, 1981년 프랑스에서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일본 포함 위생 법규가 엄격한 나라들에서도 프랑스 수의사가 정식 발부한 검역증을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수출이 진행 되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 한국은 프랑스와 같은 상황에 있는 네덜란드산 제품은 수입을 허가해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와 유럽공동체의 위생법규를 소개하고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음을 명시한 서류를 한국 정부에 1988년 중반에 전달했으나 한국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2) 유의사항

프랑스 정부는 한국 측이 프랑스산 소가죽 수입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더 이상 수입 반대 입장을 주장할 대응 논리가 없다. 네덜란드산 가죽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하면서 프랑스산 수입을 금지한다는 점, 프랑스 수의사가 정식 발부한 검역증으로도 충분히 위생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 이번 수입 금지 조치 이전에 한국은 이미 프랑스산 피혁을 수입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은 이제 안심하고 프랑스에게 가죽 시장을 다시 개방해 주기만 하면 된다.

6.46. Obstacles à la pénétration du marché coréen par les compagnies nationales d'assurance françaises (프랑스 국영 보험 회사들의 한국 진출을 막는 요인들)

생산일자: 19891113
 페이지: 180~182

프랑스 국영 보험회사인 AGF의 한국 지사 설립을 막고 있는 배경요인들을 설명하는 글임.

1) 현황

1988년 프랑스 국영 보험회사인 AGF는 한국에 2개의 자회사(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영역)를 설립하고자 하나 좌초상태에 있다.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한국 정부 법령에 따르면 투자금의 일부나 전체가 국가 자산인 자회사나 합자회사 설립은 금지된다. 따라서 유럽기업이자 프랑스 국영기업인 AGF는 한국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한국 입장

한국 정부는 AGF가 공기업 규제 정책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미 한국 보험시장은 유럽회사들로 포화상태이다. 사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생명회사 부문 미국 회사들에게만 허가를 내주었다. 유럽국가들은 이런 차별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한국정부에게 여러 차례 환기시킨 바 있다.

3) 유의사항

한국 정부가 생명보험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 점에 대해 치하하되, 이러한 혜택이 미국 기업에만 돌아가는 점은 유감이다. 프랑스는 유럽 보험회사들이 한국에 현지 법률회사 형태로 진출하여, 원한다면 다양한 보험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유럽공동체의 정책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보험업계의 국영기업들은 경쟁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기업이 규제대상으로 보는 국영기업 체제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 보험회사의 한국 지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

6.47. La Corée et le cycle d'Uruguay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생산일자: 19891027

페이지: 183~185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과정 및 한국 관련 주요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상(NCM)이 내년(1990년 11월 26일~12월 8일)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종결될 예정이다. 협상을 위한 회동은 제네바에서 15개 주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GATT의 사무총장인 둔켈(Dunkel)이 제시한 일정표대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

- 1989년 9월~12월: 각 당사국들의 입장 정의 완료
- 1990년 1월~8월: 협상 주제에 대한 합의 기초 자료 제작
- 11월 각료회의까지 합의사항 명시 및 최종 승인에 필요한 법적 조치 마련

1) 협상에 임하는 한국 측 태도

한국은 선진국들에 대해 강경 수비태세인 브라질이나 인도와 달리 다자무역협상에서 다소 온건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한국의 온건 입장은 유럽공동체의 반덤핑 규제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모순된다.

(1) 농업

한국에는 아직도 6백만 명의 농민들이 있다. 미국 쌀 수출업자들에게 시장을 내주려 하지 않는다. 일본과 개발도상국 수입업자들 뒤에 숨어 있다.

(2) 섬유

한국은 섬유시장의 선도국가이므로 섬유산업이 다시 시장법칙을 적용받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3) 셰이프가드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전체와 힘을 합쳐 한국에 직접 관련되는 “회색존(zone grise)”폐지와 비차별적인 보호 조항의 적용을 요구한다. 회색존이란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협정 부속서의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대상국과의 협의를 거쳐 비차별적 긴급수입제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에 GATT의 규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한국은 4월에 열린 제네바 중간 회동에서 나온 협약 조항에 대해 만족감을 표한다.

(5) 서비스 무역 분야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GATT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협상에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한국이 건설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업무와 선박관리와 같은 해상운송 업무에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향후 협상에 건설인력을 넣어서 이웃 국가들의 인력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 인력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에 찬성한다.

2) 유의사항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협상이 종료되려면 12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을에 유럽공동체의 입장 정리가 신속히 이

루어지도록 유럽공동체 의장국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점진적 지원 축소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려면 무역 강대국들 간의 정치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 외의 분야에서, 프랑스는 특히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무역에 관심이 많다. GATT의 틀 내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다자간 협약에 도달해야 한다. 일부 주요 강대국들이 양자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6.48. Relations commerciales franco-coréennes (한불 무역관계에 대한 종합 보고서)

생산일자: 19891107

페이지: 186~188

한불 무역관계의 통계적 수치 분석 및 양국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5년 전부터 한국과 프랑스 간 무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프랑스의 무역적자액은 3백만 프랑 이상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무역은 불균형 상태이다. 한국 측은 프랑스의 적자 액수를 반박하고 있는데 양국 간 통계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1) 현황

프랑스 측 통계수치에 따르면 1988년까지 적자가 늘고 있다. 한국 측은 1988년 거의 4백만 프랑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양국 간 통계수치 차이의 근거자료는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對한 수출이 33% 늘고 한국의 對프랑스 수입은 -1% 정체되어 있다. 對한 수입이 지난 몇 년간 감소한 이유는 국가 쿼터제와 유럽공동체의 반덤핑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 수요 가전제품과 기자재 수입은 늘고 있다. 對한 수출은 기자재 장비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에어버스 판매가 상당 부분이다. 약품이나 정유화학, 화학분야에서 판매가 지난 몇 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수술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2) 한국의 입장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불 무역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프랑스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초부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국은 일종의 경기침체에 대한 강박관념이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당국은 수입규제와 과소비 단속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프랑스의 對한 무역수지 적자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희생으로 양국 무역관계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측은 자신의 수출을 가로막는 반덤핑 규제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쿼터제도에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3) 유의사항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발전한 것에 대해 치하해야 할 것이다. 늘 조화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프랑스의 對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만족한다. 계속 수출이 증가하려면 한국에서의 수출장벽이 점차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개방정책을 쓰고 있음을 환영하며, 더 많은 개방화가 진행되길 바란다. 또 한편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대규모 공동 산업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는 한국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부선 고속철도사업이나 원전 건설, 인천 공항과 제철공장 건설 등에 프랑스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6.49. Armement (군수품)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89~189

대한 프랑스의 군수품 수출 상황 및 프랑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 현황

한국 군수 공급의 90%는 미국이다. 프랑스기업은 1988년 대통령 전용헬기로 슈퍼 퓨마(Super Puma) 3대를 판매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연속 실패를 했다. 헬기 중 한 대는 기술결함으로 그해 초에 추락했고 1990년에 교체될 예정이다. 지난 5월 프랑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 간 유대관계가 돈독해졌고 1,000만 프랑에 달하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 KSAM 한국형 미사일 개발(삼성과 프랑스의 기술제휴, 2억 7천5백만 프랑급 계약), 다쏘(Dassault)사의 해상 초계기 아틀란틱(Atlantique)2 탑재(4백만 프랑급 계약), 12대의 잠수함 주문, 군 통신분야에서 마트라(Matra)사의 미스트랄(Mistral)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무선탐지기 등이 있다.

2) 유의사항

군수산업은 한불 무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특히 프랑스는 K3 미사일 개발이나 해군 정찰기, 잠수함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6.50. Métro léger de Taegu (대구의 경(輕) 지하철)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190~191

대구 지하철 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한 후, 한국형 TGV 사업안과 대구 도시철도 사업을 결부시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

1) 현황 설명

인구 2백만의 도시이자 노태우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Taegu)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지하철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다른 도시들도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마트라사(Matras Transport)는 일본기업 및 캐나다 기업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인 VAL(véhicule automatique léger) 시스템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비용은 국가와 시가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며, 수주에 성공하면 마트라사는 10억 프랑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한국 측 입장

1989년 4월 대구 시장은 릴(Lille)의 VAL 시스템 시설을 견학했다. 마트라사의 제안은 기술력 차원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것 같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1990년 초반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대구 시장이 외국 파트너를 선정할 후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사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의 사항

대구 지하철 선정사업과 TGV사업 선정은 일정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TGV 계획안의 주요 본질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의 기술이전의 노하우 전수 및 대규모 차원의 기술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의 건설교통해양부 장관(Le ministre de l'Équipement, du Logement, des Transports et de la Mer)을 접견할 때나 장관들 간의 회동 기회에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트라사의 고품격 제안과 대구시 지하철에 대한 우리 관심을 공언하면서도 한국형 TGV 도입 계획은 유럽과의 산업적 제휴로 발전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6.51. La situation intérieure en Corée (한국 국내 정치 상황)

생산일자: 19891122

페이지: 192~198

노태우 대통령 집권 이전 상황과 집권 이후의 한국 국내 정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한국은 2년이 채 안 되어 전례 없는 민주주의 발전을 경험했는데, 국내 정치 판도가 심각하게 바뀌게 되었다.

1) 6공화국 출범

(1)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이전 상황

1948년 이후 한국은 이승만 독재체제였고, 1961년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국가 단결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19년 동안 집권했다. 그 기간 동안 박정희는 여러 차례 개헌을 하고 야당을 탄압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암살로 상대적인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소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간접투표로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1981년 2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7년간의 임기 후 평화적인 권력 이양과 1988년 가을 서울올림픽의 개최라는 두 가지 “국정 과제” 수행을 자임했다. 격렬한 학생 시위에 맞서 전두환은 1986년 1월 지방선거 승리로 힘이 강해진 양 김, 김대중(KIM Dae-Jung)과 김영삼이 이끄는 야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노태우 집권

1987년 6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로 1987년 10월 6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DJP)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대 기로에 들어섰다.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든 학생 시위에 맞서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야당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야심차게 민주화 선언을 했다. 한국은 이제 민주적 헌법 체제가 작동하는 6공화국이 수립된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중시되며 고문이 종식된다. 여러 차례 사면을 통해 투옥된 정치범 숫자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700~900명에 달한다.

2) 민주화 과정의 특징

(1)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일부이기는 해도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공식 채널인 TV 쪽은 확실히 느리다. 풍기 문란 영역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단순화되거나 거의 폐지되었고 국방 관련 홍보간행물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에서 발행된 책자가 전국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북한 책자를 읽어도 처벌받지 않았다.

(2) 제도개혁

새로운 헌법이 1987년 10월 27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인되었고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직선 국

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야당 분열로 인해 36%의 낮은 득표율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3) 당면과제

- (1) 대통령 선거의 뒤를 이어 치러진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은 처음으로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해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했다.
- (2) 야당은 5공화국 청산 캠페인을 벌였다. 과거 행적에 대해 지난 정부의 집권세력들을 처벌하고 전임 전두환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켰다.
- (3) 주요 개혁안(지방자치제도 개혁, 사회 보호 시스템 가동, 경제 자유화)들이 반대에 부딪혔고,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야당과 격렬한 반대 논쟁을 겪었다.
- (4) 전임 정부의 강경노선을 끊고 북한에 대해 개방정책을 펴고자 했으나 평양에 의해 선동된 갈등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논리에 세뇌당한 소수의 반정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측근 중 한 명이 북한 방문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기부가 김대중을 고문함으로써 정치계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허가 없이 방북한 문익환 목사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고 정부 반대파인 대학생 임수경의 방북 사건도 남북관계가 매우 예민한 사안임을 드러낸다. 시위로 인해 정국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냉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때로는 긴장된 여러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한 민주화 정책의 주인공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잘해왔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권위주의 정치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6.52. De l'évolution politique récente de la Corée (한국의 최근 정치적 변화)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199~202

1988년 2월 25일에 권력을 잡은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정책으로 실현해 나갔다. 청렴한 지방 선거를 실시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를 부여했으며 정치범들을 사면하는 반면 이전 집권 세력들의 공금 횡령 수사를 단행했다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가능해졌고 시민에게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했다.

1988년 말 전임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국민 앞에 전두환 정부의 심각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사죄와 절에 들어가는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른다. 1988년 평양에도 7.7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개선 의사를 밝히는 거대 구상을 발표한다. 야당 대표와의 역사적 합의를 통해 여소야대 형국을 돌파하고자 했으나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이 너무 소심한 정국 운영을 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학생시위로 인해 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늘어나고 격렬해졌지만,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이전 군사정권과 차별화하려는 노태우 정부는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지체했다.

문익환 목사가 비밀리에 방북하고, 과격 학생들이 저지른 방화사건으로 경찰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PPD) 서경원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방북하여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학생 임(수경)이 방북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야당은 5공 청산을 주장했고, 만일 과거 행적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다. 김대중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전날 대통령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서신을 썼고, 이 서신이 공개되면서 여론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고 평민당과 여당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격동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한국의 정국이 불안정하고, 곧 내전을 치를 위험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 방식대로 천천히 실용적으로 확고한 권력을 차지한 것 같다. 야당에도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해서, 모든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권력 이동 가능성은 없다. 좌파 세력에서는 야당의 두 대표인 김대중, 김영삼 누구도 1993년 노태우 퇴임 이전에 법적으로 집권할 수 없으며, 우파 쪽에서도 군의 지원을 받는 보수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국가 발전 속도에 맞춰 국민들의 의식이 빨리 성장한 1989년 한국에서 군 장성들은 국가전복 사태를 제외하고는 군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6.53. Du role et de la place des partis de l'opposition sur l'équilibre politique coréen (한국의 정치적 균형을 위한 야당의 역할과 위상)

생산일자 : 198910

페이지 : 203~205

야당을 상호 간 혹은 여당과의 정치적 역할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한국의 야당은 세 진영으로 구성된다.

- 평화민주당(PPD) : 김대중 총재, 71석
- 통일민주당(RDP) : 김영삼 총재, 60석
- 신민주공화당(NDRP) : 김종필 총재, 34석
- 전체 299석 중에 야당은 총 165석을 차지하고, 여당은 127석을 차지한다.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1987년 대선에 후보 경쟁을 했고, 결국 둘의 분열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36% 득표율로 당선됐다.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두 당은 다시 경쟁을 하게 되면서, 1차투표에서 민정당인 여당의 상당수 선거구가 살아남았고 대패를 피하게 되었다. 통일민주당은 1988년 초반 이후 학계나 교계의 좌파 혹은 극좌 반정부 인사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여 특정 색깔을 띠게 된다. 또한 전라도 전체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색깔을 지니게 된다.

좌익 세력의 중심인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신민주공화당과 다르다. 신민주공화당은 자유주의 원칙을 표방하며, 김종필이 박정희 정부의 초대 총리였다는 점에서 박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김종필은 대선에서 8% 득표율을 기록한 이후 정부 다수당에 합류하려는 것 같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5공 청산을 추진하는

점에서는 두 야당과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5공화국 청산의 명분 하에 정부 여당을 갈라놓으면서 노태우 대통령 주변을 정리시킨 후 자리가 만들어지면 자신의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려는 것 같다. 북측과의 대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과는 한계가 있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공조가 힘들다.

야 3당은 서로에 대해 연대의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 바쁘지만 주기적으로 화해를 했다가 다음날에는 갈라섰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없었고, 다수당을 차지하지도 못했으며, 전두환 정부 인사들에 대해 그들이 격렬히 요구한 권력남용 처벌도 얻어내지 못했다. 필요한 경우, 야당은 외교와 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 왔다. 소비에트권 나라들과 한국의 친교를 위해 김영삼씨가 외교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는데,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 원수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극좌세력이 만든 전민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1월에 설립된 이 단체는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국회 원 구성을 할 자금력도 없고 경찰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

6.54. De Monsieur PARK JYUN KYU, Délégué Général D.J.P. (민주정의당 대표 박준규에 관한 보고)

생산일자: 19891026

페이지: 206~209

주한 프랑스대사 위베르 드 라 포르텔(Hubert de LA FORTELLE)이 서울 주재 유럽경제공동체 대표 동료들과의 오찬 모임에 박준규 민정당 대표를 초대해서 한국의 국내 정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외교 공문임.

지난 금요일 서울에 파견된 유럽경제공동체 소속 동료들과의 오찬에 민정당 박준규 대표의원을 초대했다. 주한 프랑스대사는 매달 유럽경제공동체 동료들과 오찬 워크숍을 주관하는데 이때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초대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박준규 대표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1) 5공화국 청산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가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많은 수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는데, 전두환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라의 생사를 쥐고 있는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당과 관련이 되며, 박준규 의장은 도미노 이론을 거론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니 매우 중요하다. 5공화국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분열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민정당은 대북 전문 업무를 다루는 안기부 개혁을 제안했는데, 평화민주당은 폐지를 요구한다. 박 대표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 신뢰를 보이는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의 어떤 집권세력도 다음 선거에서 후보 출마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 2) 광주 문제에 대해 박 대표는 시민들의 폭동과 군수품 약탈로 인해 진압을 하게 된 것인데 너무 과잉진압을 했을 수 있지만 원칙상 필요했을 거라고 보았다. 당시 광주 시위대를 진압한 정호영 장군에 대해 최소한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장군 처벌은 군에게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앞으로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것

을 의미한다. 박 의장에 따르면 1980년 5월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석하는 전라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 모두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

3) 개헌

박 대표는 1971년 대선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좋은 일이 아니며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야 모두 찬성하며 절대 대선승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김대중 씨도 찬성한다. 여론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은 언론이 시키는 대로 여론을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여론을 양떼로 비유하며 무시하는 발언이다.

4) 정치범들에 대해 박 대표는 숫자 집계된 900명 중 700명 이상은 모든 나라에서 처벌이 되는 강간범이나 방화범들이고, 미국대사관 테러를 언급하며, 여기에서 체포된 6명의 과격운동권들은 정치범들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수감시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문익환 목사 방북 체포는 평양이 선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문목사는 2년 후면, 그 이전이라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올해 여름 여의도에서 체포된 과격한 농민 시위자들은 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박준규 대표의 말 인용)

5) 전라도 차별은 예전 얘기다. 오히려 전라도는 투자를 자기 몫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서남해권을 예로 들었다. 박 대표는 중국에 접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수익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전라도에 준 특혜로 또 다른 예는 이 지역 출신 장관이 내각에 2명 있다는 점이다(서울시장 1명과 장관급 1명). 전라도 특혜를 주느라 경상도 지역은 홀대를 받았다고 불평한다.

박준규 대표는 여당에 맞서서 연대하는 야당들의 회동에 대해 놀라지 않은 기색이었으며, 아주 솔직하게 대화에 임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정국 운영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했다.

6.55. Des droits de l'Homme en Corée : répression et prisonniers politiques.(한국의 인권 : 정치범 탄압)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210~213

정치범 탄압문제를 한국의 인권 상황의 대표적인 예로 다루고 있음.

인권침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고문이 금지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법시위자 연행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세 번의 사면을 통해 정치범의 숫자가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체포는 계속되었다. 야당에 따르면 800명 정도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양심수(prisonniers d'opinion)”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작년에 사면을 받지 못하고 1988년 2월 투옥된 정치범들은 266명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 간첩이다. (간첩 현황 및 세부 범죄 명시) 또한 강력시위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외교관, 공공건물 테러범, 군 관련 서류를 훔쳐내는 사람들도 처벌했다. 약 250명 정도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인데 북한과 접촉하거나 대북 선전활동을 한 경우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며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도서 선정에 제약을 두며 이동도 제약을 받는다.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문익환 목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문규현(Moon Gyu Hyon) 신부와 임수경도 같은 이유로 체포되었다. 양심수들 중에는 6.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전향 장기복역수

도 있고, 장의군씨처럼 일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했다는 간첩누명을 쓰고 복역중인 사람도 있다. 프랑스는 UNESCO 유럽총장회의(CRE, Conférence des recteurs européens) 섹션에서 소성씨와 장의군 씨 사건을 다룰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사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길 바란다.

평양과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는 인권문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남한 정부는 평양의 되풀이되는 위협에 맞서서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무부 아시아담당 차관보(Secrétaire d'Etat adjoint pour l'Asie du gouvernement) 솔라르(SOLARZ) 씨가 언급했듯이 “한국은 민주화가 허용되는 선에서 인권영역에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표현이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6.56. Aperçu de l'histoire de Corée (한국의 역사 소개)

생산일자: 19891109

페이지: 214~219

한국의 주요 역사를 시대별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집권 시대부터 박정희 쿠데타 전후,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집권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오늘날 서로 다른 체제의 두 국가로 나뉜 한국은 오랜 역사·문화적 전통 유산이 풍부한 나라이다. 굴곡이 많은 역사 내내 수 많은 침략을 받은 한국은 일본, 중국과 접촉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1) 고대

BC 3천 년 전에 단군에 의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세워졌다. 단군은 신화적 영웅으로 여자로 변한 곰에게서 태어났다. 사실상 한국인의 조상은 BC 4세기 경에 중국 북쪽지방이나 만주에서 한반도로 건너왔을 수 있다.

2) 삼국

BC 1세기부터 북쪽에는 고구려가, 남서쪽에는 백제, 남동쪽에는 신라 3국이 생겨났고,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다가 668년에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되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라는 신분 계급이 엄격한 사회로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528년에 들어온 불교가 나라 전역에 퍼져 있었다.

3) 고려시대(918-1392)

고려왕조의 이름 ‘고려’에서 ‘코레’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고려왕조의 역사는 거란이나 여진, 몽골족 등 중국계 북방 야만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은 시기였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고려를 섭정해서 고려왕들은 이름뿐인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주변국의 문화를 흡수하여 고려 문화는 점점 풍성해졌는데 고난의 시대는 오히려 독창적인 예술과 기술의 완성에 호기로 작용했다. 한국 장인들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도자기 예술의 완벽함에 정점에 이르렀고 불교는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 계속 확산되었다.

4) 이씨 왕조(1392-1910)

몽골이 무너지고 중국에 명나라가 설립되었는데 이성계는 1392년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나라를 세웠다. 이성계의 후손 중 업적이 가장 훌륭한 왕 중 하나였던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다. 내부 당파싸움으로 약해진 한국은 1592년과 1596년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청했다. 1636년에 침략을 받은 한국은 만주족의 후예인 청나라의 예속국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의례나 형식을 중시하는 공자에 대한 반감으로 식자층들은

17세기에 비판정신과 실학을 복원시킨다. 서양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17세 말 조선왕조는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1876년 말에 일본에 의해 러시아와 서양 여러 나라들의 강요로 조선이 개방되었다.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1895년에는 중국을, 1905년에는 러시아를 차례로 물리친 일본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 1905년 보호조약에 이어 합병 조약을 강요했다.

5)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경제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이득을 취했다. 아무리 가혹한 탄압정치를 해도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일제에 복종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는 폭동과 저항으로 점철된 역사이며, 남북한 모두 그 출발점을 3.1운동으로 기념한다. 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과 소련, 유럽과 미국으로 이주했다. 어떤 사람들은 청일 전쟁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쳤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거나 소련의 붉은 군대에 입대해서 싸웠다.

6) 한반도의 분리와 한국전쟁

일제의 항복으로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다스린다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미국과 대영제국, 소련은 5년간의 신탁 통치 후에 통일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유엔이 감독하에 1948년 5월 총선이 남한에서만 치러졌고, 이승만 정권이 8월 15일 서울에서 수립되었다. 3주 후 조선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김일성이 서기장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남한 정부의 요청으로 트루먼 대통령(Président Truman)은 미군의 개입을 명령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고발하고 UN 회원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독려했고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권을 맡겼다. 미국과 UN 연합군(프랑스도 참여)의 개입으로 북한군을 진압할 수 있었고, 서울을 수복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자원입대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38도까지 밀려 내려왔고 계속 교전이 이어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약이 판문점에서 체결되었는데 계약서명자는 유엔의 명의로 미국이, 반대쪽에는 중국, 북한이 서명을 했다. 이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1954년 제네바 회담, UN 총회, 남북 양국 간 대화 등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엄청나며, 경제적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었다.

7) 대한민국

이승만은 극렬한 반공주의자로서 독재정치를 펼쳤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도 경제발전과 화폐의 안정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정점에 이르게 되자 시위가 늘어났고, 이승만은 결국 1960년에 망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내각제가 설립되고 야당이 선거에 승리했다. 정치인들의 내분에 의해 사회는 끊임없이 동요되었고 경제침체가 더 악화되었다.

196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해서 정치권이 정화되었고 정부 주도로 경제 부흥책이 시도되었다.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헌을 하고 야당을 탄압하면서 19년간 집권했다. 정국이 안정화되자 경제발전계획이 세워지고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이 되었다.

1980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암살로 상대적으로 민주화시대가 시작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이 임명되고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하지만 5월 광주 학생시위에 이어 반체제 시위 주동자로 김대중이 투옥되고 수 많은 자유주의 인사들이 연이어 수감되었다. 1980년 8월 15일 군사정권은 최규하를 대통령에서 사임하게 했고, 8월 27일 전두환 장군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한국 정부는 다시 독재체제가 되었다. 1981년 2월 대통령 선거에

서 당선된 전두환 장군은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권력의 평화적 이양이라는 2가지 국정 과제 수행을 자임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격렬한 학생시위에서 비난을 몰고 다닌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지방선거에서 세력이 강해진 양 김 주도의 야당과 관계가 나뉘었다.

1987년 6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말 대선을 위한 여당의 공식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국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1987년 6월 26일 한국 사회 전체가 학생시위를 동조하게 되자 노태우는 야당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선언했다. 새로 헌법이 개정되고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한국은 이제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에 열린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 국민 전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에 대한 공식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6.57. Situations économique de la Corée Situation é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Corée du Sud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재무 상황)

생산일자: 19891108

페이지: 220~222

1989년 한국의 경제상황을 통계수치로 진단하고 성장 둔화 요인을 분석한 글임.

- 1) 1988년까지 비약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한국경제는 최근 몇 달간 성장이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다. 1986년 수출량은 26.13%에서 1989년 13.1%로 절반이나 감소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무역 비중이 줄었다. 반면 수입은 13% 증가했고, 개인소비는 1986년과 1987년에 6%를 기록한 데 비해 1988년에는 10%를 기록함으로써 크게 늘었는데, 이는 1987년 급여 인상과 1인당 평균수입이 늘어났음을 반영한다.
- 2) 1987년 이후 표출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1988년에는 더 악화되었다. 소비자 물가가 7% 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식품 가격 상승이나 급여비 인상이 도매 제조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는 이것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989년 1분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경고수준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전반에 걸쳐 물가상승 비율은 7%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기업가들의 저항이 거세다.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채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채기업은 최고 20~25% 이자율에 맞출 수 있는 대출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한편 환율조정 정책 덕분에 무역적자가 감소했다.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도 7억 9천 달러였으나 1989년 초부터 첫 8개월은 65.7%가 줄어 2억 7천 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물량이 줄고(마이너스 3.5%), 수입량은 13%가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무역흑자 덕택에 외채상환을 했고, 외채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6.58. Relations économiques et commerciales Fiche de synthèse : Relations bilatérales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et commercial (경제무역관계 종합 자료 : 경제무역영역에서 양자관계)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223~231

경제무역 영역에서 한불 양자관계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음.

한불 양자관계는 1980년대 초부터 상당히 강화되어 왔다. 양국의 교류는 1983년부터 4배가 되었고, 한불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198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의 놀랄만한 경제성과와 대유럽 무역을 위해 한국이 쏟아부은 노력에 비례하여 양국 관계의 주요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1) 한불 양국의 주요 쟁점

(1) 한국의 주요 쟁점

프랑스는 1988년에 한국의 9번째 수출국이자 7번째 수입국이었다. 대불 한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대불 수입은 전체 수입의 2%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유럽 수출방향 전환은 지나치게 일본과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취지에서 정부 주도로 장려되었다. 대유럽공동체와의 무역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증가했고 1988년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유럽 무역 비중에서 프랑스보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비중이 높다.

한국에게 프랑스와의 경제무역관계는 단순한 물물교역 범위를 벗어난다. 1992년 이후 한국은 거대한 유럽시장에 진입하기를 바라며, 수출에 장애가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싶어한다. 수출국 중에서 특히 시청각 장비나 자동차 분야에서, 프랑스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들 중 하나이다. 또 한편으로 공공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한국은 정부를 통해 에너지나 원자력, 항공, 군사 분야의 프랑스 업체들을 접촉했다. 테제베나 원전, 군이나 항공 장비 현대화 관련 프랑스의 노하우를 얻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한국에 투자 목적으로 진출한 나라들 중 프랑스는 8번째이다.

(2) 프랑스 입장에서의 주요 쟁점

1988년에 한국은 프랑스의 21번째 수입국이자 21번째 수출국이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과 홍콩에 이어 3번째 규모가 큰 수출국이며 일본, 대만, 중국에 이어 4번째 수입국이다. 한국은 프랑스 시장의 0.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수출품의 0.5%를 차지한다.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수출물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입시장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프랑스는 수출품이 1985년~1988년 사이에 25% 늘었다고 할 때, 한국 시장의 개방 혜택을 보지 못했다. 1989년에 수출이 작년 처음 7개월간 33%가 늘었다는 것은 프랑스 수출 기업들이 특별히 한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화폐 단위인 원화의 올바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덕택에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방식이 바르게 변화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프랑스 소비산업 기업들에게 전도유망한 시장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시설 관련 프로젝트들도 관련 업체들에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알스톰사: TGV프로젝트, 프라마톰과 프랑스전력공사(EDF): 원전 13호기와 14호기 건설, 인천 신공항 : 파리공항관리공단(Aéroport de Paris), 톰슨 CSF, 대구 지하철 : 마트라(MATRA)) 프랑스에게 있어서 한국은 향후 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력을 수출할 역량 평가에 시금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2) 한국의 요구사항

한국정부는 대통령 방문 시에 對프랑스 수출을 가로막는 몇몇 요소들을 이슈로 내세우고 싶어한다. 요구사항의 대상별로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럽공동체 측의 조치

유럽공동체는 한국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1988년 중반부터 관세 특혜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한국 측의 공격적인 영업활동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규제가 1년 전부터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관세 특혜 관련하여 한국과 유럽공동체 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이 제도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2) 나라별 조치

유럽과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프랑스는 한국에 대해 수입 물량규제 조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가. 수입쿼터제도

프랑스의 쿼터제도는 1993년에 사라질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프랑스에서 수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제품별 쿼터가 늘어나길 바란다. 1988년에 쿼터 물량을 대폭 올린 후 한국에 대한 쿼터가 1989년에는 늘어나지 않았다.

나. 한국산 자동차

기아(Kia)가 제출한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서가 1988년 초부터 사실상 동면상태이다. 국무조정실(SGCI)은 프랑스에서 자동차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입허가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1989년 1월부터 프랑스의 보호주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상당했고 현재 이 사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유럽공동체와 프랑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사항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양자관계가 퇴색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989년 초부터 한국 수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요구사항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3) 프랑스의 입장

(1) 프랑스 역시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한국 대표단에 유감 사항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가. 프랑스가 차별을 받고 있는 영역(ex. 코냑과 같은 독주나 술), 가죽, 유제품이나 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한국 측도 부문별로 개방화 정책을 펴며 노력한 덕택에 프랑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점이다.

나.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유럽 보험회사들의 경우 한국 진입이 어려운데, AGF는 프랑스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어렵다.

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때 1988년 이후 미국에 부여한 것과 유사한 조항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프랑스는 한국에서 프랑스산 브랜드들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복제품 판매가 급증되는 사안에 대해 고민이 많으며, 한국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복제품 판매 단속에 특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 한국에서 프랑스産 제품의 상표보호 문제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2) 프랑스는 국제 입찰 예정인,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공공 기반시설 관련 대형프로젝트(경부선 고속철도사업, 군수산업 영역, 원전 13호기와 14호기 건설 등)와 중소 프로젝트(대구 지하철, 대한항공에 에어버스 판매, 인천공항, 평택-서울 간 가스저장소 건설)가 있다. 한국은 기

술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업체 선정에는 정치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고위급 관료들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회에 프랑스 당국과 한국 대표단이 만나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최고위급 회담에서 적어도 TGV 사업이나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양자무역에서 서로의 쟁점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한불 양국의 상호협력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두 나라 간 교류와 투자는 상호이득의 관계로 한층 더 깊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59. Rela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franco-coréennes (한불경제재무관계)

생산일자: 19891108

페이지: 232~233

양국의 물류 교역량 진단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함.

1) 프랑스의 무역적자

1988년에 무역적자는 58% 늘어나서 마이너스 30억 5천8백만 프랑을 기록했는데, 한국과의 무역이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대폭 늘어났으나 1989년 1분기 對한 무역적자가 감소하여 8억 6백만 프랑을 기록,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정체상태가 주요 요인이다.

2) 한국 내 프랑스 투자가 매우 미비하지만 빨리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랑스인의 투자는 지역 전략적인 이유에서 아세안이나 일본, 중국 같은 이웃 국가의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동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생고뱅(Saint-Gobain)사는 1989년 봄 50대 50 지분으로 한국 유리 회사와 공동법인을 만들었고, 한국은 생고뱅이나 베트로텍스(Vetrotex)에 의해 국가와 지역 모두에 합당한 투자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갖추었다고 인정받았다. 생고뱅은 미슐랭(Michelin)이나 은행과 함께 첫 번째 프랑스 투자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한국 내 외국인 투자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합자회사에 투입된 프랑스 지분이 50%를 넘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1987년 말 “기업공개(Going Public)”라는 법안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때 주식공개는 자사주를 주식 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법안은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권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가까스로 다수이지만 소수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tout juste majoritaire et a fortiori minoritaire)” 외국인 투자자를 벌하는 용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외국에 한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위주의 제한된 범위의 협업보다는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89년 프랑스에서의 투자를 소개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왜 성공을 거뒀는지 이해가 된다.

5) 외국은행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제한된다. 1988년 한국정부는 자금시장을 국제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프랑스 은행들은 한국 정부의 금융 개방화 정책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즉, 한국 정부당국의 통제하에 두고 현재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한국 제도권에 유리한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았다.

6.60. Le commerce franco-coréen (한불 무역)

생산일자: 19891026

페이지: 234~236

한불 간의 무역 현황을 여러 그래프 자료를 근거로 설명한 후, 한불 무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수출품과 수입품 현황을 제시함.

한국의 수출시장은 3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하다가 1989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런데,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 <그래프1. 국제 무역수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수지는 1989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까스로 미화 1억 7천 백만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며,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무역수지 상황은 1989년 한국과 유럽 간 무역수지 재균형, 한국과 프랑스 간 무역에도 좋은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일반적인 추이

1989년 7개월 동안 프랑스는 對한 수출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래프2. 한불 무역수지>를 보면 88년의 첫 7개월의 경우 수입은 안정세이고(-1%),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다(+33%). <그래프3. 프랑스와 한국의 무역량 추이>를 보면, 오히려 1987년과 1988년 2년간에는 해마다 수입이 40% 늘어났고, 수출은 거의 정체된 상태였다. <그래프4. 한국의 주요 공급국> 과 <그래프 4. 한국의 주요 고객(수출국)>을 보면 프랑스는 한국의 7번째 공급국이자, 9번째 고객이다.

한불 수입·수출 교역량이 달라진 요인으로는 1986년까지는 1980년 초에 체결된 중요한 계약들이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프라마토사가 원전건설을 완공한 후 재계약을 맺지 않게 됨으로써 수출에 상당한 구멍이 생겼다. 1988년부터 대한항공사에 에어버스 판매가 수출의 1/4을 차지한다는 점은 양국 간의 무역관계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한편 양국간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프5. 한불 간의 무역커버리지율 비교>를 보면 양국이 89년 첫 7개월에 대해 8억 만 프랑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에 대해 공통된 평가를 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양국의 무역수지 산출 차이는 양국의 수입과 수출량 등록규칙이 다른 점, 제3국에서 성행하는 자유무역(가령 섬유나 가죽제품의 경우, 프랑스 외의 다른 유럽항구에서 하역되었다가 프랑스로 다시 수출됨), 동남아시아의 무역 허브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많은 프랑스 제품이 현지 대리점이나 계열회사 제품으로 바뀌는 식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불 무역의 주요 제품군 현황

이 자료들은 프랑스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들로 1989년 전반기에만 해당하며, 전년 대비 차이가 있다.

* 원문에서는 해당 자료를 크게 1989년 6개월간 수입현황과 수출현황으로 구분하고, 각 제품군이 전체 수입/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을 표시한다. 가령 1989년 전반기에 소비재는 프랑스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2% 감소라고 제시되어 있다. 소비재 중 섬유는 전체 수입의 18.7%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4% 감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cf. 제품군별 상세 수치는 원문을 참고할 것)

6.61. Les investissements français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프랑스 투자)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237~239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현황, 실제 2

투자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함.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주로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대규모 외국인 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다. 매우 높은 수치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급증, 특히 올림픽으로 인해 유럽 회사들은 물론 프랑스 회사들은 한국시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관련 법규

여전히 제약은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84년 7월에 소위 몇몇 공개부문에서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1988년 10월에는 외국인 출자금이 투자된 한국 제조사가 좀 더 자유로운 상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일련의 법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외자도입법(FCIA,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모든 투자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무부가 공지하는 외국인 투자 금지 영역 리스트를 보면 매우 길고, 160개 항목이나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988년 한 해 내내,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시점 기준 외국인 투자 장부는 352건이며, 12억 8,300만 달러로 추산 된다. 1987년 기준 21%가 증가한 것이다.

* 원문에서는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전년대비 증감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부문별(제조업, 서비스업, 농업과 어업) 투자현황을 투자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과 같은 수치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프랑스의 투자현황

1984년까지 한국시장에 투자한 기업 숫자는 40여 개가 되며, 이 중 75%가 서비스업이었다. 하지만 주요 산업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투자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약 30%로 감소했다. 주요 프랑스 투자자들을 투자 규모 순으로 나열하면 발레오(Valéo : 프랑스 전체 투자의 34.2), 아코르(Accor S.A. : 31%), 사노피(Sanofi : 11.4%), 아토캠(Atochem : 4%), 카이제르스베르그 올드햄(Kaysersberg et Oldham : 각각 4%) 순이다.

외국인 투자의 정상화 전망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은 외국인 투자의 점진적 정상화를 동반하는데, 1993년쯤에는 투자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상화”는 상당수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금 면제가 폐지되며, 외국인 자본기업에게 “기업공개(Going public)”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던 것도 끝

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정상화'는 '개방'을 의미한다. 합작투자 시에 점점 다수가 외국인인 중간 규모 투자를 위한 절차가 편리해지고 투자 영역도 자유로워지며 수입 허가증이 발부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수입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현금흐름을 특정 금액으로 제한을 두게 하고, 자본보다는 기계나 재산에 투자를 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투자 이유도 바뀌었다. 내수시장이 발전하고 급여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나라로 투자처가 이동하게 되었고, 품질과 최적화에 비중을 두고 자동화된 산업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밀기계 제품의 설계 및 응용 분야, 화장품, 식료품, 건강상품과 같은 소비재 분야, 우주 항공이나 신소재 발견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6.62. Principales affaires suivies par des entreprises françaises en Corée (한국에서의 프랑스 기업들의 주요 사업)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240~245

한국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기업들의 동향을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기업체의 주요 사업 분야, 사업 규모, 경쟁기업, 주요 이슈 등을 설명함.

1) 제철업

· 에어리퀴드(AIR LIQUIDE)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4기 건설, 계속 신규 공장 건설 발표 예정, 아마도 9월 중으로 추정. 시작일은 합의 가능, 1억 5천만 프랑
- 한국중기계(KOHEMA, Korea Heavy Machinery) 산소 공장, 군산 제철소 신규공장 건설, 2억 프랑
- 경쟁기업: 린데(Linde),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 입찰제출일: 1989년 9월, 최종 선정일: 1989년 말~1990년 초

· 클레심(CLECIM)

- 한국중기계(KOHEMA)의 전기로(four électrique), 금속 주물 공사
- 1차 제안서: 1989년 9월 제출 이후 세부 수정, 최종 선정일: 1990년대 초
- 경쟁기업: 데마그(DEMAG, 독일 건설장비 제조업체), 데이비 맥키(DAVY McKEE: 영국기업)
- 조일알루미늄(CHOIL ALU), 알루미늄 열간 압연, 총 5억 프랑, 연간 10만톤, 90년대 중반에 결정

· 클레심(CLECIM)-페쉬니(PECHINEY)-죄몽(JEUMONT)-슈나이더(SCHNEIDER) 제휴

- 동일알루미늄(DONG-IL)의 알루미늄 판재 생산라인 협상 중, 12월 결정, 총 1억 8천 프랑
- 경쟁기업: 아헨바흐(Achenbach, 독일), (구)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IHI, 일본)

2) 에너지 분야

· 소프르가즈 (SOFREGAZ)

- 1990년 3~4월, 가스저장탱크 기술인력 훈련센터 낙성식에 프랑스 가스공사 구트만(MM GUTMANN) 회장과 소프르가즈 사이아드(SAILLARD) 회장 참석
- 가스산업 전망: 항구터미널(인천과 남동지역) 2곳, 평택-서울 간 가스파이프라인, 고압 도시 배관 유통망(프랑스 측이 제안했지만 아직은 절반만 수용), 가스 유통 장비 및 가스 산업활동연관 장비

- 프라마툼-알스툼(FRAMATOME -ALSTHOM) 제휴
 - 한국 원전 건설 프로그램에 참여, 10월과 11월에 예정된 KNU 9호기, 10호기 낙성식에 대통령 참석
 - 12월로 예정된 KNU 13호기, 14호기 공개입찰에 참여 희망. 한국인들이 미국회사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을 선정해서 개별 계약을 할 수 있음. 매우 중대한 이슈임.
- 알자스 기계건설회사(SACM, Société alsacienne de constructions mécaniques)
 - KNU 11호기와 12호기에 들어가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 협상 중
- 세글렉(CEGELEC)-네이프릭(NEYPRIC)-알스툼 죄몽(ALSTHOM JEUMONT) 제휴
 - 한국전력공사(KEPCO)의 중앙 터빈(원심분리기), 펌프, 90년도 1월에 공개입찰, 3억 5천만 프랑. 독일 보이트(VOITH), 일본 도시바(TOSHIBA), 히타치(HITACHI), 후지(FUJI)와 경쟁 중
- 세글렉(CEGELEC)
 - 현대전자산업(Hyundai Electronics)과 제휴하여 원전 11호기, 12호기 명령블록(blocs de commandes). PFT 가격 9천5백만 프랑, 협상중, 대영전자(Daeyong)와 제휴한 웨스팅 하우스(Westing house)와 경쟁 중
- 에스제엔&코즈마(SGN ET COGEMA)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주도하는 2개의 프로젝트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과 최종 저장)에 참여. 설계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의 일부는 외국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예정. 약 1억 프랑. 스웨덴-미국-독일 연합기업과 경쟁 중
 - 문제점 : 아직 고객이 명확하지 않음. 과거 산하의 한국원자력 연구원(KAERI)이나 동력자원부 산하 한국전력자원공사(KEPCO) 중에 하나가 선정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위해 특별 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
 - 공개입찰 원서 제출 : 89년 4분기나 1990년대 초, 여론수용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표류 중
- 코즈마(COGEMA)
 - 원전 연료 주입 서비스, 한국전력자원공사와 10년(85-95)간 계약 진행 중

3)교통분야

- 대구 지하철공사-마트라 기업 제휴

86년에 마트라가 대구 시장을 자동제어 경량 지하철인 VAL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89년 2월 자신의 고향인 대구 방문 때 지하철 건설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일부 구간이라도 준공을 시작하고자 한다. 인천이나 대전 등 다른 도시들도 경량 지하철을 원하며, 대구를 참고할 예정이므로 대구지하철 건설은 중요한 이슈다. 경쟁업체는 캐나다 도시교통개발공사(UTDC)와 일본이다. 9월에 캐나다 무역부 총리가 대구를 방문했으며, 일본은 자금조달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건설 비용은 대구시가 50%, 국가가 5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대구시가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 중이다. 심사는 1989년 12월 시청에서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주관한다. 선정은 90년 중반이고, 계약 체결은 90년 말이다. 건설 기간은 92년~95년이다. 자금조달 조건과 기술이전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마트라(MATRA)사의 강점은 아시아 지역에 재수출하는 전략과 함께 광범위한 현지화 작전이다.
- 서울 지하철 공사-소프르투(SOFRETU)

5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소프르투사는 대우엔지니어링(DAEWOO Engineering)의 외국 자문기관으로 참석할 것이며, 한국 회사가 시공한다. 지하철역무자동화시스템으로 유명한 업체인 프랑스 CGA사가 지하철 노선 확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 철도청(KNR, Korea National Railway)과 프랑스 CGA사 제휴**

대도시 외곽 통행로, 250개 자동개폐문에 대해 프랑스 CGA사와 합의계약 중, 계약 체결은 89년 10월, 비용은 6천5백만 프랑

· **고속열차 건설 (관련하여, 단독 보고서 참고할 것)**

경쟁업체 3곳은 프랑스의 테제베(TGV), 독일의 이체(ICE), 일본의 신칸센이다. 공적 자본으로 경부선과 민간 자본으로 동해선을 설치하게 된다. 주요 D-day는 심사를 진행하는 10월 16일부터 20일이며, 각 나라 별로 하루씩 배정한다. 업체 선정은 90년 중반, 공사 기간은 1991년부터 98년까지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 조건이다.

· **교통 규제 및 도시 교통 계획**

교통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로서, 서울시가 점점 고민이 많은 주제이다. 미셸 들라바르(Delabarre) 프랑스 총리는 대한민국 교통부 방문 시에 서울에 평가를 위한 업무 파견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관련 프랑스 회사는 아디템(ADITEM)과 해외시설물중앙연구소(BCEOM), 실렉(SILEC)이다.

4)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 **서울-인천 국제공항**

파리공항관리공단(ADP, Aéroports de Paris)은 교통부와 6월에 신공항 후보지 선정 검토 계약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부가 대우엔지니어링과 유신설계공단(YOOSHIN)과 계약한 것으로 이 두 업체는 외국 협력회사인 파리공항관리공단(ADP)과 네덜란드공항 설계 전문회사(NACO, Netherlands Airport Consultants)에게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검토 보고서는 2월이나 3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1990년 9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며 공항 시설 개발은 소프리아비아(SOFREAVIA)나 톰슨(THOMSON)이 관련된다. 교통부 전담팀이 1990년 말에 파리와 런던, 암스테르담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 **다른 국제 공항**

- 제주 서귀포공항 : 파리공항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대우엔지니어링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 1992년부터 1995년에 건설 예정
- 광주 무안공항 : 먼 훗날의 프로젝트
- 부산 공항 : 부산 북쪽에 신공항 건설. 유신엔지니어링이 타당성 검토를 함. 1992~1999년 1단계 건설
- 양양 공항 : 관광 사업 프로젝트, 아직 명확하지 않음.

5) 고속도로

CGA사가 ESD와 크라우젯(CROUZET)사와 경쟁 중.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건설, 1억 6천만 프랑, 공개입찰 시기는 90년대 초임.

6) 항구

- 낭트생나제르항(Port de Nantes-St. Nazaire)은 연말 전에 군산항과 자매결연계약 예정. 항구 부두시설 개발은 태영개발이 주선한 계약을 따를 것임.
- 소그레아(SOGREAH)는 조선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협동조합(KOSEC)과 군산항 퇴적현상 연구를 위해 계약 중. 한려해상공원 정비 프로젝트

7) 정유화학

- 에어리퀴드(AIR LIQUIDE) : 럭키금성 주식회사와 질소공장 건립 계약 중이지만 미국에 유리함. 호남정유

와 질소공장 건설 협상 중임.

- 죄몽-슈나이더(JEUMONT-SCHNEIDER) : 삼성석유화학과 저밀도폴리에틸렌 공장 자동화시스템 협상 중임.

8) 기타

- 폴리시우스(POLYSIUS) : 지난 2월 2억 1,500만 프랑 계약 수주에 이어 현대시멘트(HYUNDAI CEMENT)와 시멘트 공장 준공. 경쟁업체는 영국 풀러(Fuller)社, 독일 클뢰크너사 (Kloekner)社, 성신양회(SUNSHIN CEMENT)와 일본 미스비씨고베제강(MISTSUBISHI & KOBE)임.
- 포마(POMAGALSKI) : 무주역에 (주)쌍방울(Ssangbangwool)의 5인승 캐빈 케이블카 준공, 2천만 프랑. 오스트리아도펠마이어(Doppelmayr)社와 경쟁 중. 89년 말에 결정됨. 용평스키장의 확장사업으로 쌍용양회(SSANGYOUNG CEMENT)의 케이블카 준공

9) 정보통신

미니텔(Minitels) : 한국전기통신공사(KTA)의 의뢰로 미니텔 단말기를 통한 전자전호부 구축.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를 위해 마트라(MATRA), 텔릭알카텔(TELIC-ALCATEL), 라디오테크닉(RADIOTECHNIQUE)과 접촉 후 협상이 막 시작됨.

6.63. Transport. Visite d'Eta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1989) : projets de transports urbains. (교통. 1989년 11월 2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공식방문 관련 도시 교통 프로젝트)

생산일자: 19891117
 페이지: 246~249

프랑스 마트라(MATRA)가 참여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마트라사의 강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984년에 프랑스의 CGA사와 쿠루젯(CROUZET)사는 서울 지하철 매표소 발권기를 납품하는 데 그쳤다. 마트라(Matra)사는 부산 지하철 노선 확장사업에 자동제어 경량 지하철(VAL)시스템을 홍보하려고 애쓴다. 가장 최근 프로젝트는 대구 지하철 시공이다. 마트라사는 1986년 대구의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했는데, 대구시가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조율가능한 경량지하철망을 선택한 눈치였다. 마트라사는 시간당 18,000명이 이동할 수 있는 북동 노선과 남서 노선의 자동제어 경전철 VAL시스템을 제안했다. 필요한 객차는 120대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 대구시장과 대한민국 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들이 1989년 전반기에 프랑스 릴(Lille)의 지하철을 방문했다. 대구지하철의 시설장비는 현지에서 제작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부지 비용 외에도 4억 프랑이 소요되며, 마트라 측에 송환 가능 비용으로 1억 프랑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정부는 대구 지하철 건설을 정부예산에 포함시켰고, 정부가 50%를 대구시가 나머지를 수출채권이나 대출을 통해 지불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소(KOTI)는 1990년 초에 대구시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외국 협력업체 선정은 1990년 중반에 실시하고, 시공은 1992년~1995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

다 온타리오주 소속기업인 UTDC와 일본업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프랑스 기업인 마트라사가 유리하다. 자동제어 경량시스템(VAL) 기술에서 앞서 있고 이미 대만에서 시공한 경험이 있으며, 제3세계에서 이미 기술이전 및 협업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경량 지하철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구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6.64. Visite en France de M. ROH TAE WOO,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30 novembre–2 décembre 1989). Construction Aéronautique Civile (1989년 11월 2일–12월 2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민간 항공기 사업)

생산일자: 19891108
페이지: 250~251

한불 민간항공기 거래현황 및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요 사업 현황

- 1) 에어버스: 1989년 이미 에어버스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Korean Air)은 컨소시엄에 옵션 4가지가 장착된 A300-600R에 13대, 8개 옵션이 추가된 A330-300 7대를 주문했다. A330-300은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장기 베스트 고객이다.
- 2) 이번 계약 건과 동시에 한국 항공산업과 유럽 항공산업 간 협업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그리하여 대한항공은 A330-A340의 지붕 부분과 A340 엔진의 역추진기에 대해 라테코에르(LATECOERE)의 협력업체이고, 대우중공업(DAEWOO)은 A330-A340의 동체부분에 대해 브리티시 아에로스페이스(British Aerospace)의 협력업체이다.

<유의사항>

민간 항공기 분야는 상업적인 측면이나 기술협력 측면에서 한불관계의 성공적 사례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6.65. Energie. Note pour la Direction Générale de l'Énergie et des Matières Premières Objet : Rencontre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Monsieur Fauroux (에너지 자원. 에너지원자재총국을 위한 보고서 :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과 프랑스 로제 포루(Roger Fauroux) 상무장관 회동 관련)

생산일자: 19891117
페이지: 252~261

노태우 대통령과 프랑스 상무장관 회동 관련 한불 가스산업 현황 관련 준비 자료임.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됨.

- 1) 평택 LNG터미널에 대한 테크니가즈社の 용역에 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1989년 11월 3일 자에 보내온 전신
- 2) 테크니가즈사의 답변 서신
- 3) 한국의 가스(수급)사업에 대한 프랑스국영가스회사(Gaz de France)의 보고서
 - (1) La coopération gazière franco-coréenne

(2) Developpement gazier de la Corée du Sud Grandes infrastructures nationales

1) 평택LNG터미널에 대한 테크니가즈社의 용역에 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1989년 11월 3일 자에 보내온 전신 내용 보고 + 2) 테크니가즈사의 답변 복사본 첨부 통합 요약

평택 LNG터미널 책임자 Mr. 윤이 테크니가즈社가 설치한 화재감지장치가 고장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관련 테크니가즈사의 답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건 원인 및 해결,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 발단: 테크니가즈사가 설치한 액화가스터미널 화재감지장치 오작동 문제 발생

- 원인: 화재감지장치의 통제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감지장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

- 해결 및 향후 파급효과 (*회사 측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결함부분은 테크니가즈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했고, 한국가스공사 측이 만족했고, 사후에 아무런 문제 발생 없었음. 다만 책임자 (General Manager)인 Mr. 윤은 교체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평택 LNG터미널 확장 시공사로 테크니가즈사를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공개입찰을 하기로 함. 한편 회사 측 답변에 따르면, 이러한 공개입찰은 지금 한국정부의 민주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즉, 요즘 국영기업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고, 회사 대표가 여러 차례 국회에 출석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 테크니가즈사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회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믿고, 협력업체인 한양엔지니어링(Hanyang)과 함께 이번 달 말에 공개입찰에 응할 예정임. 회사 측 답변서에는 해명 자료 없이 제3자에게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이 유출됨으로써 회사의 평판은 물론 더 나아가 프랑스의 가스산업 전체의 평판이 손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3) 한국의 가스산업에 대한 프랑스국영가스회사(Gaz de France)의 보고서

(1) 한불 가스 협력

한불 가스산업 교류는 1982년부터 회장인 피에르 알비(Pierre ALBY) 씨 주도로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984년 프랑스국영가스회사(Gaz de France)와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operation) 간에 협약이 1984년에 시작되었고, 소프르가즈(Sofregaz)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간 협약이 1987년 체결되었으며, 1986년 테크니가즈사가 담당하고 소프르가즈와 프랑스국영가스회사의 협력을 받아 평택 LNG터미널이 설치되었다. 1987년 이후 매년 프랑스 국영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프랑스 국영가스회사와 협력업체는 가스산업 관련 기술과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1990년 4월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인력센터가 프랑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소프르가즈社의 도움을 받아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가스수요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프랑스 국영가스회사와 한국의 가스배급회사들 간에도 교류 및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연구 및 산업협력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지닌 프랑스 국영가스회사는 한국당국과 가스회사들의 기대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대규모 국가기반사업으로서 가스 공급 계획

가. 국가 가스계획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는 장기간 가스 소비와 수입량을 예측하는 국가 가스계획을 실시했고, 여기에서 대규모 (가스관련) 기반시설계획이 나왔다.

① 수요

해마다 2백만 톤씩 가스 수요가 늘 예정이며, 가스회사의 공급량도 늘어날 예정이다(1989년에서 14%로, 1995년에 30%로, 2000년에 45%). 반면 상대적으로 원자력에너지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다.

② 기반시설

가스 수요가 늘어날수록 넓은 지역에 가스를 배급할 수 있는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필요(현재 서울지역에 1개만 있음)하고 LNG 터미널이 있어야 하며 LNG 수송선을 보유해야 한다. 국가기반시설 투자예산은 1996년까지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아직 3MT가 넘는 대규모 수송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서울지역 파이프라인을 보강하여 대전지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확장은 130km 1993년 중반 예정이며 3개월 후 공개입찰 예정이며, 현대는 도쿄가스와 제휴하고 대우는 오사카가스공사와 제휴할 예정이다. 2단계 확장은 총 길이 1,200km, 1996년 말 완공 계획이다. LNG가스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에서는 일본회사가 아주 강세이긴 하지만, 소프르가즈(Sofregaz)가 한국의 대기업 하나와 제휴해서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 LNG 터미널

- 평택 터미널의 확장: 내년부터 추가 저수조가 지어질 것이며 2배, 4배로 늘어날 것이다.
- 제2터미널: 인천 근처 일도(ILDO)에 지어질 것이며, 11월 초에 동력자원부 장관이 막 부지 승인을 끝냈다. 1996년에 1년에 3MT짜리 터미널이 만들어질 것이다. 1차 공개입찰은 1990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 LNG터미널 사업 관련하여 프랑스는 유리한 입장이지만 평택에서 테크니가즈社의 판매 후 오작동 때문에 약간 퇴색된 느낌이다. 필요하다면 한국 대기업과 제휴해야 하며 프랑스크영가스회사(GDF), 소프르가즈(Sofregaz), 테크니가즈社가 함께 하나로 연대하여 입찰해야 한다.

라. LNG 수송선

1993년부터 새 수송선이 필요하며 1990년 중반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일본에서 개발한 MOSS 큐브기술이 필요로 하는 값비싼 도구 없이도 한국에 필요한 LNG선을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으므로 가스트랑스포르(Gaz Transport)가 충분히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일본기업이 이기게 되면 가스트랑스포르社의 미래도 상당히 꼬이게 될 것이므로 1990년은 중요하다.

마. 결론

향후 수년간 대규모 가스 기반 사업계획을 앞둔 한국은 상당히 훌륭한 시장이며, 유력한 일본 업체에 대해 프랑스는 유리하긴 하지만 도전장을 내미는 입장이다. 프랑스가 성공하려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럽의 기술력을 택하는 입장을 유지하거나 프랑스기업들이 각 사업 분야마다 연합전선을 구축하거나 프랑스가 경쟁기업과 대등한 자금조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6.66. Armement. Fiche : Corée du Sud-Affaires d'armement-Visite d'Etat du Président ROH TAE WOO (군수 산업. 한국의 군수 산업-노태우 대통령 방문 관련)

생산일자: 19891113
 페이지: 262~265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한불 군수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한 글임.

이번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은 한불 군수산업 협력의 역사적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올해 5월 29~31일에 프랑스 국방장관 장피에르 슈벤느망(Jean-Pierre Chevènement)이 방한했을 때 양국은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군수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 상황

(1) 최근 몇 년간 프랑스기업은 한국에서 악재를 겪었다. 1986년 대한민국 해군 해안방어포대 구축용 미사일 선정사업에 프랑스의 엑조셋 MM40 미사일이 미국의 하푼(Harpoon)미사일에 밀렸고, 1987년 12월 프랑스 알스톰사(Alsthom)의 잠수함이 독일 디젤잠수함 제조사인 호발츠베르케-도이체 베르프트(HDW, Howaldtswerke-Deutsche Werft)에 밀렸다. 1988년 8월 미국 웨스틀랜드(Westland)사의 링스(Lynx) 헬리콥터에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의 도팽(Dauphin) 헬리콥터가 밀렸다. 그나마 1988년 8월 한국 국방부에 대통령전용기로 판매한 슈퍼 퓨마(Super Puma) 3대를 판매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중 1대는 기술결함으로 1989년 2월에 추락했고, 아에로스파시알사는 1990년 중반에 기체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2) 새로운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현재 총 100억 프랑 규모의 군수산업 계약이 협상 중인데 프랑스 기업 쪽 분위기가 좋다.

K3 단거리요격 미사일(Sol-AIR K-SAM) 1단계 계약에 이어 2단계 관심 서신을 받았고, 다쏘(DASSAULT)사의 ATL 2 해상초계기도 미국 P-3C 오라이언(Orion)과 경합 중이다. 마트라(Matra)사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미스트랄(MISTRAL)도 10년간 3,700대로 추산 중인데, 4억 프랑이 넘는 액수이다. 세 번째 잠수함이 건조 예정이고 육군 통신장비로서 한국기업들과 함께 리타(Rita) 버전을 제조할 계획이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기업체인 톰슨, 마트라 및 다쏘社は 유능한 한국 대기업들과 심도 있는 산업협력을 할 예정이다.

2) 유의사항

방금 언급된 한불 군수산업 프로젝트들이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언급되길 바란다. 프랑스는 한국을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군수산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K3 단거리 요격 미사일(Sol-AIR K-SAM), 단거리 요격 미사일 미스트랄(MISTRAL), 육군 통신장비인 리타(Rita) 사업안은 대규모 산업협력과 기술협력이 예상되는 바 프랑스 군수산업의 미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67. Coopération économique et industrielle. Visite en France d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M. Roh Tae Woo – 30 novembre–2 décembre 1989. Relations industrielles franco-coréennes (경제산업협력,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관련 한불 산업 관계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19891117

페이지: 266~276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서 약 25년 만에 신흥공업국으로 우뚝 성장했다. 그런데 몇몇은 (최근 한국의 성장둔화세를 두고) 한국의 “기적”에 대해 의심하는 눈치다. 한국은 이제 늘어나는 사회적 갈등과 급여 상승 요구를 제어해야 하며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재편해야 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불 양국의 관계는 다소 대조를 보인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새로운 남북관계 선언으로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갈등 없이 훈풍 일색인데 반해, 경제적으로는 양국 간 갈등이 있었다. 한국은 협상하기 힘든 경쟁자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파트너이다. 최근 자크 세렉(Jacque Cheregu) 국토개발담당장관, 올리비에 스티른(Olivier Stirn) 관광장관, 장마리 라우쉬(Jean-Marie Rausch) 대외연구장관의 방한은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보여준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 한불 경제관계의 주요 어려움

(1) 한불 무역

(양국 관세청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 관세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對한 무역 적자국이며 최근 3년간 적자폭이 상당히 감소했다. 특히 전기전자 컴퓨터, 섬유유류, 신발, 비디오게임, 장난감, 육아, 운동, 캠핑 영역에서 적자인데, 이 제품들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제품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한국은 1988년에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 파트너국이 되었는데 반해, 한국 내 프랑스 시장은 매우 미비하며 2%도 안된다. 對한 프랑스의 수출은 1988년에 17%만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의 전체 수입은 26% 증가했다. 프랑스는 증가추세인 한국 수입시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할 것이다.

(2) 프랑스에 들어오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물량 제한

한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주력산업 중심의 과잉생산 경제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의 특정 산업 분야에 미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프랑스는 최근 유럽경제공동체에서 택한 보호 정책을 취했다.

- 수입물량 제한 : 컬러TV, 라디오 수신기, 우산, 장난감, 아시아기금(AMF)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섬유제품, 몇몇 화학제품 등에 할당량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컬러TV나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 할당량 적용 폐지나 축소를 주장한다. 프랑스는 흑백TV의 할당량을 폐지하거나 1988년 컬러TV 할당량 높이는 등 최근에도 관련 법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오긴 했으나 한국의 컬러TV 제품이 사실상 유럽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새롭게 할당량을 양허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 정보를 덧붙이자면 최근 유럽경제공동체가 곧 우루과이라운드의 틀에서 몇몇 제품의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정책을 공식화할 예정인데 전자제품이나, 부품조립이 가능한 TV, 장난감 제품, 시계나 선박의 경우처럼 매우 민감한 제품군은 제외될 것이다.

- 반덤핑 규제 :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덤핑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비디오나 오디오 카세트, 사진앨범 등에 대해 심의가 열렸고 CD와 소형 컬러TV에 대해서는 임시 판결이 적용되었고, 금성이나 코오롱, 새한 미디어, SKC 비디오카세트에 대해서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여러 차례의 약속과 기업체 간의 논의를 통해 컬러 튜브나 전자레인지, 비디오카세트, 신발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스스로 물량 조절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보호정책들이 한불 양국 및 한-EU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하지만 1년 전 발생한 자동차의 문제는 양상이 다르다. 저임금에 높은 기술력과 일본과 미국의 자본이 투입된 한국 자동차 시장은 활황이다. 이전까지 주로 북미시장을 공략했는데 현재 유럽시장 성장률이 가파르다. 반면 한국 내 자동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국에 판매된 자동차 숫자는 1988년 53대, 1989년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은 58대 뿐이다.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프랑스 정부와 유럽공동체는 상호호

혜의 조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모터스(France Motors)는 기아그룹 자동차에 대해 수입인증을 요구한 상태이고, 기아차 베스트라(La Besta)는 일단 성능인증 테스트는 통과한 상태이다. 이제 인증권을 발부하는 것은 프랑스 교통부의 소관이다.

(3) 한국시장의 문제

한국시장은 외국 제품에 대해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복제품 문제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유럽제품에 대한 특허 인증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제품 특허 문제도 언급되어야 한다. 루셀-우클라프(Roussel-Uclaf)의 세포탁심(Cétofaxime)을 거론하자면, 회사는 첫 소송에서 패소하고 당시 한국 내 유일한 제조 특허였는데, 자체 특허가 무효가 된 후 현재 항소 중이다. 복제품 문제는 특허 사치품이나 리나시올(Rhinatiol), 캠핑가즈(Camping Gaz)와 같은 제품들에도 적용되는데 한국 정부에게 한국 내 복제품으로 인한 프랑스 브랜드 이미지 타격 우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2) 한불산업협력

한불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도 한국과의 협력의 이점을 기억해야 하며 한불 양국 간 협력은 상호수혜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중소기업 협력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주도로 양국 중소기업체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1983년에 6년 예정으로 양국 협약 각서가 체결되었고, 1989년 6월 30일에 9개의 협정서와 58개의 협력계약이 체결되었다. 중소기업협력체제의 재원부담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며, 프랑스 측은 외무부(MAE), 대외경제관계국(DREE),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ACTIM)이 참여하되, 최근에는 기업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참여하고 있다. 양국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들에 치하하며 더 많은 협업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 상대국에서의 투자

한국에서 프랑스의 투자는 1988년에 두 배로 늘어났지만 1987년 외국인투자 전체의 1.2%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발이 아주 미미하다. 주로 합자회사 형태로 참여하며 위에서 언급한 양국 중소기업체들 간 협력기구(APRODI-SMIPC)가 동반된 아주 작은 소규모 회사들 간의 계약정도가 체결된 수준이다. 1987년에 방사형 타이어제조사인 미술린社, 페라이트 제조업체인 LCC가 맺은 협약서와, 강화유리섬유 제조업체인 생고빙베트로텍스(St Gobain Vetrotex)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투자는 많지 않은데, 1987년에 프랑스 롱위(Longwy)에 대우전자는 전자레인지공장 설립 승인과 역시 롱위에 프랑스 비셋(Bisset)사와 제휴하여 해태전자(Haitai)의 자동 라디오 공장 설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D 플레이어와 자동라디오 관련 금성사와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려 중이다. 프랑스 측은 한국에서 투자 진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에 대해 치하하며 양국 간 협력이 좀 더 진전되길 바란다.

(3) 주요 협력 프로젝트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한불 기업체들 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 에너지

원전 분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원전 9호기와 10호기 건설에 프랑스 업체들이 참여했다. 한국인들과의 협업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기한도 잘 지켜져서 1988년 9월에 9호기가 가동되었고, 10호기는 올해 여름에 가동되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후에 프라마툼(Framatome) 측이 한국 제휴업체에 제공

한 추가 용역 관련 비용 문제에 대해 양국 업체 간 이견 차이가 있어서, 프라마툼 측은 국제상공회의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11호기와 12호기 건설에 미국회사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사가 선정되면서 프랑스 측은 상당히 실망했었다. 1990년경에 결정될 신규원전 2기 프로젝트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독일과 제휴하여 NPI사(Nuclear Power International)를 만들어 입찰할 예정이다.

신규원전과 별도로 원전 연료주입 관련하여 협력도 진행 중이다. 1988년에 코즈마(COGEMA)사는 한국 연료 농축 주입 업무의 30~40%를 담당했다. SGN사와 코즈마사는 사후연료저장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고자 물밑에서 노력 중이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기회를 활용하여 재차 원전 관련 양국 간의 수차례의 회동 및 이미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얻은 결실 등을 환기시켜 한국은 프랑스의 중요한 원전사업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원전의 건설에서부터 농축원료 주입, 사후 연료저장, 폐기물 재처리에 걸친 원전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과 장기간 협력을 희망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1981년부터 1986년에 걸쳐 평택 LNG터미널 1기 구축 이후 비슷한 등급의 후속 사업은 없었다. 1987년 초 한국가스공단이 수입한 가스저장소 설치 문제 때문에 신규 LNG터미널 구축이 연기되었다. 평택 LNG터미널 확장 사업이 1990년에 입찰 예정인데 테그니가즈가 시공한 1기 터미널에서 화재감지장치 오작동 문제로 한국가스공단 담당자가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담당자는 회사의 리더급이 아니고, 화재감지장치 1군데가 고장났다고 장치 전체를 불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LNG터미널 확장사업은 공개입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니 프랑스는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은 활황이며 중대 규모의 협력이 예상된다. 가스 자원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인력양성 관련하여 1990년 봄 반월에 개통되는 가스기술연구소가 소프르가즈(Sofregaz)의 기술 제휴로 설립될 예정이다. 프랑스 측은 가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계속되며 새로운 형태들로도 발전되길 바라고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나. 교통분야

상대적으로 거의 휴면상태에 있다가 경부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989년 3월 18일 교통부장관이 1차는 경부선, 2차는 영동선에 대한 철도사업을 공식 선언했다. 7월 말에 한국철도공사(KNR)는 교통연구원(KOTI)에 고속전철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1년 후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이체(ICE), 프랑스의 테제베(TGV) 중에서 한국 지형조건과 기술 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고속열차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10월 16에서 22일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프랑스 테제베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눈치이다. 외국의 자금조달 관련해서 40%를 예상하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은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것은 물론 자금조달 비용, 역매수(특히 한국 자동차 수입 관련)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회를 활용하여 프랑스는 경부선 고속철도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피력해야 한다. 프랑스가 한국의 고속열차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점을 주목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8년간 서비스 경험, 저렴한 유지비, 고급 기술 수준 및 기술이전 능력, 현재 운행 중인 테제베(TGV) 사례(스페인 및 벨기에, 네덜란드, 유로터널에서 운행됨), 무엇보다 신규 철도 노선 및 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역량 이전을 통해 한국 측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프랑

스 관계자들의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TGV 외에도 대구나 인천, 대전 등에 경량 지하철 사업, 서울 지하철 확장 사업, 향후 인천 남쪽이나 동해안에 건설될 공항 건설 사업에도 프랑스 측의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6.68. Corée. Télécommunications (한국의 통신 산업)

생산일자: 19891114
페이지: 277~278

통신산업 관련 한불 교류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함.

1) 현황

몇 년 전부터 프랑스와 한국의 통신 부처는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1989년 6월 16일 정보 및 인력 교류에 관한 전화통신 기술협약서를 체결했고, 매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해 사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는 연말 이전에 1차 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프랑스 기업에 산업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관광소프트웨어 부문에서만 성공했다.

2) 한국의 입장

한국인들은 비디오텍스(videotex)와 전자전화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산업스파이라는 위험부담만 있고 정작 프랑스 측은 아무런 상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수 있다.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은 비디오텍스 판매 담당 자회사인 인텔마티크(Intelmatique)와 한국전기통신공사(KTA) 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했다. 한편 한국은 통신 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싶어하는데, 아마도 한국이 직접 설계를 원하는 것 같으며, 통신 위성 발사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곧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3) 유의사항

양국 부처 간 협력관계가 수립된 것에 대해 치하하며 산업으로 외연이 확대되길 바란다. 한국 측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69. Programme de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entre PME-PMI (한불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생산일자: 19891109
페이지: 279~280

한불 중소기업협력 현황, 특히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간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설명함.

1983년 말 한불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는 5년간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간에 산업협력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에 4명의 자문위원, 파리에 1명의 자문위원이 있으며, 1,050만 프랑의 예산을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DGRCST)과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ACTIM)로부터 지원받은 이 조직 덕택에 5년간 700개 프랑스기업을 접촉하여 320건의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었다. 63개의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중 17개는 투자금 2억 8천8백만 프랑 상당의 합자회사를 만들었고, 15건의 라이선스 이전, 나머지는 기술협력 관련 계약서였다.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간에 산업협력 덕택에 한국에서 프랑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아시아의 제3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불제휴가 이루어졌다. 1987년과 1988년에 프랑스의 투자가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한불 중소기업제휴는 양국이 재정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3년간 제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1일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 기간에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소맘(SOMAB)과 해덕 유체기계(HAIDUK)의 제휴가, 가구 분야에서는 메리노스(Merinos)와 삼익가구(Samick)의 제휴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기회로 양국 중소기업체 간의 산업협력 및 상호투자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간 제휴 연장에 대한 양국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6.70. Activité des entreprises françaises du secteur BTP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의 건설토목사업 분야 프랑스 기업들의 활동)

생산일자: 19891121
페이지: 281~284

한국의 건설토목 분야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보고한 글임.

건설토목 분야의 한국시장은 규제도 많지만 한국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뛰어나서 진입하기 쉽지 않다. 한국의 건설토목 업체들은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력 경쟁자들 중 하나로 손꼽히다가 현재 내수시장으로 퇴각한 상태이다. 프랑스 업체들 중에도 전문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업체들이 많다. 지질공학 분야의 솔레땅쉬(Soletanche), 물(水) 처리 분야의 데그레몽(Dégrémont), 역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CGA-HBS, 해양플랜트 산업의 소그레아(SOGREAH), 파리공항관리공단(Aéroports de Paris) 등이 있다. 프랑스 기업은 제3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한국업체랑 제휴를 맺는 경우도 있다. 리야드(Ryadh) 대학 건설을 위해 프랑스의 부이그(Boyugues)와 한양엔지니어링(Hanyang)이 제휴를 했고, 스리랑카의 상수도 공사를 위해 프랑스의 데그레몽은 럭키-경남(Lucky-Keang nam)과 제휴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관 작업을 위해 소그레아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건설·토목 분야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기반 시설

1989년 파리공항관리공단은 교통부와 서울과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대우엔지니어링, 유신설계공단과 네덜란드 나코(NACO)사와 제휴하여 12억 5천 불이며, 1990년 1월 이후에 사전 혹은 세부 프로젝트 관련 후속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하며 사업규모는 4천만~6천만 프랑에 달한다. 항공기반시설 프로젝트는 35억부터 50~60억으로 추산되는데, 파리공항관리공단(ADP)이 세부사업 개발에 참여하므로 공항시설 설비업체에게 좋은 사업처가 될 것이다.

2) 도로 기반 시설

고속도로 관리 공단은 1,100km에 걸쳐 60여 곳의 톨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프랑스 회사인 CGA-HABS

와 다쏘(Dassault)사가 미국이나 일본회사들과 경쟁 중이다. 1988년 이후 결정이 미루어졌는데 곧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때 CGA-HBS는 첨단기술인 전자통행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CGA-HBS는 철도나 지하철 운송분야에서도 통행세와 매표소 관련 사업을 한다. MAP사는 한국에서 건설부에 공개입찰을 거쳐 도로 진단 장비를 판매했다. 이러한 판매는 장기간 해외시설물중앙연구소(BCEOM) 그리고 교량 및 도로중앙연구소와 한국의 기술력이 제휴하여 준비해 왔던 것이며, 현재는 도로 보수유지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3) 항만 기반 시설

소그레아(Sogreah)와 르아브르 자치항(Le Port Autonome du Havre)은 인천항 및 다른 항만(광양, 군산, 한려해상) 개발 연구를 했다. 현재 한국의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협동조합(KOSEC)과 제휴하여 아산만의 퇴적 현상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공개입찰을 거쳐 남트자치항과 산업항인 군산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 건설부 소속 항만 기반시설 담당자가 소그레아사의 초청으로 곧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4) 물과 쓰레기 처리

데그레몽(DEGREMONT)은 한국 기업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20년 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지었다. 오존공정이나 멤브레인 필터를 비롯한 고성능 기술에 투자한다. 시타(SITA)사는 서울시와 함께 난지도에 대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을 협상 중이다. 환경청의 국가사업 과제인 410곳의 쓰레기 재활용이나 폐기시설도 검토 중이다.

5) 첨단기술 토목사업

50% 비율의 현지 자회사인 솔피코(SOLPYCO)를 보유한 솔레탕쉬(Soletanche)사는 건물 굴착, 무거운 구조물의 기초 공사, 지하철 현장 기반 기초 공사를 담당한다. 부산지하철과 울진 원자로 건설을 했고, 향후 지하철 공사도 기대하고 있다.

6) 도시화와 건설

서울과 인천에 대규모 신도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고, 1년에 평균 40만 호씩 향후 5년간 주택건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인들은 프랑스 건축물과학기술센터(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의 전문성과 건축 설계 경험에 관심이 많다. 프랑스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조건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 측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7) 철도 및 지하철 교통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확장사업, 대구지하철 사업 등이 해당한다. 각 사업은 건설교통해양부(MELTM, Ministre de l'équipement, du logement, des transports et de la mer)의 육상교통국에서 준비한 개별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뤘다.

6.71. Relations culturelles : L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franco-coréennes (문화관계 : 한불 문화 · 과학기술교류)

생산일자: 19891108

페이지: 285~293

한불 문화 · 과학기술 교류 현황을 프랑스어 보급, 문화예술교류, 과학기술협력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989년에 한국에 편성된 예산은 3,160만 프랑으로 증액되었으며 프랑스어 보급(610만 프랑), 문화예술교류(1,650만 프랑, 그중 1,100만 프랑은 특별예산), 시청각교류(60만 프랑), 과학협력(870만 프랑)에 배분되었다.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1990년에도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서울 프랑스문화원 건물 매입 용도로 책정한 1,100만 프랑은 삭감된다. 양국의 교류협력은 1965년 문화협력협정에서 시작되어 1981년 과학기술협력협정으로 이어진다. 이들 협정서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988년 5월에 마지막 회의가 열렸고 다음 회동은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불어교육과 문화교류 분야에서 한불간 협력이 만족스럽다.

1) 프랑스어의 보급

(1) 불어 교육

1974년에 설립된 서울 프랑스어 학교는 학부모단체가 운영하며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생은 150명이다(9년 만에 3배가 됨). 고등학교 교육은 프랑스 국립방송통신교육센터(CNEC,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par correspondance)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5명의 교사를 파견하는데, 이 중 2명은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봉사요원(VSNA)이다. 학교 운영비 지원은 1989년에 20만 프랑으로 상승했다.

(2) 언어 협력

고등학교에서 불어는 5개 국어 중 선택 과목인데, 일본어와 독어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외국어이다. 332개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며, 학생 수는 1982년 20만 명에서 1989년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대학교육의 경우 75개 대학에서 불어불문학 학사가 배출되며, 학생 수는 2만 3천 명 정도, 대학 자체적으로 총원하는 528명의 전임강사와 62명의 일반강사가 있다. 늘어나는 불어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410만 프랑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3명의 대사관 직원과 2명의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구성된 언어지원팀이 있으며, 20개의 장학금제도와 38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 통역번역대학원(ESIT), 파리7대학, 리옹3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1964년에 처음 주한 프랑스대사관 인증 프랑스어 교육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세워진 이후 6곳이 있어서 생겼다. 현재 서울에 3곳, 부산, 광주, 수원과 대전에 분원이 있다. 서울 분원은 현재 7,000명이 등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역동적이다.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4명의 교사와 운영자금(총 25만 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2) 문화교류

(1) 문화교육기관

서울 프랑스문화원은 외국문화원 중 한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매일 개방되며 하루에 4회 영화를 상영하고 도서관과 비디오 공연, 시청각 불어 학습, 불어 자료센터가 있다. 문화부는 90만 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 자유화 열풍으로 프랑스문화원은 현재 서울에 유행하는 대중문화로 인해 살짝 인기가 시든 상태이다. 지난 9월부터 문화원과 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합 운영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는데 알리앙스의 한국 원장은 알리앙스가 프랑스 정부 당국과 관계없이 순전히 한국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2) 예술교류

한불 예술교류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의 수혜를 입었다. 한국인들은 프랑스 문화에 매우 호기심이 많아서 양국의 문화원, 한국의 기업체들, 특히 신문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전적인 취향에 머물러 있으므로 프랑스 정부가 현대문화 소개를 장려해야 한다. 1988년 올림픽 때 대규모 프랑스 문화 기관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한국의 개방은 프랑스 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 쪽 개방이 두드러진다.

(3) 프로젝트

예술문화교류과는 현지의 요청에 부응하여 음악 분야의 프랑스 전문가들을 서울 아트아카데미 하계 연수 과정에 파견하고 있다. 공연을 통해 한국 대중들에게 현대작품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한국 측 요청으로 1990년에 리옹 오페라 발레단의 안무가인 프랑수아즈 아드레(Françoise Adret)가 방한하여 한국의 국립발레단과 함께 신고전주의 발레를 선보일 것이다. 1986년과 1989년 대규모 전시회에 이어 현대미술 전시회는 잠시 휴면상태이다. 예술문화교류과는 한국 측에 교환 전시회 관련 정보를 문의하길 바란다.

(4) 책

1986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이 한국에서 통과되면서 서적 분야의 한불 교류가 긍정적인 분위기에 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했고 1987년 10월 1일 발효일 이후에 한국에 최초로 발표된 외국 작가의 저작물은 보호된다. 그리하여 서적 불법복제를 퇴치하고 한불 편집자들 간의 진정한 협업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프랑스 쪽에는 1986년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업무실에 프랑스 서적 담당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생겨서 프랑스의 출판 동향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년에 3번 프랑스어와 한글판 서적 관련 소책자를 1,500부 정도 발간하여 한국의 교사들, 편집자들, 서적상, 예전 장학생들에게 보낸다. 서울의 대형 서점들과 연계하여 프랑스 도서 전시회도 주관한다. 또한, 한국 편집자들에게 프랑스 책을 번역하도록 책 선정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출판사와의 계약도 돕고 번역인력양성을 개선하고 프랑스 문화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3) 커뮤니케이션

이 분야의 협업은 미비해서 TV에 초대하거나 교육방송에서 2차례의 인턴십으로만 진행된다.

4) 과학기술협력

9번째 한불공동위원회 모임에서 양국의 과학협력에 대한 입장차이를 확인했던 바, 프랑스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양국 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산업적인 활용도는 차치하고 기술인력 확보에 주력하며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고급인력을 해당 분야에 파견한다. 1989년 과학협력에 할애된 예산은 943만 5천 100프랑인데, 여기에 협력에 참여하는 연구소 소유나 다른 부처의 자산까지 합치면 1,100만 프랑으로 추산된다. 몇 년 전부터 협력은 프랑스의 뛰어난 기술력을 드러내면서 산업이나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협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실행률도 아주 높다고 한다. 다만 한국의 경제 및 과학 조직에 침투하는데 어떤 자원들을 투입할지 숙고해야 하며 프랑스를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식으로 산업체들과 긴밀한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6.72. Coopération Culturel Franco-Coréenne (한불 문화협력)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294~295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는 잘 알려져 있으며 상당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 불어 교육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보다 매우 발달해 있는데, “프랑스어의 위상”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상당수의 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매해 한국 학생들은 음악과 조형예술,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간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이제 막 외국에 개방되기 시작하는 신흥 국가라는 점에서 훨씬 더 다행스러운 것이며 현재 형성된 문화적 인식 체계가 미래세대에 전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역동적인 문화원 내부활동(전시회, 영화상영, 도서관)이나 문화원 외부에서 공연이나 연회, 음악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상당수의 공연이 현지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프랑스 문화의 좀 더 현대적인 면을 알리려면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의 후원이 필요하다. 1988년 9월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전시, 1990년에 예정된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 전시, 1989년 가을 극단 바구에(BAGOUET), 아스트라칸(ASTRAKAN), 에스키스(ESQUISSE)가 참가하는 현대무용 페스티벌 등이 해당한다. 하계 뮤직아카데미와 같은 인재양성 분야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1년 전부터 예술가들의 협업 활동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작가 장 아누이(Jean Anouilh)의 “도적들의 무도회”가 자키 아젠코트(Jacky Azencott)의 연출로 한국 극단과 함께 무대에 올려졌고, 프랑스 유명작곡가 마세네(MASSENET)의 오페라 “마농”이 한국 극단과 함께 프랑스식 미장센(연출)에 프랑스 예술가들이 의상과 무대 장식을 맡아 불어로 공연되었다. 출판 활동 지원 업무도 문화부 내 “도서국(Bureau du Livre)”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한국인들은 문화 행정 분야의 프랑스식 모델에 관심이 많다. 박물관이나 콘서트장, 극장 등 매우 현대적인 시설들이 이제 막 준공되었거나 건설 중이다.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문화에 상당한 지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화 행정 분야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정보자료 발송, 프랑스 초청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73. Note Place de la langue française en Corée (한국 내 프랑스어의 위상에 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8910

페이지: 296~297

한국 내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프랑스 정부의 불어 교육 지원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임.

1) 한국 내 프랑스어 교육 현황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임)

고등학교의 경우 332개 교, 학생 40만 명, 교사 675명이 존재하고 대학에서는 15개 대학에 불어불문학과가 존재하며, 불어불문학 전임교수는 328명, 시간 강사(chargé de cours)는 210명, 일반강사(lecteur)는 62명이고, 교원들은 모두 대학별로 총원된다. 알리안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의 6개 분원에는 연간 4,500 명이 등록한다.

- 2) 1988년 7월에 데살로니가에서 열린 국제프랑스어교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professeurs de français)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 숫자는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근 10년간 불어 학습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1980년에는 3,000명의 대학생과 15만 명의 고등학생만이 불어를 배웠었다.
- 3) 다른 외국어들과의 경쟁 실태
독일어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불어보다 학생 수가 더 많고, 대학교에서는 더 적다. 일본어는 일제의 과거 강제 점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대감이 누그러지면서 확산 추세이다.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이 존재한다.
- 4) 불어 교육 지원 현황
한국에서 불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지원국(프랑스인 5명이고, 그 중 2명은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봉사 요원과 6개의 분원이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보직 4개는 예산으로 지원)가 있다. 언어지원국은 중고등학교 불어 교사 연수나 교육 기자재 지원, 프랑스 탐방 여행 기획, 프랑스 고위층 인사들의 강연회 마련, 시청각 자료 번역이나 활용 등을 담당한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수법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는 등 불어 교육 기관의 표본이 되고자 노력하며,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설립되어 있다. 한편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문화원을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맡기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서울 알리앙스 원장은 이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6.74. Bicenten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Corée (한국에서 열린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행사)

생산일자: 19891025

페이지: 298~299

한국에서 치른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행사 주요 동정에 관한 글임.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행사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프랑스에서의 시위나 파리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전시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게 프랑스 혁명이 시사하는 의미에 관한 수 많은 기사가 한국 언론지에 게재되었다.

대학에서는 다수의 강연회가 열렸고 보벨(Vovelle) 교수는 1987년부터 창립된 2백주년 기념 한국 위원회에 참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혁명에 관한 번역집 외에도 언어지원국이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주관한 여러 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대학 경내 혹은 동숭아트센터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 관련 전시회가 소개될 예정이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예술 행사들은 음악이든 무용이든 2백주년 기념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 체신부는 7월 14일에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 한국 우표를 불어판과 한국어판으로 동시에 발행했다. 이 기념우표에는 프랑스혁명을 상징하는 들라크루와(Delacroix)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과 프랑스혁명을 표현한 장 미셸 폴롱(Folon)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7. Corée du Sud Visite de Monsieur KIM Jin Hyun Ministre des Scientifiques et de la Technique (29 Mars 1991)

번역제목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 프랑스 방문 (김진현)		
상위계층명	Recherche ; Recherche et technology (1968-1996) » COREE : (19980597/6-19980597/7) » Généralités (19980597/6-19980597/7) » Sans titre (19980597/6) » Liasse 3 (Entretien avec M. RHEN SANG HI, 1989 ; M. ROH TAE WOO, 30 novembre au 2 décembre 1989 ; M. KIM JIN HYNN, le 29 mars 1991.		
철 관리번호	PZA0008006	생산기간	1985~1991
기록물 건수/매수	35건/161매	원소장처 상자번호	19980597/6

☉ 주요 내용

- ✦ 한국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의 프랑스 방문 일정 및 회담 계획에 대한 논의
- ✦ 회담을 대비하여 작성한 연구기술부의 보고서, 김진현 장관의 배경과 과거 장관급 회담에 대한 정리, 연구개발에 있어 한국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원자력, 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있어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관계에 대한 정리 및 회담에 있어 유의점들에 대한 보고, 프랑스 과학기관들의 협력에 있어 프랑스 내부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조언, 한국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
- ✦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각 분야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 ✦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대외관계에 대한 분석, 한미관계, 한일관계 및 서유럽에 대한 한국의 관심,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 증가, 한국의 외교적 목표 등에 대한 분석
- ✦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
- ✦ 정치, 경제, 무역, 대규모 산업협력, 도시교통수단, 항공, 원자력, 가스, 군수산업, 문화교류, 과학협력 등 다방면에 있어 프랑스와 한국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한 분석
-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인구 등 다양한 통계자료 및 정치적 상황, 프랑스와의 관계 및 방한, 방불 관료들에 대한 정리
-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한국 기관들과 프랑스 에너지관리청 등 기관 간의 협약 및 진행상황, 전망에 대한 보고
- ✦ 프랑스 국립농기계공학물숀연구소,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 등 다양한 프랑스 내 과학기관들과 한국과의 협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

-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 과학기술재단 간의 협력 논의 및 이행서 관련 자료
- ✦ 한국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원간의 협력에 대한 보고 및 정리, 기술이전에 있어 프랑스 내부의 비판 언급
- ✦ 한국 고속철도 사업과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등 육상교통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한 보고
- ✦ 한국에서 프랑스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실패함에 따라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고
- ✦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보호에 대한 분석 및 정리
- ✦ 1991년 3월 29일 한국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과 프랑스 위베르 퀴리앙 장관의 회담 내용, 원자력에너지와 원전 연구, 고속철도 사업, 해양 분야 기술협력,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재단 간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 수록 기록물명

- 7.1. Bordereau de transmission Note à l'attention de M.Zeller A/S Visite de M. Kim Jin Hyun (우편명세서 필립 젤러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보고서)
- 7.2. Note pour la DAI M. Chassériaux Mme Costa A.S. : Visite de M. Kim Jin Hyung,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장미셸 샤페리오 씨와 코스타씨에게 드리는 확인서)
- 7.3.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Kim Jin Hyu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Corée Paris-29 mars 1991/Note de Synthèse et d'entretien (1991년 3월 29일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 종합보고서)
- 7.4.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 7.5. Corée Composition du gouvernement de M. RO Jai Bong (대한민국 노재봉 내각)
- 7.6.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 (한국의 대외정치)
- 7.7. Situation Politique intérieure en Corée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 7.8.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관계)
- 7.9.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
- 7.10. Corée du Sud (한국)
- 7.11. Bordereau d'envoi par télécopieur (Fax transmission header note) (팩스 발송 명세서 (팩스 전송 헤더 참고))
- 7.12. Note d'actualité Objet : Préparation de la Commission mixte franco-coréenne (한불 공동위원회 준비관련 동향보고)
- 7.13. Coopération avec la Corée (한국과의 협력)
- 7.14. Télécopie Relation du CNET avec la Corée du Sud (팩스 한국과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의 관계)
- 7.15. Télécopieur MDRI (CNRS) N 47. 53. 00. 55
 Note à l'attention de Madame COSTA Délégation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팩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국제관계담당자 앞 연구기술부 국제업무 파견단 코스타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 7.16. Télécopieur MDRI (CNRS) N 47. 53. 00. 55 CNRS 260073F 289 0924 KOSEF K45527 (팩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국제관계담당자 앞 한국 과학기술재단 국제협력단장이 보낸 서신)
- 7.17. ①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hassériaux Délégué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② Implement Agreement between 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France) and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rea) o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③ Annex I ④ Financial Support for visiting scientists ⑤ Annex II (① 프랑스 연구기술부 국제파견단 대표 샤세리오씨 앞으로 보낸 팩스 서신 ②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 간 협력에 관한 합의 이행서 ③ 첨부자료 I ④ 방문과학자들을 위한 비용 지원 ⑤ 첨부자료 II)
- 7.18.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Bilan et perspectives (한불협력 종합평가 및 전망)
- 7.19. Dear M. Kang (강박사님께)
- 7.20. Dear Mr. Herrouin (헤루인 박사님께)
- 7.21.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협력)
- 7.22. Note sur la Coopération avec la Corée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보고)
- 7.23.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avec M. Kim Jin Hyun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한국 과거처 김진현 장관과의 회담에서 다룬 한불협력)
- 7.24.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한불협력)
- 7.25.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Procédé STELF (샤세리오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스텔프(STELF)공정 관련)
- 7.26. Corée. Note Transports terrestres (한국, 육상교통에 관한 보고서)
- 7.27. Bordereau d'envoi Accords de coopération bilatérale Corée-URSS dans le domaine scientifique et Technique-Janvier 1991 (우편물 명세서 한소(蘇) 과학기술 분야 양자 협력 약정서)
- 7.28. Bordereau d'envoi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de R et D en Coréen en 1991 Annex I (우편물 명세서 1991년 한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 첨부자료 I)
- 7.29. Bordereau d'envoi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n Corée Annex A Annex B (우편물 명세서 한국의 환경보호 첨부자료 A 첨부자료 B)
- 7.30. Fiche d'entretien. M.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M. Kim Sung-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8 avril 16h-17h, au bureau de Ministre (퀴리앙 장관과 김성진 장관회담 회의록, 4월 8일 16시-17시, 장관실)
- 7.31.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Kim Jin-Hyu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Corée Paris-29 mars 1991/Note de synthèse et d'entretien (1991년 3월 29일 파리에서 개최한 한국 과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의 회담 관련 종합보고서 및 회담록)
- 7.32. Note de compte-rendu. Entretien de M. Curien avec M. Kim Jin-Hyu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Vendredi 29 mars 1991. (1991년 3월 29일 파리에서 개최한 한국 과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퀴리앙 장관의 회담록)

- 7.33. Bordereau de transmission Note à l'attention de M.Zeller A/S Visite de M. Kim Jin Hyun (우편명세서 필립 젤러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일정 관련 보고서)
- 7.34. Délégation accompagnant Monsieur Kim Jin-Hyun,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수행 대표단)
- 7.35. KIM Jin Hyun—Curriculum vitae (김진현—이력서)

🗨️ 수록 건 기록물 내용

7.1. Bordereau de transmission Note à l'attention de M.Zeller A/S Visite de M. Kim Jin Hyun (우편명세서 필립 젤러 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보고서)

생산일자: 19910225
페이지: 1~3

1) 우편명세서

물품 명칭(Désignations des pièces):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 방문 일정표
물품 수량: 1건
확인: 장미셸 사세리오 (Jean Michel Chassériaux)

2) 장미셸 사세리오가 필립 젤러 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보고서

신임 대한민국 과기처 장관님에게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방문 일정표

- 3월 27일 수요일 6시 30분 스톡홀름 항공기 SK571편으로 파리 도착
- 3월 28일 목요일 9시 헬리콥터로 헤이그로 출발, 11시 도착/11시-14h 방문/16시 파리로 출발하여 18시 도착
- 3월 29일 금요일 9시 30분 프랑스 원자력청(CEA) 청장과 회담, 11시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Curien) 장관과 회담
- 3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 LH 1745편으로 프랑크푸르트로 출발
- 비서를 통해 퀴리앙 장관과의 회동 시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음. 퀴리앙 장관이 방한을 했을 때 전임 정근모 장관에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퀴리앙 장관도 신임 김진현 장관을 오찬이나 저녁 만찬에 초대할 것으로 보임.

7.2. Note pour la DAI M. Chassériaux Mme Costa A.S. : Visite de M. Kim Jin Hyung,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장미셸 사세리오 씨와 코스타 씨에게 드리는 확인서)

생산일자: 19910319
페이지: 4~4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국제업무파견단(DAI) 대표 장미셸 사세리오 씨와 코스타씨에게 연구기술부 소속 필립 젤러(Philippe Zeller)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글임.

- 3월 18일 메모를 참고하여 퀴리앙 장관님의 일정수첩에 12시 회담(*11시가 아님)과 이어서 오찬 시간을 확보

해 두었음을 확인함.

- 교통부 장관에게 10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 회담 요청을 제안할 것.
- 프랑스로립우주연구소(CNES) 소속 1명이 오찬에 초대될 예정이니 폴린(Follin) 대사도 초대하는 편이 좋을 것.
- 오찬 초대손님 명단을 긴급으로 제안해 주시고 늦어도 3월 26일 화요일 저녁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

7.3. ntretien du ministre avec M. Kim Jin Hyu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Corée Paris-29 mars 1991/Note de Synthèse et d'entretien (1991년 3월 29일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 종합보고서)

생산일자: 19910327
페이지: 5~12

1991년 3월 29일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진현 장관의 방문 배경 및 한불과학기술협력의 과거 이력, 다른 나라와의 한국의 과학기술협력상황, 한불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분야(원자력, 우주, 바이오테크놀로지, 고속철도 분야 등)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에 대해 프랑스 장관에게 보고한 글임.

노태우 대통령은 작년 11월 핵폐기물저장소 설정으로 인한 시위사건과 관련 정근모(CHUNG Kun-Mo) 과기처 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에 김진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을 임명했다. 잠시 과학기술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는 하나 김진현 장관은 연구경력이 전무하며, 아직껏 한국의 기존 연구개발(R&D)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유럽 방문은 전임 장관이 낙마하게 된 이유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파리에서 이들을 체류하게 되는데, 하루는 통째로 헤이그방문에 할애되어 있고, 다음 날은 원자력청(CEA)에서 여론 수렴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한불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 과거 이력

1989년 이후 김진현 장관은 파리를 방문한 세 번째 한국 장관이며, 이번 회담은 4번째 한불 연구기술부 장관 회담이다.

- (1) 1989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문 기간에 이상희 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이 원하는 협력 분야를 명시하는 회담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annexe 1 첨부)
- (2) 1990년 5월 서울에서, 대통령의 개각 단행으로 이상희 장관의 후임 정근모 장관과 첫 번째 회동이 마련되었고, 협력주제를 명시하는 2번째 회담록이 나왔다. (annexe 2 첨부)
- (3) 1990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AIEA)에 참석하러 빈에 가는 중에 파리에 들른 정근모 장관과의 두 번째 회담이 열렸다. (annexe 3 첨부)

연구개발(R&D)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국제협력

한국은 2000년에 국민총생산의 5%를 연구개발 비용에 할애하는 것이 목표다. 1991년 현재는 3%이기는 하지만 1988년에는 2.1%, 1989~90년에는 약 2.6%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단한 결과이다. 한국은 점점 한국에 대해 보호주의 정책이 늘어나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

1990년 가을 국교 정상화 이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양국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다. 1991년 1월 과학기술협력은 5개의 협정목록에 들어 있다.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안은 350여 항목의 산업기술 수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한蘇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소련 연구소 관련 자료가 수집된 데이터뱅크 구축, 소련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73개의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이다. 한국이 소련과의 기술협력을 원하는 분야는 항공, 천문학, 원자력 핵병합, 레이저, 전자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이다.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된 소련과의 협력 외에도 과기처(MOST)는 다른 나라들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각 국가의 발전 수준을 고려한 “선택 과 집중” 협력을 고려한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과 항공분야가 한국이 원하는 협력 분야이다. 지난번 장관 회담 이후 한불 과학기술협력은 계속 진화 중이다

1) 공동위원회

과학 관련 공동위원회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번 10월에 문화과학기술 한불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동의했다.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기관들 간의 다양한 협약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문화·과학기술 한불공동위원회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 치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들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원자력

원자력 연구와 개발 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은 매년 열리는 한불조정위원회에서 정하며 기술 발전의 주요 축으로 원전 안전문제, 폐기물 관리, 인력양성과 여론 수렴 문제를 다루는데, 김진현 장관의 이번 프랑스 방문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원전 안전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청(CEA)에서 한국인들이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경수로 안전문제에 대해 지난 8월 프랑스 원자력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간에 두 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는 한국에 900MWe 원자로를 제공했지만 한국형 국가표준형으로 채택되는데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원자로 보수유지나 원자로 설비를 관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면 연료 주기는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대규모의 협력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한불 과학기술협력의 특화 분야인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이 발전되는 것에 대해 치하하되, 산업협력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주

국가발전에서 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한 한국은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출범시켰다. 이 연구소의 주 임무는 정부에 일관성 있는 우주 관련 정책설계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안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는 2010년까지 독자적인 위성을 보유하기 위해 한국이 숙련해야 할 모든 요소들(발사체, 발사 장소 및 추적 수단, 위성 기술, 위성시험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개발 기술 외에도 무궁화 위성(KOREASAT)프로젝트와 우리별 위성(KITSAT) 프로젝트가 있다. 무궁화위성은 통신과 방송을 위한 위성으로 1991년 위성 2개와 발사 업무, 통제기지 관련 공개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1992년 제작, 1995년 발사 예정이다. 우리별 위성은 영국과 제휴하여 만드는 소형 위성으로 아리안(Ariane)로켓을 통해 1992년 발사에 예정이다.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우주 강국과 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서울에서 한불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프랑스 측 우주기술 대표단의 단장은 뷔띠(Petit)이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와 프랑스기업청(DGE,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프랑스 기업체 22곳(44명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인 장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전기통신공사(KTA), 기술연구소, 대학, 산업체(약 170명)에게 프랑스의 우주 분야에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였고 언론매체에도 회자되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대표자들과의 회담에서 뷔띠(Petit)는 과학 위성 관련 협력이 가능하며 한국 측이 우주기술에 더 친숙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는데 한국 측은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지만 우선 고려 순위는 아닌 것 같았다. 한국은 프랑스가 동의하는 기술이전이 무궁화위성을 둔 경쟁에 유리한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했고 한국 과기처의 대표단들도 재차 확인했다.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새 책임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프랑스의 제안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신 위성의 사양이 상향 수정되면 프랑스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한국 과학기술부 김진현 장관에게 우주 분야에서 한불협력에 제공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4) 바이오테크놀로지

콩피에뉴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이 정보교환과 상당수 한국인들의 인턴십 형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 인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유의사항〉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협력 분야인데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치하만 하면 될 것이다.

5) 기관들 간의 협력

(1)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1990년 5월 한국과학재단(KOSEF)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간 과학기술 교류방식을 재정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이 승인한 새로운 협약서에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공동프로젝트 및 양자 세미나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협력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세부조항도 첨부문서로 담겨 있다. 이 첨부문서는 한국과학재단이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요청에 의해 수정되었다. 새로운 협약서가 완성되었고, 곧 한국과학재단에 발송 예정이며, 최종 합의서 서명은 서신교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재단이 요청한 단순 기간연장 차원을 넘어서 새로 준비되는 협약서에 대해 칭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이 산업분야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IFREMER)

가. 한국의 국립수산진흥원(FRDA)과의 협약이 1986년에 체결되었고, 2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다. 최근 계약은 1991~1992년이다. 다년간 적조현상이나 원격탐지, 어업에 초음파 탐지기법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산업 분야의 협업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훌륭한 협업 성과의 배후에는 프랑스의 인력지원사업의 내공이 컸다.

나.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1990년 5월 쿼리앙 장관과 정근모 장관의 회담 때 한국 측이 심해탐사선 공동개발을 제안한 후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원이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방문하여 해당 탐사선 프로젝트의 실행 조건들을 구체화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이제 프랑스 측이 유관 기업체들의 자문을 받아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처는 아직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비용전담 보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의사항〉

이 사안은 프랑스 쪽에서 제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도 민감한 영역이고 최종 목표를 제어할 수 없어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안보사무총장의 결정은 아직 프랑스해양개발 연구원에 전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이 이 사안을 안건으로 삼는 경우 프랑스 연구기술 장관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이고 부품기술 노하우 전수가 진짜 문제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해양개발 연구원은 이전에 한 번도 이러한 기술전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개발 제안

고속철도 : 곧 고속철도 공개 입찰이 시행될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처가 직접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공개입찰서류 재검토에는 참여했으므로 최종 결정에 자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프랑스 테제베(TGV)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발전 가능성 및 기술 진보적인 면(2세대 현재 운행 중, 3세대 내년 출시 예정)을 부각시켜야 한다. 프랑스는 국가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TGV의 미래세대에 대한 연구계획에 참여 중이고 유럽경제공동체의 승인도 받아 놓았는데, 한국이 TGV를 선택한다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도 좋다. 1990년 9월 정근모 장관과 체결한 협약에 비추어 철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상기시키면서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은 양국의 공동연구 및 교류의 주제들을 탐색해 보는 차원에서 실무회의를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고로 김진현 장관이 프랑스의 교통부와 프랑스철도공사(SNCF), 알스톰(GEC-ALSTOM)사의 대리인들과 오찬 후 수락한 회동은 프랑스 측이 한국과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7.4.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avec la Corée du Sud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생산일자: 19910129

페이지: 13~19

한국과 프랑스는 1965년 문화협력협정을 시작으로 1981년 4월 과학기술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1988년 5월 파리에서 열린 제9회 문화과학기술 한불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과학협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프랑스는 제대로 규범화된 전략을 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한국은 산업이나 상업적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더라

도, 설령 지적재산권 보호조약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또한 한국 측이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보안상) 민감한 분야에도 석박사급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을 파견하여 기술이전을 목표로 삼는다. 1991년 과학기술협력예산은 788만 510프랑이며, 여기에 연구소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기술부처의 예산까지 합치면 총 1,100만 프랑에 이른다. 최근 몇 해 전부터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은 소수의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시켜 프랑스의 영향력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와 산업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1985년 말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이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분과가 설치되어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개발계획과 에너지 경제 분야를 담당한다.

원자력에너지

1981년에 체결된 원자력에너지의 한불 정부간 평화적 사용협약에 의해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 과학기술처(MOST)간의 협력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매년 정기모임을 갖는다. 올해 3월 파리에서 제5회 정기모임이 열렸다. 협력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9호기와 10호기 원전 건설을 하는 프랑스 기업인 프라마툼(FRAMATOME)과 알스톰(ALSTOM)에게 엔지니어 양성 요청이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 연구원(KAERI) 소속 58명이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았다. 코즈마(COGEMA)는 연료 농축 주입 계약을 수주했고, 한국은 전체 농축주입 업무 중 40%를 차지하는 2번째로 큰 수출 고객이다. 11호기와 12호기는 미국 기업에 배정되어서 실망스럽게 되었지만, 폐기물처리와 원전 사용 후 연료를 처분하는 저장소 건설에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가 향후 13호기와 14호기를 건설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은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에너지공단(KEMCO) 및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가 주관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교통과 산업 분야에 실시된 감사 결과 프랑스 쪽 전문인력이 추천한 시설 장비들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비즈니스로 창출되기에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경우, 에너지 관리 연례 세미나가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대로 열리며 니스에서 열린 제4차 세미나는 산소와 천연가스, 주거 시설에서 원격관리, 열교환기를 주제로 다룬다. 이 세미나를 기회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소피아-앙티폴리스에 유럽 사무소를 개소했다.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천연가스 정책평가를 돕는 세계은행의 사업에 동참했다.

에너지 경제

1989년 9월 서울에서 프랑스와 한국인 행정관료와 대학, 기업인 240명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처리와 오염 통제 기술을 주제로 다뤘다. 환경오염과 폐기물처리는 한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라는 점에서 한국은 프랑스기업의 잠재적인 대형 고객이다.

한불 중소기업들의 협력

1983년 11월 한불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과 외무부 산하 대외경제관계국

(DREE), 과학기술협력개발국(DCSTD)이 주관하여 6년 동안 한불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와 한국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금속가공과 기계, 전자기계, 산업용 전자공학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친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2명의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봉사요원(VSNA)이 보좌하는 전문가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파견되어 있다.

현재 681건의 서류가 검토되었는데 357건은 한국기업이고 334건은 프랑스 기업이다. 64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17건은 합작회사 설립 건이고, 한국에 프랑스 투자금 2억 8천8백만 프랑이 투입되었다. 프랑스 쪽 예산은 1984부터 1991년 사이에 1,400만 프랑이 책정되었는데 70%는 외무부 산하 대외경제관계국(DREE)과 30%는 과학기술협력개발국(DCSTD)에 배정되었다. 1988년 이후에는 산업체들이 이 조직에 직접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이 주관하는 양국 산업체 협력사업은 1990년 2월에 종료되므로 1989년 12월에 3년간 재계약을 했다. 1991년부터 프랑스 쪽은 새로운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외교부가 50%,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ACTIM)이 50%씩 부담하여 지원할 것이다.

경제와 경영

한국인 박사과정 연수와 프랑스인 전문인력의 한국 방문 형태의 교환 프로그램 덕분에 양국 경제시스템에 대해 잘 숙지하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와의 파트너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배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르노블의 경제연구기획원(IREP), 서울대학교, 한국산업연구원(KIET)에 관련되며, 1991년에 16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프랑스는 신진 연구자들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의 경제현실을 학습하게 했다.

우주항공기술

1987년 이후 프랑스항공우주산업협회(GIFAS),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프랑스고등연구펠로십연구소(FIAS)와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천문연구원(ISSA) 간에 정기적인 접촉이 이뤄졌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출범시켰으며 2000년에 소형 과학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관 간 회동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프랑스 기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기술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업체의 전면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 없다. 우주 관련해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의 계열사인 앵테스파스(Intespace)와 최근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한국 측에서 프랑스를 이 분야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

컴퓨터 정보처리

프랑스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한국의 아주대학이 협약을 체결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관한 세미나가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하여 한국 측이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제안서들은 민감한 요소들 때문에 모두 채택되지는 못했다.

수산업

수산업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대표기관인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과 한국의 국립수산진흥원

(FRDA)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수산자원의 품질 평가와 수량 조절, 해조류 양식, 수산물 채취 기술, 어류 대체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다.

해양학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신규 원장 부임과 부서 조정을 계기로 프랑스 해양연구단체들과의 교류가 좀 더 평등한 기반 위에서 방향 재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 서해안 원격탐사와 해양지질학 분야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극

1988년 과학기술처가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l'archipel des Shetlands)에 연구소를 설립한 한국은 그르노블 빙하연구 실험실(le laboratoire de glaciologie de Grenoble)과 심도 있는 협업을 희망하지만 아직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했다.

도로 진단 및 관리

프랑스는 교량 및 도로중앙연구소(LCPC)와 해외시설물중앙연구소(BCEOM)의 중개로 한국의 국토건설부에 도로 진단 장비를 판매했는데 한국의 도로 규격 유지와 조정에 프랑스적 방법론이 도입되게 될 것이다.

바이오기술

카이스트와 콩피에뉴 공과대학(l'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Compiègne)간에 메타놀에서 다당류 산출 작업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체결될 예정이다.

인문학

1987년 이후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박물관학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프랑스박물관연구소 소장이 199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박물관연구소(LRMF)는 몇 달간 연수 목적으로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초청할 것이다. 기메(Guimet) 미술관 총관장도 1990년 9월에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다국적 연구 협력

한국은 유레카(EUREKA)와 에스프리(ESPRIT)의 다국적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했지만 상호 호혜(réciprocité)의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파트는 협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률도 매우 높다. 다만 한국의 경제 및 과학 조직에 침투하는데 어떤 자원들을 투입할지 숙고해야 하며, 프랑스를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식으로 산업체들과 긴밀한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7.5. Corée Composition du gouvernement de M. RO Jai Bong (대한민국 노재봉 내각)

생산일자: 미상
페이지: 20~22

1990년 12월 27일 출범한 노재봉 내각의 각료 명단임.

순서대로 직위와 이름을 열거하면 국무총리 노재봉,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최호중 외무부 장관(*), 이상옥 외무부 장관, 안응모 내무부 장관, 김태호 내무부 장관, 정영의 재무부 장관, 이종남 법무부 장관, 이종구 국방부 장관, 윤행섭 교육부 장관, 이오영 문화부 장관,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 이봉서 상공부 장관,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 이진설 건설부 장관, 김정수 보건사회부 장관, 최병렬 노동부 장관, 임인택 교통부 장관, 송언종 체신부 장관, 이연택 총무처 장관,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허남훈 환경처 장관, 최창윤 공보처 장관, 김동영 정부 1장관, 이계순 정부 2장관, 최상엽 법제처장, 민경배 보존처장관, 서동권 국가안 전기획부장, 정진태 비상기획위원장, 이태원 서울시장,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 강영훈 내각의 장관

(RDP): DLP의 김영삼 계파

(NDRP): DLP의 김종필 계파

7.6. Politique extérieure de la Corée (한국의 대외정치)

생산일자: 19910317
페이지: 23~29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민주화의 진전은 한국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미국과는 특권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일본과는 미묘한 관계를 잘 대처해야만 하는 형세가 지배적이다. 1989년 동유럽과 소련의 변화를 활용하여 한국은 무역을 목표로 이들 나라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이면에는 20세기 말에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들 나라가 북한의 개방을 독려해 주길 바라는 목적이 있다. 소련과 수교를 한 이후 한국은 이제 중국과도 친교를 맺고 싶어 한다. 동시에 한국은 유럽 공산 국가와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 한미관계

미국은 한국의 상당 수의 엘리트들이 교육을 받은 곳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여전히 한국의 주요 파트너국이다. 정치적 접촉이 밀접하고 빈번하며 1989년 초 이후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변해 주는 미국은 1988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및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서울의 노력에 대해 만족해한다.

(1) 안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긴밀한 의존관계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 데다 향후 몇 년 후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으며 국제원자력기구(AIEA) 보장조치협정에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한국 측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는데, 작전 수행 능력 저하 없이 1993년까지 미군을 5,000명까지 감축하고 서울 외곽으로 미군 부대 이전을 하여 65만 병력을 보유한 한국군의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미간의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현재의 긴장 완화의 분위기와 향후 평화를 고려하여 정치적 군사적 행보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2) 강력한 경제적 관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첫 번째 무역파트너이고, 두 번째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다. 對한 무역적자는 1988년에 86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면서 미국은 한국시장을 개방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는데,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면서(1989년에 50억으로, 90년에는 25억으로 감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양국 간 무역분쟁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ex.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이나 통신시장 개방,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 결국 슈퍼 301조(super 301 du Trade Act)의 적용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한국은 미국 무역법(Trade Bill américain)의 여러 조항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

2) 일본과의 특권적이고 모호한 관계

한일 양국은 과거 역사적인 유산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에게 일본은 경제발전 모델이다. 양국은 1965년 수교를 맺었는데, 그 날 일본은 남한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했다. 나카소네 수상이 서울을 방문한 1983년까지 한일관계는 냉각기였지만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국관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당시 일본 천황은 한국의 불행했던 과거 시절에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감(regrets)”을 표현하는 데 그쳤다면 가 이후(KAIFU) 총리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excuses)”를 표명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히로시마 한국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궁 상태이다. 재일동포 3세의 법적 지위문제가 상세하게 다뤄졌는데 재일동포 68만 명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투쟁이자 한국이 재일동포 변호를 한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된다.

경제적으로 대일 무역에서 적자국이었던 한국은 점차 적자를 줄여주는 정책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일본의 긍정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즉 한국이 일본과 제3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핵심 부품과 공작기계가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관련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은 야심차게 연구 프로그램을 계획하지만 10년 후에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일본의 대기업들과 한국의 기업연합체 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며 한국은 일본의 첫 번째 투자국이다.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도 상당하다. 1989년에 120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다녀갔고 8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다녀갔다.

3) 동유럽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 결실과 남북한 문제

(1) 거의 30년간 한국은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만을 인정하는 나라들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1970년대부터 동유럽국가들과 약간의 경제적인 접촉이 이뤄졌지만 최근 몇 년간 동유럽국가에 생겨난 변화와 이들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로 인해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렸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Nord Politik)로 인

해 1989년 2월 헝가리에 이어 동유럽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졌고, 무역교류뿐만 아니라 방문이 늘어났다. 동유럽국가들에 한국의 투자가 늘어났고 특히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합자형태의 투자계획안이 검토 중이다.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이어 1990년 9월에 양국 수교가 이루어졌다. 소련과의 놀랄만한 관계 발전은 1991년에 중국과 관계 회복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소련과의 무역 규모보다 5배 많은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북경아시아게임 개최에 서울이 지원해 주면서 한중 양국은 무역대표부를 상호교환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1월부터 실제 교류업무를 시작했다.

- (2)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의 분리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서울은 북한의 과거 동맹국들에게 북한을 “에워싸서” 북한이 통일을 위한 대화 무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한다. 평양이 1990년에 세 차례의 총리급 회담에 이어 다양한 남북한 대화채널 재개를 수락하면서 성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데다 1991년 한미 양국 군의 틴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북한에 의해 중단되었다. 대화 재개와 점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한국은 올해부터 UN 가입 승인을 얻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 동시가입이나 단일가입 모두 남북한 분리를 고착시킨다는 핑계로 두 가지 방식 모두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한국은 평양과 동시가입을 하거나 중국이 한국의 UN 가입에 반대하지 않게 설득하기를 원한다.

4) 서유럽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가

몇 년 전부터 한국은 유럽경제공동체를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에 이어 제3의 기술 제휴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유럽경제공동체는 대한국 무역에서 점차 적자를 줄여가고는 있지만 한국의 지적재산권이나 복제품 관련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고민거리가 많으며 한국의 공격적인 시장침투 방식으로 인해 한국과 상호법적 제소를 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었다. 1983년부터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는 장관급 무역협상을 하는 것 외에도 1989년 10월 파리에 정기적인 정치협의체가 만들어졌고 1990년 3월 서울에 유럽경제공동체 상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 1989년 말 노태우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국이 유럽과의 관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을 드러낸다. 독일 산업 대규모 전시회 참석을 위해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Weizsaecker) 대통령이 곧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유럽경제공동체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5)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는 한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한국이 원자재나 에너지를 주로 수입해 오는 국가들이며,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9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첫 번째 외국 공식방문을 수행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중 가장 규모가 큰 나라로서 아세안(ASEAN)과의 경제관계를 재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보다 저임금 노동력을 가진 이들 나라에 한국투자금의 1/3이 집행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무역은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 간 무역에 필적할 만하다. 한편 한국은 1991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CESAP) 회동과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개최했고, 1993년에는 대전에서 “새로운 발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국제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평양지역에서 프랑스의 핵실험 존재 여부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고 어업 관련 협약을 하기 위해 뉴칼레도니아나 폴리네시아를 접촉 중이다.

6) 한국과 걸프만 사태 (La Crise du Golfe)

한국은 중동에 연간 5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일본처럼 석유 수입을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의존해 오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26억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인력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서울은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면서 경제적 제재에 동참했다. 2단계에 걸쳐 상당한 물류 및 의료 지원과 함께 연합군에 5억 달러를 기부했다. 한국은 이제 쿠웨이트 재건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1990년 국민총생산 2,350억 달러 규모의 세계 13번째 경제 강국이자 1989년 620억 달러 규모의 7번째 수출국인 한국은 아시아에서 비중 있는 국가이며 OECD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경제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 미국의 전략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이제 통일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변화해 가는 동유럽 사회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북한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부터 21세기 초에 7천만 명의 인구와 현재 일본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일본과 중국, 소련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잘하는 통일 국가로서의 비전을 구상 중이다.

7.7. Situation Politique intérieure en Corée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생산일자: 19910307

페이지: 30~34

한국은 아시아지역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다고는 하나 국내정치 상황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다. 1990년 초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야당의 두 대표들과 합쳐 민주자유당(DLP)을 창당했으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민자당 내부의 싸움, 야당의 스캔들과 내분으로 인한 해체는 제도개혁의 수행, 경제적 번영의 보존, 북한과의 대화 진전을 바라는 여론의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한국은 다음 총선과 대선 준비를 하며 1992년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 6공화국 초기

40년 독재체제가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개혁 의지는 여야 모두 개헌에 동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6공화국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권교체를 허용하고 국가 권력들 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검열을 폐지하고 남북문제에 직결된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자유와 권리의 영역이 확장된다. 6공화국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1988년 12월 16일 5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야당 후보들 간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36%만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28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패배했고, 3김으로 대표되는 야당들과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 여소야대 형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당이 내분으로 힘이 소진된 데 반해 노태우 대통령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갔고, 양심수를 석방하거나 전임 전두환의 측근들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등 민주적인 신념을 실천했다. 또한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얻은 국가의 자존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자산으로 축적했다. 1989년은 대규모 파업이나 학생들의 시위, 방북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의 체포, 몰래 방북한 사실이 드러난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중형 선고 등 북한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야당이 연대해서 전두환 정권의 공금횡령에 대해 법적제재를 요구하자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5공 적폐청산"을 타협했고 전직 전두환 대통령을 국회에 소환했다.

2) 한국 정치풍토의 최근 변화

4당 체제를 끊고 개헌에 필요한 의회 정족수 과반을 얻어내기 위해 야당의 소수당인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파업과 학생시위가 1989년보다 더 격렬해지면서 이를 강력하게

진입하자 1990년의 국내정치는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유권자는 여러 보궐 선거를 계기로 DJP 연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했고 87년 대선에 공적자금 유용 폭로, 총선 패배로 당 대표직 사임을 위협하던 총리와의 불화 등 김영삼 당 대표 관련 사건, 사고들이 정국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개각을 단행했는데 특히 도청사건의 주범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 후 원전 폐기 저장소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과거처 장관이 물러났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쟁 후보로 수감생활을 하고 사형선고까지 당한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3당 야합이라며 반대하고 투쟁을 선언하며 규탄하였다.

3) 다가오는 선거 준비

1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은 정부 개각을 단행했고 자신의 측근인 노재봉을 총리에 임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 사건과 부동산 투기에 청와대 측근이 개입되는 사건들로 인해 노태우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민자당의 부패세력을 교체하여 다시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지방 선거를 3월에서 6월로 미루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1991년 초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노조의 요구, 대규모 공공사업안 실행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서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지방자치제도 개혁이나 북한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각 정당은 1992년 4월~5월의 국회의원 선거,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하지만, 야당은 김대중 외에 어떤 후계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평민당을 중심으로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3당 합당의 후보자로서 나서려는 김영삼 당 대표의 야심을 제어하기 위해 계파들 간 싸움을 하고 있다.

7.8. Relations intercoréennes (남북관계)

생산일자: 19910307
페이지: 35~39

45년 전부터 돌로 나뉜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이다. 1990년 하반기에 개최된 세차례의 남북 총리회담은 평양과 서울의 화해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측에 의해 최근 중단되었지만 남북 간 접촉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독재체제에 갇혀서 북한은 자기들이 양보하게 되면 체제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1) 힘의 역학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 남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남한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스탈린 사상에 기초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평양의 고립은 남한 체제를 승인한 동유럽 사회와 소련의 변화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소련은 북한과 특권적인 협력관계를 끊었고 몇 달 후 1990년 9월 30일 남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한국전쟁에서 북한 편을 들어줬던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이어졌고 김일성은 중국지도부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 부문에서 소련을 대체할 수 없는 데다 이미 남한은 자신들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1월에 무역대표부가 상호 간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갖춰진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의 전통적인 우방들의 변절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은 서구권이 그들에 갖는 반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미군 유해 송환을 추진하거나 EU와 정치적 경제적 접촉을 시도했다. 일본은 정당 대표 간 만남을 승인했고 과거 식민지 청산과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협상을 열어놓았다. 남한은 서구권이 북한과 관계 수립 이전에 남한과 조율하기를 바란다. 북한에 대한 서구권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개방 의지, 남북대화에서 상당한 진전 여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AIEA) 보장조치협정에 서명하느냐 여부에 따라 일시유보 상태에 있다.

2) 남북 대화의 진전

오랫동안 스포츠나 인도주의 정치 분야에서 단속적이고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던 남북대화의 수준이 1990년 여름이 되면서 바뀌었다. 남한의 북방정책의 성공과 소련의 태도 변화로 인해 북한은 남북 총리회담을 수락했고 1990년에 세 차례의 회동이 있었지만, 양측은 주요 관심사만 드러낸 채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의 유엔 단독 가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상호 불가침조약 및 평화 선언, 남북한 정치·경제체제를 인정하는 연합국가 수립을 요구한다. 남한은 우선 정기적인 정치회담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고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신뢰 구축 조치들에 동의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소망은 양측 모두 간절한 데 비해 양측의 입장차이 및 완고한 태도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어떠한 양보도 불사하며 남한은 독일식 통일방식을 따르는 원칙주의 노선과 비싼 통일비용을 고려하는 실용노선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남북화해는 김일성 사망 시점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중순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평화적 통일, 내정불간섭, 점진적인 군비감축, 경제협력 등을 약속하며 남북은 화해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남측이 제안하고 북한이 승인한 불가침 선언은 결국 불신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군사적 협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남측의 주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남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본협약서”의 사전체결을 요구했다. 팀스피리트 훈련계획을 핑계로 북한은 2월 25일로 예정된 4차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하지만 한미훈련이 끝나는 3월 말에는 남북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3) 남북한의 UN 가입

북한은 1949년에 신청했지만 실패한 이후 두 체제는 한반도 분리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의 통일된 한국으로만 UN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리에 걸쳐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남한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희망한다. 남한은 UN 가입 사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북한과의 대화의 틀에서 합의를 기다리면서 1990년에 남한은 단독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북한 측에 동시 가입의 이점을 설득하는 시도를 해 본 후에 UN 가입 신청서 제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소련이나 중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남한의 UN 가입 성공률은 매우 높아졌다. 남한이 UN에 가입한다면 북한도 남한의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프랑스의 입장

남한 정부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유럽 회원국들과 함께 남북한의 화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한의 방식을 지지하며 북한이 개방의 제스처를 취하길 바란다. 고위급 정치 대화채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기쁘지만, 인권문제 해결이나 협력 분위기 조성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은 유감스럽다. 고위급 대화 중단이 가능하면 짧게 끝나길 바란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체결한 것에 대해 치하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

다. 프랑스는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과의 관계나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유엔 가입 관련하여 보편성의 원칙을 따라 남북한 모두가 UN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남한과 북한이 따로 UN에 가입하는 것이 그들의 통일에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한 동시 가입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남한이 단독으로 가입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남한을 지지할 것이다. 다만 남한의 가입 신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9.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u Sud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

생산일자: 19910307

페이지: 40~47

1989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이후 전개된 한불 양국 관계,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프랑스는 1989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으로 한불 양국관계가 더 강화되리라 생각했으나 1990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실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프랑스는 양국의 정치 대화를 늘리고 무역과 산업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1) 정치관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던 한국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제 해결에 관계된 정치적 이유로 점차 유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90년에는 동유럽에 심혈을 기울였고 단일시장완성이 가까워지자 점차 EU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EU에서의 프랑스의 위상,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지위,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 있어서 프랑스는 중요한 대화 파트너로 고려되었다.

양국 간 정치적 접촉이 강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5년 파비우스(Fabius) 총리가 서울을 다녀간 후 전두환 대통령이 1986년 프랑스를 공식 방문했고, 1989년 양국 장관들간의 방문 기회가 늘어나면서 유럽순방차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으로 정점에 달했다. 1990년 한국의 국내정치가 요동치게 되면서 양국 간 정치적 대화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 퀴리앙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고 9월에는 한국 과기처 장관이 파리를 방문했다.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도 군수산업 협의차 상호 방문했다. 1991년의 경우 장관들 간의 회동이 순조롭게 이어질 전망이다. 신임 과기처 장관이 3월 말에 전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협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것이다. 교통부 장관 및 상공부 장관의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이 한국 공식 방문을 수락하길 바라며 프랑스 대통령도 조만간 노태우 대통령의 초대에 답해 주기를 바란다.

2) 경제적인 관계

한국은 일본보다는 한참 차이가 나지만 아시아에서 프랑스의 2번째 무역국이다. 한국에서 여전히 거의 존재감이 없는 프랑스 산업은 1990년에 상당수의 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1991년 프랑스의 최대 고민은 경부선 고속철도 건설 수주이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1) 통상 산업 관계

한불 무역은 1987년에 20억 적자를, 1988년에 30억 적자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한국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조치로 적자 폭이 20억으로 줄어들었다. 對한 프랑스 수출은 23% 증가라는 점에서 호황을 누렸다. 對 프랑스 한국의 수출은 약 7% 감소했다. 한국시장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약하며 오히려 EU 회원국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한국에서 프랑스 시장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에어리퀴드(Air Liquide)사의 회장 주도로 3년간 프랑스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장려사업을 개시했다. 약 70개 프랑스 기업체가 한국에 진출했으며 대규모 은행도 진출해 있다. 최근 한국 내 프랑스의 투자가 2백만 달러 이상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외국인 투자의 2%에 지나지 않으며, 1990년에는 아무런 새로운 투자 시도가 없었다. 1984년부터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와 한국 중소기업체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인해 6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제휴를 하게 되었지만 1990년 현재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인들의 투자는 훨씬 더 제약이 많다. 대기업들이 프랑스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취약하다.

한불 사업가 모임이 1990년 말에 구성되었고 명예회장으로 전직 장관이었던 쉬드로(Sudreau) 씨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내정되었다. 15명의 사업가로 구성된 비공식 모임으로 1991년 전반기에는 공동회장들의 주선으로 모임 예정이다.

(2) 무역의 어려움

한국은 유럽시장에 들어가는 수출품에 타격을 주는 품목별(ex. 섬유와 철강제품) 수입규제 철폐를 승인받 고자 노력한다. 1990년 말에 프랑스는 GATT에 거의 대부분의 수입 할당량의 폐지를 제안했다. 수입제한을 받는 한국제품은 섬유제품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CECA)의 정책에 따르는 자동차나 전자제품들이다. 프랑스 시장은 한국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아 자동차가 요구한 수입허가를 막고 있다. 일본시장에 비해 한국시장은 주류세 부과, 사치품 소비 금지 캠페인 등 무역장벽이 있긴 하지만 개방되어 있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때 미국에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점과 한국에서 복제품 판매가 급증하는 사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3) 대규모 산업협력 프로젝트

1990년에 프랑스는 한국과의 교류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규모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려할 때 한국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국이다.

-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을 높여주길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철도청, 은행, 알스톰사(GEC-Alsthom)가 한국 측에 프랑스 테제베(TGV)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프랑스 측의 대규모 기술이전의 의지를 피력하는 등 프랑스 국영철도와 한국철도공사 간 협업 관계를 수립하고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칸센이나 독일의 이체(ICE)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 측에서 국내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몇 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도시 교통 수단

한국기업들과 제휴한 일본기업들의 진출이 우세한 영역으로 프랑스는 지하철 매표소 발권기를 납품하는 정도에 그쳤다. 마트라(Matra)사는 대구 지하철 건설에 자동제어 경량 지하철(VAL)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다른 대도시 지하철 확장건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업무 태세를 구축하려고 한다. 마트라사는 한국의 철도 관련 대기업들과 산업제휴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 항공

대한항공은 이미 49대의 에어버스를 보유한 대고객이지만 새로 등장한 항공사인 아시아나(Asiana)는 미국 보잉(Boeing)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우주항공과 위성통신 분야에서 협업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서울의 신공항 후보지 선정, 검토는 미국 경쟁자에게 밀렸고 파리공항관리공단은 향후 공항터미널 건설 계약에 도전 예정이다.

- 원자력

한국은 2030년까지 30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13호기와 14호기부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한국 자회사에게 기술이전을 할 예정이다. 프랑스 기업은 특히 폐기물처리 분야와 같은 다양한 단계의 연료주입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

- 가스

평택 LNG터미널 건설과 연구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프랑스 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진 영역이다. 평택터미널 확장사업 외에 배관망 확장사업이 예상된다.

- 군수산업

다쏘(Dassault)사의 경쟁력 있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0년에 미국의 해상초계기를 구입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에 거의 잠식되어 있지만 미사일 분야나 3세대 잠수함, 군사항공 분야에서 여전히 협력 가능성은 남아 있다.

3) 문화교류

(1) 프랑스어 보급

고등학교에서 불리는 5개 외국어 중 선택 과목이고 40만 명의 학생이 배운다. 대학에서는 2만 2천 명이 불어를 배운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한국에 7개 분원을 보유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시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불어 보급 상황은 좋지만 불어 습득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만한 과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적, 언어적 공세에 위협을 받고 있다.

(2) 문화교류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1988년 올림픽과 1989년 한불수교 2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90년에도 3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2개의 뮤지카카데미가 방한하였고 연극 영화 축제가 열렸다. 또한 조선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1990년 11월 말 서울에서 문화 후원과 정치·경제적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프랑스 정치인이자 기업인인 프랑수아 자비에 오르톨리(François-Xavier ORTOLI)와 그리스-프랑스 학자이자 비잔틴 학자인 헬렌 아베일러(Hélène AHRWEILER)의 섹션에 한불 양국의 주요 인사 40명이 참석했다. 바스티유 오페라 단장인 정명훈 씨 외에도 프랑스에 매력을 느낀 화가나 조각가, 신진 예술가들이 파리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파리는 한국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3) 서울의 프랑스문화원 이전

문화원 건물 매입 허가를 받지 못한 프랑스 행정부는 1992년에 새로운 장소로 문화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문화원 이전은 서울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 열기를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4) 과학협력

기술이전이 최우선 관심사인 한국은 연구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2월에 시작한 7개년 계획에서 연구 분야에 569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 중 1/3은 공적자금이다. 프랑스는 산업이나 무역 측면의 이해관

계에 초점을 두고 특정 부문 소수의 협력사업에 집중했다. 주요 협력사업 부문은 핵에너지, 에너지 관리와 절약, 경제와 경영, 해양 영역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심은 항공이나 우주, 컴퓨터, 전자와 같이 매우 민감한 기술 쪽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 연구기술부 장관회담에서 프랑스는 방금 언급된 부문에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할 의지가 있으며 만일 한국이 테제베 고속열차를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초고속 열차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술이전을 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지난 12월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 간에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연구원들의 교류가 늘어날 것이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프랑스 국립해양개발 연구원과 한국 유관 연구소들 간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991년에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프랑스 국가-산업 사절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공립 및 사설 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7.10. Corée du Sud (한국)

생산일자: 199101

페이지: 48~49

한국 관련 여러 가지 동향 정보를 보고함.

I. 지리와 인구 자료

- 면적: 98,500km²
- 인구: 4천2백만
- 인구밀도: 420hab/km²
- 인구증가율: 연간 1.5%
- 도시화율: 65%
- 문해력: 92%
- 경제활동인구: 1,860만
- 경제활동인구 직업별 분포: 농업 22%, 공업 28%, 서비스업 50%

II. 경제 자료

- 국민 총소득(1989): 138조 원(약 2천100억 달러)
- 1인당 국민소득(1990년 추산): 5천5백 달러
- 성장률: 1988년 12%, 1989년 6.7%, 1990년 9%, 1991년(예측) 7%
- 물가상승률: 1988년 6%, 1989년 5.2%, 1990년 9%, 1991년(예측) 9%
- 실업률: 1988년 2.5%, 1989년 2%, 1990년 2.2%, 1991년(예측) 2%
- 화폐: 100원=0.70프랑, 1달러=715원
- 총 외채: 294억 달러
- 대외채무(1989): 266억 달러
- 외환보유고(1990년 7월): 156억 달러
- 국가 예산(1990): 22조 7천억 원

- 무역 :

수입 : 1988년 520억 달러, 1989년 610억 달러, 1990년(11개월) 634억 달러

수출 : 1988년 610억 달러, 1989년 620억 달러, 1990년(11개월) 579억 달러

커버리지비율 : 1988년 117%, 1989년 102%, 1990년(11개월) 91%

수출입 동향 : 50억 달러 적자(1989), 1990년 20억 달러 적자 예상

주요 수출 부문 : 공산품, 전자, 섬유, 신발

주요 수입 부문 : 공산품, 석유제품, 원자재, 화학제품, 농산물, 축산물

주요 수출국 : 미국(33%), 일본(21%), 홍콩 (6%), 독일연방공화국(4%)

주요 수입국 : 일본(28%), 미국(25%), 독일연방공화국(4%), 호주(3.5%)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 일본(51%), 미국(27%), 홍콩(3%)

III. 정치 자료

- 대통령제

- 국가원수 : 노태우(88년 2월 25일 취임)

- 국무총리 : 노재봉(90년 12월 27일 취임)

- 외무부 : 이상옥(90년 12월 27일 취임)

- 국회(단원제) : 지난 선거일 1988년 4월 26일, 4년 임기

민주정의당(여당) : 127석

통일민주당(김영삼) : 60석

신민주 공화당(김종필) : 34석

평화민주당 (김대중) : 71석

기타 : 7석

총 : 299석

(*) 90년 2월에 민주자유당으로 통합

IV. 프랑스와의 관계

- 수입 : 1988년 86억 프랑, 1989년 79억 프랑, 1990년(추산) 74억 프랑

- 수출 : 1988년 55억 프랑, 1989년 59억 프랑, 1990년(추산) 72억 프랑

- 커버리지비율 : 1988년 64%, 1989년 74.7%, 1990년(11개월) 97%

- 한국 수입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율 : 2%

- 1989년에 프랑스는 10번째 수출국이자 12번째 수입국임.

- 대한 투자 : 1989년 말 2억 달러, 전체 외국인 투자의 2%

- 주요 정치적 방문

1986년 : 전두환 대통령 프랑스 공식 방문

1987년 :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프랑스 방문

1988년 : 자크 부와이옹(Jacques BOYON) 국방장관 방한, 로제 밤빅(Roger BAMBUCK) 청소년체육부 장관 방한, 티에리 드 보세(Thierry De BEAUCE) 프랑스 외무부 국제문화관계 불어권 담당 국무장관 방한, 에두이그 아비스(Edwig AVICE) 프랑스 외무부 아주지역 담당장관 방한

1989년 : 장 피에르 쉬벤느망(Jean-Pierre CHEVENEMENT)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자크 세렉(Jacque Chereque) 프랑스 국토개발담당장관 방한, 올리비에 스티른(Olivier Stirn) 프랑스 관광장관 방한, 장마리 라우쉬(Jean-Marie Rausch) 프랑스 대외연구장관 방한, 대한민국 외무부, 체신부, 교통부 장관 프랑스 방문,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1989년 11월 29일~12월 2일)

1990년 : 위베르 퀴리앙(Hubert CURIEN)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 방한, 제라르 레농(Gérard RENON) 프랑스 국방담당 국무장관 방한, 에디트 크레송(Edith CRESSON) 프랑스 유럽담당장관 방한, 대한민국 국방부 이상훈 장관 파리 방문 (7월)

7.11. Bordereau d'envoi par télécopieur (Fax transmission header note) (팩스 발송 명세서 (팩스 전송 헤더 참고))

생산일자: 19910311
페이지: 50~51

팩스 내용 : 한국과의 협력 관련하여 산업부에 발송한 1990년 9월 21일 자 현황 파악 보고자료 이후 추가 정보는 없음. 자료의 복사본은 여기 첨부함.

7.12. Note d'actualité Objet : Préparation de la Commission mixte franco-coréenne (한불 공동위원회 준비관련 동향보고)

생산일자: 19900921
페이지: 52~54

1990년 9월 21일 프랑스에너지관리청 국제행동과 담당자 레비(D. LEVY)가 한불공동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한불 에너지관련 기관협력 상황에 대해 보고한 자료임.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의 한국 협력기관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와 한국에너지공단(KEMCO)이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에너지 담당관 보직을 신설했다.

1)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협약

주로 한국과 프랑스에서 번갈아 가며 산업, 주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장 최근 세미나는 1989년 11월 27일과 28일에 니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동력자원연구는 새로운 현지 부원을 설립하기로 했고 프랑스 에너지관리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무실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열교환기 연구와 석탄의 효율적인 활용, 태양열 에너지 기술이전 등이 논의되었다.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데 프랑스 시스템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어서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 건물 원격관리, 전기수요 관리 등도 논의되었는데 원자재 분야에서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의 산업자원실(Service Industrie et Matières Premières)의 심사결과 프랑스 원자력청(CEA)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간 플라즈마 코팅기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세미나는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이 유럽경제공동체의 비유지원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동력자원부 담당자들과 함께 브뤼셀에 출장을 갈 예정이다.

2) 프랑스에너지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주로 에너지 감사를 담당한다. 외무부와 프랑스에너지관리청이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운송회사(ex. 동방교통(DONG BANG)과 광주고속과 공장(ex. 삼성전자와 삼성코닝 구미공장)에 대해 3건의 감사를 1989년에 시행했다. 감사가 끝나면 시범 운영소, 인력양성 센터와 오일 분석 연구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기술 지원의 형태로 이들 사업에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 대상 기업들이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가능하다. 1990년 6월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입단장이 최근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난방망이 미래의 협업 가능성으로 환기된 바 있다. 몽트네(Montenay)기업을 시찰한 바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7.13. Coopération avec la Corée (한국과의 협력)

생산일자: 19910306

페이지: 55~55

한국과의 협력 관련하여 1991년 2월 25일 자 보고서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자인 가델은 연구기술부 국제파견단장에게 프랑스 국립농기계공학물숀연구소(CEMAGREF)는 현재 한국이 이 연구소의 주요 관심국가가 아니어서 한국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음.

7.14. Télécopie Relation du CNET avec la Corée du Sud (팩스 한국과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의 관계)

생산일자: 19910311

페이지: 56~57

- 1) 팩스: 1991년 2월 25일 자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과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CNET)간 협력 사안에 대한 서신을 첨부한다는 내용임.
- 2) 수기 서신: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와 제휴하고 있는 한국 연구소에 대해 설명함. 1987년 10월에 한불 통신부처 간 협약을 맺었고, 1989년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과 현재 한국통신이 된 한국전기통신공사(KTA) 간에 협정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협정서는 아직 발효 전이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주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고급 기술 전문가들이 압력을 행사하면 될 것 같다(*비고 참고).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와 접촉한 한국 기관들은 1989년 한국전기통신공사, 199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며,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립정보통신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7.15. Télécopieur MDRI (CNRS) N 47. 53. 00. 55

Note à l'attention de Madame COSTA Délégation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팩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국제관계담당자 앞 연구 기술부 국제업무파견단 코스타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생산일자: 19910325

페이지: 58~60

- 1) 팩스 발송 증명서: 수신인, 발신자, 팩스번호, 문서종류(한국에 관한 보고서) 등이 명시되어 있음.
- 2) 연구기술부 국제업무파견단 코스타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 (1)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KOSEF)은 1990년 5월에 과학기술협력 방식을 재정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협정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 공동프로젝트 실행 및 양자 세미나 개최에 관한 것으로 양쪽에 상호 교환된 후 채택되었다. 해당 협약서는 첨부자료로 되어 있으며 협력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세조항이 들어있다. 첨부된 협약서의 초안은 한국과학기술재단이 작성했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가 제기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수정되었다. 새로운 협약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2주 내에 한국 과학기술재단에 발송 예정이다. 협약서 서명은 서신교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2) 협력의 진행 절차: 한국인 3명이 프랑스에 단기 체류하면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공동프로젝트 주제, 특히 물과 멤브레인 필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울티마텍(ULTIMATECH) 분과 로누와(H. LAUNOIS) 박사는 1990년 12월 한국에 출장을 다녀간 적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같은 연구소들을 방문했다.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연구원들은 프랑스와 매우 협력하고 싶어 하며, 하루속히 일본의 첨단기술 수준에 이르고자 한다. 과학 전공자에게 불어를 많이 배우게 하고 한국인 장학금 혜택을 늘려주면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 협력이 보다 단단해지고 장기간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7.16. Télécopieur MDRI (CNRS) N 47. 53. 00. 55 CNRS 260073F 289 0924 KOSEF K45527 (팩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국제관계 담당자 앞 한국 과학기술재단 국제협력단장이 보낸 서신)

생산일자: 19901025

페이지: 61~62

- 1) 팩스 전문: 코스타 씨의 요청대로 한국과학기술재단(KOSEF)이 프랑스 과학기술연구소가 지난 9월에 보낸 협약서에 동의한 텔렉스 서신의 복사본을 보낸다고 함.
- 2) 텔렉스로 보낸 서신의 복사본
 - 수신자: 국제관계국장 스틱익 타이안디에(J.F. STUYCK-TAILLANDIER)
 - 발신자: 한국과학기술재단 국제협력실장 정병욱

한국과학기술재단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간에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며,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공동위원회 준비모임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과학기술재단은 다가오는 12월에 한국에서 열릴 과학 기술협약에 관한 합의 이행서에서 서명을 하고자 함. 가능한 빨리 한국 방문 날짜와 방문단의 명단을 보낼 것을 요청함. 정근모 과기처 장관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기회에 두 기관 간 협력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한 감사 및 과학기술 정책평가, 한국 측의 연구 프로젝트 선정 절차 관련 적절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함.

7.17. ① Note à l'attention de Monsieur Chassériaux Délégué aux affaires internationales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② Implement Agreement between 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France) and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rea) o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③ Annex I ④ Financial Support for visiting scientists ⑤ Annex II (① 프랑스 연구기술부 국제파견단 대표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팩스 서신 ②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 간 협력에 관한 합의 이행서 ③ 첨부자료 I ④ 방문과학자들을 위한 비용 지원 ⑤ 첨부자료 II)

생산일자: 19901126

페이지: 63~75

- ① 프랑스 연구기술부 국제파견단 샤세리오(Chassériaux) 씨 앞으로 보낸 서신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 간 협력에 관한 합의 이행서를 첨부한다고 알리며, 이 합의 이행서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기초공학과 과장인 샤르팡티에(J.C. Charpentier) 씨가 12월에 서울에서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②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재단 간 협력에 관한 합의 이행서로 양 기관 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목표, 절차, 진행 기간, 진행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
- ③ 첨부자료 I : 과학기술협력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 및 협력 진행 방법에 대해 서술되어 있음.
- ④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가 방문과학자들을 위한 비용 지원 방식에 대해 세부 항목별 지원 금액이 기술되어 있음.
 - 숙박, 식사, 통근 및 부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생활비 항목, 21일까지는 일당 450프랑,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방문 시 1개월에 8천 프랑
 - 연구를 위해 수행한 여행지원금, 2천 프랑까지 지원함.
 - 의료비와 사고 비용은 보험 처리됨.
- ⑤ 첨부자료 II : 협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밀정보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 방식에 대해 서술함.

7.18.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Bilan et perspectives (한불협력 종합평가 및 전망)

생산일자: 19910314

페이지: 76~77

해양 관련 한불 협력사업에 대해 설명한 글임.

1) 한국의 국립수산진흥원(FRDA)과의 협력

1985년에 체결된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과 한국의 국립수산진흥원(FRDA) 간의 협정은 2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다년간 주로 장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국한되던 협력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거점 분야를 정하여 “진정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년간에 걸쳐 적조현상이나 원격탐지, 어업에 초음파 탐지기법 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사례이다. 이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국립해

양개발연구원은 프랑스 기업체와 제휴하여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장비들을 판매하려는 생각도 있다. 한국은 어업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다. 다년간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립수산진흥원(FRDA)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중단기적으로 한불 공동 관심사를 담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의 협력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의 방한에 이어 심해탐사선 개발을 공동프로젝트 주제로 암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IFREMER)는 1990년 10월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방문했다.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은 심해탐사선 프로젝트의 실행 조건들을 구체화했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략 2천5백만 프랑에 달하는 연구 및 장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은 프랑스 기업체의 자문을 받아 탐사선의 운영체계를 설계하고 현재 건조 중인 한국의 배에 탑재한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프랑스기업체들은 관련 장비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고,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은 무인 수중 해저탐사관련 경험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따라서 다가오는 3월 29일에 프랑스를 방문하는 김진현 장관과 퀴리앙 장관의 회동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아직 한국 과기처 장관은 한국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비용전담 보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도 민감한 영역이고 최종 목표를 문제 삼아서 프랑스해양개발연구원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미 ECA그룹을 통해 시판되고 있는 기술이므로 비판은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한 상태이다.

7.19. Dear M. Kang (강박사님께)

생산일자: 19901120

페이지: 78~78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원 소속 이브 에녹이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국 박사에게 보낸 서신으로, 먼저 지난번 한국해양연구원에서의 미팅을 통해 좀 더 두 기관의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과학 및 산업을 위한 수중기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프랑스 툴롱(Toulon)에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연구원 1명과 과기처 소속 직원 1명이 참가해서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협업 주제를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함.

7.20. Dear Mr. Herrouin (헤루인 박사님께)

생산일자: 19901120

페이지: 79~79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국 박사가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 헤루인 박사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큰 심해자원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ISM'90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정부 공식 초청 자격을 얻으려면 필요한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초대장의 대상자는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1명과 과기처 직원 1명이고, 이름은 명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초대장을 자신에게 팩스로 보내주길 부탁함.

7.21.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한불협력)

생산일자: 19901120
페이지: 80~80

해외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앙리 푸퐁이 프랑스연구기술부 국제업무파견단 대표 샤세리오 씨에게 보낸 서신으로, 현재 해외과학기술연구소는 한국과 어떠한 공식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음.

7.22. Note sur la Coopération avec la Corée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보고)

생산일자: 19911037
페이지: 81~82

현재까지 로봇 생산 도메인에서 한국과 어떠한 협력도 한 적이 없으며 당장에 고려 중인 계획도 없음을 알린다.

7.23.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avec M. Kim Jin Hyun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의 회담에서 다룬 한불협력)

생산일자: 19910311
페이지: 83~83

연구기술부 생산공정엔지니어링학과의 교통 부문은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에서 TGV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 알려진 프랑스 측의 최근 전언을 첨부함.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알스톰(ALSTHOM)사와 연락을 해 보니, 연구기술부 쿼리양장관에게 프랑스국영철도는 한불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차 관련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전문가 팀을 보낼 준비가 늘 되어 있음을 먼저 환기시키는 것이 좋을 듯함. 한국 장관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보니 알스톰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함.

7.24.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Coopération franco-coréenne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한불협력)

생산일자: 19910311
페이지: 84~84

연구기술부 소속 뒤누와이에 드 스킵작이 샤세리오 씨에게 보낸 서신임.

김진현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2월 25일 자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기관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2가지 사항을 지적하자면 첫째, 가능한 협력주제로 연안 해양학과 대기오염 문제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둘째, 프랑스 기업들인 프라마툼(Framatome)과 아에로스파시알(Aérospatiale)이 참여하고 있는 지에텔라스(GIE-TELAS)가 최근에 한국 천문연구원(ISSA)에 천문망원경을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이 계약은 1990년 4월에 나온 국제 공개입찰로 나

온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5개 업체가 경쟁을 했다. 이 망원경은 1992년 초에 설치될 것이며, 설치는 프랑스와 벨기에 연구소와 기업체가 맡을 것이다.

7.25. Note à l'attention de M. Chassériaux. Procédé STELF (샤세리오 씨 앞으로 보낸 보고서, 스텔프(STELF)공정 관련)

생산일자: 19910311
 페이지: 85~85

연구기술부 장관과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주제로 오찬 모임을 가진 뒤 사라진(Sarrazin) 씨가 퀴리엥(Curien) 장관에게 삼성(Samsung)과 스텔프(STELF) 공법의 라이선스 이전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연락이 옴. 스텔프공법은 암모니아를 매체로 화학열펌프를 의미함. 이 공법은 원래 프랑스의 페르피냥(Perpignan) 국립과학연구소의 재료공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는 프랑스 파이벨리(Faiveley)사와 냉동 배송, 독일 도르니에(Dornier)사와 태양열을 이용한 “녹색”냉장, 키리(Kiri)사와 냉장산업, 소프리감(Sofrigam)사와 함께 관광업이나 백신 운송에 쓰이는 리필가능 휴대용얼음, 발레오(Valeo)사 및 지멘스(Siemens)사와 자동차 에어컨, 현재 검토중인 유레카(Eureka) 프로젝트가 있음. 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의 동력자원연구소(KIER)의 역할이 컸음.

7.26. Corée. Note Transports terrestres (한국. 육상교통에 관한 보고서)

생산일자: 19910325
 페이지: 86~95

對 한국 프랑스 기업체들이 연관되어 있는 육상교통 관련 사업 전반의 현황에 관한 글임.

최근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과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다수의 사업안들이 검토 중이며, 1990년에 프랑스 기업체들은 3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셋 중의 둘은 다른 업체들에게 넘겨졌다. 서울의 신공항은 파리공항관리공단(Aéroport de Paris)을 제치고 미국업체 벡텔(Bechtel)이 맡게 되었고, 대구 지하철사업은 마트라(Matra)사를 누르고 현대(Hyundai)가 차지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모든 희망은 경부선 고속철도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1)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

사전조사에 따르면 2000년까지 하루 승객 18만 명의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경부선은 프랑스 테제베 고속열차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는 4시간~10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2시간 이내로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였다. 당선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1998년에는 고속철도를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투자금은 총 500억 프랑으로 추산되며, 비용 조달은 한국 정부가 70%, 외국에서 빌린 차관이 30%가 될 것이다.

(1)사업 현황

1982년 루이베르제(Louis Berger)社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긴 후 1987년 대선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원래 1990년 봄에 공개입찰을 예정했으나 정치, 사회, 경제적 반대에 밀려 계속 미뤄졌다. 교통부장관이 교체되었고 사업설계 및 관리 TF팀 단장에 최근 김종수 씨가 임명되고 있는 상황들로 미루어 공개입찰은 3월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2) 관련 시스템

한국인들은 자기부상열차에 열광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부선 고속철도는 비용이 덜 비싸고 이미 운행 경험이 있는 열차가 선정될 것 같다. 주요 경쟁 후보는 프랑스의 테제베(TGV)와 일본의 신칸센(Shinkansen), 독일의 이체(ICE)이며 업체들 간에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선정이 힘들 수 있다. 한국형 고속철도는 현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업체들이 일부 제작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전 능력과 이미 영국이나 벨기에, 스페인에서 선택받은 업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프랑스 테제베를 선택한다면 최신 기술의 수혜를 누리게 되고 차세대 TGV의 발전에 동참해서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프랑스의 주요 활동

고속열차 사업선정은 기술이나 상업적인 것을 넘어서서 특히 비용문제와 정치적인 면이 개입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내내 다수의 프랑스 장관들이 방한했고, 1990년 5월에 퀴리앙(Curien) 장관과 9월에 크레송(Cresson) 장관이 방한했다. 10월에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교통 분야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한국 측의 프랑스 방문도 이어졌다. 1989년에 한국 교통부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고 1990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상당수의 각료들을 동반하여 프랑스를 방문함으로써 독일수준의 철도협력을 구현할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1991년에는 루이 베송(Louis Besson) 국토건설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셸 로카르(M. Rocard) 총리가 5월에 방한할 예정인데, 1991년 하반기가 경부고속철도 사업 선정에 중요한 시기라면 다른 장관들의 방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진현 신임 과기처 장관이 3월 말에 원전 문제로 파리를 잠시 경유해서 다녀갈 예정이니 이동 수단으로 테제베(TGV)를 타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테제베 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베송 국토부 장관이 초청하면 신임 임인택 교통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수락할 것이다. 일본에 비하면 프랑스의 외교적 로비 활동은 현재까지 매우 조심스러운 편이다. 독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아무런 기척이 없다가 2월 28일 독일 산업 전시회에 대통령이 협력부 장관, 기술부 장관 및 사업가들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언론홍보 효과를 노렸다.

기술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1989년 2월 이후 프랑스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고속철도사업 진행 담당관을 파견했다. 고속열차에 관한 심포지엄이 1989년 10월에서 열렸는데, 프랑스 전문가들이 경쟁업체에 비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후에도 한국교통공사(KOTI)와 한국철도공사(KNR)의 질문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출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속철도 관련 모든 프랑스 유관 기업들(GEC ALSTHOM, CSEE, COGIFER, FAIVELEY)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의 철도산업 기업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한국형 고속열차사업은 이제 국가사업이 되었다.

(4) 다른 철도 사업

한국철도공사의 미래 청사진에는 전철화나 복선 철도 등 다양한 철도사업들이 담겨 있으며 서울과 신공항을 잇는 노선에도 고속화 사업을 검토 중이다. 북동해안 프로젝트는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2) 도시의 대중교통수단

도시 성장과 과도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대도시들에 대중교통수단 예산을 2000년까지 천억 프랑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1) 서울지하철

5호선

1990년 7월 서울시는 직접 설계와 시공을 지휘하며 5호선 철도를 착공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까지 연결되는 기존 지하철들과 연계한 교외노선 철도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20억 달러로 비용이 추산되는 이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틀 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의 5억 달러 차관을 받아 진행되었다. 프랑스 소푸르투(Sofretu)社は 예비조사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프랑스에 산업적 낙수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일본은 차관을 제공한 대가로 상당 부분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짐작되며, 다만 GEC-ALSTOM社は 이미 3호선이나 4호선에도 납품한 경험으로 미루어 열차의 바퀴나 전자기계 부문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구간도 현재 연구 검토 중인데 외국업체의 공식 참여는 예고되지 않았다. 프랑스 소푸르투社は 신호감지와 통신 분야의 조사에 일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교통공단(RATP)은 1990년 봄에 서울 지하철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교류와 정보 교류, 유상 기술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소푸르투社도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 과정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2) 부산지하철

현재 부산은 1호선만 있으며 일본 라이선스를 받은 현대(Hyundai)기업의 전동차가 운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5개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며, 최근 2호선과 1호선 확장공사가 시작되었다.

(3) 대구지하철

1986년부터 마트라(Matra)社가 관심을 보인 대구 지하철 사업은 한국의 현지업체인 현대(Hyundai)에 맡겨졌다. 제휴업체로 삼성(Samsung)을 선택한 것도 마트라사에 별로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철도 사업을 공략하려면 전략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트라사는 비록 대구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공신력을 얻고 있으므로 차기 시장을 욕심내 볼 만하다.

3) 프랑스 기업체들의 활동

프랑스 산업진흥발전협회(APRODI)의 주선으로 한국에서 프랑스 중소기업체들의 활약이 늘고 있다. 육상교통 분야에서 제이스마르(Geismar)社は 오랫동안 철도시설 장비를 납품해 오고 있으며, RVI社は 중동의 한국 작업 현장에 프리미엄 차량을 공급함으로써 동아 컨소시엄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진행한다. 1990년에 23대를 계약했다.

고속철도사업은 프랑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특별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대사관은 여러 부처 장관들의 한국 방문의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프랑스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7.27. Bordereau d'envoi Accords de coopération bilatérale Corée-URSS dans le domaine scientifique et Technique-Janvier 1991 (우편물 명세서 한蘇 과학기술분야 양자 협력 약정서)

생산일자: 19910130

페이지: 96~100

1) 우편물 명세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 상무관인 제롬 파스키에(Jérôme Pasquier)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우편물 명세서로, 한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보고서(작성자: 과학보좌관 사무엘 윤(Samul YOON))를 발송한다는 내용임. (1991년 2월 12일에 수령했다는 직인이 있음)

2) 한蘇 과학기술분야 양자 협력 약정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문화과 작성)

1990년 말에 한국과 소련 간에 여러 시기에 걸쳐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친교가 이루어졌다. 1990년 9월에는 한국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12월 13일~16일에는 노태우-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경제과학 양자 회담의 초석이 만들어졌다.

1991년 1월 17일~18일에는 서울에서 2차 한소회담이 열렸고 5개 분야에 대한 합의를 했다. (한국의 재정지원, 양국의 무역교류 촉진, 소련의 천연자원 공동개발 프로젝트, 어업협력, 과학기술분야 협력) 소련과의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일반적으로 보안을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항공, 우주, 핵융합, 레이저, 전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첨단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 1월 17일과 18일에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350가지의 소련 산업기술 수입이 결정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한蘇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소련의 선진기술을 활용하는 73개의 과학기술프로젝트가 공동으로 진행될 것이며, 소련의 연구소들과 기술력에 관한 자료은행이 설치될 것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한국 대기업들이 소련의 연구기관들과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1990년 11월 대우(Daewoo)와 이오프(Ioff) 응용물리학 연구소 간에 합작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소련의 원자력부와의 협력이 체결될 것이다. 1991년 1월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기술 구매를 위해 소련의 2개 연구소와 계약을 할 예정이고, 1991년 1월 대우는 소련 과학기술국가위원회와 첨단기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5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을 포함하여 소련과 한국 간의 실무회의들이 1991년에 예정되어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협력 요소들이 이 회의들의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7.28. Bordereau d'envoi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de R et D en Coréen en 1991 Annex I (우편물 명세서 1991년 한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 첨부자료 I)

생산일자: 19910130

페이지: 101~109

1) 우편물 명세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 상무관인 제롬 파스키에(Jérôme Pasquier)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우편물 명세서로, 1991년 한국의 연구개발(R&D)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내용

2) 1991년 한국의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과학기술협력 상무관 제롬 파스키에(Jérôme Pasquier) 작성)

매해 이 시기에 그랬듯이 최근에 과학기술처는 1991년 대규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11월에 임명된 김진현 장관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현재 경제 수준에 맞춰 고급 기술 분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1)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1990년의 경제 상황과 현재의 전망으로 보면 전환에 힘이 실린다. 수출 정체와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적자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을 드러낸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상당수 분야에서도 더 이상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저임금 노동력을 지닌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한편 한국은 점점 더 한국의 경쟁력을 두려워하는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거의 모든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2) 이러한 상황은 왜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이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최근 소련과의 관계발전의 틀 내에서 한국은 소련에게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소련은 해당 기술이 상업화되어도 한국을 경쟁자로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1990년 말부터 이미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한蘇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능한 협력사업 리스트들이 준비되었고, 한국의 재벌기업들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립은 1991년 한국 과거처의 과학협력의 주요활동 사업이 될 예정이다.

(3) 한국 당국은 소련과의 협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선진국들과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스스로가, 즉 국책 연구소나 대학, 사기업 부설 연구소들이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1988년에 한국에는 2천8백 21곳의 연구소가 있었는데 전체 연구개발에 책정된 비용은 국민총소득의 약 2.1%에 해당하는 38억 7천 달러였다. 대덕연구단지 시찰 때 대통령은 2000년까지 국민소득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1991년 발표 수치는 국민총소득의 3%인데 이 수치도 이례적인 수치다.

(4) 부문별로 우선순위가 있지만 산업 생산성 개선이 주요 목표이다. 특히 중소기업 분야와 선박 건조에 이용될 정보기술, 인공지능보다는 좀 더 기반기술에 관한 관심이 선두권을 차지하며,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 안전 분야는 현재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거리이자 한불협력의 최우선 관심 분야이다. 신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기계공정, 우주항공, 주거, 교통과 환경 분야도 관심 연구 분야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로서 언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VCR 부품 연구, 방위산업이나 항공에 사용되는 새로운 알루미늄 기반 합금 개발, 16메가 D램이나 64메가 D램 칩 연구, 중장비 건설, 기업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고수익 무공해 농약화학제품 개발, 정밀화학 분야 연구, 고성능 가스터빈 개발, 태평양의 해저자원 연구와 남극 관련 프로젝트 수행, 중급 항공기 설계와 위성 발사체 연구 등이다. 여기 언급된 사업들은 다양한 연구소들의 계획안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전직 언론인 출신인 장관이 급히 내정된 탓에 진짜 필요한 사업선정 업무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1991년은 국민총생산의 3%가 연구개발 예산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2000년에 5% 목표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긴 하다.

3) 첨부자료 I (제목 : 1991년 한국의 연구개발 정책방향 : 국제협력노선)

* 생산자 주석 : 이 보고서는 한국 언론에 발표된 과거처의 기사를 요약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담화문을 반영하고 있다.

1991년 과학기술처는 언론에서 홍보된 소련과의 협력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1)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에 필요한 선진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상호협력을 꾀한다.

가. 미국과는 현지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무역수지를 재조정하기 위해 과학 기자재 구입 및 기술인력 양성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나. 일본과는 “수직” 협력에서 “수평” 협력으로 전환한다. 기초과학연구나 신소재, 우주항공 분야에 주력한다.

다. 유럽국가들과는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나라들과 특정 분야의 협업을 시도한다. 영국과는 정보 기술 분야, 프랑스와는 원자력 및 항공 분야, 독일과는 로봇과 자동화, 스웨덴과는 정밀 기계 분야의 협업을 한다.

라. 유럽공동체와는 RACE와 ESPRIT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력한다.

(2) 유엔기구들과의 협력은 한국인 전문인력들을 파견하거나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의 틀 내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직업교육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3) 개발도상국들과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협력 정신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기술지원을 늘리고 기술개발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4) 옛 공산권 국가들과는 1989년 헝가리의 경우처럼 관련 나라들이나 연구소들과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중국이나 소련과는 한국 정부가 우주와 해양 분야에서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7.29. Bordereau d'envoi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n Corée Annex A Annex B (우편물 명세서 한국의 환경보호 첨부자료 A 첨부자료 B)

생산일자: 19910130

페이지: 110~140

1) 우편물 명세서 (관리번호 76번)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 상무관인 제롬 파스키에(Jérôme Pasquier)가 1991년 3월 5일 자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우편물 명세서로, “한국의 환경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내용

2) 한국의 환경보호

경제확장담당 무역보좌관 크리스토프 레기옹(Christophe Legillon), 과학기술협력문화과 업무담당자 사무엘 윤(Samuel Youn) 작성 (작성 연월: 1991년 2월)

(1) 연혁

한국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환경 및 공해 문제가 대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는 신속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 앞에서 당시에는 사소한 문제로 여겨졌던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80년대에 한국 정부는 마침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문제를 관리할 행정기관을 설립, 건설부 산하에 환경청을 두었다. 1990년 1월 1일 환경정책에 좀 더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해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켰다. 환경처 장관의 첫 번째 업무는 현실 상황에 좀 더 적합한 국가 정책 법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법은 좀 더 명시적인 세칙들이 수반된다.

(2) 환경처 조직도

- 환경처에는 환경정책 계획조정국 외에 4개의 전문 부서가 있다.
- 대기질보전국에는 소음 및 진동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다.
- 수질보전국은 가정용 산업용 폐수의 정화와 연안 보호를 모두 묶어서 다룬다.
- 고품폐기물관리국은 도시와 산업용 쓰레기를 관리하며 독성물질과 토양 품질은 특별부서로 별도 관리한다.
- 기획관리관이 있다.
- 지방(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원주)에 6개 지청이 있고 국립환경연구소(NIER)가 있다.

(3) 한국의 환경정책 틀

가.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1987년 한국 정부는 2001년까지 환경보호 장기계획안을 확립했다. 한강과 낙동강 유역, 서남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에 실시한 사전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계획안에는 미래 오염원(토지 개발, 인구, 산업, 경제 등)에 대한 예측,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환경의 미래 품질을 예측하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예산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과하지 않아야 할 기준치가 점점 강화되고 일정표에 등록된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공공 투자는 17조 850억 원(1프랑을 140원으로 환산하면, 1,220억 프랑)이다. 총 5년에 걸쳐 3단계 중기 계획으로 나누는데 1991년부터 1995년에 들어간 공공투자는 약 5조 1,180억원(365억 프랑으로 환산)이며, 여기에 개인투자금 약 3조 2,610억원이 합쳐져서 총 8조 3,790억원(598억 프랑으로 환산)이 된다. 국민총소득 대비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5년간 투자한 금액은 114쪽 표를 참고하면 된다. 115쪽 표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보호를 위해 부문별 배정된 국가 예산 항목이다. 116쪽 표는 1991년부터 1995년에 환경보호를 위해 부문별로 실제 집행된 투자금이다.

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1977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계획 중이거나 계획 단계를 거친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로, 최근에 도입된 환경정책법에 의하면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관점을 통합하여 환경영향진술서(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초안과 최종 버전을 작성하여 환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법안 도입 전 절차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오염자 부담 과세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는 폐기물 배출 수준, 배출 기간,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금은 오염 퇴치 비용으로 쓰이는데, 오염 방지 투자를 위한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라. 오염 방지 기술 관리 시스템

한국 정부는 환경오염기술감독팀을 창설했는데 이 부서는 국가의 환경정책의 틀 내에서 산업체가 적절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마. 환경법

현재 환경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조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모든 국민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국가 환경정책기본법
- 부문별 법률 (환경 갈등, 대기 품질, 수질, 소음과 진동, 위험한 화학물질, 고품폐기물, 해양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4) 대기오염 퇴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맞물려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자 도시의 대기오염이 증가한다. 최근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가스 배출로 인해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나라이다. 119쪽 표를 보면 1980년 이후 서울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수치는 국제 기준에 비해 낮은 한국 기준을 감안할 때 높다. 겨울에는 난방비 수요 때문에 허용 제한 수치를 자주 넘어선다.

가. 이산화황(SO₂) 배출 관리

이산화황 오염은 연료유와 석탄의 연소로 인해 생겨난다. 대부분의 한국 정유소는 1993년까지 저유황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탈황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이 강화되어 벙커C유는 황 농도를 1.6%에서 1.0%로 낮춰야 하고 경유는 0.4%에서 0.2%로 낮춰야 한다. 저유황 연료 생산량은 현재 3만 4천 배럴에서 1992년에는 27만 4천 배럴, 1995년에는 40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는 LNG(액화가스)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LNG는 석탄보다 2,700배, 중유보다 400배 오염도가 낮다. 1988년 9월부터 한국의 14개 도시가 LNG를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120쪽 하단 표에 제시된 기준을 넘는 설비시설의 경우 난방연료로 반드시 LNG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LNG 배송을 1989년에는 540만 톤, 1992년 700만, 1995에는 1,110만 톤으로 늘리고자 한다. 2000년에 난방 연료로서 LNG 사용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 정부는 석탄 연소 시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부유먼지입자 관리

부유먼지입자 권고기준은 도심 기준 총 부유먼지입자(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수치로 150 μ g/m³이다. 대도시의 경우 특히 지하철이 있거나 지하도가 있는 곳은 수치가 685 μ g/m³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도시별로 해마다 원하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121쪽 표 참조할 것.

다. 자동차 오염 퇴치

매일 2,000대씩 증가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운행차량 총 숫자는 4년 후면 2배가 되어서 1995년에는 7백만 대, 2000년에는 천만 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의 규모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전망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1987년에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수치가 강화되었고(cf. 첨부자료 A), 1987년 7월부터 신형 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표준으로 장착해야 하고 무연휘발유를 사용해야만 했다. 1988년에는 전국의 모든 자동차에 배기가스 배출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에서 4번째로 무연휘발유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강제하는 나라가 되었다. 1990년 말에는 전국 차량의 70%를 확보했고 1995년까지는 96%를 목표로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연휘발유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한다. 특히 한국에는 디젤 차량이 많은데 1996년부터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 수치를 부과될 것이므로 차량 생산업체들은 이에 부합하는 생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오염 자동차기술에 특화된 연구소가 1991년에 설립될 것이며 5년간 총 6천만 프랑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 소음관리

1989년 정부 당국에 접수된 불만 사항의 절반은 소음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 측정된 소음은 주간에는 평균 61db, 야간에는 52db로, 기준수치(주간 50db, 야간 40db)를 훌쩍 넘어선다. 정부는 건설 작업장이나 공장시설(가장 소음이 심한 곳은 정기검사 의무화), 자동차(소형차 기준 105db, 중형차 110db), 비행기에 적용된 기준수치를 강화하고, 주요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검토한다. (124쪽 표, 대기오염 퇴치: 투자 세부항목)

(5) 수질오염 퇴치

한국은 풍부한 담수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었다. 해마다 도시 폐수가 7%씩 늘고 공장 폐수가 20%씩 늘어나고 있다. 70~80년대에 지은 하수처리장 덕분에 국가의 주요 수자원 공급원들은 1~6ppm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을 달성했다(cf. 488쪽 표). 하지만 현재 어느 곳도 I등급, 즉 BOD값 1ppm 이하의 음용 가능 등급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가. 수자원 시설의 수질 보존

가장 규모가 큰 수자원 시설은 팔당댐과 대청댐인데 서울 수도권과 중부 지역의 1,800만 명의 식수원이다. 이 두 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처 장관은 1990년 7월에 이들 댐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치했다. 이 지역에 폐수나 폐기물 배출은 특별 감시 대상이며 정화시설이 상류에 설치될 예정이다. 5개년 사업계획(1991~1995)에 따르면, 전국 수자원 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조 9,930억 원(214억 프랑)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69개의 하천 정화사업이나 물 비축시설을 짓기 위한 4개 대규모 프로젝트에 4,390억 원이 투입될 것이다.

나. 가정용 축산용 폐수

한국의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은 30%가 공장 폐수이고 70%가 가정용 축산용 폐수이다. 현재 정화시설은 도시 폐수의 28%만 처리한다. 한국 정부 당국은 1992년에 38%, 1996년에 65%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시 폐수 처리용 48개 시설이 5년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cf. 126쪽 표). 시골 지역 대부분의 하천 오염은 축산용 폐수 때문이다. 축산용 폐수는 폐수 전체의 약 1%지만 하천 오염원의 17%를 차지한다. 대규모 양계장이나 목축시설은 법으로 강제하지만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 집단 정화시설을 건조할 예정이며, 1992년에 2,300개가 될 것이다.

다. 산업폐수

산업폐수 방류량은 하루에 650만 m³이며 11,200곳에서 나온다. 환경처 지청 및 각 지자체에서 폐수의 품질 및 시설을 관리하지만 오염원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진다. 1984년부터 정부는 6개 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3억 2,500만 프랑의 비용지원도 했지만 처리시설 운영은 기업부담이다. 시골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공공장에 51개 처리시설 건립비용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총 6억 1,100만 프랑이 투자되어 향후 몇 년 사이에 처리시설 180개가 지어질 예정이다.

라. 해수 오염

한국은 3면이 바다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안 쪽에 개발이 안 되어서 상대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

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는 해류가 약하고 수심이 깊지 않으며 산업시설이 많아서 오염에 취약하다. 환경처는 바다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값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준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와 산업폐수를 규제하고 선박 오염을 규제하고, 수시로 해수 품질을 관리하고, 사고를 대비하여 화학제품과 보호장비를 갖추게 하고 원격으로 해양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128쪽 표. 수질오염 퇴치: 1990년에 실시한 주요 시설 건설 계획>

<129쪽 표. 수질오염 퇴치: 투자 세부항목>

(6) 고품폐기물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국에 고품폐기물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매일 7만 8천 톤의 가정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세대 당 하루에 2.2 kg가 되어 EU(1,3kg)나 일본(1.0kg)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공장 폐기물의 경우도 매일 5만 8천 톤이고 해마다 8%씩 증가하고 있다. 가정용 산업용 폐기물처리 항목 및 항목별 분포 비율은 130쪽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쓰레기 매립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 방법이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유일한 쓰레기 처리방식이었다. 현재 한국에는 601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1~2년 내에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환경 보호를 신경 쓰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당국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보다는 초거대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긍정적이며, 전국을 34개 구역으로 나누어 1995년까지 초거대 쓰레기 매립장이 지어질 예정이다. 김포에 제일 큰 매립장을 지어 1996년부터 30년간 서울과 인천, 서울 외곽도시 18곳에 사용될 예정인데, 1995년까지 8억 2,200만 프랑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33개의 대형 매립장을 고쳐서 10년간 쓸 예정인데 1조 2억 8천3백만 프랑이 필요하다. 환경처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줄일 예정이다. (cf. 131쪽 표)

나. 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매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소각 기술은 현재 대량 쓰레기들 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된다.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과 의정부에 있으며 각각 하루에 150톤, 50톤을 수용할 수 있다. 향후 5년 내에 53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총 1조 4,100억(101억 프랑)이 투입될 예정이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투입될 자금은 131쪽 표와 같다. 산업 폐기물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오염 기업에게 자신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라고 독려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 내에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동일 업종의 기업은 공동 비용을 출자해서 공동 소각장을 만들기도 한다. 132쪽 상단 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도별 가정용 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소각율 수치이다.

다. 재활용

환경처 장관의 의지가 대규모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재활용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필요한 자원을 복구하는 것으로 집단 선별작업을 거치게 된다. 1991년 초부터 가정용 쓰레기들이 기준에 따라 재분류되어 수집되었다.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연소 가능한 것, 재활용 가능한 것과 기타로 분류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재활용과 기타로 분류되었다. 비닐과 공병, 기름과 페타이어를 재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1990년에 폐기물 15만 8천 톤 중 10%가 다시

정제되어 재활용되었다. 환경처는 1992년까지 50%로 늘리려고 한다. (132쪽 중간 표는 가정용 쓰레기와 산업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연도별로 수치화한 것이다)

라. 위험물질

중금속을 함유한 위험물질 처리는 환경처 소관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다. 1989년 환경처는 중부 지역을 위해 화성과 남동부 지역을 위해 울주에 하루에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들은 환경관리공단(EMC)에서 운영한다. 서남부 지역을 위해 군산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하루에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99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133쪽 표.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134쪽 표. 고품폐기물 처리 세부항목〉

(7) 토양 보존

토양 속 중금속 농도가 광산이나 공장지대에서 확인되었다. 1987년부터 토양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1,300개 지점에서 중금속 농도 측정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135쪽 표는 공장지대와 광산지역에서 세 가지 유해한 중금속의 측정값(팔호 안은 평균치)을 조사한 것이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도 토양을 오염시킨다. 한국에서는 평균 1헥타르당 450kg의 비료가 사용된다. (EU 국가에서는 1헥타르당 94kg, 일본에서는 1헥타르당 430kg) 51개 품목에 대해 허용수치를 작성했다. 한국정부는 385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통제한다. 이들 중에서 42개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정되어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한다. 1990년 8월 위험화학물질 통제법안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제조나 수입 전에 환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쪽 하단 표는 토양 보존을 위해 1990년까지 투입된 자금과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투입된 자금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8) 결론

환경보호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목표 규모도 원대하다. 점점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자 한국 정부는 더욱 업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7년에 시작된 환경보전 국가 장기계획사업은 야심찬 목표 설정과 막대한 투자가 수반된다. 향후 몇 년간 국가의 오염 퇴치사업에서 중요한 성과가 완성되며 첫 번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결과물들은 한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노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 첨부자료 A : 표 순서대로 나열하면, 〈주변 공기 품질 기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신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중고차)〉

* 첨부자료 B : 환경처 산하기관 리스트 및 기관 소개

7.30. Fiche d'entretien. M. Hubert Curien,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M. Kim Sung-Ji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8 avril 16h-17h, au bureau de Ministre (퀴리앙 장관과 김성진 장관회담 회의록. 4월 8일 16시-17시, 장관실)

생산일자: 19850408

페이지: 141~145

1985년 4월 8일에 있었던 한국 과기처 김성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 장관과의 주요 회담 내용을 기록한 글임.

1)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

양국이 체결한 각서와 달리 전임 이정오 장관이 1984년에 프랑스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올해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 희망 의사 전달함.

- 일정: 확정하려고 노력 중. 가능하면 11월에 예견된 한불공동위원회 회의보다 최소 두 달 전에 하길 바람.

- 방식: 한국 측은 장관 회동 며칠 전에 실무회담을 함으로써 장관회담에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함.

2)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지적

프랑스 측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와 산업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에너지 협력

원자력 에너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양국의 유사한 상황(유사한 인구 수, 에너지자원 부재, 에너지 의존성 우려, 강력한 원자력 정책, 국가의 중요한 역할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임.

(1) 원자력 협력

연구를 거쳐 산업체 인력양성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기술 및 경험 노하우 전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협력이 원자력 연료주기 전체에 확대되어 향후 11호기와 12호기 건설까지 이어지길 바람. 작년에 취소된 원자력에너지 한불조정위원회 회의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길 강력히 원함. 한국측은 김성진 장관의 프랑스 방문과 한불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계시킬 우려가 있음. 이 회의가 시급한 프랑스 원자력청(CEA) 입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2) 국가에너지 계획-에너지 경제

최근에 이루어진 협력임에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에너지관리청(AFME)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 간 협약을 주목할 것. 에너지 경제에 관한 한불 컨퍼런스를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길 바람.

4) 컴퓨터와 정보처리자동화

현재 이 분야의 협력은 없으나 전도유망한 요소들이 있음.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INRI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IET)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며 불(BULL)사도 관심이 있음. 자동번역 분야(그르노블대학교)의 접촉이 있음. 올해 CAD/CAM 한국 전문가들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임.

5) 중소기업 프로젝트

과학기술처 직속은 아니지만 한불기술협력의 틀 안에서 장관이 원거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불 공동위원회에서 언급함.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은 첫해가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어 산업재판·무역부 크레송 장관과 금진호 장관의 회담 때에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임.

6) 기초 연구

현재로는 프랑스 측의 무관심으로 공동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수년 전부터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금 사업과 같은 인력양성 사업 존재함.

7) 양국 과학단지들 간의 관계

올해 대덕연구단지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소피아-앙티폴리스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소피아-앙티폴리스 방문을 김성진 장관 프랑스 방문 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양국의 과학단지 간 관계가 긴밀해지길 바람.

8)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프랑스 측은 한국이 이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대해 문의할 것. 프랑스의 프로젝트는 독립적이며 매우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중견 국가에게 적합한 것임을 피력할 것. 이러한 연유에서 프랑스의 프로젝트는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프랑스는 한국에게 경험

노하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릴 것.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달레스트(d'Allest) 소장이 5월에 방한 예정임을 알릴 것.

7.31. Entretien du ministre avec M. Kim Jin-Hyun, Ministr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Corée Paris-29 mars 1991/Note de synthèse et d'entretien (1991년 3월 29일 파리에서 개최한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연구기술부 장관의 회담 관련 종합보고서 및 회담록)

생산일자: 19910327
페이지: 146~153

본 철의 제3번(7.3) 건과 동일 내용

7.32. Note de compte-rendu. Entretien de M. Curien avec M. Kim Jin-Hyun, Ministre coréen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Vendredi 29 mars 1991. (1991년 3월 29일 파리에서 개최한 한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과 프랑스 퀴리앙 장관의 회담록)

생산일자: 19910403
페이지: 154~155

1991년 3월 29일 파리 대면 회담에서 프랑스의 퀴리앙 장관과 한국의 김진현 장관은 간단하게 다음 사항을 다루었음.

1) 원자력에너지와 원전 연구

프랑스 방문의 주된 방문 목적이 원자력 폐기물 저장소 관리의 프랑스적 방법과 직결되었던 차에 김진현 장관은 원전에 필요한 모든 안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원전 사업이 수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퀴리앙 장관에게 핵융합 연구에 관한 프랑스의 견해뿐만 아니라 핵분열이나 핵융합 관련 소련의 기술력에 대한 프랑스의 분석에 관해 질문했다.

2) 고속철도 사업

고속철도사업 관련 현재 한국의 서류 처리상황을 묻는 퀴리앙 장관에게 김진현 장관은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강조했고 최근 심의 결과 한국 금융당국은 사업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3) 해양분야의 기술협력

퀴리앙 장관은 김진현 장관에게 프랑스 해양개발원(IFREMER)이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 인계하기로 한 심해탐사로봇 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4)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와 한국과학재단(KOSEF) 간 협력

퀴리앙 장관은 양 기관 간에 새로운 협력을 (서신교환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세부항목이 담겨 있다. 양국 장관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문의 협약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김 장관은 퀴리앙 장관의 서울 방문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장관회담이 끝나고 김진현 장관은 테제베 사업 관련하여 교통부 장관이 연구기술부에서 주최한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7.33. Bordereau de transmission Note à l'attention de M.Zeller A/S Visite de M. Kim Jin Hyun (우편명세서 필립 젤러 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일정 관련 보고서)

생산일자: 19910225

페이지: 156~157

1) 우편명세서

물품 명칭(Désignations des pièces):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 방문 일정표

물품 수량: 1건

확인: 장미셸 사세리오 (Jean Michel Chassériaux)

2) 장미셸 사세리오가 필립 젤러 씨 앞으로 보내는 김진현 장관 방문 관련 보고서

신임 대한민국 과기처 장관님께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방문 일정표

- 3월 27일 수요일 6시 30분 스톡홀름 항공기 SK571편으로 파리 도착

- 3월 28일 목요일 9시 헬리콥터로 헤이그로 출발, 11시 도착/11사-14h 방문/16시 파리로 출발하여 18시 도착

- 3월 29일 금요일 9시 30분 프랑스 원자력청(CEA) 청장과 회담, 11시 프랑스 연구기술부 퀴리앙(Curien) 장관과 회담

- 3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 LH 1745편으로 프랑크푸르트로 출발

- 비서를 통해 퀴리앙 장관과의 회동시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음. 퀴리앙 장관이 방한했을 때 전임 정근모 장관에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퀴리앙 장관도 신임 김진현 장관을 오찬이나 저녁 만찬에 초대할 것으로 보임.

7.34. Délégation accompagnant Monsieur Kim Jin-Hyun, Ministre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수행 대표단)

생산일자: 19910225

페이지: 158~159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수행 대표단 명단

이재춘 과기처 원자력실 총괄 책임자

이만기 과기처 핵안전관리단 단장

윤대수 과기처 연구양자협력담당 과장

김진웅 원자력연구소 구조부 총괄 책임자

장호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7.35. KIM Jin Hyun- Curriculum vitae (김진현- 이력서)

생산일자: 19910225

페이지: 160~161

대한민국 과기처 김진현 장관 이력서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1



제 2 장

부록

1. 주요 수 · 발신자 약력 정보
2. 기관명 및 협약명 약어

부록1. 주요 수·발신자 약력 정보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다니엘 사코트 (Daniel Sacotte)	국립우주연구소 과학프로그램 부서장 (Chef de la Division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au CNES, 1981-1984) 연구기술부 기술고문 (Conseiller technique auprès du minist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1984-1986) 국립우주연구소 부소장 (Directeur-général adjoint du CNES, 1996-1997) 유럽우주국 행정처장 (Directeur de l'Administration à l'ESA, 1997-2004)	연구기술부 기술고문	1984-1986
롤랑 뒤마 (Roland Dumas)	유럽부 장관 (1983-1984) 대외관계부 장관 (1984-1986) 내무부 장관 (1988-1993) 외무부 장관 (1988-1993)	대외관계부 장관	1984-1986
마리-노엘 파비에 (Marie-Noëlle Favier)	연구기술부 과학문화부서 부서장 (Chef du département Culture scientifique au ministère de la recherche, 1984-1998) 개발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소장 (Directrice de la communication à l'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1998-2014)	연구기술부 과학문화 부서 부서장	1984-1998
미셸 라브리 (Michel Lavérie)	중앙원자력시설 안전청 부청장 (Chef adjoint du Service Central de Sécuri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1979-1986) 중앙원자력시설 안전청 청장 (le chef du Service Central de Sécuri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1986-1991)	중앙원자력시설 안전청 부청장 (Chef adjoint du Service Central de Sécuri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1979-1986
미셸 콩발 (Michel Combal)	주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프랑스 대사 (1978-1981) 대외관계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1982-1986) 주중국 프랑스 대사 (1986-1989) 주아일랜드 프랑스 대사 (1990-1992)	대외관계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 국장	1982-1986
앙드레 바에양스 (André Baeyens)	주한 프랑스 대사 (1982-1985) UN 빈 사무국 프랑스 대표 (Représentant permanent de la France à l'Office des Nations unies à Vienne, 1985-1990) 주뉴욕 프랑스 총영사 (Consulat général de France à New York, 1993-1995)	주한 프랑스 대사	1982-1985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에디트 크레송 (Édith Cresson)	농업부장관 (Ministredel'Agriculture, 1981-1983) 무역관광부장관 (MinistreduCommerceextérieurduTourisme, 1983-1984) 산업재편무역부장관 (MinistreduRedéploiementindustrieldetduCommerceexté- rieur, 1984-1986) 프랑스총리 (Premièreministrefrançaise, 1991-1992)	산업재편무역부 장관	1984-1986
에르베 무랑 (Hervé Mouren)	BULL社 해외 상업망 부전문이사 (directeur général adjoint du réseau commercial overseas, 1986-1987) BULL社 벨기에-룩셈부르크 전문이사 (directeur général de Bull Belgique et Luxembourg, 1987-1993)	BULL社 국제부서 전략발전팀장 (directeur stratégie et dé- veloppement du Réseau International)	1983-1986
위베르 퀴리앙 (Hubert Curien)	연구기술부장관 (MinistredelaRechercheetdelaTechnologie, 1984-1986) 기술부특임장관 (Ministredélégué chargé de la Recherche, 1988) 연구기술부장관 (MinistredelaRechercheetdelaTechnologie, 1988-1992) 연구우주부장관 (MinistredelaRechercheetdel'Espace, 1992-1993)	연구기술부 장관	1984-1986 1988-1992
위베르 포르크노 드 라 포르텔 (Hubert Forquenot dela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 (1987-1991) 주사우디프랑스대사 (1994-1998) 주노르웨이프랑스대사 (2003-2005)	주한 프랑스대사	1987-1991
자크 바레 (Jacques Varet)	주 중국 프랑스 대사관 과학기술고문 (Conseiller pour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à l'ambassade de France en Chine, 1986-1989) 에너지광물자원과 팀장 (Chef du département énergie, ressources minérales et technologies de l'environnement au Ministère de la Recherche (Ministère H. Curien), 1989-1992)	에너지광물 자원과 팀장	1989-1992
장 베르나르 우브리외 (Jean Bernard Ouvrieu)	원자력청 국제관계국 국장 (Directeur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au Commissariat à l'é- nergie atomique, 1980-1985) 주한프랑스대사 (1985-1987) 주일본프랑스대사 (1993-1998)	원자력청 국제관계국 국장	1980-1985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장 시로타 (Jean Syrota)	에너지원자재총국 국장 (Directeur général de l'énergie et des matières premières, 1982-1988) 광산평의회부위원장 (Vice-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des mines, 1993-1997)	에너지원자재총국 국장	1982-1988
장-파스칼 르 프랑 (Jean-Pascal Le Franc)	연구기술부 기술고문 (Conseiller technique au Cabinet du Ministre Hubert Curien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1989-1993) 국립우주연구소국제관계부서부부서장 (Directeur adjoin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1999-2004)		
제라르 르농 (Gérard Renon)	원자력청 부청장 (Administrateur général adjoint du CEA, 1982) 원자력청청장 (Administrateur général du CEA, 1983-1986) 지질광물자원연구원원장 (Président du BRGM, 1986-1988) SNECMA 회장 (Président de la SNECMA, 1992-1994) * SNECMA (Société Nationale d'Étude et de Construction de Moteurs d'Aviation)는 프랑스항공기 관련 기업으로 오늘날 프랑항공엔진 (Safran Aircraft Engines)	원자력청 청장	1983-1986
제롬 파스키에 (Jérôme Pasquier)	주 크로아티아 프랑스 대사 (2009-2012) 주한 프랑스 대사 (2012-2015)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 사무관	1988-1992
크리스티앙 드 토르카 (Christian de Torquat)	중앙원자력시설안전청 청장 (le chef du Service Central de Sécuri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1977-1986)	중앙원자력시설 안전청 청장	1977-1986
크리스티앙 마세 (Christian Masse)	주일프랑스대사 (2011-2014) 외무부사무처처장 (Secrétaire général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14-2017)	대외관계부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원자력우주과책임자 (directeur des Questions Atomiques et Spatiales)	1984-1987

성명	주요 약력	해당 정부에서의 직위	재직기간
클로드 마르탱 (ClaudeMartin)	주중프랑스대사(1990-1993) 주독일프랑스대사(1999-2007)		
클로드 프레자크 (ClaudeFréjaques)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1981-1989)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소 소장	1981-1989
티에리 살모나 (ThierrySalmona)	에너지원자재총국 기술고문 (ConseillertechniquedelaDirectionGénéraledel'Énergieetdes MatièresPremières, 1980-1988)	에너지원자재총국 기술고문	1980-1988
티에리 오드릭 (ThierryAudric)	과학기술협력문화고문 (ConseillerCultureletdeCoopérationScientifiqueet Technique) *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최로 열린 '프랑스성화전' 안내책자에는 티에리 오드릭의 직책이 문정 참서관으로 소개되어 있음		
파스칼 뫼니에 (PascalMeunier)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극동아시아과 차장 (1989-1992) 주아제르바이잔프랑스대사(2012-2015) 주프랑스조지아대사(2016-2019)	외무부 아시아 오세아니아국 극동아시아과 차장 (Sous-directeurd' Extrême- Orientàladirectiond' Asie-Océanie)	1989-1992
프레데릭 달레스트 (FrédéricAlle)	국립우주연구소 소장 (Directeurgénéraldu Centrenationald'étudesspatial es, 1982-1989) 아리안스페이스최고경영자 (Président-directeurgénérald'Arianespace, 1980-1990)	국립우주연구소장	1982-1989
필립 젤러 (PhilippeZeller)	주 헝가리 프랑스 대사(2004-2007) 주캐나다프랑스대사(2011-2015)		

부록2. 기관 및 협약명 약어

기관명 · 협약 명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ACTIM	Agence pour la coopération technique, industrielle et économique	기술산업경제협력공사	
ADP	Aéroport de Paris	파리공항관리공단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캐나다원자력공사	
AELE	L'Association européenne de libre- échange	유럽자유무역연합	
AFAA	Association Française d'Action Artistique	프랑스예술진흥협회	
AFME	Agence française pour la maîtrise de l' énergie	프랑스에너지관리청	
AGF	Assurance Générale de France	프랑스 국영보험회사	
AIEA	Agence internationale de l'énergie atomique	국제원자력기구	영문명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MF	Accord Multifibres	다자간섬유협정	
ANRED	Agence nationale pour la récupération et l'élimination des déchets	국립폐기물처리자원화공사	
ANSEA	Association des Nations du Sud-Est Asiatique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영문명 ASEAN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RODI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et le développement industriel	산업진흥발전협회	
BAL	Bureau d'Action Linguistique	언어활동국	
BCEOM	Bureau Central d'Etudes pour les Equipements d'Outre-mer	해외시설물중앙연구소	
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국제박람회기구	

기관명 · 협약 명 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BMFT	Bundes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독일연방연구기술부	독일연방연구기술부 (BMFT)는 1994년 이후에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로 명칭이 바뀜
BRGM	Bureau de Recherches Géologiques et Minières	지질광물자원연구원	
BTP	le Bâtiment et les Travaux Publics	건설토목분야	
CDF	Charbonnages de France	프랑스석탄공사	
CEA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원자력청	
CECA	Communauté Européenne du Charbon et de l'Acier	유럽석탄철강공동체	
CEDUST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scientifique et technique	대학 · 과학 · 기술자료센터	
CEE	Commu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유럽경제공동체	영문명 EEC
CEMAGREF	Centre national du machinisme agricole du génie rural des eaux et des forêts	프랑스 국립농기계공학물숯연구소	
CESAP	La Commission économique et sociale pour l'Asie et le Pacifique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CETEL	Cycle d'Enseignement en Télédétection	원격탐사교육과정	
CFCE	Centre français du commerce extérieur	프랑스대외무역센터	
CGDK	The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민주캄푸차연합정부	캄보디아의 임시정부 이름
CGM	Compagnie Générale Maritime	해상운송회사	
CMCR	Compagnie Maritime des Chargeurs Réunis	해상합동운송사	

기관명 · 협약 명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CNEC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par Correspondance	국립방송통신교육센터	
CNES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국립우주연구소	
CNET	Centre National d'Études des Télécommunications	국립정보통신연구소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국립과학연구소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DEV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협력개발	
Comité BOP	Comité de la balance des paiements	국제수지위원회	
DAI	Direction des Affaires Internationale	국제국	
DCST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과학기술협력국	
DCSTD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et du développement	과학기술협력개발국	
DCSTE	Direction du De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Technique et Educative	과학기술교육협력발전국	
DGE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프랑스기업청	
DGEMP	Direction Générale de l'Énergie et des Matières Premières	에너지원자재총국	
DGRCS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문화과학기술관계총국	
DIELI	Direction des Industries électroniques et de l'informatique	전자산업전산국	
DOE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	
DREE	Direction des Relations Économiques Extérieures	대외경제관계국	
EDF	Électricité de France	프랑스전력공사	
ENSMN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Nancy	낭시 국립광업학교	

기관명 · 협약 명 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ESIT	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통역번역대학원	
ESPRIT	European Society for Periodical Research	에스프리	범유럽 정보통신연구개발
FCIA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외자도입법(한국)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극동구주운임동맹	
FIAS	The French Institutes for Advanced Study Fellowship Programme	프랑스고등연구펠로십 연구소	
FRDA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Agency	어업연구개발원	
GATT	l'Accord général sur les tarifs douaniers et le commerc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DF	Gaz de France	프랑스국영가스회사	
GIFAS	Groupement des Industries françaises aéronautiques et spatiales	프랑스항공우주산업협회	
IFP	Institut Français du Pétrole	프랑스석유연구원	
IFREMER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원	
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	
INRIA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sciences et technologies du numérique	국립정보자동화제어연구소	
IPSN	Institut de 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원자력방호안전연구소	원자력청 산하
IREP	Institut de recherche économique et de planification	경제연구기획원	
LCPC	Laboratoire Central des Ponts et Chaussées	교량및도로중앙연구소	
LRMF	Laboratoire de recherche des musées de France	프랑스박물관연구소	
MA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외무부	
MELTM	Ministère de l'Équipement, du Logement, des Transports et de la Mer	건설교통해양부	

기관명 · 협약 명 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MEN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교육부	
MOI	Memorandum of Instruction	지침각서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처	
MRT	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연구기술부	
NCM	Negociations Commerciales Multilaterales	다자간무역협상	
NEI	Nouvelles Économies Industrialisées	신흥공업국	
NPI	Nuclear Power International	NPI	프랑스의 프라마토사와 독일의 지멘스(Siemens) 계열 쿠우(KWU)사가 공동출자한 회사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핵증기공급계통	
OACI	Organisation de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국제민간항공기구	영문명 ICAO
OCDE	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경제개발협력기구	영문명 OECD
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해외경제협력기금	일본정부운용기금
ONERA	Office National d'Etudes et de Recherches Aérospatiales	국가항공우주연구소	
ONU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유엔(국제연합)	영문명 UN
ORSTOM	Offic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ique d'Outre-Mer	해외과학기술연구소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ME-PMI	Petites ou moyennes entreprises- Petites et moyennes industries	중소기업-중소산업	
PVD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개발도상국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경수로형 원자로	
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파리교통공단	

기관명 · 협약 명 등 약어	정식 영문명칭	번역	비고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개발청	
RITA	Réseau Intégré de Transmissions Automatiques	자동통신통합네트워크	
RPDC	République populaire et démocratique de Corée	북한	
SCOA	Société Commerciale de l'Ouest Africain	서부아프리카무역회사	
SERURE	Service d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de l'utilisation rationnelle	신재생에너지서비스 및 합리적이용과	
SGCI	Le Secrétariat général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국무조정실	
SIAR	Service de Surveillance Industrielle de l'Armement	방위산업감독청	
SMIPC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중소기업진흥공단	
SNCF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국영철도	
SPG	Système de Préférences Généralisées	일반특혜관세제도	SGP (Système Généralisé e Préférences)라고도 표기됨
SPGP	Systèmes de Production et Génie des Procédés	생산공정엔지니어링학	
TNP	Traité sur la Non-Prolifération des armes nucléaires	핵확산금지조약	영문명 NPT
UNC	Commandement des Nations Unies	유엔군사령부	영문명 United Nations Command
URSS	L'Union des républiques socialistes soviétiques	소련	
VAL	Véhicule Automatique Léger	자동경전철	
VSNA	Volontaire au Service National Actif	공익근무자원자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프랑스편 ①

발 행 인 이동혁 / 대통령기록관장

편 집 위 원 김경희 / 기록서비스과
김정숙 / 기록서비스과
김정심 / 기록서비스과
안순경 / 기록서비스과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30107) 세종특별시 다솜로 250
TEL 044-211-2242 / FAX 044-211-2279

홈 페이지 <http://www.pa.go.kr>